



#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4호 2011. 12



# 차례

## 특집 근세 동아시아의 전쟁과 외교

육정임 | 고려·거란 '30년 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11

조복현 | 12세기 초 국제 정세와 麗金 간의 전쟁과 외교 53

박지훈 | 송요 간의 전쟁과 和議 - 澶淵의 전역과 맹약을 중심으로 95

유원준 | 북송 초 송·서하 전쟁 발발과 확산 131

이근명 | 11세기 후반 송·베트남 사이의 전쟁과 외교 교섭 169

## 논문

박기범 | 부여·고구려 건국신화의 계통과 형성과정

- 『三國遺事』 북부여조 인용 '古記'에 대한 분석을 실마리로 하여 205

양은경 | 高句麗 清巖里土城 주변 출토 金銅冠의 系譜와 用途 245

남의현 | 16~17세기 여진의 성장과 요동 변경지대 성격 연구

- 변경지대의 변화를 통해 본 만리장성 동단기점설 비판 295

이창위 | 해양관할권의 확대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 영해제도의 역사와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 331

## 동향과 전망

김명수 | 한국 강제병합 100년과 일본 사회의 동향 363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405

# Contents

## Special Issue War and Diplomacy in Early Modern East Asia

- Yuk Jungim | The Thirty Year War between Goryeo and the Khitans and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11
- Cho Bokhyeon | War and Diplomacy between Goryeo and Jin in the Early Twelfth Century 53
- Park Jihhun | War and the Peace Treaty between Song China and Liao: An Inference from the Battle and Pact of Chanyuan 95
- Yoo Wonjun | The Outbreak and Escalation of the Song-Western Xia War in the Early Northern Song Period 131
- Lee Geunmyung | War and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Song China and Vietnam in the Late Tenth Century 169

## Art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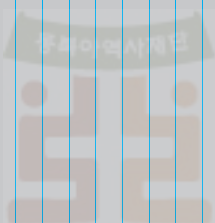
- Park Gibum | The Lineage and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Myths of Buyeo and Koguryo: An Analysis of “Kogi” Cited in “Northern Buyeo Articles” in *Samguk yusa* 205
- Yang Eungyeng | The Genealogy and Owner of Gilt Bronze Crowns Excavated Near the Cheongam-ri Earthen Fortresses of Koguryo 245
- Nam Euihyeon | The Growth of Jurchens and the Character of the Liaodong Border Area: A Criticism on the Eastern Point of the Great Wall through the Change of Border Areas 295
- Lee Changwee | Conflict over Maritime Creeping Jurisdiction between Maritime Powers and Coastal Stat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istory of the Territorial Sea and Its Modern Significance 331

## Trends and Prospects

- Kim Myungsoo | The Centennial of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and Trends in Japanese Society 363

특집

근세 동아시아의 전쟁과 외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서문

오늘날 중국은 정치적으로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대 강국(G2)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경제적인 발전도 눈부셔서 금명간 일본이나 독일 등을 제치고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지닐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국제적 위상이 달라져 가는 중국에서 내치, 특히 소수민족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공식적으로 55개에 달하는 소수민족을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명확히 위치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중국 정부에게는 최대의 현안 문제 가운데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1990년대 이래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바 있는 동북공정 역시 그러한 소수민족 정책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중국은 역사상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많은 정권 내지 국가가 중국 역사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한족 왕조와 북방민족 내지 소수민족 왕조 사이의 관계도 중국사 내부의 문제로 규정짓고 있다. 중국이 역사상 統一的 多民族國家였다든가 혹은 중화민족이 중국 역사의 주체였다는 주장도 동일한 논리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중국 당국의 시각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2000여 년 전부터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주변 소수민족은 항상 다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서 中原王朝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중국 역사에 공헌하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중국 내의 소수민족을 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 주변국가의 역사 이해 내지 문화적 정체성 인식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된 시각인 관계로 과거의 실제적 역사와 심각한 부조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금번의 특집 연구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근세의 전쟁과 외교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어떠한 형태와 구조를 띠고 있었는지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10세기에 접어들며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동북아에서 건립된 遼와 金の 무력이 주변지역을 압도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제질서를 배태하였기 때문이다. 隋唐帝國의 세계질서에서는 통상 華夷의 준별의식이 박약해졌다고 하나, 중국의 隋朝와 唐朝는 여전히 주변지역에 대해 중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한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唐末 五代를 거치면서 이러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게 된다. 거란족이 遼朝를 건립하고 중국에 대해 澶淵의 盟을 체결하여 대등한 외교의례를 강요하였던 것이다. 宋遼間 盟約의 내용을 살펴보면 遼가 宋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세폐를 수취하고 또 이를 중심으로 양국 간 외교의식이 규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사실상 송이 수세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심이동은 高麗라든가 西夏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11세기 이후 고려 및 서하가 조공을 바치며 臣屬했던 대상은 송조가 아닌 요조였다. 중국의 정통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조공질서가 중대한 재편의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12세기 초 金朝가 건립되면서 다시 한 번 굴절을 겪게 된다. 여진족의 금조는 華北을 점거하고 송조를 남중국만을 지배하는 지방정권으로 전락시킨 다음 송에 대해 臣從을 강요하였다. 이렇게 하여 중국의 정통왕조인 송조는 번속국의 위치로 전락하였다. 금조가 남송을 대신하여 고려와 서하로부터 조공을 수취하였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요조와 금조는 이전의 이민족 국가와는 달리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독자적인 정치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중국 문화로부터 독자성을 지키려 하였다. 이렇게 10세기 이후 근세에 접어들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이 대당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시작되는 동아시아 근세에는, 기존에 중국에서 夷狄視하던 주변민족들이 급부상하여 역사전개를 주도하게 됨으로써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다. 제국의 와해로 여러 정치세력이 분열되고, 이들 왕조들이 명멸을 거듭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전쟁과 외교적

노력은 이 시기를 움직이는 주요한 역사적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다자간 외교와 군사적 역학관계가 가장 긴요하게 작용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근세 동아시아 제 민족 간의 관계는 오대 시기의 중원왕조와 거란 관계를 시작으로, 송-요, 송-금, 송-서하, 고려-요, 고려-금, 송-베트남 관계를 중심으로 상호 연대와 교류, 대립과 충돌 등의 현상이 복잡다단하게 얽히면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동아시아사 연구는 특정 국가나 민족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폭넓고 균형 있는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의 특집 연구는 근세에 중국·한국 및 북방민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중국의 역사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현 중국의 역사해석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연구방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각 왕조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각 왕조사를 담당할 연구자 상호 간에 토의와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중국사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학계의 연구분야 분류는 왕조 위주로 되어 있으며, 이 점은 금번의 특집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근세의 중국·한국 및 북방민족 관계사 역사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는 각 시대별로 연구를 진행하되 관계사의 특성을 살려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주제는 ① 고려와 요 관계, ② 고려와 금 관계, ③ 송과 요 관계, ④ 송과 서하 관계, ⑤ 송과 베트남 관계 등 다섯 가지였다.

이상의 다섯 가지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를 중심으로 한 관계에는 고려와 송의 관계, 고려와 요의 관계, 고려와 금의 관계, 고려와 몽골의 관계 등이 있다. 둘째, 한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에는 오대의 한족과 북방민족의 관계, 송과 요의 관계, 송과 금의 관계, 송과 서하의 관계, 송과 베트남의 관계가 있다. 셋째, 거란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에는 요와 북방 한족의 관계, 요와 송의 관계, 요와 금의 관계, 요와 서하의 관계, 요와 고려의 관계가 있다. 넷째, 여진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에는 금과 요의 관계, 금과

송의 관계, 금과 고려의 관계, 금과 서하의 관계, 금과 몽골의 관계가 있다. 다섯째, 당항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에는 당말 오대 상황과 당항족의 관계, 서하와 송 관계, 서하와 요의 관계, 서하와 금의 관계, 서하와 몽골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여섯째로는 북방민족과의 관계와 대비되는 송과 베트남의 관계가 있다.

이처럼 각 왕조별 연구와 함께 동시대 관계사 연구성과를 한족과 북방민족, 한족과 남방민족, 북방민족과 한족, 북방민족과 북방민족, 고려와 북방민족이라는 다섯 가지 관점에서 서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국가와 국가의 관계 위주로 진행되어 온 기존의 연구성과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의 관계, 지역과 지역의 관계 연구결과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자간의 틀 속에서 전쟁과 외교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족정권과 북방민족 국가가 혼재된 개념의 동아시아 관계사에서 벗어나 각각의 역사 상황에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객관적 역사상을 그려내는 데에도 유용한 연구의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이 근 명

# 고려·거란 '30년 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육정임 | 고려대학교 사학과 강사

동북아역사재단

## I. 머리말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 즉 당 제국의 쇠망 이후부터 원 제국 출현 이전까지의 시대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을 만큼 격변의 시대였으며, 그 시작은 거란 제국의 출현이었다. 당 제국의 붕괴 이후에도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중원의 허약한 오대 왕조들과 조공관계를 맺으면서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거란 세력이 군사적 우위를 기반으로 오대 정치에 간여하고 심지어 중국을 통일한 한족 왕조인 송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한 외교적 위치에 오르면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총체적으로 새로워진 국제정세에 직면하여 그 대응책을 찾아야 했다. 거란이 강대한 세력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각국 간에 모색된 다양한 관계 맺기의 경험이 13세기까지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의 토대가 되었다.

907년과 918년에 각각 건국한 거란과 고려의 양국관계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사회 지각변동의 중심에 있었다. 1125년 거란의 멸망까지 약 200여 년간 이 두 나라는 교왕과 대립, 외교와 전쟁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관계를 통해 근세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과 국제관계 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간 양국관계의 큰 흐름은 그 발전 추세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이해 문제에 얽힌 교류나 충돌도 없이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국의 외교 동태를 관망하던 초기 70년 정도가 첫 단계이고, 이어서 993년 거란의 고려 침략을 시작으로 약 30년간 양국이 전쟁 상태에 있던 때가 두 번째 단계였다. 세 번째 단계는 거란의 무력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고려가 거란에 정치적으로 ‘稱臣納貢’하며 대체로 안정된 평화관계를 유지했던 마지막 100여 년이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충돌과 조정의 과정이었던 두 번째 단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동아시아라는 광역의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정세와 세력구도의 향방이 분명하게 갈라지던 결정적인 시기였다. 당 왕조 붕괴 이후부터 10세기 중기까지는 고려와 거란, 또 중원의 왕조도 각기 그들의 지역적 패권을 두고 경쟁해야 했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정, 거란의 만주 및 내륙 아시아에서의 세력 확대, 그리고 중원 오대 왕조들의 흥망과 송 왕조의 중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었다. 각각 지역적 경쟁을 이기고 통합을 성취한 이들은 좀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의 세력 확장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했다. 고려와 거란, 송과 거란의 전쟁이 거의 같은 시기에 발발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중국이든 북방 민족국가든 강력한 제국이 동아시아 국제사회를 일원적으로 통제할 시대와 달리, 10세기 말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그 주변국과의 관계설정에서 제3, 제4 국가들의 대외활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동시에 각 주체 간의 외교가 거시적인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질서를 구성하는, 복잡다단한 시기였다.

거란과 고려, 각 국가사의 시각을 초월하여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양국의 전쟁과 외교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주제이며 새로운 자료의 발견을 통해 기존 연구업적 단계를 돌파하는 작업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결코 완성된 것은 아니며 시대의 변화와 관점에 따라 새로운 설명, 해석과 평가는 지속적으

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도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 정세 안에서 거란과 고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10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발전사라는 관점에서 그 역사적 평가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시기 양국 전쟁의 명칭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거란이 고려에 처음 침입한 것은 993년이고 양국의 마지막 전쟁은 1019년에 있었다. 30년 가까운 전체 기간의 전쟁으로 일컫지 않고 세 차례로 구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시간의 순서로 차수를 붙여 부르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 학계의 오랜 관행이다. 예를 들면, 993년 거란의 첫 침공을 1차 전쟁, 1010년의 전쟁을 2차 전쟁, 그리고 1014년부터의 3차 전쟁으로 나누어 부른다.<sup>1)</sup> 전쟁의 近因이나 성과 내지 처리와 관련하여 본다면, 적어도 1차전의 경우 고려와 거란 양측이 講和를 맺음으로써 전쟁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전과 그 다음의 전쟁을 별개로 보았을 수 있다. 그러나 1010년에 발발한 2차 전쟁부터는 차수의 구분이 어렵다. 1010년 고려의 임기응변적인 강화 조건, 즉 현종의 親朝를 조건으로 거란군이 철수하지만 회군 길에 고려의 기습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현종의 친조 조건도 지켜지지 않아 양국은 제대로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때부터는 거의 해마다 전쟁이 벌어졌다. 1014년 전쟁은 사실상 2차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을 2차, 3차로 나눌 이유는 없으며, 또 1014년 이후 여러 차례의 전쟁을 한꺼번에 3차 전쟁으로 부르는 것도 어색하다.<sup>2)</sup>

- 1) 단순히 구분의 편의만을 위해서이거나 연대기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관행은 아닐 것이다.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장기간의 지속적인 전쟁이 아니고 여러 차례 단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함의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거란의 침입과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민족 항쟁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는 더 부각될 수 있다.
- 2) 학계에서 2차전과 3차전을 구획하는 데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1014년 전쟁을 3차전이라고 칭하는 관행을 따르면서도 3차1회전~3차4회전으로 구분하는가 하면(박한남, 1995b, 「북방민족과의 관계: 거란 및 금과의 통교」,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5), 어떤 경우는 1010년의 2차전과 1014년의 3차전까지를 2차 전쟁으로 묶고 1018년 전쟁을 3차로 한다거나(김위현, 2003, 「송대의 외래문물 - 여진·고려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 또 아예 차수로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金在滿, 1999, 『契丹·高麗關係史研究』, 國學資料院). 그 때문에 3차~6차 전

이에, 고려와 거란의 전쟁을 분획하지 않고 ‘30년 전쟁’이라는 통칭으로 나타낼 것을 제안한다. 양국이 관계한 200여 년의 기간 중 무력충돌은 특정한 30년의 기간, 즉 거란의 고려 출정 명령이 떨어진 992년부터 고려의 거란에 대한 칭신납공과 거란 연호 사용으로 최종 종전이 확실해진 1022년까지의 30년에 집중되어 있었다. 993년 이전에는 발해 문제로 인해 고려의 월망이 크고 외교의 단절사태까지 빚어졌으나 양국이 전쟁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고, 또 1022년 고려가 거란의 연호를 채택하여 거란에 대한 사대관계를 확정한 이후로는 작은 갈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전쟁은 없었다. 이 30년 기간 안에는 물론 협상을 통한 짧은 평화 또는 휴전의 시간도 있었으나, 그것이 종전도 아니며 더욱이 양국관계의 새로운 규율을 확정하는 종결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이 30년 전쟁 기간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시기와 구별될 수 있는 하나의 연속된 국면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으며, 그에 대해 요구되는 통칭으로서 ‘30년 전쟁’을 제안하는 바이다.

## II. 30년 전쟁 전야의 국제정세와 양국의 대응

### 1\_ 980년대 초 동아시아의 상황변화

98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각국의 외교관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오게 할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첫째, 979년 송 태종이 3년여에 걸친 몇 차례의 시도 끝에 北漢 정복에 성

---

쟁으로 나누어 칭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안주섭, 2003, 『고려거란전쟁』, 경인문화사), 이는 연표적인 구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의 성격을 고려한 역사적 구분의 의미는 별로 없어 보인다.

공했다. 이는 중국이 오대십국의 분열을 마감하고, 後倂 왕조 때 거란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거란에게 양도한 연운십육주 지역을 제외한 전 중국을 통치하는 강대한 통일왕조로 등장했음을 의미했다. 바야흐로 통일정권인 송이 연운십육주의 수복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사회 내 重心의 자리를 두고 거란과 직접적인 대결에 들어가게 되었다. 後周 건국에 반발한 後漢의 세력이 세운 北漢은 존속기간 내내 중원의 후주와 불화하면서 거란에게 의존하고, 한편 거란은 북한을 원조하여 중원을 견제해 왔다. 송 태조의 통일사업이 남쪽 십국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것과 달리 북한의 통합은 난조를 보여 976년의 북한 정벌전쟁도 실패하고 태조는 그해 사망했다. 979년 2월 송 태종이 다시 북한을 공격했는데, 이는 송과 거란의 對戰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었다. 출격 한 달 전, 거란은 송의 북한 공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송에 그것을 문책하는 사신을 보냈다. 송은 북한이 송에 逆命하는 데 대한 마땅한 問罪라며 도리어 거란의 북한 원조 중지를 요구했고 전쟁은 예정대로 추진되었다. 耶律沙와 冀王 敵烈이 이끈 거란군이 송과의 대전에서 패하고 5월에 劉繼元이 송에 항복함으로써 북한이 끝내 멸망했다.<sup>3)</sup>

둘째, 979년 후반기에 들면서 결국 거란과 송의 직접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북한을 멸망시킨 송은 그 여세를 몰아 거란을 공격해 거란 남경을 포위했다. 그러나 전세가 곧 역전되고 거란의 반격에 송 태종이 驢車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처지가 되었다.<sup>4)</sup> 이번에는 거란이 송 태종의 패주를 호기로 삼아 9월에 대대적인 남벌군을 파병했으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sup>5)</sup> 거란은 이듬해인 980년 말에 전열을 가다듬어 재차 남벌에 나섰는데, 이번에도 양 진영이 일진일퇴하는 전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거란 측의 자료에서는 동 10월과

3) 『遼史』 권9 景宗 하, 乾亨 원년 2월, 3월; 『宋史』 권4 태종 태평흥국 4년 3, 4, 5월. 유계원의 항복 시점은 『遼史』에서는 6월로 기재하고 있는데, 김재만은 『宋史』의 5월 기록이 맞다고 판단한다.

4) 『遼史』 권9 경종 하, 건형 원년 추7월, 9월; 『宋史』 태종기 태평흥국 4년 추7월

5) 『宋史』 태종 태평흥국 4년 9월, 11월. 송군이 거란을 대파하고 만 삼백 명을 참수하고 만 필의 말을 획득했고 또 만여 명을 참수했다고 거란의 패배를 전하고 있다.

11월의 전황은 거란이 우위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다만 같은 시기에 송이 거란을 대파했다는 보고도 송 측의 기록에서 확인된다.<sup>6)</sup> 982년 하4월에는 거란 景宗까지 직접 남벌에 참여했으나 거란군은 송에게 연속 격파당하고, 패전군으로 귀환하는 길에 경종이 雲州 행재에서 사망했다.<sup>7)</sup>

셋째, 980년대에 들어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와 특히 고려의 대외관계에 긴장을 가져올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거란이 요동지역 여진을 토벌한 일이었다. 사실 거란은 926년 발해를 멸한 이후로는 대내 안정과 중원과의 경쟁에 주력하느라 동북정역을 거의 방기해둔 상태였다. 발해를 멸하고 세운 東丹國을 장자 耶律倍가 맡았는데, 병사한 태조 야율아보기를 뒤이어 次子로서 제위에 오른 耶律德光이 야율배의 세력신장을 저지하고자 동단 국도를 홀한성에서 요양으로 옮겼으며, 이 둘 사이 불화로 인해 야율배는 931년 후당으로 망명했다. 이후에도 거란이 중원의 정치 변동에 간여하고 당항족 토벌 등 서역과의 통교에 주력하는 사이 요동과 만주 일대는 거란의 주요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 기회를 타고 발해 유민과 여진이 점차 자립했다. 대체로는 거란에 조공을 했지만, 970년대 景宗 치세에 이들은 특하면 거란에 반란했고, 거란은 여진에게 작위를 내리는 등 대체로 회유와 안무 정책으로 대응해 왔다.<sup>8)</sup>

983년 거란 성종의 치세에 들어 동경유수 耶律末只 관할의 병마를 친열하더니 다음해(984) 4월 宣徽使 耶律蒲寧과 都監 蕭勤德이 일부 여진부 정벌에서 개선했다.<sup>9)</sup> 또 985년 7월에도 ‘갑병을 정돈하여 고려 동정에 대비하라’는

6) 『遼史』 권9 경종 하 건형 2년 10월, 11월; 『宋史』 태종 태평흥국 5년 11월

7) 『遼史』 권9 경종 하 건형 4년 하4월; 『宋史』 태종 태평흥국 7년 5월

8) 973년 여진 병사가 거란 경내에 침입해 도감 達里迭 등을 죽이고 邊民의 牛馬를 약탈했다. 975년에는 黃龍府衛將 발해인 燕頗가 도감 張琚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거란은 耶律曷里必의 군대를 보내 연파 세력을 공격했지만 연파를 끝내 잡지 못하고 연파의 잔당은 通州로 옮겨갔다. 976년 8월에도 여진병이 貴德州의 동변을 습격했다. 『遼史』 권8 保寧 5년 5월 신미, 보녕 7년 9월, 보녕 8년 8월. 김위현, 1988, 「契丹·高麗間的女眞問題」, 『明知史論』 9 참조.

9) 『遼史』 권10 성종 1 통화 원년 10월 丁酉, 통화 2년 4월 丁亥. 그런데 통화 원년 기록에는 거란군주의 군대 사열 때 장차 고려를 정벌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밝히고

조서에 따라 거란 동경 군대의 병기상황과 도로상황을 검토하는 등 꾸준히 고려와 여진으로의 진출을 준비했다. 요동의 진군로가 너무 길어지는 여름철을 피하고 결국 겨울을 기다려 개시된 여진 토벌전에서 거란은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어 포로 10여만 명, 말 20여만 필 등의 많은 재물까지 획득했다.<sup>10)</sup> 요동지역에 발해 유민이 세운 정안국이 이 토벌전에서 멸망했다.<sup>11)</sup> 980년대 초 거란의 요동 여진 토벌은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공격적인 세력 확대로 선회한 거란의 동방경략 정책의 시작이었다. 일단은 요동의 定安國을 비롯한 압록강 여진이 처음 정벌 대상이 되었지만 사실은 만주와 고려까지 겨냥한 대대적인 동방경략의 출발이었다. 고려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고 거란과 고려 양국의 불가피한 충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10세기 말 980년을 즈음하여 송조가 중국 통일을 완성하고, 송과 거란의 직접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거란은 요동과 만주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재개했다. 동아시아 국제사회는 각 지역 차원의 경쟁과 국지전에서 승리한 더 큰 단위의 세력들이 동아시아 광역의 패권을 직접 겨루거나 적어도 동아시아의 새로운 판도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전면적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 2\_ 거란의 무력을 통한 세력 확장 정책

982년 거란 景宗이 사망하고 12세의 耶律隆緒, 즉 聖宗이 거란의 6대 황제로 즉위하여 1031년 사망시까지 무려 50년간 재위했다. 그중 전반 27년은 그의 母后 承天太后 蕭氏가 정권을 쥐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내 안정과 대외적 국력신장을 성취했다.<sup>12)</sup> 30세의 나이로 섭정을 맡은 승천태후는 건국 이후 지속

있다.

10) 『遼史』 권10 성종 1 통화 3년 추7월 갑신삭, 8월 계유삭; 통화 4년 정월 병자

11) 986년 거란 원정을 계기로 정안국이 몰락했다는 근거는, 『宋史』 권491 정안국전에 정안국 왕자가 992년 송에 예물과 표를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그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김위현, 1978, 「요대 발해 부흥운동의 성격」, 『명대논문집』 11 참조.

12) 『契丹國志』 권7 성종기序

적으로 정권에 위협이 되었던 종실제왕의 군사력을 제한하고 지식인과 하급관원 등의 행동에 禁錮를 내리는 일종의 계엄조치를 단행하여 내정의 안정을 이루고 외부로는 변방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략가이며 용장인 耶律斜軫, 조직능력이 뛰어났던 한인 室昉, 세대를 이어 병직을 맡고 승천태후가 가장 신임한 한인 韓德讓 등의 기여가 컸다.<sup>13)</sup>

성종의 즉위와 승천태후의 과단성 있는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정치국면을 맞은 거란은 군사력 증진과 전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세종, 목종, 경종 시기 내부의 정치 불안 등으로 그 힘이 다소 쇠퇴했는데, 이제 성종 치세를 맞아 中興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물론, 군사행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종 말년까지 이렇다 할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불안한 대치상태에 있는 남쪽의 송이었다. 경종이 982년 사망하고 바로 10월에 승천태후는 南院大王 勃古哲에게 山西諸路州事를 맡기고 于越休哥를 南面行軍의 都統 및 南京留守으로 삼아 남면 군무를 총괄하게 했다. 그러나 거란과는 40년 이상 외교관계를 단절한 채 중국과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해 온 고려가 송의 배후세력이 될 가능성이 컸으므로 고려 정벌을 아울러 계획해야 했다. 추밀부사겸시중 耶律末只를 동경유수로 임명해 동방 전쟁을 준비하고 앞서 언급한대로 성종의 즉위 이듬해인 983년부터 요동을 침공하고 정안국을 멸망시켰던 것이다. 거란이 고려 정벌에 앞서 요동과 압록강 일대로 출정한 것은 배후세력의 후면 공격을 미리 제거하고자 하는 거란의 전략적 수순이었다. 고려를 향한 원정 가도에 있는 압록강 여진을 제압하고 거란에 저항하며 친고려 관계에 있던 정안국의 정벌을 서둘렀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를 겨냥한 동방 원정을 계획하는 중에도, 외형적으로는 요동을 향한 거병이 고려를 자극하지 않도록 거란은 외교적 제스처를 취했다. 983년 거란이 1차 요동 침공을 감행하자 고려에서는 신속하게 압록강 연안에 關城을 쌓으려다 압록강 연안에 거주하던 여진의 격렬한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

13) 李鳳飛·胡凡, 2003, 「論蕭太后在遼聖宗即位之際所採取的措施」, 『齊齊哈爾大學學報』

고 이루지 못했다.<sup>14)</sup> 같은 해 거란에서는 한림학사 耶律純을 고려에 보내 地界를 의논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시기의 전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필시 고려의 관성 수축문제에 대한 대응이었을 것이다.<sup>15)</sup> 986년 정월 2차 요동 정벌로 정안국을 멸하는 큰 성과를 올린 거란은 곧바로 고려에 화의를 청하기 위해 闕烈을 파견했다.<sup>16)</sup> 池內宏의 해석대로 고려 국경을 침범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보이는 請和였다.<sup>17)</sup> 고려와의 직접적인 전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때 거란이 고려를 자극하지 않은 것은 현명한 외교 전략이었다. 거란이 요동 정벌에 주력하는 기회를 타서 송은 거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준비하고 고려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986년 3월 송의 대대적인 거란 공격으로 시작된 양국의 전쟁에서, 전반에는 환주와 삭주가 송에 넘어가고 거란의 변방 방어선이 무너졌으나 7월로 접어들면서 송군이 岐溝關에서 耶律休哥에게 패하고 장수 楊繼業이 전사하자 전세가 유리해진 거란이 환주를 되찾고 송군은 성을 버리고 도망하여 일단 거란이 승리했다.<sup>18)</sup>

### 3\_ 고려의 보수적 친중국 외교

거란 聖宗의 즉위와 함께 거란과 송이 전쟁으로 치닫고 더불어 요동과 압록강 변에 거란의 위협이 가해지던 그 시기, 고려에서는 기본적으로 宋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전통적인 중화세계와의 조공책봉 질서를 따르는 외교노선을 고수했다. 우연히도 거란 聖宗과 거의 같은 시기에 즉위한 고려 成宗은 982년 시랑 金昱을 송에 보내 성종의 즉위를 고하여 송 태종으로부터 “檢校太保 玄菟州

14) 『고려사』 권3 성종 3년

15) 長亮采, 『補遼史交聘表』 통화 2년 984; 김재만, 1999, 앞의 책, 84쪽

16) 『고려사』 권3 성종세가 5년 춘정월

17) 池內宏, 1937, 「遼の聖宗の女直征伐」, 『滿鮮史研究』 중세 제1책

18) 『遼史』 권11 성종기 2 통화 4년

都督 充大順軍使 封高麗國王”을 책봉받았다.<sup>19)</sup>

고려는 건국 초부터 그 이전 한반도의 정권들이 그랬듯 進貢, 受冊 또는 軍盟과 商務 등을 통해 五代 왕조들과 지속적으로 교섭했다. 後唐 明宗 때는 태조 왕건이 책봉을 받고 고려의 연호 대신 후당의 정삭을 썼다.<sup>20)</sup> 통일 전 신라·후백제와의 경쟁에서 한반도의 정통국가 인정과 대내적 정치안정을 위한 정책이며 당말 전란 이후 무너졌던 중원 정부와의 전통적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거란 세력의 팽창과 맞물려 고려의 친중국 외교는 후주, 송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거란의 지원으로 後晉을 건국한 石敬瑭에게는 즉위를 축하하는 사신을 보내고 그의 책봉을 받은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sup>21)</sup>

그러나 거란에 대한 고려의 인식은 전혀 달랐다. 成宗이 즉위하여 관리들에게 時政의 득실을 물었을 때 최승로가 올린 상서에는 이 당시 고려 조정의 거란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난다. 그는 선왕들의 정치를 평가한 ‘五祖治績評’에서 태조가 거란이 보낸 낙타를 만부교 아래에 매어 굶겨 죽이고 거란과의 국교를 단절한 것은 미연에 환난을 막고 위태로워지기 전에 나라를 보전한 深策 遠計라고 평가했다. 거란과는 국경이 닿아 있어 의당 먼저 수호해야 하지만, 그들이 발해와 화호를 맺다가 별안간 다른 마음을 품어 舊盟을 저버리고 하루 아침에 진멸시켰기 때문에 교빙할 수 없다고 한 태조의 단교 이유는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최승로의 ‘時務28條’에서도 제1조로 거란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sup>22)</sup> 고려는 984년 시작된 거란의 동방경략을 예의 주시하고 곧바로 興平어사 李謙宜에게 명하여 압록강 안쪽에 성책을 쌓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진군이 이를 막아 이점의를 잡아가지자 군사가 무너져 성을 쌓지도 못하고

19) 『고려사』 권3 成宗세가 원년; 『宋史』 권487 고려전: 태평흥국 7년(982); 『고려사』 권3 成宗세가 2년(983) 3월

20) 『舊五代史』 권43, 「唐書」 明宗紀 9

21) 나중우, 1995, 「5대 및 송과의 관계」,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5

22) 『고려사』 권93 최승로전; 『고려사절요』 권2 成宗 원년 6월

3분의 1만이 돌아오는 피해를 당했다.<sup>23)</sup>

고려는 거란의 압박이 닥쳐오고 북쪽 변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사대 조공관계를 쌓아온 중국의 존재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외교노선을 밀고 나가기로 하고 송과의 유대를 더욱 견고히 했다. 이는 단순히 전통을 관성적으로 쫓아가는 소극적인 선택이거나 중국과의 실질적인 계서관계의 표현도 아니었다. 동아시아 정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서 택한 현실적인 전략이었다.

거란이 동북으로 공격을 가해 오고 있지만, 중국에서 송과 거란은 아직 어느 쪽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태였다. 남부 십국의 정벌에 이어 거란이 지원했던 북한까지 멸망시킴으로써 이제 막 중국의 통일왕조로 부상한 송조에 대해, 이전 당조가 했던 국제질서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다. 고려로서는 오랜 기간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해 둔 중국 왕조 宋이 거란에 우세하거나 적어도 대등한 힘을 가지고, 고려에 위협을 가해 오는 거란을 견제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984년 압록강 축성 문제로 여진과의 마찰이 있는 뒤 곧 韓遂齡을 송에 보내 방물을 바쳤다. 송에서는 이듬해 5월 大常卿 王著와 祕書監 呂文仲을 보내와서 왕을 책봉했다. 2년 전에 冊王한 바 있는데 이때에 식읍 1천 호를 더해 주었다.<sup>24)</sup> 명목뿐인 관작과 식읍을 주는 의례적 행위였지만 양국관계의 돈독함을 쌍방에 확인하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다.

당시 송에게 국제사회의 중심으로서 주변국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맹주의 역할을 기대한 것은 고려만이 아니었다. 거란이 여진을 공격했을 때, 여진에서는 고려가 거란을 끌어들이고 거란과 합세하여 백성을 약탈한다며 그 급박한 상황을 송에 알렸다. 송은 984년 韓遂齡이 사신으로 갔을 때 여진이 보낸 木契를 보이면서 고려에게 여진의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압박을 주었다. 고려는 그 다음해 송에서 보내온 韓國華에게 여진의 무고일 뿐임을 적극 해명했다. 고

23) 『고려사』 권3 성종 3년

24) 『고려사』 권3 성종 4년 하5월

러는 도리어 거란에게 쫓겨 도망쳐 온 2천여 여진인에게 노자와 양식을 주어 돌려보냈는데, 여진이 돌연 고려를 공격해 관민을 살해 약탈하거나 사로잡아가 노예로 삼았으니 여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려는 대대로 중국의 正朔과 職貢을 받아왔는데 두 마음을 갖고 거란과 교통할 리가 없으며 더욱이 거란과는 遼海 및 遼河, 渾河로 막혀 친교할 길도 없음을 강조했다.<sup>25)</sup> 고려와 여진 모두 송에게 변방 소국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전통적인 중화제국의 권위를 기대하며, 책봉과 조공 형식의 상하관계를 수용하는 외교를 전개했던 것이다.

그런데 985년 송의 감찰어사 韓國華가 고려에 온 주요 목적은 연운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거란과의 전쟁을 계획하는데, 여기 고려가 참전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이었다. 송 태종은 대대로 중화 문화를 사모하고 중국에 충절과 예의를 갖춘 고려와 협조하여 오랑캐 거란을 평정하고자 한다며, 전쟁에서 노획한 포로와 전리품은 모두 고려에게 돌릴 것이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송 태종은 거란이 동방정락에 나선 이때가 두 번 오기 어려운 좋은 기회라고 고려를 설득하고 있지만, 고려에서는 선뜻 출병을 결정하지 않고 시일을 끌었다. 어찌면 여진의 木契를 언급한 것도 고려의 충절을 분명히 하라는 압박이었을 것이다. 고려는 發兵을 약속하고 한국화를 돌려보냈다.<sup>26)</sup> 앞서 본 대로 송 태종은 다음해(986) 3월 대대적으로 거란 공격을 단행했으나 고려는 사실 출병하지 않았다.

고려가 송의 원병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이유는 무엇보다 중원 지역까지의 파병이 큰 부담이라는 데 있겠지만, 외교적 판단의 결정이었을 것이다. 바로 985년 초 거란이 關隲을 講和使로 보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고려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을 때 고려가 먼저 송과 연합해 거란을 도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예나 이제나 전쟁은 그 성과가 전쟁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할 만하다고 판단될 때 감행하는 것인데, 고려가 송을 지원하여 참전한다 해서 확대일로에 있는 거란의 세력을 약화시킬 만큼의 승산이 있지 않다

25) 『고려사』 권3 성종 4년

26) 『고려사』 권3 성종 4년; 『宋史』 권487 고려전

고 판단했을 수 있다.

실제로 송은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나 여진이 기대한 국제질서의 종주국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986년 전반에 승세를 타는 것 같았지만 하반기부터 전세가 역전되어 연운 지역 수복의 야심찬 계획을 버리고 퇴각했다. 여진은 재빠르게 거란에 접근하는 외교방향으로 돌아서고 거란의 전선에 합류하기도 했다.<sup>27)</sup> 여진은 당시 강력한 연합세력이 아니라 여러 부족이 분립한 상태였는데, 986년 이후 거란의 영향력을 인정하여 각 부족이 적극적으로 친거란 외교방향을 택하였다. 이에 반해 고려는 송과의 유대를 더욱 굳건히 했고, 이는 송 측에서도 국제 사회의 역학관계상 환영할 일이었기 때문에, 비록 송의 파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국관계는 건재했다. 988년 송 태종이 端拱으로 개원한 것을 계기로 고려 성종에게 加冊王하더니 淳化로 개원한 990년, 그리고 992년 6월에도 가책왕을 베풀었고,<sup>28)</sup> 이에 대응한 고려 쪽에서의 사절도 왕래한 것은 물론이다.

980년대 동아시아의 정세를 뒤바꿀 만한 중요한 움직임이 발생했지만, 이것이 이제까지 실질적이든 명목적이든 중국이 重心에 있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구조를 재편하는 서막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적어도 고려의 입장은 그랬던 것 같다. 거란의 침략 전선 앞에 아직 여진이 존재하고 있으며 송과 거란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불투명했지만 기존의 聯宋 외교정책이 흔들릴 만큼 비판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송의 원군 요구까지 따르지는 않는 신중함은 보였으나, 고려의 친중국 외교노선은 유지했다. 본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 관계는 여러 국가들이 서로의 정통성과 변경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상호 인정의 의미가 컸는데, 이제 송과 고려의 책봉조공은 대거란 동맹을 의식한 우방적인 외교의 표현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졌다.

27) 『遼史』 권11 성종기 2 통화 4년 7월; 권12 성종기 3 통화 6년 8월

28) 『고려사』 성종 7년 동10월; 성종 9년 하6월; 성종 11년 6월

### Ⅲ. 고려·거란 30년 전쟁의 전말

#### 1\_ 澶淵之盟 이전 거란 침략과 彌縫의 講和

986년 송 태종의 북벌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거란이 990년대에 들어 여진과 고려 원정에 박차를 가하자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거란은 압록강 하류의 여진을 압박하여 고려 원정로를 확보하고 또 여진과 송의 교통로를 막는 조치를 취했다. 991년 거란은 압록강 연안에 진출해 해안에서 400리에 걸쳐 威寇, 振化, 來遠 3개의 城柵을 세우고 3천 戌卒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켰다.<sup>29)</sup> 송의 기록에는 이것이 여진의 중국에 대한 조공 길을 끊은 것이라고 논평했지만, 이때 송에 대한 여진의 조공은 사실상 송의 軍馬 공급 통로였기 때문에 거란의 조치는 송에 대한 적극적 전략이었다.

당시 기병 위주의 거란과 전쟁 상태에 있던 송에게 충분한 戰馬 확보는 성공적인 전투의 관건이었다. 본래 중국에서 牧馬에 적합한 지역은 그나마 거란의 영토로 들어간 연운16주였기 때문에 송의 국내 말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송과 여진의 무역에서 송의 말 수입이 주종을 차지했고 여진으로서도 馬貢무역은 중대한 수입원이었다. 대송 말 무역은 주로 압록강여진이 중심역할을 맡았지만 그 배후에 30여 정도 부족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공동무역의 방식이었다.<sup>30)</sup> 伊斬錦 등 여진의 수령들이 곧바로 송에 이 사정을 알리고, 송에게 發兵하여 여진 30명 수령과 함께 거란이 쌓은 3개 성책을 평정하자고 제안했지만 태종은 조서를 내려 撫諭했을 뿐 出師하지는 않았다. 이 일 이후 여

29) 『遼史』 권13 聖宗 4 통화 9(991)년 2월 甲子. 안주성은 이전에는 여진 등 주변지역을 원정하고 돌아갔는데, 3개 성책을 수축한 것은 간헐적 정벌이 아니라 요동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안주섭, 2003, 앞의 책, 46쪽).

30) 김위현, 2003, 앞의 논문

진이 거란 쪽에 복속했다고 송 측 사서는 기록하고 있다.<sup>31)</sup> 거란이 성책을 쌓고 그 무역로를 막은 것은 송과 여진에게 동시에 타격을 준 요령 있는 조치였다. 압록강 북안을 장악함으로써 여진에 대한 지배력을 얻고 송과의 교통을 끊으며 장차 고려를 침공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어서 거란은 본격적으로 고려 침략에 착수했다. 992년 12월, 동경유수 蕭恒德<sup>32)</sup> 등으로 하여금 고려를 정벌하도록 했다는 간략한 기록만 『遼史』에 남아 있지만, 그 심각함은 주변에서도 충분히 감지되었을 것이다. 西北界 여진이 993년 5월에 거란의 고려 침입 계획을 고려에게 알렸다. 고려는 여진에 대해 계속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였는지 그 보고를 믿지 않고 대비도 하지 않다가 8월에 또다시 거란 군대가 이미 이르렀다는 정보를 알리자 비로소 사태의 급박함을 알았다. 사실, 거란과 고려의 압록강 지역을 둘러싼 경쟁으로 이종의 압박을 받던 여진이 거란의 침공 정보를 연달아 고려에 알려온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어찌면 당시 통합된 하나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부족이 제각기 거란, 고려와 교섭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거란의 정복과 대송 무역의 차단, 그리고 송과의 군사연맹에 좌절을 겪은 여진이 친고려 외교 노선을 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고려는 여진에서 알려오기 전까지 거란의 공격 준비를 전혀 몰랐고 그에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거란이 출정에 나선 시점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거란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또 그에 대한 대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거란이 압록강에 축성한 991년 10월에 成宗이 서경에 행차하여, 父老가 바친 술과 고기를 군사와 민호에게 주고 疾疫으로 농사를 망친 자에게 租賦를 면하고 노환자들에게는 약을 주는 등 크게 위무했다. 이것이 연례적인 통치행위일 수도 있겠으나, 서북방 변경의 긴장이 고조되어 불안해하는 백성을 안정시키고 군비를 순시하는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또 압록강

31) 『續資治通鑑長編』 권32 태종 순화 2년; 『宋史』 태종기 순화 2년 12월

32) 『遼史』 권88 蕭恒德전에 따르면 항덕의 字가 遜寧인데, 『고려사』에서는 蕭遜寧으로, 『遼史』에는 蕭恒德으로 기록하고 있다.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내쫓아 그곳에 살게 하는 조치도 이때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거란의 3개 성 수축에 대항하며 그 압록강 진출 의도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3)</sup>

거란의 침공이 현실로 나타나자 고려는 곧바로 전쟁 태세를 갖추었다. 당시 고려는 전국에 30만 명 光軍을 두고 있었는데, 침공 소식에 접하여 각 도에 兵馬齊正使를 파견해 광군을 동원하게 했다. 10월까지의 시중 朴良柔를 상군사, 내사시랑 徐熙를 중군사, 문하시랑 崔亮을 하군사로 하는 3군을 편성해서 북부 요충지에 배치했다. 출정한 병력 규모는 주현군을 제외하고 3만~6만 정도였을 것이라고 한다.<sup>34)</sup>

동경 요양부를 8월에 출발한 거란군은 길림산맥과 장백산맥을 가로질러 오는 고지군의 이동로를 따라 10월에야 보주에 이르렀고, 결빙된 압록강을 쉽게 건널 수 있었을 것이다. 거란군은 통상 9월에서 12월 사이 4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다. 목축 지대에서는 방목하던 가축을 모아 사육하는 시기여서 군사와 군마 확보가 용이하고, 농사 지역은 곡식 수확을 마쳐 저장한 때여서 현지 식량 확보에도 유리했다. 더욱이 南征에 나설 때는 하천과 수답지가 결빙되는 겨울철에 기마부대의 기동력이 좋았다. 방목을 재개하는 생업 계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12월에는 회군했다.<sup>35)</sup> 蕭恒德이 이끄는 거란군은 압록강을 건너 蓬山郡에서 처음 고려와 전투를 벌였다. 이곳은 상주하는 군대는 없었고 출정군의 先鋒軍使를 담당한 급사중 尹庶顔이 맞아 싸웠는데, 윤서안이 사로잡히는 등 고려군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다. 성종이 10월에 서경으로 행차하여 안북부를 방문해 친히 군대를 독려하려다, 소항덕이 蓬山郡을 공격하려 하고 이미 윤서안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경으로 되돌아가고 중군사 서희가 봉산

33) 『고려사』 권3 성종 10년 10월; 『고려사절요』 2권 成宗文懿大王 신묘 10년; 안주섭, 2003, 앞의 책, 46쪽

34) 안주섭, 2003, 앞의 책. 후백제와의 전투 규모를 근거로 산정한 추정치이다. 양국의 군사이동로, 군비 상황, 각 전투의 상황 등 군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도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35) 안주섭, 2003, 앞의 책, 2장 '전쟁수행 여건'

군에 투입되어 거란과 대치했다. 소항덕은 “大朝 거란이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는데, 고려가 강토의 경계를 침탈하기 때문에 정토한다”고 성명을 내는 한편, “대조가 사방을 통일하는데 귀부하지 않은 자는 기필코 소탕할 것이니, 속히 와서 항복하고 지체하지 말라”며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서희에게 보냈다.

고려는 가능한 한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하여 감찰사헌 李蒙戩을 禮賓少卿의 자격으로 거란 진영에 보내 서둘러 화친을 시도했다. 소항덕은 군신이 속히 진영 앞에 와서 항복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80만 군사가 와서 모두를 멸할 것이라고 거듭 협박했다. 그의 80만 대군 언급은 실제 상황은 아니고 상당히 과장된 규모였다. 『遼史』 「병위지」를 근거로 김재만은 거란의 정규 전투 병력을 10만~15만 전후로 추산하고, 안주섭도 거란 군사 규정으로는 都統을 임명하지 않는 원정은 기병 6만을 넘지 않았으며 이때의 병력 수도 최대 6만이었다고 추정한다.<sup>36)</sup> 고려에서 거란의 군세를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이몽진이 알려진 소항덕의 위협에 고려 조정은 크게 동요했다. 성종이 소집한 중신회의에서 소항덕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降服論과 항복 대신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떼어 주자는 割地論이 제기되었다. 성종은 할지론을 택하기로 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 거란군이 서경을 침공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서경의 식량 창고를 모두 비우라고 명령했다가, 徐熙, 민판어사 李知白 등의 강력한 반대로 취소하고 강화를 모색하였다.

한편, 고려의 회보가 지체되자 소항덕은 다시 고려를 압박하기 위해 청천강 하구 남안에 위치한 安戎鎭까지 공격해 내려갔는데, 고려 중랑장 大道秀와 낭장 庾方이 잘 막아냈다. 소항덕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채 항복을 재촉했다. 결국 서희가 국서를 가지고 그와 회담에 나서 확인하니, 거란의 불만은 첫째, 고구려 古土의 영유권은 거란에게 있는데 신라 땅에서 일어난 고려가 서북방 경영으로 그것을 침탈한다는 것과 둘째, 고려가 거란과 접경하고 있으면서

36) 김재만, 1974, 「거란군세고」, 『거란민족발전사의 연구』 4편; 안주섭, 2003, 앞의 책, 80쪽

도 바다를 건너 송에게 사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고려의 서북방 영토 확대를 막고 대송 사대의교를 거란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무려 도발의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으므로 거란의 동경까지도 고려의 지경이라고 논박하고, 거란에 조빙을 하지 못한 것은 여진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의외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항덕은 서희의 주장을 인정하고 그 협상 조건을 수용했다. 고려는 거란에 사대하고, 거란은 압록강 이동지역을 고려에 주어 양국 사이의 통교를 방해하는 여진을 축출하고 성을 쌓는다는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소항덕이 강화내용을 본국에 보고하고 罷兵을 결정했다. 협상 타결에 成宗은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거란에 朝聘하고자 했다. 서희가 소항덕과의 약속은 여진을 소탕하여 평정하고 옛 땅을 수복한 후에 조빙을 통하겠다는 것이니 압록강 바깥쪽까지 수복한 후에 조빙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성종은 후환이 두렵다며 결국 侍中 朴良柔를 禮幣使로 거란에 보내 入覲하기로 결정했다.<sup>37)</sup>

994년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994년 봄 2월에 소항덕이 고려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당시 거란 황제가 “고려와 의논하여 곧 요충 길목에 城池를 쌓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려, 거란은 3월부터 압록강 서쪽에 5개 성을 축조하고 고려에서도 安北府에서 압록강 동쪽에 이르는 280리 사이에 성을 쌓기 위해 현지 조사를 하고 인력을 준비하며 수축할 성의 수를 거란에 알린 뒤, 양쪽이 거의 같은 시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소항덕의 서신에는 “거마를 교통하여 멀리 조공의 길을 열고 오래도록 거란을 받드는 것이 安康의 계책이라”며 고려의 조공을 독촉했다. 고려는 즉각 거란의 연호 統和를 시행하고 계획대로 박양유가 表文을 받들어 거란에 가서 보고하고 포로를 돌려주도록 청했다.<sup>38)</sup>

37) 『고려사절요』 2권 成宗文懿大王 계사 12년

38) 『고려사절요』 2권 成宗文懿大王 계사 12년. 거란 측 기록은 “高麗王治 遣朴良柔奉表請罪 詔取女直鴨綠江東數百里地賜之”, 또 “高麗遣使請所俘人畜 詔贖還”의 내용으로 전하고 있다. 단 그 시기가 『遼史』 권13 통화 11년(993), 12년(994)에 나

같은 해,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먼저 송과의 조공관계를 중지할 명분을 만드는 수순을 밟았다. 박양유를 거란에 보낸 994년 여름, 한편으로는 元郁을 송에 보냈다. 송에게 군사 지원을 청하면서 거란의 침입전쟁에 보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송에서는 북쪽 변방이 이제 겨우 편안해졌는데, 경솔히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돌려보냈고, 이때부터 송과 국교를 단절했다는 사정을 고려 자료에서 전한다. 송 측의 기록에서도 원옥의 출병 요청이 있었지만 황제가 “夷狄의 상호 공격은 모두 常事인데 경솔히 전쟁을 할 수 없다” 설명하고, 사신에게 후히 예를 갖춰 보냈는데, 고려가 이때부터 거란의 制詔를 받고 송에는 조공을 하지 않았다고 전한다.<sup>39)</sup>

고려가 송에게 진정으로 출병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대관계를 거란으로 옮기면서 취한 예외적인 외교행동일 뿐이었다. 그 무렵 고려 성종은 대묘에 제사하고 문무관의 관작을 올리고 대사면을 발표하고 백성에게 술을 내리는 등 대경사의 시혜를 내렸다.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북방 영토까지 얻은 것을 자축한 것이다. 한편, 송에서는 고려가 이미 송의 원병 요구를 듣지 않은 바가 있기 때문에 원군 요청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미 3년 전 여진의 요청을 거절한 때에도 드러났듯이, 송은 거란에 대해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에 있었다. 986년 북벌에서 연이어 참패를 당한 뒤 對遼 정책은 進攻에서 防禦 전략으로 바뀌었다. 조정에는 연운16주 수복 계획에 좌절하고, 북벌이 착오였다는 비평과 함께 요와의 通好까지 요구하는 反戰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來則禦之 去則勿逐”의 소극적 방어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1천여 리나 되는 북쪽 변경의 방어체제 구축에 주력해야 했는데, 여진이나 고려의 요청을 받아들일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sup>40)</sup>

서희가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공격해 쫓아내고 여러 요소에 축성 작업을 시작하여 996년까지 이른바 ‘江東 6州’를 설치해 고려 개국 이래 처음으로 압

누어져 있는 등 年次의 오류가 있다.

39) 『장편』 권36 태종 순화 5년(994) 6월 庚戌, 7월 壬子; 『宋史』 권487 고려전 순화 5년 6월

40) 王曉波, 2011, 「宋太宗雍熙北伐失敗後的對遼策略」, 『宋遼戰爭論考』, 四川大學

록강 이동 지역을 확보했다.<sup>41)</sup> 또 압록강에 勾當을 설치해 압록강 도강을 관리함으로써 거란과 여진의 통행로를 차단하고 고려와 거란은 압록강 유역을 국경으로 접하게 되었다.<sup>42)</sup> 이로써 양국은 1010년까지는 적어도 표면적인 평화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수시로 왕래했다. 고려는 거란에 妓樂, 매[鷹], 方物을 진공한다는 명목으로 빈번히 사신을 보내고, 거란어를 배우도록 童子를 보냈으며, 양국 사이 혼인관계도 이루어졌다. 고려 측에서 혼인을 청하여 동경유수 부마도위 소항덕의 딸이 고려 왕에게 출가했으며, 997년 소항덕 처의 죽음을 문상한 기록도 확인된다.<sup>43)</sup> 또 保州에 榷場이 개설되어 고려와 거란 간에 공적 거래 행위뿐 아니라 사적인 행위와 사신 수행원들의 부대무역도 행해졌다. 물론 이러한 교류는 어디까지나 고려가 거란에 稱臣 納貢하는 상하의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995년 11월 거란에서 성종을 高麗國王으로 책봉하기 위해 한림학사 張幹 등을 보내서 이듬해 초 고려에서 冊王禮가 행해졌다.<sup>44)</sup> 997년 10월 成宗의 사망과 뒤이은 穆宗의 즉위에도 고려에서는 告哀使를 보내 嗣位를 알리고 거란은 弔祭使, 冊命使, 加冊王使를 보냈다. 오랜 기간 고려와 중국의 관계에서 행해지던 의례적인 외교가 그대로 거란과의 관계로 이동하여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sup>45)</sup>

고려와 거란의 첫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거란으로서는 송과의 경쟁이나 동방으로의 지배력 확대에서도 제3의 배후 세력으로 신경 쓰였던 고려를 거란의 조공국으로 끌어들이는데다, 압록강 요충인 보주 지역을 장악하여 고려와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고려의 서북방 진출을 거기서 차단할 수 있었다.<sup>46)</sup> 강동 6주 지역은 사실상 거란의 영

41) 박한남, 1995b, 앞의 논문

42) 『고려사』 권3 성종 13년조; 김위현, 2003, 『고려시대 대외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25쪽

43) 『遼史』 권13 통화 14년 3월 壬寅; 『遼史』 권115 고려전

44) 『遼史』 권13 聖宗 2 통화 13년 11월; 『고려사』 권3 성종세가 15년

45) 『遼史』 권13 聖宗 4 통화 15년 11월; 『고려사』 권3 목종 즉위년 11월; 『遼史』 권14 聖宗 5 통화 16년 冬11월; 『고려사』 권3 목종 2년

46) 안주섭, 2003, 앞의 책, 113쪽

유지를 내어 준 것이 아니고 단지 고려의 점유를 거란이 인정한 것이었다. 이 지역은 아직 거란이 지배력을 확보한 곳이 아니어서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의 손을 빌려 힘 안 들이고 여진을 서쪽으로 몰아낸 셈이고, 송과 여진의 교왕을 끊으려던 의도도 성취한 것이다. 고려의 입장에서도 거란의 위협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거란의 지원을 받아가며 여진에게서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소득을 얻었다.

그렇지만 고려는 중원의 중국 왕조와의 뿌리 깊은 외교관계 전통을 버리고, 태조가 교류할 만하지 못한 금수지국이라고 규정한 거란과 조공책봉관계를 갖게 되었다. 거란의 강대한 군사적 위협과 그에 비해 전통적인 맹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송의 무력함과 무관심 앞에서 취한 현실적인 노선 변경이었다고는 하지만,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외교노선의 변화이고 어쩌면 국가의 정치이념과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중대사였을 것이다. 과연, 표면적으로 거란과의 우호관계에 있던 고려가 목종대에 들어 고려가 비밀리에 송과의 교섭 재개를 위한 외교행동을 취했다. 목종이 즉위하자 곧 兵校徐遠을 송에 파견해 '황제의德音'을 청하고 기다리다 命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고, 999년에는 고려 이부시랑 趙之遴을 파견하되 이번에는 登州에 가서 사정을 탐색한 뒤, 조지린의 이름으로 牙將 朱仁紹를 조정에 들여보내 결국 眞宗의 특별한 召見을 받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풍속을 사모하지만 거란에게 위협당하여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진술하고 황제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귀국했다.<sup>47)</sup> 진중은 주인소를 특별히 접견하고 器帛을 하사하며 귀국 길에 고려 목종에게 조서 1통을 보냈다. 거의 같은 때 고려국민 池達 등 8인이 해풍으로 鄞縣에 표착했는데 황제의 조서로 資糧을 제공하고 귀국 길을 돕게 하여<sup>48)</sup> 고려에 대한 우의를 표시했다. 이러한 접촉이 양국의 공식적인 외교노선에 변화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고려의 중국 왕조에 대한 심정적 친근

47) 『고려사』 목종 2년(999) 동10월; 『장편』 권47 진중 함평 3년(1000) 동10월 경요; 『宋史』 권487 고려전(순화 5년과 함평 3년 사이). 사실 『고려사』에서는 이부시랑 주인소를 파견했다고만 되어 있다.

48) 『續資治通鑑長編』 권47 진중 함평 3년 동10월 경요

감이나 외교전통은 방기되지 않았으며 무력의 위협으로 취해진 고려의 거란에 대한 조공사대 외교는 아직 불안정했다.

## 2. 澶淵之盟 이후 거란의 5차례 침공과 패배

고려와 강화를 맺은 거란은 994년부터 南京統軍都監을 다시 설치하고 본격적인 원정 준비에 들어갔다. 각종 권농정책과 유민정착, 황무지 개간,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부국책을 추진하여 국내 사정도 비교적 안정되어 갔다. 대외관계를 보더라도 서쪽 변경으로는 송의 서북 변경을 위협하던 탕구트의 서하왕국을 990년에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송에 대해 이중의 압박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 고려의 대송관계를 끊고 거란의 지배하에 두게 된 것이다. 5년간의 긴 준비 끝에 999년 9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의 정벌전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것을 시작으로 송과의 전쟁에서 거란의 우세가 확실했다. 결국 송의 강화 요청으로 1004년 말 澶淵의 盟約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고려는 비밀리에 송과 외교적 접촉을 가지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거란과의 정상관계를 이어나갔다. 거란이 송에 대한 南征에서 승리할 때는 어찌면 마음에도 없었을 승전 축하사절을 거란에 보내고,<sup>49)</sup> 고려 본국의 地理圖를 제공하기도 했다.<sup>50)</sup> 송과 거란이 맹약을 체결한 때에도 화의를 축하하는 사절을 보냈다.<sup>51)</sup> 거란 쪽에서도 조공국에 대한 외교적 친분을 나타냈다. 가령, 1004년 송에 대한 南伐 계획을 고려에 알렸고,<sup>52)</sup> 1007년에는 고려에 耶律延貴를 보내 加冊王을 하고 그에 따르는 의례적 사절이 계속 오갔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우호적인 교왕 중에도 양국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다. 고려는 1003년 宋에 戶部郎中 李宣古를 보내서 거란과의 불편한 관계를 호소했다. 즉, 거란이 후진에게서 幽薊를 빼앗더니 고려 쪽으로도 여러 차례 공벌하고 요구하는 것이 염치

49) 『遼史』 권14 聖宗 同화 20년(1002) 2월 丁丑, 高麗 遣使賀伐宋捷.

50) 『遼史』 권14 成宗기 5 同화 20년(1002) 추7월, 高麗 遣使來 貢本國地理圖.

51) 『遼史』 권14 成宗기 5 同화 23년 5월, 高麗 以與宋和 遣使來賀.

52) 『遼史』 권14 成宗 同화 22년 9월 乙丑, 以南伐 諭高麗.

가 없으니, 황제의 군대를 경계지역에 보내서 거란을 견제하자는 내용이였다.<sup>53)</sup> 그러나 그간 거란과 고려 양측의 평화관계는 단지 표면적이었을 뿐, 내면적인 갈등은 자못 컸던 것 같다. 상대에 대한 불편함과 서운함은 어느 한쪽에서만 갖고 있었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sup>54)</sup>

양국의 불안한 평화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1009년 또 한번 우연히도 양국 최고 지배자가 거의 같은 때에 교체되었다. 섭정으로 실권을 잡고 있던 거란의 승천태후가 12월에 사망하고, 고려에서는 康兆의 穆宗 시해사건에 이어 顯宗이 즉위했는데, 이제 親政을 하게 된 거란의 젊은 聖宗은 고려의 사태에 대해 흥분했다. 거란은 고려 현종의 즉위를 문제 삼아 康兆의 죄를 묻는다는 구실로 다시 고려를 침공했다. 종주국으로서 신하국왕의 변고에 간섭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는 우연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사태가 아니고 고려 측에서도 거란이 전쟁을 재개할 것에 대해 감지했던 것 같다. 상술한 대로 이미 1003년 李宣古를 송에 보내 거란이 누차 공벌하고 요구함에 염치가 없다며 경계지역에 송의 병력을 주둔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 중 하나였다. 거란에 대한 고려의 명분상 사대의 교만 갖고는 거란의 군사적 도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1010년 거란과 고려의 변경에서 여진 문제를 둘러싸고 고려에게는 설상가상의 불리한 사태가 발생했다. 和州방어사 柳宗이 고려에 내조하러 온 여진인 95명을 모두 죽이는데, 이는 그전에 상서좌사낭중 河拱辰이 동여진 부락을 공격했다가 패하고 돌아왔던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sup>55)</sup> 여진은 이 사태를

53) 『續資治通鑑長編』 권55 함평 6년 8월; 『宋史』 권487 고려전 함평 6년

54) 고려 목종대 김치양 세력이 친거란 외교정책을 취했고, 강조의 정변은 친거란 세력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 것으로, 결국 거란은 그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친거란 정부를 강요하고자 다시 고려를 침략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다(김대연, 2007, 「고려 현종의 즉위와 거란의 침략원인」, 『한국중세사연구』 22). 그러나 목종대 친거란 외교노선이라는 전제가 다분히 추측에 근거하고 있고, 더욱이 목종대에 거란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하면서도 비밀리에 송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볼 때 수궁하기 어렵다.

55) 『고려사』 권4 현종원년 5월 갑신

거란에 가서 호소했다. 『고려사』에는 이 기사에 연이어 거란 국주가 群臣들에게 고려 강조의 시군대역에 대해 의당 “發兵問罪”해야 한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두 사건이 거란의 고려 침략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56)</sup> 거란은 7월에 給事中 梁炳과 大將軍 耶律允을 보내와 穆宗 변고의 사유를 심문했는데, 고려의 해명에 관계없이 거란의 전쟁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었다.<sup>57)</sup>

고려는 먼저 전쟁을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취했다. 승천태후의 장례 사절이나 매 절기마다의 問候 등 조공국으로서의 의례적 使行은 물론이고, 동여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河拱辰과 柳宗을 먼 섬으로 유배 보냈다. 목종 변고를 심문하는 사절이 왔다 간 뒤 고려의 외교 사신은 더욱더 급박하게 움직였다. 8월에는 內史侍郎平章事 陳頤과 尙書右丞 尹餘가 파견되고, 9월에는 左司員外郎 金延保가 추계 문후를 위해, 또 左司郎中 王佐暹과 將作丞 白日昇이 修好를 위해 거란 동경에 갔다.<sup>58)</sup> 10월 거란이 給事中 高正과 閣門引進使 韓杞를 보내 출정을 통고하자, 즉각 참지정사 李禮均, 우복야 王同穎를 보내 화의를 청하고, 11월에는 기거량 姜周載를 보내 정상적인 동지 하례를 행하는 등,<sup>59)</sup>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심지어 전쟁이 이미 개시되어 거란군이 흥화진을 포위하고 항복을 강요할 때도 흥화진 부사 李守和 등이 표문을 올려 철병을 청하면서 복속을 약속했다.<sup>60)</sup> 그러나 전쟁을 막으려는 외교 노력과 함께 康兆를 行營都統使로, 安紹光을 行營都兵馬使로 임명하여 30만군을 通州에 집결시키는 군사적 대비도 병행하고 있었다.<sup>61)</sup>

거란은 高正과 韓杞, 또 蕭凝 등을 고려에 보내 성종의 親征임을 통고한 후, 11월 과연 보병과 기병 40만 군대가 고려로 쳐들어와 흥화진을 포위했다.

56) 『遼史』 권15 통화 28년 10월 병오삭

57) 이미 5월 諸道에 東征 준비 명령을 내렸으며, 8월에는 송에도 고려 정벌의 뜻을 통보한다. 『遼史』 권15 성종기6 통화 28년 5월; 『장편』 권74 진종 대증상부 3년 동 10월 辛亥

58) 『고려사』 권4 현종원년 8월, 9월

59) 『고려사』 권4 현종원년 10월 계축, 11월 병자삭

60) 『고려사절요』 권3 顯宗元文大王 원년 11월 癸巳

61) 『고려사』 권4 현종원년 10월

이때 동여진은 군마 1만 필을 거란에 바치고 고려 정벌에 동참했다.<sup>62)</sup> 楊規 등의 고려 세력이 맞서 거란 성종의 수차례 공격에도 항복하지 않자 거란은 통주성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는 康兆의 군사가 초기에 선전했으나 삼수채 전투에서 사로잡히고, 이후 12월까지 서북 성채 대부분이 그리고 개성까지 점령당하여 大廟와 궁궐, 민가가 거의 불탔다. 고려는 그에 앞서 12월 초 거란이 서경까지 침입했을 때 顯宗의 거란에 대한 入朝를 조건으로 강화를 제의하기 시작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12월 말 개경으로 진출하자 현종은 피난길에 나서 다시 親朝를 조건으로 화친을 제의했다. 거란 성종은 함락에 실패하여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흥화진, 광주 등에 일부 병력을 잔류시켜 두었고 개경까지 진출하는 사이 이미 양구의 군대가 거란군 후방을 공격하는 바람에 보급선을 차단당한데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동절기 4개월 정도로 제한된 거란군의 전쟁기간을 더 연장시키기 어려웠다. 그 때문에 고려 측에서 제시한 청화조건을 수락하고 청화사 河拱辰, 高英起 일행을 인질로 잡아 개경에 입성한지 열흘 만에 철수했다. 그러나 거란군은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회군로 곳곳에서 고려군의 반격을 만나 악전고투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sup>63)</sup> 그래도 본래 출병의 명분이었던 康兆를 통주에서 생포해 참살했으면서 개경까지 점령해 고려 국왕의 친조 약속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둔 셈이었다. 거란군이 철수한 뒤 고려 측에서는 거란의 敵意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섰다. 班師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영빈관을 설치하고, 또 康兆의 일당을 유배시켰다. 그러나 거란의 끈질긴 재촉에도 顯宗의 親朝를 계속 미루다가 1012년 6월에 하계 문후차 刑部侍郎 田拱之를 보내어 왕이 病 때문에 친조할 수 없다고 알렸다. 거란 성종은 고려왕의 사실상 친조 거부에 대노하고 이번에는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기 시작했다.<sup>64)</sup>

이번 2차 침공 후의 전후처리는 왜 7년 전과 달리 외교적 타협으로 종결되

62) 『고려사』 권4 현종원년 11월; 『遼史』 권15 성종기 6 통화 28년 동10월 병오삭

63) 전투의 상세한 상황은 안주섭, 2003, 앞의 책 참조.

64) 『고려사』 권4 현종 3년 6월 甲子

지 않았을까? 7년 전 고려의 조공을 조건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거란에 사대하고 있는 고려에게 수락하기 어려운 요구를 내놓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현존 기록만으로 단순하게 보면, 고려의 친조 약속의 위반이 거란의 上國으로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강동 6주의 요구와 뒤이은 1014년의 침공까지 초래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澶淵之盟 이후 거란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졌다는 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형제국가이며 대등한 황제국으로 칭했지만 사실상 거란은 송보다 우세한 위치를 확정짓게 되었다. 이제 거란이 고려에게 요구하는 외교의 격이 그만큼 달라져, 형식적 또는 유동적인 사대와 조공이 아니라 완전한 복속을 요구한 것이다. 993년 전쟁으로 고려가 조공 대상을 송에서 거란으로 돌렸다고는 하지만 거란 측에서 볼 때 그동안 고려의 거란에 대한 복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애당초 穆宗 시해를 問罪한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고, 고려를 응징한 사실상의 이유는 고려가 “동쪽으로 여진과 결속하고 서로는 송국과 왕래하는 것” 때문이었다.<sup>65)</sup> 거란 성종의 고려 친정은 거란 내부에서도 잇단 전쟁과 흉년으로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 때를 버르던 성종이 고려 내부의 변고를 기회로 삼아 강행했던 것이다.<sup>66)</sup> 친조를 약속한 고려가 회군하는 거란군에 반격을 가해 타격을 입힌 것도 모자라 친조 약속까지 거부한 마당에, 형식적인 조빙외교를 되풀이한다 해서 고려를 굴복시키려던 의지를 접을 수 없었다. 아울러, 고려의 정치적인 굴복과 함께, 군사적 압력을 통해 거란은 강동 6주를 고려에게서 빼앗는 현실적인 이익도 계산에 넣고 있었다. 강동 6주는 거란, 고려, 송, 여진의 경제적 교류 요충지이며 거란 영향권 밖에 있는 동여진과 고려가 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정학적 가치가 컸다. 이 점은 고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곳이었다.<sup>67)</sup>

거란과 고려의 관계는 견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다. 1013년 여름, 거란은 開

65) 『고려사』 권8 문종 12년 8월

66) 『遼史』 권88 열전18 蕭敵烈전

67) 거란 성종의 고려 친정 때에 이미 강동 6주 탈환을 목표로 갖고 있었다는 분석은 이병도, 김재만 등의 연구자들도 제시해 왔다.

泰로 개원한 사실을 고려에 통보하고 고려는 곧 하례사를 보내어 평상적인 사행을 주고받는 중에도 여진 군사를 앞세운 거란군이 흥화진을 기습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사이 거란은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하며 耶律行平<sup>68)</sup> 등을 계속해 고려에 보내고, 결국 고려는 거란 사행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9월에 거란은 마지막 위협을 가하려는 듯 李松茂를 보내 6성을 요구했고 고려는 거부하는 뜻을 바꾸지 않았다. 강동 6주에 대한 거란의 요구가 전혀 철회될 기미가 없고 고려 사신을 거란에서 인질로 억류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자, 고려도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1013년 7월 이후로는 거란에 사행을 중단하고 거란에 使行 갔다가 인질이 된 인사들에게 加官하는 등 더 이상 거란의 눈치를 보지 않는 행보를 취했다. 작게는 강동 6주 쟁탈이나 사수냐를 정할 문제이지만 더 나가서는 완전한 지배나 아니냐를 가름할, 양쪽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그 결정은 군사적 대결로서의 판가름만 남았을 뿐 더 이상 평화적 외교의 여지는 없었다. 1014년 6월에 고려 토벌을 명하는 거란 성종의 조서가 내려진 때부터 1019년에 이 전쟁이 마무리 지어질 때까지 거란은 대대적인 침공만도 4차례 반복했으나 끝내 고려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특히 마지막 1019년 전투에서는 참패의 결과를 맞았다.<sup>69)</sup>

다른 한편 고려는 송과의 외교 재개에 적극 나서, 1014년 8월에 內史舍人 尹徵古를 송에 보내 “歸附如舊”할 것을 청했다.<sup>70)</sup> 거란의 침략이 시작된 뒤 1015년 말에도 郭元을 송에 보내 조공하고 고려왕의 表文을 올리고 曆日과 尊號의 하사를 청했다.<sup>71)</sup> 송에서는 이미 1010년 2차전 이전부터 거란과 고려의 전쟁에서 거란을 자극하지 않는 무개입 방침을 정해 두고 있었다. 1010년 11월, 거란 성종이 고려 정벌을 송에게 통보했을 때, 송의 조정에서는 고려가 송에 귀부하거나 원병을 청해 올 경우를 대비해 논의가 있었는데, “거란과 이제 막

68) 야울행평은 『고려사』에서 칭해지는 이름이고, 『遼史』에 耶律資忠으로 기록된 인물과 동일인이다.

69) 박한남, 1995b, 앞의 논문

70) 『고려사』 권4 현종세가 5년 6월, 8월 甲子; 『宋史』 권487 고려전 大中祥符 7년

71) 『고려사』 권4 현종세가 6년 11월; 『宋史』 권487 고려전 大中祥符 8년

和盟이 이뤄진 차에 여러 해 조공하지도 않는 고려의 청은 거부하고 중앙정부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는 王杲의 의견을 채택했었다.<sup>72)</sup> 그렇지만 이때 윤징고를 통해 귀부할 뜻을 표하자 송에서는 고려에게 正朔을 허락하며 후대하고 고려왕에게 7통의 조서를 보냈다.<sup>73)</sup> 고려 측에서도 군사적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바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간 거란과의 조공관계는 거란과의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방편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거란의 침공을 막을 수도 없는 차에 중국과의 전통적인 조공책봉관계로 복귀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송은 여전히 문화·경제적인 면에서 고려에게 우선 외교 대상국이었다.

1014년 9월 고려 원정에 나선 거란군은 통주를 공격했으나 홍화진의 鄭神勇 등에게 배후를 공격당해 압록강으로 퇴각했다가 전열을 재정비하여 1015년 1월 홍화진과 통주를 다시 공격했지만, 이번에도 高積餘와 趙弋 등이 활약한 고려군에게 패배를 당하고 돌아갔다. 거란은 또다시 사신을 보내 강동 6주 반환을 주장하며 협박했으나, 앞선 전쟁에서 거란을 물리친 고려는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여 사신으로 온 耶律行平을 억류해버렸다. 거란은 급히 樞密使 耶律世良, 殿前都點檢 蕭屈烈 등을 주장으로 삼아 원정군을 편성했다. 역시 1015년 9월에 監門將軍 李松茂를 보내 6성을 요구하며 고려의 의사를 타진하는 절차를 밟은 뒤 곧이어 9월에 통주를 공격했다. 고려에서도 손실이 있었지만, 거란은 여전히 通州와 寧州 공격에서 실패하고 兵馬判官 王佐와 錄事 盧玄佐를 사로잡아 압록강 이북으로 철수했다. 11월 거란 황제의 조서로 上京과 中京의 諸宮에서 5만 1천 명의 정예병을 선발해 동정군을 증강시키더니, 1016년 1월 耶律世良과 蕭屈烈이 증강된 군사를 이끌고 郭州를 침략해 고려군 수만 명을 사상시키고 군수물자를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고려 측에서도 거란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서, 1월 초 거란 사신 10명

72) 『續資治通鑑長編』 권74 진종 대중상부 3년 11월

73) 『續資治通鑑長編』 권74 진종 대중상부 7년 동10월, 12월 丁卯

이 압록강에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고,<sup>74)</sup> 이 해부터 송의 연호 大中祥符를 썼다.<sup>75)</sup> 994년 1차전 수습을 위해 거란 연호를 시행한 이후 22년 만에 중단하고 공공연히 송과의 관계로 돌아감을 표명한 것이다. 1017년 2월에 國舅帳詳穩 蕭隗窪에게 고려 동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실행되지 않았는지 전선의 움직임은 없었다. 연이은 고려 원정이 거란 측에도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5월에 다시 樞密使 蕭合卓을 도통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劍을 내려 군대에서의 독자적인 처벌권인 專殺의 권한까지 부여해 주었다.<sup>76)</sup> 그러나 결연한 승전의지를 보이며 황제가 독려를 아끼지 않고 출정시킨 소합탁의 군대도 9일간 계속된 흥화진 공격에서 크게 손실을 입고 회군했다.<sup>77)</sup>

그러나 거란은 고려의 복속과 강동 6주의 탈환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또 한번의 결전을 감행했다. 고려는 1018년 10월에 禮賓少卿 元永을 거란에 보내 화친하기를 청했지만 거란의 고려 정벌계획을 지지하지 못했다. 1018년 10월에 거란은 東平郡王 蕭排押을 都統으로 삼아 고려 정복 대작전 명령을 발동했다. 그 전달부터 聖宗은 전국의 말을 모아 고려 원정군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총 10만 이상의 병력을 고려 침공에 동원시키고, 변방의 고려 守吏들에게는 항복하라는 회유와 위협을 가했다.<sup>78)</sup> 한편 고려 역시 국운을 건 大戰을 준비하여 姜邯贊을 上元帥로 姜民瞻을 부관으로 임명하고 20만 8천여 명의 출정군을 寧州에 배치해서 북계 주진군과 합하면 약 30만 명에 달하는 규모의 방어군을 편성했다. 거란군은 압록강을 넘어 흥화진을 우회하여 곧장 개경으로 가려 했는데, 흥화진성 부근 개천에서 牛皮를 이용해 물을 막아놓고 있다가 거란군이 건널 때 독을 터뜨리고 복병을 내어 대승을 거두었다. 개

74) 『고려사』 권4 현종 7년 정월 甲寅

75) 앞서 말한대로 이때 郭元이 송에 가서 표문을 올려 거란과의 사정을 알렸다. 송 진중은 파악에게 후히 대하고 고려 왕에게 7통의 조서를 내려주었으나, 송은 거란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원칙적으로 거란과 고려가 화평을 지키는 것을 지지한다는 詔諭를 보낼 뿐이었다.

76) 『遼史』 권15 성종기 개태 6년, 5월 戊戌朔

77) 『고려사』 권4 현종세가 8년 8월 28일 계사; 『遼史』 권15 성종기 개태 6년 9월 을묘

78) 『遼史』 권16 성종기 개태 7년 동10월 丙辰

경으로 진군한 거란군도 뒤에서 추격한 姜民瞻 군대에 격파당했다. 고려는 개경으로 신속히 방어력을 집중시키고, 城外 民戶를 성내로 옮기고 淸野작전으로 거란군과의 장기전에 대비했다.<sup>79)</sup> 개경 근처 전투에서 패배한 거란군은 개경 공격을 포기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회군 길에서도 고려의 반격에 계속 패배를 당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고려의 ‘龜州大捷’으로 알려진 1019년 2월의 전투로 거란군은 겨우 수천 명만 살아남는 정도로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sup>80)</sup>

### 3\_ 전쟁 종결과 양국 관계의 확정

소배압의 원정군이 만신창이로 귀환하자 거란 성종은 대노하여 소배압에게 낮 가족을 벗긴 후 죽이겠다고 분풀이를 했으나 결국 사면하고 유공 장병들에게 金帛을 하사하고 전몰자 가족을 위로하며 패전의 뒤처리를 서둘렀다. 고려는 고려대로 전사자들에게 벼슬을 추증하고 가족을 위로하며 전쟁기간 피해를 입은 지역에 양식을 내려 주었다.

이 해 여름에 접어들면서 양국 사이에는 전쟁 종결을 위한 모종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현전하는 자료만을 가지고 구성해 보면, 이때의 대화는 거란에서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고려에서도 곧바로 협상에 임하면서 양국관계는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물론 참담한 패전 후 곧바로 고려 원정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음을 郎君 曷不呂 등에게 제부 군대를 인솔해 大軍을 모아 고려 토벌을 준비시켰다는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sup>81)</sup> 그래도 5월에 거란 東京文籍院少監 烏長公이 고려에 와서 왕을 알현했으며 이어서 8월에도 東京工部少卿 高應壽가 고려에 왔으며,<sup>82)</sup> 고려에서는 대화 가능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8월 거란의 高應壽가 고려에 온 즈음에 考功員外郎 李仁澤

79) 『고려사절요』 권3 현종 10년 춘정월 庚申, 辛酉

80) 『고려사절요』 권3 현종 10년 2월 기축삭

81) 『遼史』 권16 성종기 개태 8년 8월 庚寅, 遣郎君曷不呂等率諸部兵會大軍討高麗.

82) 『고려사』 권4 현종세가 10년 戊辰

을 거란 동경에 보냈다.<sup>83)</sup> 거란이 추가전쟁과 타협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듯이 고려 측에서도 양면 작전을 썼다. 거란과의 사이에 사절이 오고 가던 때에 송에도 정례적인 사신을 보냈다. 8월 이인택이 거란에 갈 때, 禮賓卿 崔元信과 李守和가 송에 賀正使로 갔다.<sup>84)</sup>

그 사이 대화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거란의 출병계획은 중지되었고 겨울에 거란에 간 조공사절의 공물을 거란 성종이 조서를 내려 받아들이고,<sup>85)</sup> 양국의 강화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다. 1020년 2월에 李作仁이 表文을 받들어 거란에 가서 이전대로 “稱藩納貢”할 것을 청하고, 1015년 거란의 침공 때부터 어느덧 만 5년이나 고려에 억류해 두었던 耶律行平 등을 돌려보냈다.<sup>86)</sup> 『遼史』에서도 그해 5월의 기사로, 야율행평의 귀환과 고려왕의 칭번납공 요청 사실에 이어 사신을 보내 고려왕 현종의 죄를 풀어주고 그 청을 운허했다는 표현을 써서<sup>87)</sup> 양국관계가 정상화 국면에 들었음을 전하고 있다. 고려에서는 기왕에 거란에게 稱藩納貢하기로 결정하자, 사대 외교의 핵심인 국왕 책봉과 연호 사용이라는 형식의 복원을 결정하고 빈번히 사절을 보내면서 우호관계를 다져갔다. 고려 현종은 1020년 4월에 왕자 欽을 延慶君으로 책봉한 뒤, 일부 宰臣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禮部尙書 梁稔과 刑部侍郎 韓去華를 거란에 보내 이 사실을 보고했다.<sup>88)</sup> 1022년 4월에는 거란에서 御史大夫 上將軍 蕭懷禮 등이 冊王使로 와서 고려 현종을 開府儀同三司尙書令上柱國 高麗國王 食邑 一萬戶食實封一千戶로 봉했으며 고려는 이에 상응하여 6년 만에 거란 연호를 다시 사용했다. 양측 모두 주요 행사와 절기에 사절을 파견하며 책봉조공관계를 상호 확인했다.

이로써 고려와 거란의 근 30년에 걸친 긴 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나고 양국

83) 『고려사』 권4 현종세가 10년 8월

84) 『고려사』 권4 현종세가 10년 8월 己丑

85) 『遼史』 권16 성종기 개태 8년 12월 辛亥

86) 『고려사』 권4 현종 11년 2월, 3월 癸丑

87) 『遼史』 권16 개태 9년 5월 庚午, 辛未

88) 『고려사』 권4 현종세가 11년 하4월 정미

은 이후 100년 정도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갔다. 거란은 1021년 聖宗에게 존호를 봉상하는 受冊禮를 올리는데, 이때 송, 서하, 고려의 축하 사절이 모두 참석했다. 『遼史』의 기록은 송의 사신을 '來聘'으로 西夏와 高麗 사신을 '來貢'했다고 구별하고 있다. 아무튼 모처럼 전쟁이 종식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분위기를 천명하려는 듯, 거란은 1021년을 '太平'으로 개원했다.<sup>89)</sup>

30년 전쟁의 결과, 거란은 고려의 사대외교 방향을 송에서 거란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고려의 사대와 조공을 받는 중주국은 중원의 송이 아니라 거란이 된 것이다. 그러나 거란이 30년에 걸친 고려 침공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거란은 우세한 군사력으로 고려를 복속시켜 통치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1차 전쟁 때는 아직 송과의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던 만큼 고려의 칭신조공의 조건으로 쉽게 물러났지만 전연지명 이후로는 그 자세가 달라졌다. 고려를 제외하고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게 된 거란은 고려에 대한 통치권을 확고히 하여 여전히 송과의 전통적 관계로 복귀하려는 고려를 더 강하게 복속시키고, 아울러 1차 전쟁 때 요동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아직 약했을 때 고려에 허락한 강동 6주의 영유권을 탈취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1010년 2차 전쟁 때 고려의 내정 문제를 빌미로 침략하기 시작하여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무력을 통해 전연지명 이후 송을 압도한 동아시아 유일한 맹주로서의 위상을 고려에게도 확실하게 인정받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거란으로서는 거의 총력을 기울인 이 전쟁이 번번히 실패로 끝나자 고려와의 전쟁을 더 이상 끌고 나갈 수 없었고 고려와의 책봉조공관계를 회복하는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고려는 30년 전쟁에서의 선전으로 거란 앞에서는 물론 동아시아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이후로도 거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춘 것은 아니지만 강대국인 거란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관계를 100년 이상 유지하게 되었다. 거란으로부터 강동 6주를 지키고 압록강 연안까지의 영토를 확보했으며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거란에 대해 조공관계

89) 『遼史』 권16 성종기 태평원년 11월 계미

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가는 한편 고려는 송에 동시에 사절을 파견했다는 점이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선전을 했고 결국 거란의 고려 정벌을 무산시켜 자신감을 얻게 된 고려로서는 거란과의 협상에 일방적인 굴복 자세를 취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전쟁이 수행되는 동안 고려에는 거란인들이 연속해서 來投해 오기도 하고 흑수말갈, 또 송의 상인들까지 고려에 헌물을 가지고 조빙했다. 동서여진이 모두 고려에 귀부하여 방물을 바치고 賜物을 받아가기도 하고 거란에서 받은 직업을 고려에 바치고 고려에 귀부하는 무리도 있었다. 여진 제부족은 늘 주변 힘의 균형이 바뀔 때마다 민감하게 강한 쪽을 쫓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고려가 실질상 승리를 거두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움직임이었다.

이는 거란이 원했던 정도의 지배복종관계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조공책봉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거란 군사력을 거의 무력화시킬 정도로 선전한 고려는 거란 앞에서는 물론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해서 외교상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거란에 대해 명분상 조공관계를 맺지만 그것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국제관계에서도 신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 거란에 조공하면서도 꾸준히 송과의 사행관계를 유지한 것이나, 1026년 거란이 耶律骨打를 보내 동북 여진으로 가기 위한 假道를 요청했을 때 단호히 거부한 일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sup>90)</sup> 그렇다고 해서 고려가 이전처럼 거란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타파하려 분투한 것은 아니다. 30년 전쟁 이후 고려는 국제사회의 중심세력이 교체된 것을 인정하고 북방민족에 대한 조공책봉을 통해 새로운 중심세력과 공존해 가는 외교노선을 견지했다. 1029년 거란 동경에서 大延琳이 난을 일으켜 興遼國을 건립하고 고려에 군사적 지원을 거듭 요청하자 고려 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응하지 않았으며, 흥요국이 멸망한 뒤 오히려 동경 수복을 축하하는 사절을 거란에 보냈다.<sup>91)</sup> 30년 기간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고려와 거란의 '호혜적 상호

90) 『고려사』 권5 현종 17년 윤5월 갑자

91) 『고려사』 권94 崔士威傳; 『고려사절요』 권3 현종 20년 12월

승인<sup>92)</sup>의 의미로서 조공책봉 관계가 확정되었고 양측 모두 안정된 외교관계를 깨지 않고자 하는 현상유지의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 IV. 맺음말: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상 30년 전쟁의 의의

고려와 거란의 30년 전쟁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학상 무게 중심이 중국에서 거란으로 옮겨 가는 마지막 단계의 과정이었다. 30년 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고려와 거란 관계의 변동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30년 전쟁 기간이 바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심이 움직인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였다.

3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란은 강력한 기마민족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갔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동아시아 사회의 중심이던 중국이 분열 상태에 있어서 거대한 제국과 충돌할 일이 없었다. 그러나 980년대에 들어 송이 중국 대부분을 통일하며 당을 잇는 중원의 제국으로 부상하고 더구나 오대 시대 때 거란에게 넘어간 연운 지역 문제로 충돌이 불가피하여 팽창 일로에 있던 거란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상대가 되었다. 그런데 거란로서는 중국 못지않게, 아니면 더욱 적극적으로 통제를 가해야 할 곳이 만주의 여진과 같은 부족이었다. 이전까지는, 직접 경계를 맞대고 있는 송과 여진에 비해 고려는 거란에게 시급히 외교관계를 확정해야 할 상대는 아니었고 이는 고려의 입장에서든 마찬가지여서, 고려는 발해 문제로 장기간 거란을 도외시키고 거란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980년대 이후,

92) 윤영인(2007)은 10~13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사회를 다원적 국제관계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때 조공책봉은 임명과 종속이 아니라 호혜적 상호승인의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거란은 송과 여진 두 적대 세력 사이에서 협격을 당하지 않도록 고도의 군사 전략을 써야 했고, 이에 중국과 오랜 통병, 사대관계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여진 제 부족들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고려의 존재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어린 성종의 섭정인 거란의 승천태후의 통치하에서 국내 정치의 안정을 다진 거란은 중원의 송과 동부 요동과 한반도 쪽의 양 전선을 번갈아 압박하여 양쪽의 적대세력의 연합을 원천적으로 막는 전략을 썼다. 983, 986년 두 차례 요동정벌에서 성과를 올리고, 이어서 남쪽 송과의 전역에서도 승리하자 다시 공격 전선을 동쪽으로 옮겨 992년부터 고려 전쟁에 착수한 것이다. 만주와 몽골, 서부의 당항족까지 거의 그 지배하에 두게 된 거란로서는 동쪽으로 여진과 특히 고려의 복속도 미뤄 둘 수 없는 과제였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중원의 한족 국가에 사대관계를 유지하고 거란과 외교관계조차 거부하고 있던 고려는 송과의 전쟁에 앞서 무력으로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993년 1차전에서는 일단 고려의 조빙약속을 받는 선에서 물러났다. 송 쪽으로 전선을 돌려야 했고 고려의 저항력도 가벼이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고려의 강동 6주 개척으로 여진 세력을 압록강 유역에서 몰아낸 것은 거란으로서도 전혀 손해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측은 서둘러 강화를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994년의 강화는 양쪽 모두에게 미봉책에 불과했다. 고려는 태조 이래 금수지국이라며 소원하게 대했고 문화적으로도 이질적으로 느끼는 거란에게 臣服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웠다. 형식적인 조공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기회를 보아 宋과 전통적인 사대조공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다. 거란은 송의 연운 16주 수복 의지를 무력으로 꺾고 전연지맹을 체결해 동아시아의 사실상 패권을 확정하게 되자 고려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고 강동 6주의 요지도 탈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성취하고자 했다. 거란의 예상과 달리 고려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일은 훨씬 어렵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5회 이상의 전쟁은 양측의 외교 방침이 충돌하고 힘의 대결로써 그것을 조율하는 긴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거란은 어쩔 수 없이 완전한 종속이 아니라 명분상의 상하질서인 조공관계로써 고려에게 상국이라는 지위를 인정받고 국제 사회의 중심임을 의례화하는

데서 만족해야 했다. 고려는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는 전과를 올려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서 거란 및 다른 국가들과 교섭하게 되었다. 거란과 조공책봉관계를 맺고 그 연호를 사용하지만, 고려는 외교상 운신의 자유가 있었다. 송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졌고, 여진과도 교빙관계를 이어갔다. 그렇지만 중원왕조인 송에게 주변국들 관계를 조정하는 맹주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동아시아를 규율하던 조공질서의 중심이 북방민족 거란에게로 이동하였음을 분명히 인정했다. 당시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사회에는 정기적이든 아니든 당시 거란에게 조공을 한 국가가 59개국이나 되었다.<sup>93)</sup> 거란에 사대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세력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을 견지했다.

거란과 고려의 전후에 수립된 관계가 바로 10세기 이후 나타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단일한 중심세력 아래에 일원적인 상하관계가 성립되기도 어려웠고, 또 명목적인 세력 重心이 있다 해도 그것은 중국의 왕조가 아니라 북방의 정복왕조였다. 맹약관계에 있던 거란과 송은 물론이고 명목적인 조공책봉관계에 있던 거란과 고려, 고려와 여진, 송과 서하 등, 대개가 비교적 평등한 위치에서 복잡하지만 자유로운 외교노선을 선택했던 다수의 주체들이었다.

93) 『遼史』 권36 兵衛志下 遼屬國

## 참고문헌

『契丹國志』(廣文書局)

『高麗史』(亞細亞文化社, 1990)

『高麗史節要』(亞細亞文化社, 1973)

『宋史』(中華書局)

『續資治通鑑長編』(中華書局)

『遼史』(中華書局, 1974)

高句麗研究會 編, 1999,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학연문화사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90, 『麗遼戰爭史』

국사편찬위원회, 1995, 『한국사』 15

金渭顯, 2004a,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景仁文化社

金渭顯, 2004b, 『契丹 東方經略史 研究』, 명지대학교출판부

金在滿, 1974, 『契丹民族發展史의 研究』, 讀書新聞社出版局

金在滿, 1999, 『契丹 · 高麗關係史 研究』, 國學資料院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동북아역사재단, 2005,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연구총서 8

서병국, 2006, 『거란제국사연구』, 한국학술정보

申採湜, 2008, 『宋代對外關係史 研究』, 한국학술정보

안주섭, 2003, 『고려거란전쟁』, 경인문화사

이정신, 2004,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景仁文化社

장학근, 2004, 『고려와 북진정책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全海宗, 1974, 『韓中關係史 研究』, 一潮閣

池内宏, 1937, 『滿鮮史 研究』 中世編 1 · 2 · 3, 吉川弘文館

Rosabi, Morris ed., 1983, *China among Equal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ao, Jing-shen, 1988, *Two Sons of Heaven: Studies in Sung-Liao Relations*,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Wittfogel, Karl A., Feng Chia-Sheng, 1946,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 姜性文, 1983, 「高麗初期의 北界開拓에 대한 研究」, 『白山學報』 27
- 姜性文, 1996, 『渤海·高麗史 研究』, 白山資料院
- 具山祐, 1992, 「高麗 成宗代 對外關係의 展開와 그 政治的 性格」, 『韓國史研究』 78
- 김대영, 2007, 「高麗 顯宗·德宗代 對契丹(遼) 關係를 둘러싼 관리들 간의 갈등」, 『역사학연구』 29
- 김대연, 2007, 「고려 현종의 즉위와 거란의 침략원인」, 『한국중세사연구』 22
- 김순자, 2006,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압록강선 확보 문제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고구려연구재단
- 김순자, 2009, 「고려전기의 거란[遼], 여진[金]에 대한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제26호
- 金昌洙, 1960, 「高麗와 興遼國」, 『黃羲敦先生古稀記念 史學論叢』, 東國大學校出版部
- 羅鍾宇, 1995, 「5대 및 송과의 관계」,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5
- 羅鍾宇, 2002, 「10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와 거란관계」, 『戰史』 46
- 박중기, 1998, 「11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정국운영론의 추이」, 『역사와 현실』 30, 한국역사연구회
- 朴漢勇, 1995a, 「10-12세기 동아시아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 10-12세기 동아시아정세」,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5
- 朴漢勇, 1995b, 「북방민족과의 관계: 거란 및 금과의 통교」,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5
- 沈載錫, 2002, 「고려와 遼의 책봉관계」, 『高麗國王 冊封 研究』, 혜안
- 오장환, 1956, 「흥화진의 위치의 재검토」, 『력사과학』 2호
- 尹炳炆, 1953, 「高麗北界地理考」(上)·(下), 『歷史學報』 4·5
- 윤영인, 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다원적 국제질서에서의 책봉과 맹약」, 『동양사학연구』 101
- 윤영인, 2010, 「10-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 李基白, 1977, 「高麗의 北進政策과 鎮城」, 『東洋學』 7
- 이석현, 2005, 「高麗와 遼金の 外交관계-朝貢冊封關係를 중심으로」, 『한중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 李龍範, 1977, 「高麗와 契丹과의 關係」, 『東洋學』 7
- 李在範, 1999, 「麗遼戰爭과 高麗의 防禦體系」, 『韓國軍事史研究』 3

- 채웅석, 2006,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고려」,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 崔圭成, 1999, 「徐熙의 北方政策」,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학연문화사
- 피터 윤, 2005, 「몽골 이전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 『만주연구』 3
- 허인욱, 2008, 「고려 성종대 거란의 1차 침입과 경계 설정」, 『전북사학』 33
- 奥村周司, 1984, 「使節迎接禮より見た高麗の外交姿勢—十一・十二世紀における對中關係の一面」, 『史觀』 110
- 日野開三郎, 1961, 「統和初期に於ける契丹聖宗の東方經略と九年の鴨綠江口築城」, 『朝鮮學報』 21·22合輯
- 池内宏, 1918, 「高麗聖宗朝に於ける女眞及び契丹と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The Thirty Year War between Goryeo and the Khitans and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Yuk Jungim

The changes in the Khitans–Goryeo relations during their war of 994–1019 directly reflected the shift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This author proposes to call this war the “Thirty Year War.” The customary designation among scholars is 1st~3rd war, with differing time periods depending upon who draws the line, but this does not agree with the historical descriptions. A time–line division is nothing more than a chronology, and it does not reflect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200 years of Goryeo–the Khitans relation, the thirty–year war of 993~1022 should be considered as one continuous war, not a three–part episode. Thus this author believes the name “Thirty Year War” should be used and further subdivision should be divided by the Shanyuan Treaty from the aspect of East Asian politics.

In 980, Song united China by defeating Northern Han, and Song and the Khitans now faced each other directly. The Khitans launched an eastward campaign against the Jurchens in Liaodong. Meeting this challenge brought about by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as the task for both the Khitans and Goryeo. The Khitans responded to this challenge by reinforcing their military forces and expanding their war effort, rushing the early completion of the eastward campaign in Liaodong. On the other hand, Goryeo stayed loyal to China and

strengthened the traditional tributary relationship.

The Khitans tried to sever the Song–Goryeo and the Song–Jurchen relationships by invading Goryeo in 993 after they had successfully repelled Song Taizong's northern campaign in 986. Goryeo agilely signed a peace treaty with the Khitans, with the condition that Goryeo would pay tributes to the Khitans in return for the recognition for the right over six prefectures in Kangdong, the Khitans was in dire need to focus on the Song front, and the removal of the Jurchens from the Yalu River area by Goryeo's opening of six prefectures Goryeo was a relief for them, and thus the peace treaty was agreeable for both parties.

The peace treaty of 994 was but a temporary expedient for both parties. Goryeo had not been on favorable terms with due to their different cultural heritages, thus it was hard to accept the status of paying tribute. They tried to maintain the status quo by playing the official tributary card while seeking ways to restore the traditional tributary loyalty with Song. After the Khitans finally dismantled Song and rose to be the power of East Asia through the Shanyuan Treaty, they soon increased the pressure on Goryeo. The military campaign from 1010 was not very successful compared to their initial expectation. Until 1019, they launched a multitude of large scale military campaign only to retreat due to the strong resistance of Goryeo.

The Khitans had to accept Goryeo's recognition as the formal superior power by resorting to the tributary order, much less the absolute subordinate relationship. Goryeo was now in a better position in international political theater since they had repelled the Khitans out of Goryeo. Goryeo sent tribute to the Khitans and adopted the Khitans calendar, yet they could play their own cards to a certain extent. Song was kept in friendly terms, and the relations with the Jurchens was also

kept open. Still, Goryeo sought to balance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by recognizing that the tributary order was now in the hands of the northern the Khitans.

The new post-war the Khitans-Goryeo relationship w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new East Asian international power order. Now the power hierarchy under a single power was difficult to achieve. Even if there were to be one power, now it was not the Chinese court, but the conquest dynasty of the north. The members of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political games, bound by treaties like the Khitans-Song as well as nominal tributary states such as Goryeo-the Khitans, Goryeo-Jurchen, or Song-Xixia, were all independent sovereign players who played their own cards at their pace.

#### Keywords

The Thirty Year War between Goryeo and the Khitan,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Goryeo's foreign relations, the Khitans's foreign relations

# 12세기 초 국제 정세와 麗金 간의 전쟁과 외교

조복현 |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I. 머리말

10세기에서 13세기까지 현재 중국 영토의 내부와 인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즉, 五代 시기에 10국을 제외하고도 北宋과 遼, 남송과 金이 대치하는 가운데 인근에는 고려와 西夏를 비롯하여 吐蕃, 大理, 大越 등의 국가들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비록 북송과 遼 혹은 金과 南宋이 대치하는 국면을 형성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 국가도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지는 못했고, 인근의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르거나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였던 대단히 다이내믹한 시대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어떤 양자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당시의 해당하는 양자와 인접한 혹은 관련된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틀을 기반으로 보아야만 한다.

중국의 解放軍出版社에서 출판한 『中國軍事史』의 부록인 「歷代戰爭年

表」를 보면 북송왕조가 존속하던 167년간 중국 내부 혹은 인근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 있었던 256차례의 전쟁을 수록하였고, 南宋이 존속하던 152년간에는 모두 295차례의 전쟁을 수록하고 있다.<sup>1)</sup> 그만큼 이 시기에는 많은 왕조가 건립되고 멸망함에 따라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쟁은 때로는 소규모 전투도 있지만 대규모의 전쟁도 적지 않아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북방민족사와 관련된 연구 동향 중에 비교적 두드러진 점이 기존에 고구려사에 관한 연구에 치중했던 점과는 달리 발해 및 발해 멸망 이후의 遼·금과 송 및 고려사의 연구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지하듯이 이미 북송과 遼가 맺었던 ‘澶淵之盟’은 이미 더 이상 성하의 굴욕이 아닌 민족 간의 융합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남송과 금의 사이에서 맺었던 ‘紹興和議’에도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특징적인 모습이다.

그러면 본고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고려와 금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일찍이 1950년대부터 연구가 꾸준하게 있었지만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sup>2)</sup> 1980년대까지는 대만 학자들의 연구

1) 『中國軍事史·歷代戰爭年表』 下冊, 解放軍出版社, 1986

2)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으로는, 김상기, 1959, 「高麗와 金·宋의 關係」, 『국사상의 제 문제』 5, 국사편찬위원회; 1959, 「금의 시조에 대하여」, 『국사상의 제 문제』 5, 국사편찬위원회; 1959, 「女眞關係의 始末과 尹瓘의 北征」, 『국사상의 제 문제』; 이세현, 1971, 「高麗前期의 女眞關係에 대하여 - 여진의 來朝와 來投를 중심으로」, 『군산고대논문집』 4; 홍종출, 1972, 「고려 인종기에 있어서의 금과의 관계에 관한 소고」, 『목포해양고등전문대논문집』 6; 이석현, 2008, 「麗金 外交關係의 성립과 성격: 冊封問題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57; 朴漢男, 1992, 「12세기 高麗의 對金政策論議에 대하여 - 인종4년 백관회의 참석자를 중심으로」,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上),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刊行委員會 등이 있다. 저서로는 김상기, 1974, 「高麗와 金宋과의 關係」, 『東方史論叢』, 서울대출판부; 朴宗基, 1994, 「고려시대의 대외관계」, 『한국사』 6, 한길사; 김순자, 2002, 「고려전기 대중국관계사 연구의 현상」,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金渭顯, 2004,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景仁文化社 등이 있다.

성고가 적지 않은데<sup>3)</sup> 이는 당시에 수교 중인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륙의 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1980년대 이후로 수십 편에 이르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sup>4)</sup> 한편 일본에서는 20세기 초에 池内宏이 고려와 금의 관계에 대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이외에 일부의 학자들이 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로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북부와 그에 인접한 지역의 女眞人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고, 그 가운데 고려는 일관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취해 왔다. 비록 여진의 세력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상황에서 이전의 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실적 상황에 따라서 금의 요구를 승낙하는 서표 등을 올려서 충돌을 피하면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金 또한 고려로부터 9城을 받을 당시에 돌멩이 하나도 던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였다. 아래에서는 여진의 세력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遼와 北宋이라는 기존의 두 왕조를 멸망시키는 시기에 국제 정세와 고려와 금의 관계가 진행되는 상황을 金 건국 이전, 金 건국 초기, 金이 遼를 멸망시키는 시기 및 北宋의 멸망과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서 서술하고자 한다.

- 
- 3) 黃寬重, 1986, 「高麗與宋·金的關係」(『韓國學報』 5, 1985), 『亞細亞文化』 1, 翰林大學; 1987, 「高麗與宋·金的關係年表」, 『大陸雜誌』 74-1-6; 王民信, 1985, 「高麗史女眞三十姓部落考」, 『政大邊政研究所年報』 16; 趙振績, 1988, 「女眞族系與高麗之關係」, 『韓國學報』 7; 王德毅, 1994, 「金與高麗的關係」, 『國立臺灣大學歷史學系學報』 18, 1994년 12기
- 4) 孫進己, 1985, 「遼代女眞與高麗的關係」, 『朝鮮史研究』, 1985년 6기; 王崇時, 1986, 「十至十二世紀初女眞與高麗的關係」, 『北方文物』, 1986년 3기; 景愛, 1990, 「遼代女眞人與高麗的關係」, 『北方文物』, 1990년 3기; 蔣秀松, 1994, 「女眞與高麗間的“曷懶甸之戰”」, 『民族研究』, 1994년 1기; 何適之, 1998, 「論十二世紀初金與高麗外交」, 『江海學刊』, 1998년 4기; 孟古托力, 2000, 「女眞及其金朝與高麗關係中幾個問題考論」, 『滿語研究』, 2000년 1기; 孟古托力, 2000, 「女眞, 金朝與高麗關係的幾個問題考論」, 『金史研究論叢』, 哈爾濱出版社; 魏志江·潘清, 2001, 「女眞與高麗曷懶甸之戰考略」, 『中山大學學報』, 2001년 5기

## II. 金 建國 이전 高麗 - 女眞의 전쟁과 외교

최근에 중국 측의 연구 성과를 분석해 보면 고구려나 발해 및 金 등 각 왕조와 한반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여진족의 경우에는 발해 멸망 전에는 기본적으로 松花江 중류 이북과 牧丹江 하류 이북과 이동에 거주하면서 고려와는 영토를 접하지 않아서 쌍방 간에 왕래가 극히 적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up>5)</sup> 하지만 여진족은 대체적으로 고구려 멸망 이래로 흑룡강 이북에서 한반도의 북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며 金王朝를 건국하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고려에 예속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사서는 물론이고 중국의 사서에서도 常見되는 바이다.

完顏部の 세력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시기에도 고려에 인접한 東·西女眞은 계속해서 고려에 來朝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또한 曷懶甸의 전쟁이 발생하는 시기의 양측관계를 보면 고려를 향해 조공하거나 來投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보인다.<sup>6)</sup>

고구려의 故土를 회복한다는 기치 아래 북진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온 고려의 입장에서는 현재 두만강에서 咸興에 이르는 曷懶甸地域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부족 내 통합을 이루려는 女眞 完顏部の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遼東과 나아가 중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대고려관계에만 진력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주지하듯이 元代에 蒙固人 脫脫 등이 편찬한 『宋史』·『遼史』·『金史』는 중국의 정사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史書이다. 曷懶甸의 전쟁과 관련된 중국 측 史書의 기록은 매우 소략하여 『金史』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5) 王崇時, 1986, 「十至十二世紀初女眞與高麗的關係」, 『北方文物』, 1986年 3期, 49쪽

6) 12세기 초반에 女眞이 高麗에 來朝하는 사례는 1100년에 2회, 1101년에 6회, 1102년에 5회, 1103년에 6회, 1104년에 2회 등 5년에 걸쳐서 21차례에 달한다.

4年 丙戌에 고려가 黑歡方石을 보내서 작위의 세습을 축하하여 杯魯를 보내서 이에 답례하였다. 고려가 그곳으로 도망한 모든 女真人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여 阿聒·勝昆으로 하여금 받아오게 하였으나 고려가 약속을 어기고 2人을 죽이고 曷懶甸에 9城을 築造하고 數萬의 군사로 공격해 오자 韓賽가 擊破하였고, 韓魯도 역시 9城을 축조하여 고려의 9城과 相對하였다. 고려가 다시 공격해 오자 韓賽가 격파하였다. 고려가 領內로 도망해 온 女真人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며 9城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점령한 지역을 돌려주었다.<sup>7)</sup>

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려가 공격해 온 시기가 烏雅東이 生女眞部節度使를 세습한 지 4년째 되는 1106년의 일로만 기록하였고, 고려의 병력에 대해서도 그저 수만 명으로 기록하고 구체적인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다만 女眞이 두 차례에 걸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曷懶甸의 전쟁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반해 한국 측의 『高麗史』와 같은 경우는 曷懶甸의 전쟁에 대하여 연월일에 따라서 대단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1107년 12월에 尹瓘을 元帥로 하고 吳延寵을 副元帥로 하여 17만 대군이 4갈래의 길로 나누어 여진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를 거두고 諸將을 보내어 점령지의 地界를 정하고 雄·英·福·吉 등 4개의 州에 성을 쌓고,<sup>8)</sup> 이듬해 3월에는 다시 宜州·通泰·平戎의 3城을 쌓아 남계의 인민을 이주시켜 신축한 9성을 채웠다.<sup>9)</sup>

이처럼 曷懶甸의 전쟁은 초기에 고려가 17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曷懶甸을

7) 『金史』卷1「本紀1·康宗烏雅東紀」, 中華書局, 195年, 16쪽. “高麗遣黑歡方石來賀襲位, 遣杯魯報之. 高麗約還諸亡在彼者, 乃使阿聒·勝昆往受之. 高麗背約, 殺二使, 築九城於曷懶甸, 以兵數萬來攻. 韓賽敗之. 韓魯亦築九城, 與高麗九城相對. 高麗復來攻, 韓賽復敗之. 高麗約以還逋逃之人, 退九城之軍. 復所侵故地. 九月乃罷兵.”

8) 『高麗史』卷12「睿宗2年 12月 丙申」, “尹瓘擊女眞大破之. 遣諸將定地界, 築雄, 英, 福, 吉四州城.”

9) 『高麗史』卷12「睿宗3年 3月 庚辰」, “尹瓘又築宜州, 通泰, 平戎三城, 徙南界民以實新築九城.”

점령하고 九城을 축조하고 새롭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때 여진은 和戰 양면 정책을 취하는 태도를 보였다. 『고려사』에서는 윤관이 초기에 승리를 거두자 일부의 여진이 항복하여 그해 12월에는 裒乙乃 등 3,230 명이 來附하였고,<sup>10)</sup> 1108년 1월에는 여진의 추장인 公兪과 阿老 등 403명이 윤관의 陣地 앞에서 항복하였고, 같은 달에 1,460명이 左軍에 항복하였다.<sup>11)</sup> 그러나 이와 같이 항복한 사람들은 여진인들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고, 여진인들의 크고 작은 반격이 계속되었다. 그중 규모가 비교적 큰 전투로는 1108년 1월에 윤관과 오연총이 거느리는 8천 명의 정예군이 加漢村 瓶項에서 여진의 습격을 받아 포위되었다가 兵馬錄事 拓俊京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원을 받은 적이 있고,<sup>12)</sup> 또 여진이 보병 2만으로 英州城의 남쪽으로 공격해 오자 拓俊京이 이를 물리친 바가 있다.<sup>13)</sup> 여기서 전자의 윤관과 오연총이 거느린 8천 명의 정예병을 포위하였다고 한다면 여진의 병력 수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적지 않은 수라고 추정할 수 있다. 후자에 동원된 2만 명의 보병은 이로부터 6년 후에 여진이 처음으로 遼를 공격하는 鴨子河의 전투에 기병 2,500명이 동원되었던 사례와 비교하면 역시 상당히 많은 수이고, 이를 통해서 그만큼 여진의 반격이 대단히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여진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반격을 감행하여 고려를 압박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맹렬하게 반격을 가하면서도 외교적으로 화친을 추구하는 정책도 병행하였다. 1109년 4월에는 국경지역으로 史顯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

10) 『高麗史』 卷12 「睿宗2年 12月 乙巳」, “東女眞裒乙乃等三千二百三十人來附.”

11) 장동익, 2009, 『高麗時代 對外關係史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재단

12) 『高麗史』 卷96 「尹瓘傳」, “率精兵八千, 出加漢村瓶項小路, 賊設伏叢薄間, 候瓘軍至, 急擊之. 軍皆潰, 僅十餘人在, 賊圍瓘等數重, 延寵中流矢, 勢甚危急. 俊京率勇士十餘人將救之, 弟郎將俊臣止之曰: ‘賊陣牢不可破, 徒死何益.’ 俊京曰: ‘爾可歸養老父, 我以身許國. 義不可止.’ 乃大呼突陣, 擊殺十餘人. 弘正·冠珍等, 自山谷引兵來救, 賊乃解圍而走. 追斬三十六級.”

13) 『高麗史』 卷96 「尹瓘傳」, “賊步騎二萬, 來屯英州城南, 大呼挑戰. ……乃率敢死士, 出城與戰, 斬十九級, 賊敗衄奔北.”

하였고,<sup>14)</sup> 6월에도 襄弗과 史顯을 파견하여<sup>15)</sup>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쟁과 동시에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면에는 여진인들의 주변국가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여진인들은 이전 시기에 자신들에 대해 강압적인 통치와 가혹한 수탈을 진행해 왔던 거란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반면 발해에 대해서는 ‘本同一家’라는 의식을 가져왔고, 고려에 대해서는 ‘父母之邦’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거란과는 확연하게 다른 해결책이 제시될 개연성이 있었던 것이다.

여진인이 전쟁과 화친이라는 양면정책을 시행하자 고려는 변방의 상황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9성의 수비와 주변 女眞部落에 대한 회유를 병행하였다. 1108년 3월에는 9성을 築造하고 南界의 백성들을 이주시키고,<sup>16)</sup> 4월에는 尹瓘을 門下侍中·判尙書吏部使·知軍國重事로, 吳延寵을 尙書左僕射·參知政事로 삼고, 內侍·郎中 韓皜如를 보내어 詔書·告身 등을 가지고 雄州에 가서 전하게 하였다.<sup>17)</sup> 그리고 윤관과 오연충이 개선하자 景靈殿에서引見하며 변방의 일을 물어보고, 雄州를 구원하기 위하여 파견된 吳延寵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다시 인견하고 변방의 일을 물어보았다.<sup>18)</sup>

그리고 1109년 1월에는 長齡殿에서 平虜館 밖의 蕃長 50인을 인견하고 酒食과 例物을 하사하였고,<sup>19)</sup> 2월에도 宣政殿에서 延州 關外の 蕃長인 守弗首 등 7인, 淸塞 關外の 蕃長 歸夫 등 18인, 平虜 關外の 蕃長 要弗 등 28인을引見하고 주식·예물을 하사하였다.<sup>20)</sup> 또한 같은 달에 重光殿에서 東蕃의 酋

14) 『高麗史』卷13「睿宗4年 4月 甲辰」, “東女眞復遣史顯款塞請和.”

15) 『高麗史』卷13「睿宗4年 6月 己亥」, “東蕃使襄弗史顯等來朝.”

16) 『高麗史』卷12「睿宗3年 3月 庚辰」, “尹瓘又築宜州·通泰·平戎三城. 徙南界民, 以實新築九城.”

17) 『高麗史』卷12「睿宗3年 4月 壬午」, “以尹瓘爲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 吳延寵爲尙書左僕射參知政事. 遣內侍郎中韓皜如, 齎詔書·告身及紫繡鞍具殿馬二匹, 至雄州, 分賜之.”

18) 『高麗史』卷12「睿宗3年 4月 己丑」

19) 『高麗史』卷13「睿宗4年 正月 戊午」, “御長齡殿, 引見平虜關外蕃長等五十人, 賜酒食例物.”

20) 『高麗史』卷13「睿宗4年 2月 己亥」, “御宣政殿, 引見延州關外蕃長守弗首等七

長果下 등 63인을 인견하고 주식·예물을 하사하는<sup>21)</sup> 등 여진의 추장들을 자주 접견하면서 회유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9성의 신축을 완료한 1108년 3월 이후 계속된 여진의 반격으로 국력이 점차 소진되고, 피로감이 누적되는 가운데 史顯이 와서 화친을 청하였다. 이에 고려의 조정에서는 9성의 환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였다. 5월에는 재상과 추밀사를 불러서 의논하고, 이틀 후에는 다시 文武常參官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6월에는 재상과 대간 및 6부의 상서를 불러서 9성의 환부의 의논하게 하였는데 平章事 崔弘嗣 등 28명이 찬성하고, 禮部郎中 朴昇申과 戶部郎中 韓相만이 반대하여 9성을 여진에게 환부하지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고려의 睿宗은 曷懶甸의 戰況과 국제정세에 대해서 대단히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고려하여 9성의 환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6월 26일에 東蕃의 사신 裒弗·史顯 등이 다시 來朝하고 다음 날 예종은 宣政殿 南門에 행차하여 裒弗·史顯 등 6인을 인견하고 내조한 사유를 宣問하자, 裒弗·史顯 등이 여진의 太師 盈歌·烏雅束의 조상이 고려 출신이기에 부모의 나라로 생각하여 朝貢을 바치고 있음을 말하고 1104년과 그해에 여진을 정벌하는 일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9성을 환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다시 7월에 宰樞·臺省·諸司·知制誥·侍臣·都兵馬判官 이상의 文武 3품 이상을 宣政殿에 모아 9성 還付의 可否를 宣問하니 모두 찬성하여, 裒弗 등을 인견하고 9성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元帥들에게도 9성 환부의 뜻을 전하였다. 그리하여 7월 崇寧鎮과 通泰鎮에서 철수한 것을 시작으로 咸州와 雄州에서도 철수하여 1년 7개월에 걸친 전쟁이 끝났다.

고려와 여진의 曷懶甸의 전쟁에 대해서 『金史』에서는 「本紀」와 「高麗傳」을 비롯한 각종 관련 인물들의 열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 전쟁에 1106년에 발

人, 淸塞關外蕃長歸夫等十八人, 平虜關外蕃長要弗等二十八人, 賜酒食例物.”

21) 『高麗史』卷13「睿宗4年 2月 壬寅」, “御重光殿引見東蕃酋長果下等六十三人, 賜酒食例物.”

생하여 그해에 전쟁이 끝났다고 하였고, 전쟁의 원인이 고려가 영내로 도망 온 여진인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여 阿聶과 勝昆을 시켜서 받아오게 하였지만 고려가 약속을 어기고 두 사람을 죽이고 曷懶甸 지역에 9성을 축조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도 고려가 영내로 도망 온 여진인을 돌려주는 동시에 9성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점령한 지역을 돌려주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曷懶甸의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그리 간단하지 않고 또 이후의 麗金關係 나아가 전체 국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고려가 거국적으로 17만여 명의 군사를 일으켜 9성을 쌓고, 여진도 이를 탈취하기 위해서 소모적인 장기전을 지속하였다고 한다면 이후의 遼金關係, 나아가 宋金關係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이는 睿宗 5년(1110) 정월에 遼에서 衛尉卿 李逢辰을 통해 睿宗에게 전한 조서에서 “승승장구하는 기세로 적을 항복시키고 강토를 넓혀 성을 쌓았으니 이렇게 행동한 것은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한다”<sup>22)</sup>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曷懶甸의 전쟁에 대한 遼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金渭顯은 고려의 여진 정벌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고려와 여진의 국력을 削弱하게 하고자 하는 소위 以夷制夷의 책략이었을 것이라고 하였고,<sup>23)</sup> 중국에서도 孟古托力은 고려와 여진이 계속 소모적인 전쟁을 통하여 국력이 소모되고, 거란은 漁父之利를 얻고자 했다고 주장하였다.<sup>24)</sup>

하지만 고려는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적인 결단을 통해 여진이 다시는 고려는 침략하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평화적으로 9성을 還付해 주었고, 이후에 여진은 遼의 정벌에 진력하고 나아가 北宋까지 멸망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金이 遼와 北宋을 멸망시키고, 南宋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고려와 金 사이에는 커다란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고려는 遼金 교체기의 혼란한 와중에서도 오히려 保州와 來州의 두 城을 획득하면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기에 중국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려의 패배라고 볼 수는 없다.

22) 『高麗史』卷13「睿宗5年正月壬寅」, “因乘勝以納降, 遂開疆而置壘, 載惟施設.”

23) 金渭顯, 2004, 『高麗時代對外關係史研究』, 景仁文化社, 136쪽

24) 孟古托力, 2000, 「女真及其金朝與高麗關係中幾個問題考論」, 『滿語研究』, 2000년 1기, 69쪽

### Ⅲ. 金 建國初期의 국제정세와 麗金關係

여진에 관한 기록은 일찍이 『春秋左傳』을 비롯한 많은 전적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발전 단계는 매우 완만하였다. 따라서 거란족이 遼를 건국하고 여진족에 대해서 잔혹한 수탈을 계속하였지만 金은 이를 인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11세기까지 계속되었으며, 훗날 여진의 제 부락을 통일한 完顔部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完顔部의 입장에서 보면 거란족의 遼에 대한 감정은 극도로 좋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전과정에서는 遼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었다.

따라서 1102년에 遼의 蕭海里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자 잔당을 이끌고 여진으로 도망하고, 完顔部에 幹達刺를 파견하여 함께 遼를 공격하자고 하였다. 당시 完顔部의 수령인 盈歌는 이를 체포하여 두었다. 마침 遼에서 盈歌에게 蕭海里를 토벌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盈歌는 幹達刺를 遼로 보내고 군사 1천여 명을 모집하였다. 이때 阿骨打가 蕭海里에게 대승을 거두고 蕭海里의 목을 베어 遼에 바쳤다.<sup>25)</sup> 그리하여 盈歌는 遼에 가서 상을 받고 使相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完顔部가 遼에 충성을 다하는 방식으로 遼의 신뢰를 얻으면서 세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이때 完顔部는 遼의 군사력에 허약함을 알게 되었다.

이후 完顔部는 1112년에 이르면 여진의 諸部를 통일하고 다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자 신속하고 강력하게 遼에 대한 정복전쟁을 수행하였다. 결국 女眞族이 1115년에 金을 건국하고 불과 10년의 짧은 시간에 遼를 멸망시키고 그 2년 후에는 다시 北宋王朝를 멸망시키는 과정을 보면 그들의 발전 상황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다.

25) 『金史』卷1「世紀」,“(穆宗九年壬午)冬, 蕭海里叛, 入于係案女直阿典部, 遣其族人幹達刺來結和, 曰: ‘願與太師爲友, 同往伐遼.’ 穆宗執幹達刺, 會遼命穆宗捕討海里, 穆宗送幹達刺于遼, 募軍得甲千餘. ……太祖策馬突戰, 流矢中海里首, 海里墮馬下, 執而殺之, 大破其軍. 使阿离合漣獻馘于遼. 金人自此知遼之易與也.”

遼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동원된 여진의 군사 수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도 金이 12년 기간 동안 동아시아의 北宋과 遼라는 양대 강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원인을 자세히 규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진족의 거란에 대한 적개심이 작용했음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고 이는 분명히 고려에 대한 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아래에서는 금과 고려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비교를 위하여 遼와 北宋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金이 수행하였던 전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여진의 입장에서 보면, 전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비록 고려와 曷懶甸을 두고 전쟁을 경험했지만 고려의 외교적 결단으로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갈라전을 확보하고 남쪽 변방이 안정되는 효과까지 얻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서쪽으로 遼를 정벌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여진이 거란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적은 수로 몇 배가 많은 遼의 군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많았다. 예를 들면 金이 건국되기 직전인 1114년에 阿骨打가 병사 2,500명을 통솔하여 拉林水에서 遼로 진군하여 遼軍을 대패시키고 그 장수인 耶律色買를 사살하고, 10월에는 寧江州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에 遼의 司空 肖嗣와 鴨子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동원된 遼軍은 7천 명이었고, 金軍의 숫자는 2,500명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阿骨打는 遼軍을 대패시키고 12월에는 遼의 賓州, 詳州, 咸州와 鐵驪部가 모두 여진에 항복하였다.<sup>26)</sup>

阿骨打가 稱帝하고 金을 건국한 1115년에도 阿骨打는 직접 군대를 통솔하여 遼의 黃龍府에 가까운 益州를 공격하였다. 이때 遼의 天祚帝는 耶律訛里朵(鄂爾多) 등에게 기병 20만과 보병 70만 명을 거느리고 변방을 수비하게 하였지만, 阿骨打는 遼의 天祚帝가 達魯古城으로 親征하자 遼軍을 대패시키고 阿魯崗까지 추격하여 遼의 보병들을 모두 섬멸시킨 바가 있다. 이해 12월에 天祚帝는 군사 70만 명을 거느리고 親征하였다가 遼에서 耶律章嘉努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中京人 侯概가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자 天祚帝는 군사

26) 『中國軍事史·歷代戰爭年表』 下冊, 66쪽

를 이끌고 서쪽으로 돌아갈 때 阿骨打는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獲步答岡까지 추격하여 대패시켜서 遼軍의 시체가 백 리에 걸치고 상실한 물자와 牛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sup>27)</sup>

太祖 天輔元年(1117) 12월에는 遼와 金의 和議가 성공하지 못하자 遼의 耶律淳이 蒺藜山에 이르러 金軍을 공격하였지만 패배하고, 金軍은 額勒錦陂까지 추격하고 顯州를 함락시킨 이외에 乾州와 惠州 등 7州가 모두 金에 항복하였다. 1120년에는 阿骨打가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遼를 공격하는데 3개의 길로 나누어 遼의 上京을 공격하였는데 金의 장수 棟摩部가 外城을 함락시키자 留守인 托卜嘉가 金에 항복하였다.

이처럼 金과 遼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전투들을 보면 金의 군사는 항상 수적으로 열세였고, 그것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타나는 전투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군사의 수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遼·金間 전쟁의 군사 수

연도	전장	여진 병력 수	거란 병력 수
1114	鴨子河	2,500	7,000
1115	獲步答岡	20,000	700,000
1122	石砦驛	1,000	25,000
1123	白水澗	1,000	5,00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遼軍은 천에서 많아야 2만 정도의 군사를 보유한 금을 상대하면서 수 배 혹은 수십 배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遼軍이 북송의 장수 劉延慶의 10만 군대를 상대할 때에는 반대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며 北宋의 군사력이 나약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金이 北宋을 멸망시키는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金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27) 『中國軍事史·歷代戰爭年表』 下冊, 67쪽

한편 고려가 曷懶甸의 9성을 還付하자 여진 추장들의 來朝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1113년에는 烏雅束이 죽고 阿骨打가 즉위하였다. 阿骨打가 즉위한 이후로는 金の 세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遼왕조의 국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세계는 매우 활발한 외교전이 전개되었다. 고려는 이때 여진(金)의 배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阿骨打가 金을 건국하고 稱帝하기 직전인 1114년 10월에 遼의 東京兵馬都部署司가 牒을 보내와 여진의 근거지를 격파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고,<sup>28)</sup> 天祚帝가 70만 대군으로 金을 친정할 무렵인 1115년 11월에 요에서는 다시 사신을 보내 여진 토벌을 위한 發兵을 재촉하였다.<sup>29)</sup>

遼와 金이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외교적인 주도권은 고려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는 遼의 원병 요청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실리를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 9월에 金이 加古撒喝에게 명하여 保州를 공격하게 하자 고려는 保州의 割讓을 요청하기 위해 金에 사신을 보내면서 保州와 來州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두 성과 관련된 『고려사』와 『金史』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1116년 4월에 來遠城과 保州의 流民들이 양과 말 수백 필을 몰고 來投하였고,<sup>30)</sup> 동년 8월에 金의 加古撒喝이 來遠과 抱州 2성을 쳐서 거의 함락하게 되니 統軍 耶律寧이 衆人을 거느리고 도망하려 하였다. 이때 고려는 樞密院知奏事 韓暉如를 보내 耶律寧을 招諭하려다가 실패하자, 다시 金에 사신을 보내 抱州를 돌려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때 고려의 사신은 “保州는 원래 우리의 옛 땅이기에 지금 반환

28) 『高麗史』卷13「睿宗9年 10月」, “是月, 生女眞完顏阿骨打舉兵叛. 遼東京兵馬都部署司牒曰: ‘近有生女眞作過, 止差官領兵討伐, 仰指揮高麗國, 亦行就便, 於女眞邊界道路, 深入攻討, 應據人口·財產·房舍, 收虜蕩除, 仍緊切防備. 勿令走入彼界險要處所, 依據閃避.’”

29) 『高麗史』卷13「睿宗10年 11月 甲申」, “遼遣利州管内觀察使耶律義大理少卿孫良謀來督發兵.”

30) 『高麗史』卷14「睿宗 11年 4月 戊寅」, “幸九梯宮. 遼來遠·抱州二城流民, 驅羊馬數百來投.”

하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阿骨打 또한 고려의 사신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스스로 취하라”고 대답했다.<sup>31)</sup> 1117년 3월에는 來遠城에서 牒을 보내와 民戶의 구제를 위해 쌀 5만 석을 빌려 주기를 청하자, 判西北面兵馬事 金緣으로 하여금 來遠城 統軍 耶律寧에게 두 성과 人民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金兵의 공격을 받아 耶律寧과 刺史 常孝孫 등이 고려의 寧德城에 牒을 보내와 來遠과 抱州 2성을 돌려주고 바다를 건너 도망하였다. 이에 고려는 抱州를 고쳐 義州防禦使로 삼고 압록강을 경계로 삼아 關防을 설치하였다.<sup>32)</sup>

이처럼 保州와 來遠이 고려의 영토가 되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첫째는 保州와 來遠城은 金이 먼저 공격하여 함락의 위기에 빠졌을 때 고려는 韓暉如를 보내 耶律寧을 招諭하려 하였다. 둘째는 金의 태조에게 고려의 사신이 본래 우리의 고토이기에 돌려 달라고 하였고, 阿骨打 또한 스스로 취하라고 하였다. 셋째는 두 성이 金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려 할 때 耶律寧과 刺史 常孝孫 등이 고려에 두 성을 돌려주고 바다를 건너 도망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고려는 두 성이 본래 고려의 故土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金과 遼도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고려가 두 성을 점령하려 할 때에 阿骨打가 고려왕에게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保州는 너희들의 邊境에 가깝고 너희들이 스스로 취하기를 승낙하였다. 지금 이에 나의 군대를 힘들게 동원하여 적의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또한 蒲馬는 단지 말로만 요청하는데 表를 올려서 요청하면

31) 『高麗史』 卷14 「睿宗 11年 8月 庚辰」, “金將撒喝攻遼來遠·抱州二城, 幾陷, 其統軍耶律寧欲帥衆而逃. 王遣樞密院知奏事韓暉如招諭, 寧以無王旨辭, 暉如馳奏. 王欲令樞密院, 具笏子送之. 宰臣諫官奏曰: ‘彼求王旨, 其意難測, 請止之.’ 王乃遣使如金, 請曰: ‘抱州本吾舊地, 願以見還.’ 金主謂使者曰: ‘爾其自取之.’” 그러나 『金史』 卷2 『太祖紀』와 卷135 「高麗傳」에서는 이해 閏正月에 高麗가 使臣을 보내와 遼軍을 격파한 것을 축하하고 保州를 割讓해 줄 것을 요청하니 스스로 取得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고 있다.

32) 『高麗史』 卷14 「睿宗 12年 3月 辛卯」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

곧 다시 의논하자”<sup>33)</sup>라고 하여 고려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의 금의 세력이 크게 확대되고 국력에 자신감을 가진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전쟁과 외교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려와 여진은 이전에 曷懶甸에서 정면으로 대치하였지만, 고려의 결단으로 9성을 還付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였다. 여기에 遼를 정벌하는 전쟁을 발동하려는 금의 입장에서는 고려라는 다른 세력이 존재하고 나아가 고려가 고토회복을 명분으로 계속해서 북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금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고려의 입장에서는 금의 세력이 확대되고, 遼의 세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遼의 援兵 요구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거절하고, 또 1116년 4월에는 遼의 年號도 사용하지 않는 등 당시의 국제 정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의 군사가 遼의 保州와 來遠을 함락시키기 직전에 외교력을 발휘하여 커다란 희생이 없이 保州와 來遠의 두 성을 점령하였다. 아무튼 고려가 曷懶甸의 전쟁에서 9성을 여진에 還付하고 금은 保州와 來遠城을 함락시키기 직전에 고려가 영유권을 주장하자 이를 인정하는 등의 상황은 당시의 국제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특수한 상황임에 분명하다.

1117년 이후에 동아시아 세계는 외교적 활동이 매우 활발한 시기였다. 먼저 1117년 3월 25일에 阿骨打가 阿只 등 5인을 보내와 兄을 칭하면서 종래의 ‘父母의 나라’로 섬기던 고려에 대해 형제관계의 締結을 요구하였다.<sup>34)</sup> 이는 전통적으로 여진인에 대하여 ‘부모의 나라’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고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으며 이러한 의식은 1119년에 8월 3일에 고려에서 中

33) 『金史』卷135「高麗傳」2884쪽. “高麗國王使蒲馬請保州，詔諭高麗王曰：“保州近爾邊境，聽爾自取，今乃勤我師徒，破敵城下。且蒲馬止是口陳，俟有表請，即當別議。”

34) 『高麗史』卷14「睿宗 12年 3月 癸丑」，“金主阿骨打遣阿只等五人。寄書曰：‘兄大女真金國皇帝，致書于弟高麗國王。自我祖考，介在一方，謂契丹爲大國，高麗爲父母之邦，小心事之。契丹無道，陵轢我疆域，奴隸我人民，屢加無名之師。我不得已拒之，蒙天之祐，獲殄滅之。惟王許我和親，結爲兄弟，以成世世無窮之好。仍遺良馬一匹。’”

書主事 曹舜舉를 금에 보내 報聘할 때 그 書狀에 ‘하물며 저(金)의 根源이 우리 땅에서 發하였음에’라는 語句를 삽입하여 金主가 거부하고 받지 않는<sup>35)</sup> 일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1118년에는 遼에서 耶律奴哥를 파견하여 金國으로 사신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阿骨打가 遼에게 兄으로 金을 섬기고 歲貢을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宋·夏·高麗와의 書翰에 書式을 요구하자, 6월에 다시 耶律奴哥를 파견하여 宋·夏·高麗와의 서한인 詔·表·牒의 서식을 금에 보내게 하였다.<sup>36)</sup>

한편 宋에서는 건국 초기부터의 숙원인 연운16州的 수복을 위하여 1118년 2월에 武義大夫 馬政을 海道로 여진에 보내 遼를 협공할 것을 약속하는<sup>37)</sup> 이른바 ‘해상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宋과 遼가 ‘澶淵之盟’을 체결한 이후에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평화적인 관계를 북송왕조가 먼저 파기하는 것이었다.

위기에 처한 遼는 1119년 8월 29일에 蕭公聽·耶律遵慶을 고려로 보내서 通交 재개를 요청하였고, 다음 해 7월 6일에도 樂院副使 蕭遵禮를 보내서 여진의 공격으로 인해 중단된 國交 재개의 의지를 전하였다.<sup>38)</sup> 그러자 金에서는 保州 부근에 위치한 咸州路都統司에 명하여 고려가 遼와 통교하는 것을 정탐하게 하고,<sup>39)</sup> 遼에 대해서는 烏林答贊謨를 보내서 고려에 金을 막기 위해 援兵을 요청한 것을 질책하고<sup>40)</sup> 고려에는 習顯을 파견하여 遼의 州郡을 획득한 것을 전달하였다.<sup>41)</sup>

35) 『高麗史』卷14 「睿宗 14年 8月 丁丑」, “遣中書主事曹舜舉聘于金。其書有況彼源發乎吾土之語, 金主拒不受。”

36) 『遼史』卷28 「天祚帝紀2」 337쪽, “(天慶八年五月)戊戌, 復遣奴哥使金, 要以酌中之議, ……六月丁卯, 遣奴哥等齎宋夏高麗書詔表牒至金。”

37) 『宋史』卷21 「徽宗紀3」 399쪽, “庚午, 遣武義大夫馬政由海道使女真, 約要夾攻遼。”

38) 『高麗史』卷14 「睿宗 15年 7月 甲辰」, “遼遣樂院副使蕭遵禮來。”

39) 『金史』卷135 「高麗傳」 2885쪽, “詔曰: 汝等分列屯戍, 以固封守, 甚善。高麗累世臣事于遼, 或有交通, 可常遣人偵伺。”

40) 『遼史』卷115 「高麗傳」 1523쪽, “(天慶)十年, 乞兵于高麗以禦金, 而金人責之。”

41) 『金史』卷60 「交聘表上」 1388쪽, “詔使習顯以獲遼國郡論高麗。”

1117년부터 1119년까지의 각국의 외교적 노력을 보면 遼는 여진의 세력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위기감이 고조될 때 고려를 이용하고자 하였고, 宋은 신생의 金을 이용하여 燕雲16州를 수복하고자 하였을 뿐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결여되었다. 고려는 이러한 상황에서 遼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宋에서 파견한 閣門祗候 曹誼 등의 醫官이 1119년에 고려에서 귀국하였는데 이때 고려의 睿宗이 宋의 徽宗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천자가 군사를 일으키고자 하는데, 遼는 진실로 형제의 나라이다. 진실로 이를 존속시키면 더욱 중국의 捍邊이 될 수 있고, 여진은 탐내는 바를 예측하기가 없다. 원컨대 천자에게 고하여 일찌감치 대비하도록 하라”<sup>42)</sup>고 하였다.

결과는 고려가 예측한 바와 정확히 일치하여 여진은 遼를 멸망시킨 후에 宋을 공격하였고, 결국 북송이 멸망하게 되었다. 또한 고려는 曷懶甸의 長城 3尺을 증축하면서 金에 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고, 金에서는 군사를 동원하여 이를 지지하고자 하였지만 고려는 舊城을 補修한다고 하였다. 이에 金도 胡刺古·習顯에게 營壘를 強固하게 하도록 명령하였다.<sup>43)</sup> 이처럼 고려는 장성을 수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북송왕조에 대해서도 金의 속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북송왕조에 金과의 동맹이 잘못된 것임을 권유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뛰어난 외교적·군사적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42) 『太平治迹通類』卷26「契丹女真用兵始末」,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0, 451쪽. “天子用兵, 遼人實兄弟國, 苟存之尤足爲中國捍邊, 女真深沈不可測也, 願告之天子早爲備.”

43) 『金史』卷135「高麗傳」, 2885쪽. “高麗增築長城三尺, 邊吏發兵止之, 弗從, 報曰修補舊城.”

#### IV. 遼朝 滅亡과 麗金關係

고려와의 曷懶甸의 전쟁이 끝나고 내부적인 통일을 달성한 여진은 金王朝를 건국하고 그 세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시까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遼를 타도해야 했고, 따라서 遼를 멸망시키고 나아가 北宋王朝를 멸망시키기 이전까지는 고려에 대해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북송이 먼저 금에게 '해상의 맹약'을 제의하였고, 燕京 공격에 실패한 북송은 먼저 금에게 燕京을 攻取할 것을 제의하여 금이 이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는 금에게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북송에게는 脣亡齒寒의 외교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 고려는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며 적절한 외교 정책을 실시하였다.

1004년에 宋과 遼가 澶淵之盟을 체결하여 비록 北宋이 銀과 絹을 歲幣로서 遼에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이후로 양국은 커다란 분쟁이 없이 100여 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다시 지금의 중국 동북지역에서 女眞族이 세력을 확대하여 金을 건국하고 遼를 정벌하는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자 北宋에서는 1118년 2월에 武義大夫 馬政을 파견하여 海道를 경유하여 여진에 사신으로 가서 遼를 협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海上之盟’을 행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宣和 2년(1120)에 북송에서는 “이때 童貫이 밀지를 받았는데 그 외세에 의지해서 燕京을 수복하는 것이었다. 조서에서는 趙良嗣와 王瓌를 正使와 副使로 삼아서 登州를 경유하여 가는데 祖宗의 故事를 이용하여 말을 구입한다는 것을 구실로 하고 실제로는 거란을 협공하여 燕雲의 故土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면전에서 약속하고 특별한 문서는 가져가지 않고 오직 御筆만을 맡기는”<sup>44)</sup> 방법으로

44) 『三朝北盟會編』卷4「宣和2年 3月 6日」25쪽, “時童貫受密旨, 借其外勢以謀復燕, 詔趙良嗣王瓌充使副, 由登州以往, 用祖宗故事, 以買馬爲名, 因約夾攻契丹, 取燕雲故地, 面約不賣書, 唯付以御筆.”

해상의 맹약을 시도하였다.

이때 阿骨打가 역자를 통하여 “거란이 무도하여 내가 이미 죽이고 패배시켰으니 마땅히 거란의 영토는 모두 나의 田地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南朝(宋) 황제의 호의를 느껴서 燕京은 본래 漢의 땅이니 燕雲을 南朝에 주는 것을 특별히 허락한다”고 한 말에서 金이 ‘海上之盟’에 임하는 입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北宋에서 金에게 지급할 세폐의 액수를 거란에게 주었던 舊額으로 하고, 공격 방향도 金은 平州의 松林에서 古北口로 나가고, 宋은 雄州에서 白溝로 나가서 夾攻하기로 하는 동시에 이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金軍은 松亭과 古北口와 榆關을 넘지 않도록 하고 양국의 경계로 삼기로 하는 등 상세하게 약정하였다.<sup>45)</sup>

遼의 천조제는 宋과 金의 화의가 진행되던 天慶 10년(1120) 3월에 “金인이 정한 ‘大聖’이라는 두 글자가 先世의 칭호와 같기 때문에 다시 習泥烈을 보내서 의논하게 하자 金主가 노해서 마침내 관계를 끊었다”<sup>46)</sup>고 하였고, 『金史』에서는 “태조가 군신들에게 말하기를 ‘거란인들이 계속 패하자 사신을 보내서(화친을) 이루기를 구한 것은 오직 헛된 말로 장식하여서 군대를 늦추기 위한 계책이었으니 마땅히 나아가 토벌할 것을 의논하라’<sup>47)</sup>고 하였다. 遼의 天祚帝는 국력이 이미 현저히 약화되고, 宋과 金이 자신을 협공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시기에 헛된 명분에 연연하며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외교적 실책을 범했다는 점이다.

宣和 3년(1121)에 宋과 金이 동맹을 맺어 遼를 공격하기로 하고, 12월에 金의 完顏朮가 군사를 거느리고 遼를 공격하였다. 宣和 4년(1122) 정월에 金은

45) 『三朝北盟會編』卷4「宣和2年 3月 6日」25~26쪽. “阿骨打令譯者言云：契丹无道，我已殺敗，應系契丹州域全是我家田地，爲感南朝皇帝好意，及燕京本是漢地，特許燕雲……”

46) 『遼史』卷28「天祚帝2」339쪽. “庚申，以金人所定大聖二字，與先世稱號同，復遣習泥烈往議。金主怒，遂絕之。”

47) 『金史』卷2「太祖本紀」33쪽. “甲辰，上謂羣臣曰：‘遼人屢敗，遣使求成，惟飾虛辭，以爲緩師之計，當議進討。’”

계속해서 高·恩·回紇의 3성과 中京 및 澤州를 함락시키면서 진군하였다.<sup>48)</sup> 이에 遼의 天祚帝는 居庸關을 나와서 西京으로 달아났다. 3월에 金軍이 白水瀆에 이르러 天祚帝를 습격하자 天祚帝는 패주하여 경무장한 상태로 夾山로 들어갔다. 4월에 金이 西京을 공격하여 遼의 耿守忠의 援軍을 격퇴시키면서 西京을 함락시켰다. 8월에는 阿骨打가 정예병 1만여 명을 거느리고 完顏昬와 完顏宗望을 선봉으로 하여 大漁瀆을 향하여 天祚帝를 추격하다가 石輦驛에 이르러 遼의 군사 25,000명과 조우하였다. 金軍은 먼저 도착한 천 명으로 遼軍을 공격하였지만 포위당하였다. 그러나 宗望 등이 騎兵으로 天祚帝를 향하여 직접 공격하니 遼軍은 궤멸되고 金軍은 이들을 추격하여 鄂勒哲圖에 이르니 遼軍은 장비를 버리고 달아났다.<sup>49)</sup>

반면에 北宋은 5월에 童貫이 雄州에 이르러 都統制 种師道에게 두 길로 나누어 진병하게 하였는데, 前軍統制 楊可世가 蘭溝甸에서 遼軍에게 패배하고 얼마 후 다시 白溝에서 遼의 蕭幹에게 패배하였고, 辛興宗도 范村에서 패배하였다. 6월에 种師道가 雄州로 후퇴하여 수비하자 遼軍이 추격하여 성 아래까지 이르렀다.<sup>50)</sup> 그리고 10월에 宋의 童貫이 劉延慶에게 명하여 10만 명을 거느리고 雄州를 나가 燕京을 향하여 진격하였지만 白溝에 이르러 遼의 蕭幹에게 패배하자 성루를 단고 나오지 않았다. 劉延慶의 원군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蕭幹에게 패전하고 盧溝河의 남쪽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불길어 보이자 劉延慶은 遼軍이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고 즉시 軍營을 버리고 달아나고 사졸들도 연도에서 서로를 밟으면서 달아나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sup>51)</sup>

金軍은 연전연승하는 반면 宋軍은 무력하였기 때문에 宋軍의 힘으로는 燕

48) 『金史』卷2「太祖本紀」36쪽. “正月癸酉, 都統昬克高·恩·回紇三城. 乙亥, 取中京, 遂下澤州.”

49) 『中國軍事史·歷代戰爭年表』下冊, 72쪽

50) 『宋史』卷22「徽宗本紀」410쪽. “童貫至雄州, 令都統制种師道等分道進兵. 癸未, 遼人擊敗前軍統制楊可世于蘭溝甸. ……楊可世與遼將蕭幹戰于白溝, 敗績. 丁亥, 辛興宗敗于范村. 六月己丑, 种師道退保雄州, 遼人追擊至城下.”

51) 『中國軍事史·歷代戰爭年表』下冊, 72~73쪽

京을 함락시키기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본래 宋金의 맹약에 따르면 燕京 지역으로는 金軍이 이를 수 없었다. 이때 宋 徽宗은 李氏 성을 가진 내시 한 명을 童貫의 군중에 미복으로 잠입시켜서 동관의 거취를 정탐하게 하였다. 하지만 燕京은 함락시키지 못하고 백성들이 어지럽게 달아나자 잠입한 내시가 은밀히 徽宗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주하였다. 이에 徽宗은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너를 믿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질책에 童貫은 두려움을 느끼고 王瓌를 파견하여 金軍이 먼저 공격하고 宋軍이 이에 호응하더라도 원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金軍으로 하여금 먼저 연경을 공격하게 하였다.<sup>52)</sup>

이에 대해서 何俊哲 외 2인이 저술한 『金朝史』에서는 “宋軍이 燕京 공격에 실패한 후에 宋 徽宗의 초조감과 童貫의 두려움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金軍을 향하여 請兵하는 근색한 상황이 당시 宋朝 통치의 부패를 폭로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전에 遼의 蕭皇后가 이미 사신을 파견하여 金에 항복하면서 宋軍이 燕京 공격에 실패한 상황을 통보하였고, 金의 통치집단 내에서도 비록 宋軍의 패배를 알고 있었지만 王瓌에게는 宋兵이 이미 연경에 가까이 있어서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등으로 말한 것은 본래 宋의 거짓을 알고 있었지만 연경지역을 공격하여 취하는 것이 金政權에 유리하기 때문에 起兵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였다.”<sup>53)</sup> 이처럼 宋은 遼와 백 년 이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瀋淵之盟’을 먼저 파기하였고, 金과 다시금 ‘海上之盟’을 체결하고도 약한 군사력 때문에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金에게 燕京을 공격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에 金 太祖 阿骨打가 친히 燕京을 정벌하였다. 宗

52) 『三朝北盟會編』卷11「宣和4年 11月 27日」82쪽, “上遣內侍李某, 微服於貫軍中, 探其去就. 燕京既失州縣復陷, 人民奔竄, 內侍嘗密奏之. 上以手劄責貫曰: ‘今而後不復信汝矣.’ 貫既被責大懼, 遂遣王瓌取易州飛狐路赴大金軍前, 約以夾攻. 王瓌至大金軍前, 見其國主奏言: ‘大宋宣撫童樞密令臣見陛, 下聞嘗有國使交通兩朝, 已議夾攻. ……應不失元約.’”

53) 何俊哲·張達昌·于國石, 1992, 『金朝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83쪽

望이 7천의 군사로 선봉이 되고, 迪古乃是 得勝口에서 출발하고 銀朮哥는 居庸關에서 나와, 婁室을 左翼으로 婆盧火를 右翼으로 삼아 居庸關을 취하였다. 金軍이 燕京에 이르자 遼의 統軍都監 高陸 등이 투항하였고, 阿骨打가 入城하자 遼의 知樞密院事 左企弓·虞仲文, 樞密使 曹勇義, 樞密副使 張彥忠, 參知政事 康公弼, 僉書樞密院事 劉彥宗 등이 表를 올려 항복하였다. 다음 날 遼의 文武百官이 軍門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청하자 조서를 내려 모두 사면하고, 다음 날 阿骨打가 德勝殿에서 군신들의 賀禮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후에는 左企弓 등에게 燕京의 여러 州縣들을 위무하고 평정하라고<sup>54)</sup> 하면서 金軍은 비교적 순탄하게 燕京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북송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군사를 내어 협공하지 않았냐고 질책하면서 阿骨打는 燕京 부근 6州를 北宋에 인계하는 대신 거란에 바치던 銀 20萬兩과 絹 30萬匹의 歲幣를 金으로 보내고, 장래 燕京에서 납부하는 조세의 1/5 내지는 1/6로 계산하여 100萬貫을 납부하기를 요구하였고, 北宋은 이를 모두 수용하였다.<sup>55)</sup> 이렇게 해서 燕京을 둘러싸고 金은 비교적 손쉽게 획득한 승리를 통해 많은 재물을 얻고, 北宋은 비록 한 차례의 전승도 거두지 못하고 재물로 산 셈이지만 그토록 원하던 燕雲16州의 일부를 얻었다. 하지만 장성의 남부에서 燕京과 雲州에 속하지 않은 州州·營州·灤州를 북송에 돌려주지 않은 것은 이후에 커다란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金軍은 또한 1123년 4월에 龍門의 동쪽에서 遼의 耶律達實을 격파하여 사로잡고 다시 興中府에서 耶律糾堅을 격파하였다. 그리고 만 명의 군사로 靑冢

54) 『金史』卷2「太祖本紀」39쪽. “十二月，上親伐燕京。宗望率兵七千以先之，迪古乃得出得勝口，銀朮哥出居庸關，婁室爲左翼，婆盧爲右翼，取居庸關。丁亥，次嬀州。戊子，次居庸關。庚寅，遼統軍都監高陸等來送款。上至燕京，入自南門，銀朮哥·婁室陳于城上，乃次于城南。遼知樞密院左企弓·虞仲文·樞密使曹勇義·副使張彥忠·參知政事康公弼·僉書劉彥宗奉表降。辛卯，遼百官詣軍門叩頭請罪。詔一切釋之。壬辰，上御德勝殿，羣臣稱賀。甲午，命左企弓等撫定燕京諸州縣。”

55) 范文瀾 編, 1994, 『中國通史』5冊, 人民出版社, 225쪽. 이때의 구체적인 교섭 조건은 『三朝北盟會編』卷15「宣和5年 4月 11日·金人誓書」108~109쪽에 상술되어 있다.

에서 요의 秦王, 許王, 諸妃와 公主 및 從臣 등을 모두 사로잡았다. 天祚帝는 騎兵 5천으로 白水澗에서 金과 전투를 벌여 宗望의 천 명의 기병에게 패배하였다. 金兵은 20여 리를 추격하여 遼의 從馬 만 필을 획득하고 遼의 天祚帝는 雲內로 달아났다. 다음 해(1124) 7월에 天祚帝는 夾山을 나와 潼關嶺을 함락시키고, 天德, 東勝, 寧邊, 雲內 등의 州를 탈취하고 武州로 남하하였다. 金의 장수 洛索이 大軍으로 그의 歸路를 막아서 遼軍은 무너지고 天祚帝는 陰山으로 달아났다. 또 그 다음 해(1125) 2월에 天祚帝는 應州 新城의 동쪽에 이르러 金의 장수 完顏婁室에게 사로잡히고 遼는 멸망하였다.<sup>56)</sup>

전술하였듯이 金이 遼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遼에서는 고려에게 파병을 준비해서 출병하라고 하였지만, 고려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서문하에서 “遼가 女眞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될 상태이기에 그들의 연호를 쓸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는 공사의 문건에 天慶이라는 연호를 제거하고 干支만을 사용하자”<sup>57)</sup>고 건의하자 이를 따랐다. 그리고 이후에 金이 遼의 保州城과 來遠城을 공격할 때에는 이를 확보하는 對金外交를 추진하였다.

遼를 협공하기 위하여 北宋과 金이 ‘해상의 맹약’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遼는 고려와 국교 재개의 의지를 전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遼에게 있어서 金의 배후에 위치한 고려의 견제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金에서도 保州 근처에서 遼와 고려가 교통하는 상황을 정탐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 외에 遼는 1119년 9월에는 遼의 冊禮使가 시기를 놓쳐서 阿骨打가 조서를 내려 諸路의 군사들에게 강을 건너서 주둔하라는 조서를 내린 바 있고,<sup>58)</sup> 이듬해 2월에는 ‘大聖’이라는 칭호의 문제로 화친이 결렬되어 金의 본격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 멸망이 목전에 임박한 상황에서 취했던 遼朝의 각종 외교 조치들은 모두 金이 遼에 대해서 공격을 발동하는 직접적인 구실을 제공했던 것이다.

56) 『中國軍事史·歷代戰爭年表』 下冊, 73쪽

57) 『高麗史』 卷14, 「睿宗 11年 4月 辛未條」, “中書門下奏: ‘遼爲女眞所侵, 有危亡之勢, 所稟正朔不可行. 自今公私文字, 宜除去天慶年號, 但用甲子.’ 從之.”

58) 『金史』 卷2 「太祖本紀」 33쪽. “以遼冊禮使失期, 詔諸路軍過江屯駐.”

한편으로 1120년대에는 각국의 최고 통치자들이 많이 바뀌는 시기이다. 먼저 고려에서는 1122년 4월에睿宗이 45세의 나이로崩御하고 장자인楷가 즉위하였다.北宋에서는 이해 9월에 給事中和 中書舍人 傅墨卿을 보내서 弔祭하게 하였고, 다음 해에 使臣團이 6월에 고려의 開京에 도착하였다가 7월에 돌아갔다. 이때에 유명한 秦檜의 형 秦梓가 傅墨卿을 따라서 왔고, 이때 사신단의 일행이었던 徐兢이 남긴 저서가 『宣和奉使高麗圖經』인 것이다.

그리고 北宋의 使臣團이 고려의 경내를 벗어나려고 할 즈음인 1123년 8월에 阿骨打가 56세의 나이로 전장에서 사망하였다. 또한 遼의 天祚帝가 金軍에 쫓기다가 1125년 2월에 應州 新城의 동쪽 60리 지점에서 完顏婁室에게 사로잡히고, 8월에 金으로 호송되어 海濱王으로 강등되었다가 질병으로 인해 5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sup>59)</sup> 이 해 12월에 북송의 徽宗까지 內禪의 조서를 반포하여 欽宗이 즉위함으로써 고려, 金, 遼 및 北宋 등 4국의 최고 통치자가 모두 바뀐 셈이다. 그러나 바통을 물려받은 새로운 지도자들의 외교 정책은 遼가 멸망하고 후에 耶律大石이 西遼를 건국한 것은 예외로 하고, 고려와 金 및 宋의 관계만을 보면 기존의 외교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먼저 고려와 金의 관계에서 고려가 매우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첫째는 金 太宗이 즉위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1123년 6월에 東南海都部署使 朴景麟이 여진의 兵船 30척이 邊境에 침입하였다고 잘못 보고하여 加發兵馬判官 楊齊寶 등을 보내 막게 하였으나 慶州까지 갔다가 賊을 보지 못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sup>60)</sup> 이는 비록 실제의 전투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金의 군사만 보고 스스로 무너지는 당시의 遼軍이나 이러한 遼軍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전투하여 모두 패배한 北宋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59) 『遼史』卷30「天祚皇帝4」351쪽, “至應州新城東六十里, 爲金人完顏婁室等所獲. 八月癸卯, 至金. 丙午, 降等海濱王. 以疾終, 年五十有四, 在位二十四年.”

60) 『高麗史』卷15「仁宗元年6月乙酉」, “東南海都部署使朴景麟, 錯報女眞兵船三十艘來犯境. 遣加發兵馬判官楊齊寶等禦之. 至慶州, 不見虜而還.”

둘째로 1123년 12월에 太宗 烏乞買가 즉위하고 高隨와 斜野를 고려로 파견하였는데 국경에 이르러 접대의 예가 불손하여 高隨 등이 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보고하자, 太宗은 “고려는 대대로 遼에 신속하였으니 마땅히 遼를 섬기는 예로 우리를 섬겨야 하거늘 우리나라에 새로 喪을 당하고 遼의 天祚帝도 아직 사로잡지 못하였으니 갑자기 억지로 행하지는 말라”<sup>61)</sup>고 하면서 사신 일행들에게 돌아오기를 명령하였다. 이때 고려에서 金의 사신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어떠한 불손을 범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2세기 가량 중국의 북부를 호령했던 遼王朝의 멸망을 눈앞에 둔 金을 상대로 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

셋째로 고려 仁宗 2년(1124) 5월에 金의 曷懶路 사람들이 2척의 배를 타고 고려와의 국경 지역으로 와서 海狗와 海東靑 등을 잡았는데 고려에서는 전함 14척을 보내서 金人들을 모두 살해하고 그들의 무기를 압수하였다. 이때에도 태종은 “조그만 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 아니다. 이후로는 명령이 없으면 가지 말라”<sup>62)</sup>고 하였다.

넷째로 仁宗 2년(1124) 7월에 同知南路都統 鵬實答이 고려가 金을 배신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변방의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태종은 조서를 내려서 “우리를 배반하고 도망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그 잘못이 그들에게 있다. 무릇 通問한 것이 있으니 일상적인 관례를 어기지 말라. 만일 침략해 오면 모든 것을 너희들의 行列을 정돈하고 이에 따라서 종사하라. 만일 먼저 그들을 침범하면 비록 승리하더라도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sup>63)</sup>고 하였다. 위의 두 사건은 군사력을 중국 방면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金

61) 『金史』卷135「高麗傳」2885쪽. “高隨, 斜野奉使高麗, 至境上, 接待之禮不遜, 隨等不敢往. 太宗曰:‘高麗世臣於遼, 當以事遼之禮事我, 而我國有新喪, 遼主未獲, 勿遽強之.’命高隨等還.”

62) 『金史』卷3「太宗本紀」50~51쪽. “曷懶路軍帥完顏忽剌古等言:‘往者歲捕海狗海東靑 鵬於高麗之境 近以二舟往 彼乃以戰艦十四要而擊之 盡殺二舟之人奪其兵仗.’上曰:‘以小故起戰爭 甚非所宜. 今後非奉命 毋輒往.’”

63) 『金史』卷3「太宗本紀」51쪽. “鵬實答言:‘高麗納吾叛亡, 增其邊備, 必有異圖.’詔曰:‘納我叛亡而弗歸, 其曲在彼. 凡有通問, 毋違常式. 或來侵略, 整爾行列, 與

에 대해서 고려가 변경의 방비를 충실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에 대해서 金은 이전에 曷懶甸의 전투에서 보았듯이 고려가 만일 국력을 집중하여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중원에 대한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기에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섯째로 仁宗 3년(1125) 5월에 “司宰少卿 陳淑과 尙衣奉御 崔學鸞을 金에 보냈으나 國書가 表文이 아니고 稱臣하지 않았다고 하여 받지 않았다.”<sup>64)</sup> 이는 遼의 天祚帝가 사로잡혀서 金으로 호송되고 멸망하였지만 고려는 金에 대해서는 사대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金에서는 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만 했을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위의 다섯 가지 사례를 보면, 시간적으로 모두가 金의 세력이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다. 특히 1124년이 되면 遼를 공격하여 아직 天祚帝를 사로잡지는 못했지만 遼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고, 1124년 8월이면 完顏宗翰 등의 주장에 따라서 북송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때 고려에 대한 金의 태도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었다. 하지만 서방의 遼나 서남의 北宋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남방의 고려와 충돌을 피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여진의 전략은 나름대로 매우 현명한 방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 V. 北宋의 滅亡과 그 이후의 麗金關係

2세기 가까이 북방의 강자로 군림하던 遼의 天祚帝가 패주를 거듭하고, 北宋에서는 燕京地域을 수복한 것을 ‘不世의 功’이라고 하면서, 군사들이 개선하

之從事，敢先犯彼，雖捷必罰。”

64) 『高麗史』卷15「仁宗 3年 5月 壬申」，“遣司宰少卿陳淑·尙衣奉御崔學鸞，如金。金以國書非表，又不稱臣，不納。”

고, ‘復燕雲碑’를 세울 즈음인 1123년 8월에 金에서는 太祖 阿骨打가 죽고, 동생인 太宗 吳乞買가 즉위하였다.

阿骨打의 죽음은 군사력이 약한 北宋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었다. 적어도 阿骨打는 ‘海上之盟’을 체결할 당시의 金國에 최고 통치자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金이 燕京을 점령하고 北宋에 넘겨줄 당시에 이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完顏宗翰(粘罕)에게 연경을 돌려주지 말자고 하자 宗翰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阿骨打에게 燕京을 北宋에 넘겨주지 말고 涿州와 易州를 경계로 삼자고 하였다. 이때 阿骨打는 “내가 大宋과 더불어 해상의 맹약을 이미 맺었는데 이를 어길 수는 없다. 내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후에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마침내 北宋과의 약속대로 이행하였다.<sup>65)</sup>

본 문장만으로 볼 때 阿骨打는 해상의 맹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이 분명하다. 반면에 金의 통치계층에 많은 사람들은 정복전쟁에 따른 영토와 재물의 획득이라는 이점을 경험하였고, 또 北宋의 군사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아골타의 죽음은 형세를 전환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遼의 天祚帝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외교적 실책을 범하면서 金이 遼를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듯이 阿骨打의 죽음을 전후한 시기에 宋 또한 金에 대해 정책적인 실책을 범하면서 金이 北宋을 공격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의 구실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張覺의 반란 事件’과 耶律余睹의 ‘蠟丸書 사건’이었다.

먼저 張覺(一名 張穀)의 사건이란 본래 平州 義豐 출신인 張覺은 遼朝에서 進士에 급제하여 관직이 遼興軍節度副使에 이르렀다. “태조가 燕京을 평정하자 時立愛가 平州를 가지고 항복하였는데 당시에 宋인들이 해상의 맹약에 의거해 燕京과 西京의 땅을 구하였다. 太祖는 燕京·涿州·易州·檀州·

65) 『三朝北盟會編』卷15「宣和5年 3月 14日」109쪽. “阿骨打曰：‘我與大宋海上信誓已定，不可失也。待我死後，由汝輩，終如約交割。’”

順州·景州·薊州는 주었지만 평州는 거란에서 스스로 들어와 별도의 한 軍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고 평州를 南京으로 하고, 張覺을 留守로 삼았다.”<sup>66)</sup> 그러나 1123년 5월에 “張覺은 左企弓·虞仲文·曹勇義·康公弼 등이 廣陵으로 가다가 평州를 지날 때 사람을 시켜서 밤나무 숲 아래에서 살해하고 마침내 南京을 근거지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sup>67)</sup> 張覺이 평州를 근거지로 하여 金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北宋의 徽宗은 燕山府도 방어하고 평州지역을 수복하기에 좋은 기회로 여기고, 張覺을 끌어들이기 위해 付詹度를 시켜서 많은 재물과 관작으로 張覺을 유혹하자 張覺은 1123년 6월에 宋의 宣撫使에 항복하였다.<sup>68)</sup>

사실상 만리장성의 이남에 위치한 燕雲16州는 북방민족이 중원을 침략할 때 교두보가 되는 곳으로서 만일 16주 가운데 1주라도 유목민족의 수중에 있다면 교두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의 의미이다. 따라서 宋의 입장에서는 만리장성의 이남에 위치한 평州를 비롯한 3주를 수복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반란을 일으킨 張覺을 유혹하여 북송에 항복하게 한 사건은 적어도 燕京지역을 돌려주지 말자는 군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海上之盟’을 이행하고자 했던 阿骨打를 배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둘째로 耶律余睹의 ‘蠟丸書 사건’은 金에 항복한 遼의 장수 耶律余睹에게 蠟丸書를 보낸 사건이다. 본래 북송은 주도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海上之盟’을 맺어서 金과 연합하여 遼를 공격하였다. ‘海上之盟’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송의 군사적 무력이 드러났고, 경제력을 동원하여 燕雲16州를 수복하려는 계획은 부분적으로 달성했지만, 다시 金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 1126년에 이르면 이미 宋과 金이 汴京에서 맹약을 체결하였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66) 『金史』卷133「張覺傳」, “張覺亦書作穀, 平州義豐人也. 在遼第進士, 仕至遼興軍節度副使. 太祖定燕京, 時立愛以平州降. 當時, 宋人以海上之盟, 求燕京及西京地. 太祖以燕京, 涿, 易, 檀, 順, 景, 薊與之, 平州自入契丹別爲一軍, 故弗與, 而以平州爲南京, 覺爲留守.”

67) 『金史』卷133「張覺傳」, “天輔七年五月, 左企弓·虞仲文·曹勇義·康公弼, 赴廣陵, 過平州. 覺使人殺之于栗林下, 遂據南京, 叛入于宋.”

68) 何俊哲·張達昌·于國石, 1992, 앞의 책, 89쪽

않아서, 현재의 山西地方을 공격하는 金의 西路軍이 계속해서 太原을 포위 공격하고 宋에서는 구원군을 보내는 등 전쟁은 더욱 격렬해지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北宋은 다시 遼의 잔여세력을 이용하여 金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1126년 6월에 金에서는 본래 遼의 종실인데 金에 항복한 蕭仲恭을 北宋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휘종은 이때가 遼의 잔여세력을 이용하여 金에 대항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 蕭仲恭에게 蠟丸書를 주어 金國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던 耶律余睹에게 전해서 그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 金에 대항토록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蕭仲恭은 金으로 돌아가자 이를 곧바로 阿骨打의 아들인 完顏宗望에게 바쳤다. 군사적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金朝의 내부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北宋의 의도는 金朝의 강렬한 불만과 분노를 일으키고 다시 대규모의 군대로 宋을 공격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遼는 외교적 실수가 없었다고 하여 멸망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쓸모없이 명분을 내세우는 피휘의 문제나 사신이 때를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소한 실수로 金을 자극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북송 또한 장각의 반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한 채 金에게 구실을 제공하였다. 고려에서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金을 이용하여 遼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였지만 ‘海上之盟’을 체결하여 遼를 공격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무기력한 遼를 이용하여 金을 혼란스럽게 만들려 기도하였고, 이를 빌미로 金은 다시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하여 끝내는 북송왕조가 멸망하고 徽宗과 欽宗은 사로잡혀서 끝내는 金國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遼가 멸망하는 1125년까지 고려는 金에 대해서 비교적 강경한 태도로 대하였고, 이에 반해서 金의 태종 吳乞買는 고려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遼가 멸망하자 金에서는 고려에 사대의 예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1126년 3월에 金에 대해서 事大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당시에 고려 仁宗은 百官을 불러서 金을 섬기는 것에 대한 可否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不可를 주장하였으나 李資謙과 拓俊京만이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9)</sup> 그리하여 6월 1일에는 사신을 보내서 表를 받들어 藩屏을 칭하니 좋은 말투의 조서로서 이에 답하고 保州를 할양해 주도록 하였다.<sup>70)</sup> 이렇게 해서 이전에 遼에 대해서 事大하던 방식으로 金에 대해서 사대하였고, 그 대신 保州를 얻는 성과가 있었다.

한편 宋에서는 1126년 4월에 欽宗이 李綱으로 하여금 고려로 보내는 詔書를 찬하게 하여 閣門祗候 侯章과 歸中孚 등을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詔書에서는 “저 金人들은 진실로 일찍이 왕에게 臣屬하였고, 조그만 바다 위의 흉물로서 하늘을 등지고 귀신을 거스르면서 契丹을 멸망시키고 마침내 중국을 능멸하니 음흉하고 포악함이 더욱 심하다. 바야흐로 천하의 군사를 일으켜 작은 소의 죄를 물으려 하니 왕도 군사와 무리들을 이끌고 독려하여 서로 表裏가 되어 天誅를 행하자”<sup>71)</sup>고 하였다.

欽宗이 고려 왕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에서는 보면 첫째는 北宋王朝에서도 여진이 이전에는 고려에 신속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둘째 金軍의 강력한 군사력에 직면하여 고려의 도움이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고려는 일찍이 醫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북송에 金人들의 언행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들과 맹약을 맺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조언한 바가 있다. 그러나 고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金은 遼를 멸망시켰고, 북송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고려는 이전에도 遼에서 군사적 도움을 요청한 바가 있지만 고려는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서 실리를 취하였다. 그런데 이제 멸망을 목전에 둔 宋의 요청에 응하여 군사력을 동원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리하여 고려에서는 이해 7월 3일에 宋이 閣門祗候 侯章과 歸中孚 등 60여 인을 보내 金을 정벌할 것을 권유하였고, 侯章도 王에게 글을 보내 이를 권했지만 王이 答書를 보

69) 『高麗史』卷15「仁宗4年 3月 辛卯」

70) 『金史』卷60「交聘表上」1388쪽, “高麗使奉表稱藩, 優詔答之, 仍以保州地賜.”

71) 『梁谿集』卷33「與高麗王詔書」, “彼金人者 固嘗臣屬於王 以蕞爾海隅之醜 背天逆神 絕滅契丹 遂陵中國 淫暴滋甚. 使其得志 何有於王哉?……方將起天下之兵 問罪小丑 王其率勵師衆 相爲表裏 以行天誅.”

내 宋이 먼저 金을 공격하면 助兵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7월 19일에 侯章이 돌아가자 表를 올려 장차 宋이 金을 공격할 때 助兵하겠다고 하면서 宋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이때 仁宗이 侯章에게 준 表文에서는 “갑자기 조서를 받아 읽고 의분을 금할 수가 없다. 즉시 당신의 요구에 응하여 군사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국은 본래 부강하지 못하고 근래에는 재난까지 겪어서 축적한 것들이 모두 타버렸기에 군량을 마련하고 군기를 수선해야 한다. ……귀국 군사가 적을 제압하기를 기다려서 다소나마 위력을 돕겠으니 당신이 나의 간곡한 뜻을 이해하기 바랄 뿐이다”<sup>72)</sup>고 하였다. 국내외의 사정에 입각해서 매우 논리적이면서 명확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힌 좋은 문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9월 8일에 金에서 宣諭使로 靜江軍節度使 겸 同簽書樞密院事 高伯淑과 鴻臚卿 烏至忠 등을 보내서 양국 사신의 왕래는 遼의 舊制를 따르게 하고, 保州路 및 邊地의 金人을 모두 刷還하게 하되, 고려가 이를 수궁할 때에는 즉시 保州를 넘겨주라고 명령하였다.<sup>73)</sup> 다음 달 6일에는 金의 사신을 大明宮에서 餞別하면서 表를 올려 사례하였는데, 遼를 섬기던 舊例에 의거하였고,<sup>74)</sup> 12월 12일에 고려에서는 衛尉卿 金子鏐과 刑部郎中 柳德文을 金에 보내 宣諭使의 파견과 保州의 割讓에 대해 사례하였다. 이때의 표문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臣의 부친인 先王 때에 이르러 大遼의 邊臣이었던 沙乙何가 와서 皇帝의 勅旨를 전하여 말하기를 “保州는 본래 高麗의 땅이니 高麗가 이를 수복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先王은 이에 그 城池를 수리하고 민

72) 『高麗史』卷15「仁宗 4年 7月 癸未」, “忽奉讀於絲綸, 第難禁於涕淚, 宜即奔命, 以待興師, 但爲弊封, 本非勝國, 近經災孽, 焚盡畜藏, 其於儲待資糧, ……俟王師之制敵, 少助威靈, 但願聖明, 灼知誠懇.”

73) 『高麗史』卷15「仁宗4년 9月 辛未」, “金宣諭使同僉書樞密院事高伯淑鴻臚卿烏至忠等來, 金主伯伯淑等曰: “高麗凡遣使往來, 當盡循遼舊, 仍取保州路及邊地人口在彼界者, 須盡數發還. 若一一聽從, 卽以保州地賜之.”

74) 『高麗史』卷15「仁宗4년 10月 戊戌」, “王餞金使于大明宮, 附回表謝, 一依事遼舊制.”

를 이주시켰습니다. 이때는 비록 우리나라가 아직 상국에 臣屬하지는 않았지만 先帝께서 특별히 이웃한 번국과 우호관계를 맺고자 하여 교훈의 말과 함께 옛 영토를 돌려주었습니다.<sup>75)</sup>

表文의 형식이기 때문에 말투는 매우 공손하지만 내용은 保州지역이 고구려의 옛 영토이고,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을 당위성이 있으며, 거란족의 遼代와 金の 沒乞買 이전의 阿骨打 시기에도 이미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을 당당하게 적시하였다.

고려는 비록 이전에 여진이 ‘父母의 나라’라고 라면서 조공을 바쳤지만 국력이 강성해져서 遼를 멸망시키고 북송까지도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기존의 금에 대한 태도를 버리고 사대의 예를 취하였다. 하지만 고구려의 故土를 수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실리를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1127년 이후 고려와 金은 서로 고려의 왕과 금 황제의 생일이 되면 生日使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고 새해가 되면 賀正使를 파견하는 등 시종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다.

동시에 宋과의 관계 역시 적절하게 해결해야 하는 난제의 하나였다. 고려는 이전에 宋이 金과 ‘海上之盟’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도 선의로서 이 맹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조언한 바 있다. 1126년에 흥종이 즉위하자 고려에서는 10월에 宋으로 즉위를 축하하는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宋朝에서는 “明州에 명하여 表를 받아 驛站을 통해 올리게 하고 使臣을 돌려보내게 하였다.”<sup>76)</sup> 그 이유는 이날 侍御史 胡舜陟은 고려가 이전에는 遼에게 臣事하였고, 지금은 필시 金에게 사대할 것이기 때문에 宋의 虛實을 탐지하여 金에 보고할 우려가 있다고 하며 上京시키지 말라고 건의하여 고려사신단을 明州에 머물게 하고 貢物만 바치게 하였던 것이다.<sup>77)</sup>

75) 『高麗史』 卷15 「仁宗4년 12月 癸酉」, “當臣父先王時, 有大遼邊臣沙乙何來傳皇帝勅旨曰: 保州本高麗地, 高麗收之可也, 先王於是理其城池, 實以民戶. 當此之時, 雖小邦未嘗臣屬上國, 而先帝特欲寵綏隣藩, 霑以訓辭賜之舊土.”

76) 『宋史』 卷23 「欽宗紀」 431쪽, “高麗入貢, 令明州遞表以進, 遣其使還.”

77) 『宋史』 卷487 「高麗傳」, “欽宗立, 賀使至明州, 御史胡舜陟言: ‘高麗靡敝國家

하지만 高宗이 南京에서 즉위하고 金과의 지구전이 계속되자 여전히 金의 배후에 위치한 高麗의 도움이 절실하였다. 그리하여 高麗와 南宋 사이에는 假道問題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된 『高麗史』 「世家」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128년 6월 14일에 南宋에서 이미 金에 포로로 잡혀간 欽宗이 둘러보냈던 즉위 賀禮使의 답방이라는 명목으로 假刑部尙書 楊應誠과 齊州防禦使 韓衍 등을 파견하여 왔다.<sup>78)</sup> 6월 16일에는 仁宗이 壽昌宮에서 詔書를 받았는데 楊應誠이 書狀을 보내 徽宗과 欽宗을 구출하기 위한 假道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仁宗은 答書를 보내 완곡히 거절하였다. 6월 26일에 仁宗이 楊應誠을 만나 어찌하여 山東의 海路를 이용하여 登州를 경유해서 金으로 가지 않느냐고 묻자, 楊應誠은 高麗를 통해서 가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이후에 高麗의 門下侍郎 金富侗이 楊應誠의 숙소에 가서 金인이 造船하여 兩浙로 가려고 한다고 하자 楊應誠은 여진은 水戰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金富侗은 東女眞이 항상 海道로 왕래하며 과거에 여진이 高麗에 臣事하였으나 현재는 역으로 高麗에 칭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6월 29일에는 中書侍郎 崔弘宰와 知樞密院事 金富軾이 숙소에 와서 假道를 거절하였다.<sup>79)</sup> 8월 18일에 楊應誠 등이 돌아가려 하자, 金富儀가 지은 表를 올려 假道 요청을 수궁할 수 없음을 전하고, 이를 수궁하게 된다면 金도 高麗를 경유하여 宋의 淮水와 浙江 지역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8월 20일에 楊應誠이 壽昌宮門에서 仁宗을 만나 拜表도 받지 않고 前例에 의한 宴會·幣帛·禮物도 거절하고 아무런 수확도 없이 귀국하였다.

이상과 같이 南宋이 金과의 전쟁에 高麗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徽宗과 欽宗을 구출하기 위한 ‘假道問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高麗의 君臣은 정확한 현실 인식의 기초 위에서 매우 적확하게 대처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五十年，政和以來，人使歲至，淮浙之間苦之。彼昔臣事契丹，今必事金國，安知不窺我虛實以報，宜止勿使來。’乃詔留館於明，而納其贄幣。”

78) 『高麗史』 卷15 「仁宗6年 6月 丁卯」, “宋國信使刑部尙書楊應誠·齊州防禦使韓衍等來。”

79) 『建炎以來繫年要錄』 卷16 「建炎2年 6月 丁卯」

南宋의 재상이었던 李綱이 고려를 이용하자는 일부 관료들의 의견은 전혀 효용성이 없으며 지금 믿을 만한 것은 스스로 군대를 모으고 양식을 비축하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sup>80)</sup>

한편 金은 北宋의 수도를 점령하고 徽宗과 欽宗을 北行시킨 후인 1128년 12월에 報諭使로서 錦州管内觀察使 司古德과 衛尉少卿 韓昉을 보내서 포로가 된 徽宗과 欽宗을 강등시킨 일을 통보하면서 고려에 예물을 보내왔다. 이때 司古德이 글을 보내서 保州를 할양받았는데도 誓表를 올리지 않은 것과 고려 경내에 거주하는 여진인의 刷還 문제 등에 대해 힐문하였다. 金과는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성을 다해서 사대하겠다는 맹세의 글인 誓表를 고려에서 올리지 않은 것과 保州의 영토는 고려에 점유를 인정하겠지만 대신에 고려에 있는 여진인들을 색출하여 귀환시키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誓表에 대해서는 1126년에 고려에서는 金에 表를 올리고 稱藩하였지만 誓表를 올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金에서는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지만 고려에서는 誓表를 올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고려가 遼와 宋에 臣屬하면서도 200여년 동안 誓表를 올리지 않았지만 일찍이 藩臣의 예를 저버린 적이 없었고, 지금도 上國(金)을 섬기는데 마땅히 遼나 宋과 같은 예로 섬기고 있고, 여러 차례 맹세하면서 큰 난리를 일으키는 것은 聖인이 더불지 않는 바이니 반드시 誓表를 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때 金의 사신이었던 韓昉은 “만일 고려가 반드시 古禮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舜이 5년에 한번씩 巡狩할 때, 群后들은 4번 조회하였고, 周代에는 6년마다 5개 구역에서 한 번씩 조회하고 다시 6년이 되면 왕이 이에 때때로 순행하면 4嶽에서 조회하였다. 지금 天子가 바야흐로 서쪽으로 순행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곧 貴國에서는 따라서 朝會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천천히 다시 의논하자고 하였지만 韓昉은 誓表를 올리고 조회하는 일을 결정하자고 하여 마침내 고려에서는 誓表를

80) 『梁谿集』卷173「靖康傳信錄下」, “臣以謂非愚則誣 至林牙·高麗牽制之報 理或有之 然不可恃 彼之不來 當恃我之有備 則屯兵聚糧 正今日之先務 不可忽也.”

올렸다.<sup>81)</sup>

그리고 여진인들을 색출하여 귀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仁宗은 保州에서 고려로 도망해 온 변방의 人戶들을 색출하여 귀환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때 金에서는 盈歌의 다섯째 아들인 完顏勛의 더 이상 색출하지 말라는 건의를 태종이 받아들이면서 보주를 완전히 고려가 영유하게 됨과 동시에 이 지역의 인구도 돌려보내지 않는 외교적 성과를 얻었다.<sup>82)</sup>

이후로 고려와 金은 몽고족이 몽고 초원을 통일하고 강성해지기 전까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다. 이전에 遼는 北宋과 ‘澶淵之盟’을 맺은 이후에 고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군사를 일으켰던 것과는 달리 南宋과 1140년에 ‘紹興和議’를 맺었지만 이후에 채석의 전투와 ‘隆興和議’, 開禧의 北伐과 ‘嘉定和議’ 등 南宋과 金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이 발생하고 다시 화의를 맺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金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해서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고려도 매우 기민하고 합당한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이후 몽고족이 발흥할 때까지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金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다.

## VI. 맺음말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진의 세력은 급격하게 확대되었지만 고려에 인접한

81) 『金史』卷125「文藝傳上·韓昉傳」2714쪽. “謂昉曰：‘小國事遼，宋二百年無誓表，未嘗失藩臣禮。今事上國當與事遼，宋同禮。而屢盟長亂，聖人所不與，必不敢用誓表。’昉曰：‘貴國必欲用古禮，舜五載一巡狩，群后四朝。周六年五服一朝，又六年王乃時巡，諸侯各朝于方岳。今天子方事西狩，則貴國當從朝會矣。’高麗人無以對，乃曰：‘徐議之。’昉曰：‘誓表朝會，一言決耳。’於是高麗乃進誓表如約。”

82) 『金史』卷135「高麗傳」2885~2886쪽. “既而勛上表請不索保州亡入高麗戶口，太宗從之，自是保州封域始定。”

東·西女眞은 계속해서 고려에 來朝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려와 여진 사이에 曷懶甸의 전쟁이 발발하였고, 고려에서는 거국적으로 17만이 넘는 군사를 동원하여 초기에는 승리를 거두고 9성을 축조하였다. 이에 여진에서도 대규모의 병력으로 반격하는 동시에 화친을 추구하는 정책도 병행하였다. 고려도 변방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진에 대한 회유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쟁에 피로감이 누적되는 가운데 1109년에는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9성을 여진에게 환부하였다.

曷懶甸의 전쟁 이후에 여진족은 1115년에 金을 건국하고 對遼 정벌전쟁에 나섰다. 그 과정에는 대체적으로 적은 수로 몇 배가 많은 遼의 군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많았다. 遼軍은 대체적으로 金軍에 비교하여 수 배 혹은 수십 배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北宋은 金軍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인 遼軍을 상대로 두 차례 전투를 벌였지만 모두 패배하는 무기력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국의 군사력은 물론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曷懶甸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한 고려의 군사력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한편 고려는 金이 遼를 정벌하는 전쟁에 나서서 遼의 멸망이 가시화되자 遼의 구원병 요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遼의 正朔을 폐지하고 고구려의 故土를 회복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는 保州와 來遠城의 점유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고려가 曷懶甸의 전쟁에서 9성을 여진에 還付하고 金은 保州와 來遠城을 함락시키기 직전에 고려가 영유권을 주장하자 이를 인정하는 등의 상황은 당시의 국제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려는 자국으로 파견된 宋의 醫官이 귀국할 때에 金과 ‘海上之盟’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면서 장성을 수축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외교적·군사적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여진은 金王朝를 건국하고 거란을 공격할 때 북송이 먼저 ‘海上之盟’을 제의해 와서 맹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燕京을 함락시키고 맹약에 따라 金은 비교적 손쉽게 획득한 승리를 통해 많은 재물을 얻고, 北宋은 비록 한 차례의 전승도 거두지 못하였지만 燕雲16州의 일부를 얻었다. 그리고 1125년 2월에는

天祚帝가 金軍에게 사로잡히면서 遼는 멸망하였다. 金이 遼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고려와 여진의 관계에서는 고려가 여전히 외교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金은 遼나 北宋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서방의 遼나 서남의 北宋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남방의 고려와 충돌을 피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여진의 전략은 나름대로 매우 현명한 방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金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遼의를 정벌하는 전쟁 기간 동안에 遼는 작은 외교적 실책을 범해서 金이 遼를 공격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송에서도 군사적인 노력 없이 金에 반란을 일으킨 세력을 유혹하여 宋에게 항복하게 한 '張覺의 반란 事件'과 遼의 잔여세력을 이용하여 金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한 耶律余睹의 '蠟丸書 사건'과 관련하여 金에게 침략의 구실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한 채 金에게 구실을 제공하였고, 고려에서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金을 이용하여 遼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였지만 '海上之盟'을 체결하여 遼를 공격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무기력한 遼를 이용하여 金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자 기도하였고, 이를 빌미로 金은 다시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하여 끝내는 북송왕조가 멸망하고 徽宗과 欽宗은 사로잡혀서 끝내는 金國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는 金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대처하던 고려는 遼가 멸망한 후에는 遼에 대해서 事大하던 방식으로 金에 대해서 사대하였고, 그 대신 保州를 얻는 성과가 있었다. 宋은 金을 이용하여 遼에게서 燕雲16州의 일부를 수복하였지만 金軍의 공격을 받자 이번에는 金의 배후에 있는 고려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고려는 이전에도 遼에서 군사적 도움을 요청한 바가 있지만 고려는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서 실리를 취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멸망을 목전에 둔 宋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여진이 비록 이전에는 '父母의 나라'라고 하면서 조공을 바쳤지만 국력이 강성해져서 遼를 멸망시키고 북송까지도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金에 대해서 事大의 예를 취하면서도 고구려의 故土를 수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하면서 실리를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1127년 이후 고려와 金은 서로 고려의 왕과 金 황제의 생일

이 되면 生日使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고 새해가 되면 賀正使를 파견하는 등 시종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몽고족이 몽고 초원을 통일하고 강성해지기 전까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다.

이전에 遼는 北宋과 ‘澶淵之盟’을 맺은 이후에 고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군사를 일으켰던 것과는 달리 南宋과 1140년에 ‘紹興和議’를 맺었지만 이후에 채석의 전투와 ‘隆興和議’, 開禧의 北伐과 ‘嘉定和議’ 등 南宋과 金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이 발생하고 다시 和議를 맺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중원에서 빈번하게 전쟁을 벌이고 화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金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해서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했다. 또한 고려는 동북아의 강자로 군림하던 두 왕조가 멸망하는 외증에서 오히려 고구려의 고토였던 保州와 來遠城을 수복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매우 민첩하고 적절한 외교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金渭顯, 1996, 『遼金史研究』, 裕豐出版社
- 金渭顯, 2004,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景仁文化社
- 范文瀾 編, 1994, 『中國通史』, 人民出版社
- 孫進己 等著, 1987, 『女真史』, 吉林文史出版社
- 장동익, 2009, 『高麗時代 對外關係史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재단
- 張暢耕 主編, 2001, 『遼金史論集』,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中國軍事史編寫組 編, 1986, 『中國軍事史·歷代戰爭年表』, 解放軍出版社
- 何俊哲 等著, 1992, 『金朝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景愛, 1990, 「遼代女真人與高麗的關係」, 『北方文物』, 1990년 3기
- 喬幼梅, 2008, 「論女真統治者民族政策的演變」, 『文史哲』, 2008년 2期
- 孟古托力, 2000, 「女真及其金朝與高麗關係中幾個問題考論」, 『滿語研究』, 2000년 1기
- 孟古托力, 2000, 「女真, 金朝與高麗關係的幾個問題考論」, 『金史研究論叢』, 哈爾濱出版社
- 孫進己, 1985, 「遼代女真與高麗的關係」, 『朝鮮史研究』, 1985년 6기
- 王崇時, 1986, 「十至十二世紀初女真與高麗的關係」, 『北方文物』, 1986년 3기
- 王禹浪·王宏北, 2005, 「論完顏宗翰—兼談金朝初年的金·宋關係」, 『哈爾濱學院學報』, 2005년 1期
- 魏志江·潘清, 2001, 「女真與高麗曷懶甸之戰考略」, 『中山大學學報』, 2001년 5기
- 李錫炫, 2008, 「麗金 外交關係의 성립과 성격: 冊封問題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57
- 李鴻飛, 2010, 「“澶淵之盟”與“紹興和議”比較研究」, 『白城師範學院學報』, 2010년 4期
- 蔣秀松, 1994, 「女真與高麗間的“曷懶甸之戰”」, 『民族研究』, 1994년 1기
- 趙永春·厲永平, 2005, 「宋金“海上聯盟”期間的領土交涉—以趙良嗣“燕雲奉使錄”的記載爲中心」,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5년 6期
- 何適之, 1998, 「論十二世紀初金與高麗外交」, 『江海學刊』, 1998년 4기

## [ABSTRACT]

## War and Diplomacy between Goryeo and Jin in the Early Twelfth Century

Cho Bokhyeo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Jurchens (女眞) widely extended its influence. From the time of Jin's establishment up to the collapse of Northern Song (北宋),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高麗) and Jin (金)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Before the Jurchens established Jin, the herandian war occurred between Goryeo and Jurchens. In the beginning, Goryeo won the war by mobilizing more than 170,000 forces and constructed nine fortresses in the war zone. Goryeo then received an agreement in which Jurchens would not invade Goryeo (高麗) further and returned nine fortresses in the war zone.

When Jin and Liao started the war which brought the fall of Liao, Goryeo monitored the situation closely and refused to enter the war on the Allied side. Finally, Goryeo cancelled subservience to the Liao and endeavored to regain Koguryo's former territory through diplomatic efforts. At the end, Goryeo occupied both Baozhou and Laiyuan forts.

Goryeo tried to advise Northern Song for the near future when Northern Song concluded a new pact with Jin. However, Beisong concluded a new pact with Jin and Liao was destroyed.

Before Liao was destroyed, Goryeo played a leading role to ward Jin, and Jin maintained taking a passive stance toward Goryeo. However,

Goryeo maintained the same subservient way to Jin as Goryeo did to Liao and obtained Baozhou fort from Jin(金).

Song(宋) tried to exploit Goryeo, which was under the control of Jin, but Goryeo acted on its own. Goryeo strenuously handled the issue of regaining Koguryo's former territory and took practical interest. From 1127, Goryeo and Jin maintained amicable relations with each other.

The reason why Goryeo and Jin maintained good relations with each other is that Jin and Southern Song often made regional wars, while Northern Song and Liao had no war after concluding the new pact. Secondly, Goryeo concentrated its diplomatic efforts against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Keywords

War, Diplomacy, Goryeo, Jin



# 송요 간의 전쟁과 和議

## - 瀟淵의 전역과 맹약을 중심으로 -

박지훈 |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 I. 머리말

중국 역사에서 송대에 이르러 이민족관계에서 매우 특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족 왕조가 대표하는 중국은 더 이상 이전의 중국이 아니었다. 중국이 처음으로 다시 통일되기 전에 동아시아 세계의 정치적 구조는 盟約을 사용한 시대로 표현할 수 있다. 한족 왕조 이외의 정권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또한 평등한 맹약원칙에 따라 하나의 帝國으로 인정한 것은 전통적인 一統의 천하 관념과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었다. 물론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주변의 민족 정권과 맹약을 맺은 바가 있다. 일찍이 기원전 2세기에 한왕조는 흉노와 일종의 慰撫 정책을 실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비단 등 예물을 보내고 화친을 통해 서로 인접한 정치적 실체에 대해 양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편의적인 것이었을 뿐 아니라 차선의 선택이었고 하나의 왕조가 다른 왕조에 대해 전쟁을 통해 철저히 정복할 수 없을 때 채용한 일종의 수단이었다.

※ 투고일: 2011년 10월 4일, 심사일: 2011년 11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28일

송대는 11~12세기의 정복왕조 시기에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구사했다고 볼 수 있다. 군사적인 수단, 즉 전쟁을 통해서는 거란족의 국가를 패배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송요 관계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단기 간의 전쟁과 주로 많은 양의 재화를 주면서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평화를 이루었다. 또한 송요 간의 瀟淵의 맹약은 쌍방이 전쟁을 하고 和約으로 끝맺은 것으로, 전쟁과 외교의 실상을 첨예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즉, 송초에는 영역 내에서 통일 완성 후에 다시 대거 북벌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전연의 맹약에 이르러 정식으로 화의를 체결하며 전쟁이 멈추게 된 것이다. 1004년에 체결한 전연의 맹약은 여기에서 전환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로 북송의 대요 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송이 이민족 국가와 국제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었다.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자 전략가였던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는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더러는 전쟁이 문명의 소산이라고 말할 테고, 더러는 전쟁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즉, 합의를 도출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전쟁이 내린 판결은 정의보다 힘에 기초한 것이었다. 물론 어쩌다 정의가 우세를 떨친 적이 있기는 했다”<sup>1)</sup>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독일의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고전적인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치의 계속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은 정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도구이며, 양국 사이의 정치적 교섭의 계속이며 정치와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이 정치적 교섭을 수행하는 행위이다. 전쟁은 정치적 교섭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기 때문에 결코 독립된 것이 아니다”, “전쟁의 본질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사

1) 버나드 로 몽고메리, 송영조 역, 1995, 『전쟁의 역사』 I, 서울: 책세상, 2쪽. 또한 그는 “전쟁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집단 간의 장기적인 무장충돌을 의미한다. 전쟁에는 반란(insurrection, 기존 권위에 도전하는 폭동: 역주)과 내란(civil war, 한 나라 안의 지역적·정치적 파벌 간의 전쟁: 역주)이 포함되며, 개인적인 폭동이나 폭력행위는 제외된다”고 하였다.

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폭력행위이다”<sup>2)</sup>라고 하였다.

중국 역사상에서 맹약이란 기타 민족정권과 맺은 조약의 형식으로 근대적 개념에서 외교의 한 가지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쟁의 결과 한편의 우위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전쟁을 종결시키는 방법의 하나이다. 송요관계사에서 澶淵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쟁을 종결시켰던 전연의 맹약을 둘러싸고 전통시대에 한족 왕조를 정통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송의 ‘城下之盟’, 즉 굴욕적인 화의였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특히 1980년대 이후 중국학계를 중심으로 수많은 논고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논고들은 전연의 맹약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려 하는 것과 더불어 대체로 전연의 맹약 자체에 대한 성격과 의의를 현재 중국의 시각에서 평가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sup>3)</sup> 본고에서는 전연의 맹약을 전쟁에서 외교적 수단인 맹약에 이르는 과정을 정리하여 봄으로써 북송과 요의 전쟁과 화의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 II. 전쟁: 전연맹약에 이르기까지

### 1\_ 전연의 전역<sup>4)</sup> 이전의 전쟁

송 태조가 後周를 이어 건국한 다음 趙普의 건의를 받아들여 먼저 南征하여

2) 클라우제비츠, 李鍾學 譯, 『戰爭論』 增補新版, 서울: 一潮閣, 24, 27쪽

3) 박지훈, 2010a, 「중국 학계의 북송과 요의 관계사 연구 동향」, 이근명 외,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최근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100~153쪽 참조. 이 글에서 전연맹약을 전후한 연구성과를 비롯하여 북송·요관계사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4) 澶淵의 戰役은 사료에서 대개 ‘澶淵之役’으로 기록되는데 ‘役’이라는 단어를 ‘戰役’으로 번역한 것이다.

중국을 통일한 연후에 北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란에 대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았다. 송초 거란과의 대등한 외교 수립은 사실 후주와 요의 관계 및 지위를 계승했던 것이다. 태조는 요에 대해 守守하는 입장이었고, 남방을 통일한 후에 먼저 北漢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였다. 북한의 배경에 요가 있었기 때문에 태조는 요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여 북한을 멸망시킨 후에 다시 요와 싸워서 幽州를 수복하고 長城을 경계로 하는 중국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다.

태종이 제위를 이은 후에도 당연히 태조의 정책을 계승하여 먼저 북한을 멸망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송이 북한을 정벌하면서 송요의 평화는 깨지고 요는 북한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송은 요에게 高梁河와 岐溝關에서 크게 패배함으로써 송요의 외교관계는 파열되고 송은 매우 심하게 戰禍를 입었다.<sup>5)</sup> 송은 요와 이미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幽燕을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이때부터 主和를 주장하는 정치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송 태종 때 政論을 보면 우선 986년(雍熙 3) 6월 태종이 기구관의 패배를 듣고 후회자하 李昉 등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 하물며 하늘이 北狄을 낳아 중국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 獯鬻의性は 오직 이익을 구할 따름입니다. …… 병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변방의 어지러움을 그치도록 하는 것이 소위 한 사람의 아래에 굽혀서 만인의 위에 서는 방법입니다.<sup>6)</sup>

라고 하였고, 987년에도 禦戒의 책략을 문자 답하는 신료들이 줄을 이었다. 당시에 송군은 요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세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993년(淳化 4) 11월에 태종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5) 박지훈, 2010b, 「송 태종대 옹희복벌에 관한 연구」, 『군사』, 74, 69~104쪽 참조.

6) 李燾, 『續資治通鑑長編』(上海師範學院古籍整理研究室·華東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室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5) 권27, 옹희 3년 6월 戊戌條(이하 『長編』으로 약칭함)

즉위 이래로 군대를 써서 토벌하였으니 대개 도탄에서 백성을 구하였다. 만약 널리 내놓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다면 위세와 무력을 끝까지 보여서 곧 천하의 백성은 거의 磨滅되었을 것이다. …… 또한 治國은 덕을 닦는 데에 있을 따름이요 四夷는 마땅히 置之度外해야 할 것이다.<sup>7)</sup>

라고 하여 태종 만년의 입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태종 만년에 공격할 능력이나 의도도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송대는 한당에 비해 외적에게 대항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중요 원인은 以夷制夷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당 시대에는 匈奴나 突厥이 분열하거나 종족들끼리 서로 싸워서 그들 자신의 역량을 약화시켰다. 또한 서북의 양적이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연합하는 위험은 거의 없었다. 송대에도 거란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어제이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太平興國 4년, 요를 정벌하던 초기에는 張洎 등을 파견하여 고려와 연락하였고, 西邊 여러 나라에도 일찍이 사신을 보냈다. 하지만 송의 외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군사상의 역학관계는 이민족을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西夏는 송을 배반하고 거란에 항복하고 따랐다. 요와 서하가 서로 연합하자 송은 더욱 어려워 고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힘을 합해 거란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듬해인 994년(순화 5) 6월에는,

高麗國 王治가 사신을 수도에 보내 군대를 빌면서 말하기를 거란이 그 국경을 약탈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상은 夷狄으로 서로 공격하는 것이 대개 보통의 일이나 北邊이 편안한데 군사를 가볍게 움직이는 것은 안 된다.<sup>8)</sup>

고 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 7월 壬子에 “그 사신을 후한 예의로 [대접하여] 돌

7) 『長編』 권34, 순화 4년 11월 甲寅條

8) 『長編』 권36, 순화 5년 6월 庚戌條

러보내고 우호적으로 詔書를 내려 답하였다. 고려는 이때부터 끊어져 다시 조공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심지어 『遼史』에는 송이 요를 향하여 화의를 구한 기사가 있다. 바로 이 시기에 송이 요와 開戰을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統和 12년(994) 8월 乙酉에 송은 사신을 보내 화의를 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9월 辛酉에 송은 다시 사신을 보내 화의를 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sup>9)</sup> 라는 기사가 있다. 송 태종은 왜 이러한 시기에 요를 향하여 화의를 구하였을까? 대략 이는 송이 고량하와 기구관에서 패한 후로서 일관된 主和 방침에는 거의 의의가 없었다. 그런데 일찍이 982년(태평흥국 7)에도 이미 요에게 화의를 청하였다. 즉 “[요] 乾亨 4년(982) 12월 신유에 南京留守 荊王 道隱이 상주하기를 ‘송에서 사신을 보내 犀帶를 바치고 화의를 청하였다’ 이에 문서 없이 물리쳤다”<sup>10)</sup>라고 되어 있다. 이는 『송사』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장편』의 같은 해 10월조에는,

上이 처음에 거란이 맹약을 어겼을 때 太原에 가서 도와주고 드디어 范陽에 친정한 것은 중국의 옛 영토를 거두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하여 끝나지 않자 논의하는 사람들은 대개 息民을 청하였다.<sup>11)</sup>

라고 하여 태종이 이번에 화의를 구한 것은 분명히 주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송 태종은 순화 5년(994)에 또 두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내 화의를 구할 것을 결심했을까? 이는 송 태종이 고량하 전쟁 때 화살을 맞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해 9월에 襄王 元侃을 태자로 삼고, 대외적으로 요를 향해 다시 화의를 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송 태종이 고량하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창상을 입은 것은 王銍의 『默

9) 脫脫, 『遼史』(中華書局本) 권13, 「聖宗本紀」 4

10) 『遼史』 권10, 「성종본기」 1

11) 『長編』 권23, 태평흥국 7년 10월 辛酉條

記』에서 태종이 화살을 맞았다는 기록과 『요사』의 “宋王이 겨우 몸을 부지하였다”라고 한 것과 서로 부합된다. 『장편』과 『송회요』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 단지 『장편』에는 태종이 고향하 전투 후에 의사를 구하고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 이 일을 유추할 수 있다.<sup>12)</sup>

또한 『장편』에는 태종과 寇準이 眞宗을 황태자로 세우는 것을 상의한 일이 나온다. 즉 순화 5년(994) 9월에 “양왕 원간을 開封尹으로 삼고, 壽王으로 다시 봉하였다. 구준의 말을 따른 것이다”<sup>13)</sup>라고 하였고, 至道 원년(995) 8월에 “개봉운 수왕 원간을 황태자로 삼고, 항(恒)으로 개명하였다. 천하에 크게 사면령을 내렸다”<sup>14)</sup>고 하였다. 이렇게 후계자를 세운 것은 태종의 상처가 불치의 증세가 되어 서두른 것이라 볼 수 있고, 순화 5년 요에게 구화한 것은 송 태종 최후의 대요 정책으로써 평화를 회복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요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0세기 초, 당의 멸망과 때를 같이하여 동북지방의 遼寧省 서부에 거점을 둔 契丹族이 독립국 요(대요)를 수립했다. 그것은 한족과 북방이민족의 교섭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거란은 스스로 문자를 창제하고 거란족에 의한 독립왕조라는 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종래와 같이 중국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침입하여 약탈하는 것으로 일관했던 이민족의 자세를 완전히 전환하였다. 서하, 여진, 그리고 이어서 몽고에 이르기까지 300년 동안 계속된 서·북방의 여러 민족왕조는 원칙적으로 그 자세를 계승하여 한족 왕조인 송은 당대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여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오대, 즉 중원의 혼란기 가운데 後晋의 건국에 힘을 빌려준 대가로서 연운 16주를 손에 넣으면서 나아가 華北 점령을 기도하였던 거란도 한족의 통치영역이었다고 간주되었던 하북·산서북부의 선으로 물러나 북한을 원조하는 것

12) 蔣復璁, 1964, 「澶淵之盟の研究」, 宋史座談會 編, 『宋史研究集』 2, 臺北: 國立編譯館中華叢書編審委員會, 170~171쪽

13) 『長編』 권36, 순화 5년 9월 乙亥條

14) 『長編』 권38, 지도 원년 8월 壬辰條

으로 송의 건국에 대응했다. 그 사이 거란은 동으로 고려, 서로는 오르도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서하의 전신인 탕구트[党項]족 李氏에 대해 和戰 두 가지를 구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인 남진을 계획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후주 世宗의 공세를 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송 태종의 북한 병합과 이어서 북진이 계속되자 거란도 여기에 대응한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던 거란을 성장 궤도에 올려놓은 왕은 성종(재위 982~1031)이었다. 성종은 부족제에 기초한 거란을 한 단계 성장시킨 왕으로서 적극적인 부국책과 안민정책을 추진하였다. 1009년 12월 蕭太后가 사망하고 성종이 친정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는 27세였다. 국내를 안정시킨 성종 대에 대외적으로 시선을 돌린 곳은 동북 만주와 고려였다. 거란의 대외전략은 송·고려·여진의 연합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서로 인접해 있는 고려와 여진의 연계를 차단한 후 이들을 차례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거란이 택한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여진이었다. 여진은 송 건국 직후인 961년부터 송에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거란은 여진의 조공행위가 자국의 배후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판단해 984년과 986년 두 차례에 걸쳐 여진을 공략하였다. 또 거란은 986년에 발해 유민이 압록강변에 세운 定安國을 멸망시켰다.

거란은 979년·986년에 두 차례나 침입한 송의 군사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여진을 패배시켰다. 그리고 여진이 송나라로 통하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991년에는 압록강 북쪽인 威寇, 振化, 來遠에 성을 쌓고 3천 명의 군사를 배치하였다. 이후 993년에는 고려를 침공하였다. 이 전쟁으로 거란은 고려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그 대가로 고려에게 압록강 이남에 대한 연고권(강동 6주)을 인정해 주었다. 거란은 고려·송의 연합을 차단시킨 바탕 위에서 송과 결전을 벌일 준비를 하였다. 거란은 990년경 송의 배후를 위협하기 위해 党項族과 우호관계를 맺었고, 994년에 南京統軍都監을 설치하여 5년여에 걸친 전쟁 준비를 하였다. 거란은 송이 당항족조차 장악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노출하자 999년에 송이 무력 증강을 꾀하기 전에 송을 침략해 큰 참패를 안겼다.<sup>15)</sup>

수적으로는 압도적인 우세였지만 기동력이 둔한 보병 중심의 송군을 거란 기병대가 기동력을 앞세워 격파하자, 태종의 야심찬 시도는 좌절되었다. 거기 에다 태종 다음 진중에 이르러 송과 거란의 국경 부근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졌다. 이를 『宋史紀事本末』 권21 契丹盟好조 등에서 간단히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진중 함평 2년(999) 10월에 契丹主 隆緒가 대거 침입 하였다. 당시 송의 장군인 傅潛이 군사 수의 우세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sup>16)</sup> ② 진중 함평 3년(1000) 정월 己卯朔에 大名府에서 주둔하였다. 거란은 황제가 친정한다는 것을 알고서 약탈하고 물러났다. ③ 진중 함평 4년(1001) 10월 거란이 침입하자 王顯을 鎮, 定(高陽關) 三路都部署로 삼아서 막았다. 같은 달에 왕현은 거란과 遂城에서 전투하여 패배시키고 2만여 명을 살륙하였다. 거란은 나아가 滿城에서 주둔하다가 돌아갔다.<sup>17)</sup> ④ 함평 6년(1003) 4월에도 송을 공격하였는데, 거란군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형세를 보였다. 물론 1004년(요 통화 22년) 3월 송의 威虜軍 主將인 魏能이 장성 입구에서 요군을 격퇴한 후 陽山까지 추격하여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sup>18)</sup>

## 2\_ 전연의 전역

997년 眞宗(997~1022 재위)<sup>19)</sup>은 대체로 북송의 군주 가운데 소극적인 황제의 치세라고 평가된다. 송은 진중의 즉위 이후 처음에는 거란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거란의 공세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한편,

15) 정해은, 2006, 『고려시대 군사전략』,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82~84쪽

16) 『長編』 권45, 眞宗 咸平 2年 11月 丙子條, “傅潛領數萬雄師, 閉門不出, 坐看敵人, 俘掠生民.”

17) 陳邦瞻, 1977, 『契丹盟好』, 『宋事紀事本末』 권21, 北京: 中華書局, 135~141쪽

18) 『長編』 권56, 眞宗 景德 元年 3月 乙酉條, “知威虜軍魏能言, 破契丹於長城口, 追北過陽山, 斬級獲戎器甚衆, 詔獎之.”

19) 태종의 대거란 강경책과 달리 진중은 즉위 초부터 거란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長編』 권44, 眞宗 咸平 2年 5月 乙巳條, “陛下初登極時, 承矩嘗發書道, 意臣料北鄙, 終復成和好. 上曰此事, 朕當屈節爲天下蒼生, 然須執綱紀, 存大體, 卽久遠之利也.”

요 조정의 지도집단에도 변화가 생겼다. 11세기에 들어서 거란은 성종 시기에 송과의 국경분쟁에 주목함과 동시에 남방의 풍성한 물자를 보다 많이 수중에 넣기 위해 본격적인 전쟁을 감행하였다. 더구나 거란군은 하북성에 깊이 침공하여 송의 진종 景德 원년(1004) 가을에는 요지인 定州를 포위하였다. 거란의 기마대에 대해 송은 사람과 가축이며 재화를 州縣의 성벽 안으로 옮기고 주위를 사람이 없는 들로 만들어 지구전에 임하는 소위 ‘堅壁清野’라는 전통적인 전술로써 대항하였다.

그러자 거란군은 보급을 위해서 새로운 약탈지역을 구하여 계속 남쪽으로 진격하였고 결국 황하 북안 부근에 도착하였다. 수도 開封에서 동북으로 약 120km, 황하를 건너는 지역으로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인 澶州(오늘날 하남성 濮陽)였다. 진종은 거란군 접근의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고, 대신들 가운데에서도 강남이나 四川에 옮겨가서 난을 피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강하였다. 그러나 수석 재상 寇準은 강경하게 親征을 주장하였고, 피하려는 진종을 설득하여 황하 북안의 최전선 전주 北城까지 갔다. 이에 비해 거란은 적지의 깊은 곳에 까지 들어갔을 때 보급선과 배후의 州縣城을 둘러싼 송군의 반격에 불안해졌다. 또한 진종을 맞이하여 사기가 높아진 송군의 예상 외의 저항과 우연하게도 사령관이 弩(쇠뇌)에 맞아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송 측의 화의 요청에 의외로 간단하게 응하였다. 이러한 전연의 전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04년 요는 전면적으로 송에 침입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에 이 소식이 송 조정에 전해지자 參知政事·吏部侍郎 畢士安과 三司使·兵部侍郎 구준을 同平章事로 삼았다. 처음에 필사안은 이미 참지정사를 배수하였으나 사양하니 황제가 안 된다고 하며 함께 일할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였다. 이에 필사안은 “구준이 忠義의 자질을 겸하고 대사를 잘 판단하는 데 신이 따를 수 없다”고 하면서

구준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순국할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道를 견지하면서 邪를 싫어하기 때문에 流俗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백성들은 비록 큰 덕이 두루 미치는 은혜를 입고 있지만 北戎이 날뛰어 변경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으니 만약 구준이라면 마땅히 쓸 만합니다.<sup>20)</sup>

라고 하여 황제도 동의하여 이렇게 명한 것이다.

9월에 거란이 송에 대거 침입하자 진중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 방법을 물었다. 王欽若은 臨江 사람으로 金陵으로 출행하기를 청하였다. 또한 陳堯叟는 閩州 사람으로 成都로 출행하기를 청하였다.<sup>21)</sup> 구준은 마음속으로 왕흠약은 강남 사람이기 때문에 남행을 주장하고, 진요수는 사천 사람이기 때문에 서행을 청한다고 생각했다.<sup>22)</sup> 진중이 구준에게 물으니 구준은 짐짓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침을 때면서 왕흠약이 옆에 있는데도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황제가 “누가 계획을 세웠는지는 묻지 말고, 卿은 계획의可否에 대해서만 의견은 내어달라”고 하자 구준은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의 피를 북쪽 땅에 묻히고서야 북벌을 할 수 있다고 강경하게 진언하였다.<sup>23)</sup> 이어서 “폐하의 神武로 신과 뜻을 맞추어 大駕로 친정한다면 적은 스스로 도망갈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나가서 그 계책을 어지럽히거나, 굳게 지켜서 그 군대를 지치게 하여 피로의 기세를 탄다면 우리는 승산이 있습니다. 廟社를 버리고 楚나 蜀으로 출행한다면 어찌 인심의 소제가 궤멸하지 않겠으며 적이 승리를 타고 깊이 들어온다면 천하를 다시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진중은 뜻을 결정하고 구준에게 말했다. “오늘날 오랑캐의 기병이 함부로 달려오는데 天雄軍이 실로 중요한 鎮이 된다. 만일 함락되면 河朔은 모두 오랑캐의 땅이 될 것이니 누구로 하여금 지키게 할 수 있겠는가?” 구준은 왕흠약을 천거

20) 『宋史紀事本末』 권21, 「契丹盟好」

21) 『宋史紀事本末』 권21, 「契丹盟好」, “九月, 契丹大舉入侵時, 以敵軍深入, 中外震駭, 召羣臣問方略, 王欽若臨江人, 請幸金陵, 陳堯叟閩州人, 請幸成都.”

22) 『長編』 권57, 眞宗 景德 元年 8月 辛未條, “旁準心知欽若江南人故請南幸堯叟蜀人故請西幸.”

23) 『宋史紀事本末』 권21, 「契丹盟好」, “準曰不知誰爲陛下畫此二策, 帝曰卿姑斷, 其可否勿問其人也. 準曰臣欲得獻策之人, 斬以鑿鼓然後北伐耳.”

하였다. 왕흥약이 머뭇거렸으나 구준은 황제의 친정에 거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니 왕흥약은 두려워서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

경덕 원년(1004) 윤9월 을해, 참지정사 왕흥약이 都部署가 되었는데 요 성종은 그 모친 소태후와 함께 瓦橋關(현재 하북 雄縣 舊南關)을 수복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대군을 이끌고 그 通軍 順國王 蕭撻覽을 보내어 威虜군과 順安군을 공격하였다. 또한 北平砦와 保州를 공격하니 모두 패배하였다. 소달랍과 거란 성종 및 소태후는 모두 합하여 당시 거란군은 遂城을 격파하고 定州를 공략하였고, 송의 雲州 관찰사이던 王繼忠을 사로잡았다. 이윽고 거란군은 황하 연변의 전주에 이르면서 그곳과 가까운 수도 변경을 위협하자 당시 송의 조야가 진동하였다. 송의 군대는 통일된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기에 거란의 군대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진격하여 전연에 도달하였다.<sup>24)</sup>

당시 송군의 수비는 고립적 방어의 형세였으며, 거란군은 여러 도시를 돌면서 진격하여 두 진영 간에 장기적인 대치국면이 이루어졌다. 정주를 공격하니 송군대는 唐河에서 막았고 그 游騎를 공격하였다. 거란은 드디어 陽城淀에서 주둔하였는데 20만이라고 하였다. 이때에 왕계충은 거란을 위하여 화의의 이익을 말하니 거란은 수긍하였다. 이에 李興을 보내어 왕계충의 서신과 密表를 가지고 송 莫州 部署 石普에게 화의를 의논하게 하니 석보는 조정에 알렸고 신하들은 어찌할지 모르고 논의가 분분하였다. 그 가운데 필사안은 羈縻하여 점차 평화를 허락하도록 청하였다. 황제는 “적들이 이처럼 하니 보존하지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하였으나 필사안은 황제를 안심시켰다. 이때 송의 降將 왕계충이 거란에서 양국 간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10월에 거란군의 선봉이 정주를 포위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진종은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당시 재상 구준이 극력 남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진종이 전주로 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남쪽으로 가려는 것을 중지하였다. 이와 동시에 송은 曹利用을 거란에 파견하여 화의를 논의하도록 했다.<sup>25)</sup>

24) 王才忠, 1994, 「略論“澶淵之盟”」, 『阜陽師院學報(社科版)』 1994-1, 52쪽

25) 脫脫 等, 『宋史』(中華書局本), 권290, 「曹利用傳」, “景德元年, 契丹寇河北, 眞

경덕 원년(1004) 11월 庚午에 진중은 친정하였다. 御駕가 경사를 출발하였다. 癸酉에는 韋城縣에 주둔하고, 丙子에 전주에 주둔하였다. 다시 금릉으로 가자고 고하는 사람이 있어 황제의 뜻도 약간 미혹되었다. 이에 구준을 불러 물으니 구준은 말하기를 “폐하에게는 오직 진군만이 있고 조금이라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북의 여러 군대는 아침저녁으로 鑾輿(천자가 타는 수레)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士氣 백배하고 있습니다. 만약 몇 걸음이라도 수레를 돌린다면 많은 군사들은 와해되고, 오랑캐는 그 후를 타서 금릉에도 역시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구준은 나오다가 殿前都指揮使 高瓊을 만나서 뜻을 맞추었다.<sup>26)</sup>

당시 요 성중은 이미 전주의 북쪽 성에 도달하여 삼면으로 포위하였다. 하지만 11월에 요의 總指揮 소달람이 지형을 정찰하다가 송의 장군인 이계항이 쏜 쇠뇌에 맞아 죽으면서<sup>27)</sup> 요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송군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다.<sup>28)</sup>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전쟁으로 하여금 하나의 도박으로 만드는 한 요소가 있는데, 이는 실제의 전쟁과도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 요소란 즉 우연성이다. 모름지기 인간의 활동 가운데 전쟁만큼 끊임없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연성과 접촉하고 있는 활동은 없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 우연성을 통해 예상치도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

宗幸澶州，射殺契丹大將撻覽，契丹欲收兵去，使王繼忠議和，擇可使契丹者，利用適奏事行在，樞密院以利用應選，帝曰，‘此重事也，毋輕用人，’明日，樞密使王繼英又薦利用，遂授閤門祇候，崇儀副使，奉書詣契丹軍，帝語利用曰，‘契丹南來，不求地則邀賂爾，關南地歸中國已久，不可許，漢以玉帛賜單于，有故事，’利用憤契丹，色不平，對曰，‘彼若妄有所求，臣不敢生還，’帝壯其言。”

26) 韋祖松·張其凡, 2005, 「簡論高環澶淵之功」, 『歷史教學』, 2005-10, 65~67쪽

27) 『宋史』 권7, 「真宗本紀」2, 景德元年 11월 甲戌

28) 당시 거란의 남경동군사인 소달람이 수십 기의 경기병을 이끌고 전주성 아래를 순시하다고 매복한 송군이 쏜 활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이 전쟁을 실제 이끌었던 소태후가 매우 통곡하고 슬퍼하였지만, 소태후는 이를 화의를 하라는 하늘의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다. 『遼史』 권85, 列傳 第15, 「論曰」, 1319쪽, “將與宋戰，撻凜中弩，我兵失倚，和議始定。或者天厭其亂，使南北之民休息者耶!”

이 굴러오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sup>29)</sup>라고 하였는데, 전연의 전역이 화의국면으로 가는데 장수의 죽음이라는 우연적 요소가 작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종이 출발한 지 7일째에 전주의 남쪽 성에 도착하자 송군의 사기가 크게 고무되었다.

전역의 전역에서 송이 화의를 구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해석이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즉, 북송의 군대는 보병이 중심을 이루었고, 서북의 産馬 지역을 상실하여 군마를 서북 소수민족의 무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말이 부족하여 기병이 낙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요·하·금·원 등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으로써 騎射를 다루는 능력에서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필도 충분하여 正軍 1명에 戰馬 세 필을 배치할 정도로 고도의 기동성과 활동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송은 기마 능력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sup>30)</sup>

또한 전통적으로 송대 군제의 결정적인 약점은 고전적으로 “군대에는 항상 지휘관이 없고, 지휘관에게는 항상 부대가 없다(兵無常帥, 帥無常師)”, “병은 장수를 모르고 장수는 병을 모른다(兵不知將, 將不知兵)”<sup>31)</sup>라는 면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외에 다음의 맹약 체결과정에서의 양측의 국내정세, 진종이나 송 조정 대신들의 입장, 전쟁에서의 우연성, 요 측의 입장 등이 다각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9)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 李鍾學 譯, 1987, 앞의 책, 20쪽

30) 白奇寅, 1998, 『中國軍事制度史』,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159쪽

31) 馬端臨, 『文獻通考』 권153, 「兵制」 5

### Ⅲ. 화의: 전연맹약

#### 1\_ 맹약체결과정

##### 1) 송의 입장

송 태종이 이미 요와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진종이 즉위한 후에도 조정에는 主和의 주장이 가득하였다. 아울러 즉위의 기회를 타고 정식으로 화의를 성립시키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송·요의 議和는 당시에서는 거의 일치된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미 태종은 옹희 2년에 재상에게 말하기를

史書を 보니 晋 高祖가 거란에게 구원을 당하여 아버지로 섬기는 예를 행하고 割地하여 받들어 수백만의 백성이 거란에게 떨어지게 되었다. 馮道와 趙瑩 등이 宰輔의 지위에 있으면서 예의를 지키니 굴욕이 심하였다. 적들은 탐욕스러워 이익만 있다면 먹으니 할지는 매우 좋은 방법이 아니다.<sup>32)</sup>

라고 하여 재물은 주더라도 할지는 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전연의 맹약에서 歲幣를 주면서 關南의 땅을 할양하지 않은 것은 송 태종의 遺命을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진종은 이를 따른 것이지 독자적인 의견이 아닌 것이다.

진종 경덕 원년(1004) 10월, 거란군의 사기가 꺾이면서 曹利用을 거란군으로 보냈다.<sup>33)</sup> 이때 거란은 여러 차례 송과 전투를 벌였으나 불리하자 다시 왕계충에게 화의를 논의하도록 하여 진종이 조이용을 보낸 것이다. 조이용이 진

32) 『長編』 권26, 옹희 2년 정월 병술조

33) 『宋史紀事本末』 권21, 「契丹盟好」, “冬十月, 遣曹利用詣契丹軍, 時契丹數戰不利, 復令王繼忠附奏議和, 帝遣利用, 利用至軍蕭太后, 欲求關南地, 利用力拒之.”

중에 이르자 소태후는 관남의 땅을 구하였으나 조이용은 힘써 거부하였다.

진종 경덕 원년(1004) 12월 庚申, 거란도 화의에 적극 응하여 韓杞를 파견하였다.<sup>34)</sup> 거란은 한기로 하여금 서신을 가지고 조이용과 함께 보내어 맹약을 청하였다. 당시 양측 간에 현안으로 되었던 것은 후주 세종이 북정하여 획득했던 관남 지역이었다. 조이용은 거란이 관남의 땅을 갖기 원한다고 전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땅을 달라고 하는 일은 극히 명분이 없다. 만약 반드시 요구한다면 짐은 결전할 것이다. 만약 재화라면 漢도 玉帛을 單于에게 보낸 故事가 있는 만큼 마땅히 허락할 것이다.”<sup>35)</sup>

라고 하여 관남지역을 요구하는 거란의 의사를 거부하고 재물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때에 구준은 화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나는 生靈들이 계속 어려움에 처한 것을 차마 참을 수가 없다. 화의를 들어주는 것이 옳다”는 진종의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시 조이용을 거란군에 보내서 세폐를 논의하게 하면서 황제는 말하기를 “필히 부득이하다면 100만이라도 역시 된다”<sup>36)</sup>라고 하여 진종황제는 100만의 세폐가 들더라도 평화조약을 체결하려 했던 것이다. 구준이 그것을 듣고 조이용을 막사로 불러 말하기를 “비록 勅旨가 있더라도 네가 30만을 넘게 허락한다면 내가 너를 참수할 것이다”라고 하여 보냈다.

조이용이 거란군에 가자 소태후는 후진이 거란에게 넘겨주었지만 후주 세종이 탈환해간 관남지역의 반환을 여전히 요구하였다. 소태후가 조이용을 불러 말하기를 “후진은 관남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주세종이 그곳을 가져갔으니

34) 『宋史紀事本末』 권21, 「契丹盟好」, “十二月庚辰, 契丹使韓杞持書, 與曹利用, 俱來請盟.”

35) 『宋史紀事本末』 권21, 「契丹盟好」, “利用言, 契丹欲得關南地, 帝曰, 所言歸地事, 極無名, 若必邀求, 朕當決戰, 若欲貨財, 漢以玉帛賜單于, 有故事宜許之.”

36) 『宋史紀事本末』 권21, 「契丹盟好」, “準不得已乃許其成, 復遣曹利用, 如契丹軍, 議歲幣, 帝曰必不得已, 雖百萬亦可.”

오늘날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니 조이용이 말하기를 “후진과 후주의 일은 우리 朝代에서는 모릅니다. 해마다 金帛을 주는 것도 아직 황제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는데 할지의 청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습니다.”<sup>37)</sup>라고 응답하였다. 결국 조이용은 은 10만 냥, 견 20만 필을 주기로 하고 돌아왔다.<sup>38)</sup> 이후 거란은 사신 姚東之를 파견하였으며, 송도 곧 李繼昌을 사신으로 보내어 화의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양측 간에 협상이 진전되었고, 송에서 물자로써 보상한다는 전제하에 마침내 쌍방 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12월 을미에 거란은 丁振을 보내서 誓書를 가지로 왔는데, 형의 禮로서 황제를 모셨다. 진종 경덕 2년(1005) 춘정월 경술에 거란과 화의를 맺고 천하에 大赦를 내렸다. 2월에는 태자 中允과 孫僅을 거란에 보내 그 태후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南朝라고 자칭하고, 거란을 北朝라고 하여 致書하였다. 이상이 중국 역사에 유명한 전연 맹약의 체결과정이다.<sup>39)</sup>

화의 체결과정에서 구준의 역할을 본다면, 진종의 즉위 이후 구준의 관직은 점점 승진하여 경덕 원년 8월에 同中書門下平章事로 임명되어 재상이 되었다. 구준이 중용된 것은 당시의 형세와 관련하여 필사안이 그를 진종에게 추천한 것이 적지 않은 작용을 하였고 두 사람이 함께 재상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매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전연의 맹약에서 구준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경덕 2년 10월 필사안이 병으로 사임하여 구준 혼자서 재상을 맡은 지 5개월이 지나서 경덕 3년 2월에 구준은 파면되었다. 이 기간 동안 진종의 구준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필사안이 죽자 진종에게 구준에 대해 변호해 줄 사람이 거의 없어지고 구준의 숙적인 왕흥

37) 『宋史紀事本末』 권21, 「契丹盟好」, “準召利用至帳謂曰, 雖有敕旨, 汝所許過三十萬, 吾斬汝矣. 利用至契丹軍, 蕭太后謂利用曰, 晉昇我關南周世宗取之, 今宜見還也. 利用曰, 晉周事, 我朝不知, 若歲求金帛, 以佐軍尙, 不知帝意可否, 割地之請, 我不敢以聞.”

38) 『宋史紀事本末』 권21, 「契丹盟好」, “利用竟以銀十萬兩, 絹二十萬匹, 成約而還.”

39) 脫脫等, 『遼史』 권14, 聖宗 5, 22年 春正月 丁丑條, “戊子宋遣李繼昌請和, 以太后爲叔母, 願歲輸銀十萬兩絹二十萬匹, 許之, 卽遣閣門使丁振持書報聘.”

약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간을 획책했던 것이다.<sup>40)</sup>

한편, 전연의 맹약을 체결할 당시의 송과 요 쌍방의 군사력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즉, 高美玲은 송의 경제적·군사적 역량이 요를 압도했으므로 송은 요를 패퇴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田相林은 “요의 역량은, 송을 뒤흔들고도 남았지만, 송을 멸망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송의 역량은, 요를 섬기기에는 충분했지만, 요를 공격하기에는 모자랐다”라고 하여 송이 열세에 처해 있었다고 주장했고, 王曉波 또한 진종 시대에 요나라와 치러졌던 전연의 전역을 포함한 네 차례의 전쟁을 분석한 끝에 “송은 이미 한·당의 옛 땅인 연운십육주를 회복할 힘이 없었고, 요의 보복성 침입은 설사 패배보다 승리가 많았지만 송의 영토를 잠식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여 요나라는 절대적 우세를 차지할 수 없었으며, 송나라는 비교열세의 처지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41)</sup>

그러나 肖華忠은 많은 사람이 전연맹약 체결의 원인을 송 진종의 요조에 대한 두려움과 송조 자체의 積貧積弱 등의 원인에서 찾았지만 맹약의 체결이 송 진종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송요 쌍방의 군사역량도 서로 비슷하면 서로 양측은 모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군사 대항 중에서는 요조가 지리적 우세 등을 가지고 있어서 체결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진종이 요조를 두려워했다는 데 대한 반론을 보면 첫째, 요군의 남침은 진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당시의 송조는 태조, 태종을 이어 아직 항상 발전단계에 있었다. 진종은 처음에 전투를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둘째, 요군이 대거 남하해서 송의 경내로 깊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알고 진종이 여러 신하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상의한 것은 개명 군주로서의 모습이지 두려워했다

40) 李涵, 1992, 「從寇準的遭際看北宋前期君權與相權的矛盾」, 鄧廣銘·漆俠, 主編, 『國際宋史研討會論文選集』, 保定: 河北大學出版社, 352~354쪽

41) 高美玲, 1988, 「關於澶淵之盟的幾個問題」, 『華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8-1, 65쪽; 田相林, 2001, 「宋遼澶淵之盟—古代少數民族與漢族長期和好的範例」, 『平原大學學報』, 18-4, 46쪽; 王曉波, 2003, 「對澶淵之盟的重新認識和評價」,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3-4, 115쪽

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재상 구준의 주장이 더욱 실제적이고 비교적 합리적이  
라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 면에서 당시 양국의 국내정세에서 볼 때 요  
조가 더욱 복잡하였고 취약하였다. 경제 면에서도 송조가 요조를 패배시킬 만  
큼 우세하였고, 군사역량 면에서도 송의 군대의 사기가 왕성하였을 뿐만 아니  
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할 때 송요 쌍방의 군사역량은 상대적으로 균형적이었  
으나 지리적 형세에서 요가 절대적으로 우세하였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보  
았다.<sup>42)</sup>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전쟁은 독립되어 있  
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고 하였다. 또한 전쟁이란 이것을 야기시키는 동기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져  
간다는 것이다.<sup>43)</sup> 이는 전연의 전쟁과 맹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요의 입장

982년 景宗이 죽고 즉위한 성종(982~1031 재위)은 겨우 11세였으므로 그의  
모친이자 경종의 황후였던 承天皇后가 섭정하였다.<sup>44)</sup> 승천태후, 즉 소태후  
는 요조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미친 걸출한 여인이었다. 그 원인의 하  
나는 요조황실에서는 단일한 蕭氏 성의 后族에서 황후를 맞이하였는데, 후족  
은 각종 권세 있는 관직을 맡을 수 있는 세습적인 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황  
실에 들어온 황후 또한 관료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문이었다. 승천태후  
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녀는 경종 시대 초기에 北院樞密使와 北府宰相을 역임  
했던 蕭思溫의 딸이었다. 경종 생전부터 정치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그  
녀는 아들이 재위에 오른 다음에 30세 남짓한 나이로 국정을 좌우하게 되었다.

승천태후는 1009년 죽을 때까지 성종 시대의 전반기에 세 명의 중신과 더

42) 肖華忠, 1991, 「關於“瀟淵之盟”簽訂原因的商兌」, 『江西師範大學學報』 24-3, 109~112쪽

43) 클라우제비츠, 李鍾學 譯, 1987, 앞의 책, 25쪽

44) 그녀에 대한 傳記는 『遼史』 권71, 「后妃傳」, 1201~1202쪽 참조.

불어 권력을 장악하고 조정을 공동 집정하는 형태로 운용하였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은 漢人이었다. 979년 송조가 침입한 이래로 이 세 사람은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室昉으로 하북 薊州 사람이고 학식이 박학했다고 한다. 穆宗 통치시기에 특히 10여 년 동안 翰林學士를 맡았고 경종에게도 크게 인정을 받아서 관직이 점점 올라가서 979년에는 북부재상이 되었고 성종이 즉위한 다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후에도 중요한 직무를 맡아서 賢才를 등용하고 백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펴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993년 그는 韓德讓을 자기 대신 추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sup>45)</sup>

한덕양은 또한 계주 출신의 한인이다.<sup>46)</sup> 그러나 그의 배경은 실방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그의 조부 韓知古는 어려서부터 거란인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耶律阿保機 皇后家の 성원이 되고 야율아보기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다.<sup>47)</sup> 따라서 야율아보기 시대에 명성을 떨쳤고 거란에서 가장 세력을 차지한 한인가족의 시조였다. 그의 아들 韓匡嗣 역시 계속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960년대에는 경종과 매우 친한 관계였다.<sup>48)</sup> 경종이 등극한 후에도 두터운 신임과 요직을 맡았다. 981년에 죽을 때까지 경종에 대한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귀족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씨 가족의 100여 년에 걸친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기초를 만들었다.<sup>49)</sup>

한광사의 아들 가운데 한덕양(941~1011)은 그 부친의 지위를 계승하였고 경종이 타계할 때 耶律斜軫과 함께 遺命을 받아서 나이 어린 성종을 황제로 옹립하는 데 공을 세웠다. 따라서 소태후는 매우 그를 존중하고 아꼈다. 그는 점점 요 제국의 강력한 권력자가 되었다. 송조의 사료에는 그를 악의적으로 묘

45) 『遼史』 권79, 「室昉傳」, 1271~1272쪽

46) 『遼史』 권82, 「耶律隆運傳」, 1289~1291쪽. 韓德讓은 거란 황제에게 耶律隆運이라는 賜姓名을 받았다.

47) 『遼史』 권74, 「韓知古傳」, 1233쪽

48) 『遼史』 권74, 「韓匡嗣傳」, 1234쪽

49) 羅繼祖, 「遼漢臣世系表」, 楊家駱 編, 『遼史彙編』 4-35, 2쪽

사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가 소태후의 연인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1004년에 그는 황실의 성인 야율씨를 받았고, 세 명의 동생들 또한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

이 외에도 성종 초기에 권세를 가진 인물은 거란인과 황족 구성원 등이었다. 그 가운데 야율사진<sup>50)</sup>은 統帥 耶律曷魯의 손자로 969년에 이미 황태후의 부친이었던 樞密使 소사온이 경종에게 추천하였다. 그는 979년 송과의 작전 때 두각을 나타내어 소태후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성종이 즉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태후는 그의 충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소태후는 그에게 많은 중요한 직무를 맡겼으며 그를 복원 추밀사로 임명하였다. 그는 바로 1004년 송과의 전쟁 기간에 죽기 전까지 매우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외에 통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 거란인은 통수 耶律休哥로 그는 984년에서 998년에 죽기 전까지 추밀사라는 중요한 직무를 맡았고, 또한 이 시기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sup>51)</sup> 야율휴가와 야율사진이 죽은 다음 한덕양이 그들의 직을 대체로 맡아서 999년에서 1011년까지는 한덕양이 요 조정의 군정대권 전부를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승천태후가 활약했던 시기에 그녀가 專權을 가졌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몇몇 중신들 역시 황태후의 편이었다. 더욱이 어린 황제는 완전히 모친의 간섭을 받았고, 심지어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에도 모친은 그를 배척하고 권력을 행사하였다. 성종이 즉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자신이 섭정하는 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였다. 황태후는 결코 폭군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권력의 현실성과 통치기술을 깊이 체득하고 있는 통치자였다. 그녀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건의를 듣기 원했다. 또한 거란인이나 한인을 막론하고 요조의 관원에게 지대한 충성심을 얻었다. 그녀는 스스로 군대의 통수가 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전연의 전역에서는 60여 세의 몸으로 송과의 전투에서 三軍의 군대를 지휘하였다. 『요사』에서도 그녀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50) 『遼史』 권83, 「耶律斜軫傳」, 1302쪽

51) 『遼史』 권82, 「耶律休哥傳」, 1289~1291쪽

있다.<sup>52)</sup>

그런데 여기에서 왜 거란 측이 화의를 결정했는가의 의문이 남는다. 이를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에 대입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공격자가 적 국토 내에 깊이 침입함에 따라 전략적 측면은 길어지고 거기서 생기는 위험은 증대한다. …… 적국 내에 전진하는 공격자는 끊임없이 약화하는 전투력을 계속 보충해야 하는데도 그 보급원에서 멀어지며, 공격자의 전진과 더불어 더 심해진다. 따라서 침략군은 이 점에서 호롱불과 유사하다. 給油源이 더욱더 저하되어 光點에서 더욱 멀어짐에 따라 불빛은 그만큼 미약해져 마침내 소멸되는 것이다. 만약 공격자가 정복한 지역이 부유하다면 보충의 어려움은 감소되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 공격자가 자국에서 가져와야 할 것은 대단히 많으며, 특히 인원은 자국에서 보충하는 길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자국과는 형편이 달라 물자의 공급은 신속 확실하게 운반되지 않으며, 또 불시의 필요가 생겨도 곧 여기에 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해나 과실이 생겨도 이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訂正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종 시대는 요조의 발전에서 하나의 중요한 시기였다. 983년에서 1031년의 일련의 유혈사태와 오랫동안 계속된 전쟁은 거란의 군사 역량이 극한에까지 확대 전개되었음을 뜻한다. 비록 모두 승리를 얻지는 못했지만 동북아의 한 세기의 부분적인 충돌과 불안정한 평화를 각 방면에서 역량의 균형으로 귀결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송과의 1004년의 화의 체결 및 고려와 1019~1020년간의 대치상태 등을 마무리함으로써 요조는 주요 인접국과의 대규모 전쟁상태를 끝냈다고 할 수 있다.

## 2. 맹약의 성격

몇 차례의 사신을 교환한 결과, ① 송은 매년 絹 20만 필, 은 10만 냥을 요에 준다. ② 양국의 국경은 현상을 유지하고 거기에 근접하여 군사시설을 구축하

52) 『遼史』 권71, 「后妃傳」, 1202쪽

지 않는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전연의 맹약에서 체결된 조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함께 정성과 신의를 다해 받들고, 좋은 맹약을 굳게 지킨다. 풍토의 마땅함으로 軍旅費를 도와주는데, 매년 견 20만 필, 은 10만 냥<sup>53)</sup>으로 하며, 사신을 전담하여 北朝<sup>54)</sup>로 파견하지 않고, 다만 삼司의 差人으로 하여금 雄州에 운반하여 이르게 하여 교부한다.<sup>55)</sup>

② 연변의 州軍은 각각 경계를 준수하고<sup>56)</sup> 두 지역의 人戶는 상호 침범하지 않는다.<sup>57)</sup>

53) 송이 요에 제공한 세폐의 액수는 전연의 맹약 때 은 10만 냥, 비단 20만 필로 정해졌지만, 송 仁宗 慶曆 2년(1042)의 협약에 따라서 다시 은 10만 냥과 비단 10만 필이 증액되었다. 이 세폐의 총액이 송나라 재정에 얼마만큼의 부담을 끼쳤는가에 대해 요나라와 교전하는 군사비 지출과 비교했을 때 세폐는 교전 예상비용의 100분의 1~2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도 榷場의 무역을 통하여 상당한 액수를 회수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榷場의 이익이 세폐의 10분의 6의 액수에 해당하며, 河北의 지출과 비교할 때 재정상의 무거운 부담은 아니었다는 주장에서 보듯 세폐는 송 재정에 그리 무거운 부담은 아니었다. 王曉波, 2003, 앞의 논문, 117~118쪽; 田相林, 2001, 앞의 논문, 46쪽

54) 송은 거란에 대해 北朝라 하고 스스로는 南朝라 칭하였다. 거란도 송에 대해 南朝, 漢土, 漢國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칭호는 명백히 지리적 방위를 통해 외국과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宋史紀事本末』 권21에는 “(景德二年)二月癸卯, 遣太子中允孫僅, 如契丹賀其太后生辰, 致書自稱南朝, 以契丹爲北朝, 直史館王曾上言, 春秋時小國爵不過子, 今從其國號足矣, 何用對稱兩朝! 不聽”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芮忠漢은 “송조와 요조는 서로를 외국으로 보지 않았으며, 요왕조는 스스로를 송과 남북으로 대치하는 중국 왕조로 간주했다”라 주장한다. 芮忠漢, 2002, 「談“澶淵之盟”」,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2002-5 참조.

55) 葉隆禮·賈敬顏·林榮貴 點校, 『契丹國志』(上海古籍出版社, 1985), 권20, 「澶淵誓書·宋眞宗誓書」, “共遵誠信, 虔守歡盟. 以風土之宜, 助軍旅之費, 每歲以絹二十萬匹, 銀一十萬兩, 更不差使臣專往北朝. 只令三司差人搬送至雄州交割.”

56) 澶淵의 盟約 당시 양국의 국경은 燕雲 16州 중에 後周 世宗이 획득한 瀛州, 莫州와 互橋關, 益津關, 淤口關을 제외한 것이다. 당시 거란은 이 관남지역을 다시 회수하려 했으나, 서로 당시의 경계를 기준으로 국경을 삼았던 것이다. 한편 이후 인종 때 송과 서하가 전쟁을 하자 거란이 이 틈을 타서 다시 이 관남지역을 위협하자 송은 어쩔 수 없이 세폐를 30만 필에서 20만 필을 증액하여 총 50만 필로 되었다.

57) 『契丹國志』 권20, 「澶淵誓書·宋眞宗誓書」, “沿邊州軍, 各守疆界, 兩地人戶, 不得交侵.”

③ 만약 도적이 상대방 지역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으면 머무르거나 은닉하지 않도록 한다.<sup>58)</sup>

④ 전답에 심은 곡식에 대해 남북은 소란스럽게 하거나 어지럽히지 않는다.<sup>59)</sup>

⑤ 모든 양 지역의 城과 池는 모두 옛것에 의거하여 지킨다. 해자도 준설하여 완전하게 수리하며, 모든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한다. 즉, 새로 성과 해자를 쌓거나 河道를 파지 못한다.<sup>60)</sup>

⑥ 誓書 외에는 각각 요구하는 바가 없으며, 반드시 협력에 힘써 유구하게 보존될 것을 기대한다. 이로부터 현명한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면서 삼가 국경을 지킨다. 天地 神祇에 맹세하며, 종묘사직에 고한다. 자손들도 함께 지키며, 무궁하게 전하라. 이 맹서를 어기면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니, 하늘에서 밝게 비추어 보면서 징벌할 것이다. 멀리서 그 사정을 피력하여 개진하면 오직 보복을 기다리며, 선포하지 아니한다.<sup>61)</sup>

이상을 조약체결의 장소인 전주의 별칭을 사용하여 ‘전연의 맹약’이라고 부른다.

이 和約은 12세기 초 요의 멸망 얼마 전에 송 측이 파기하기까지 1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에 걸쳐 효력을 발휘하였다. 한족과 이민족이 거의 대등한, 어느 면으로는 이민족이 우위에 섰던 조약을 체결한 것은 당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이었다. 당시 진중은 교섭의 사자 조이용이 세폐의 액을 보고하

58) 『契丹國志』 권20, 「澶淵誓書·宋眞宗誓書」, “或有盜賊, 逋逃彼此, 無令停匿.”

59) 『契丹國志』 권20, 「澶淵誓書·宋眞宗誓書」, “至於墉畝稼穡, 南北勿縱騷擾.”

60) 『契丹國志』 권20, 「澶淵誓書·宋眞宗誓書」, “所有兩地城池, 並可依舊存守. 洶濠完葺, 一切如常. 卽不得創築城隍, 開掘河道.”

61) 『契丹國志』 권20, 「澶淵誓書·宋眞宗誓書」, “誓書之外, 各無所求, 必務協同, 庶存悠久. 自此保安黎獻, 謹守封陲, 質於天地神祇, 告於宗廟社稷. 子孫共守, 傳之無窮. 有渝此盟, 不克享國. 昭昭天鑒, 當其殛之. 遠具披陳, 專俟報復, 不宣.” 이상의 내용은 송 측의 기록인 『長編』 권58, 景德 元年 12月 辛丑條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자 그 10배의 지불을 각오했었다고 하며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송 측으로는 거란과의 臨戰 체제에서 막대한 군비를 들이는 대신 평화를 사는 것이 편한 일이었다. 사실 전연의 맹약은 북송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였고, 한편 거란의 입장에서도 세폐로서 받는 이익을 건전하게 운용한다면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 또한 이 화약에서 거란과 송의 국경선에는 응주, 霸州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榷場(무역장)이 설치되어 양국의 국제무역 진전에 도움을 주었다. 이어서 송과 요는 매년 정월과 황제의 탄생일에 정기적으로 사절을 교환하였다. 이것 또한 새로운 외교를 장식해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연의 맹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재되어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양국 상호 간의 승인과 정식외교 왕래의 수립이다. 정기적으로 파견된 사절은 두 가지 작용을 하였다. 元묘과 군주의 생신에 보내는 정기적인 사절과 기타 경우에 파견된 사절은 군주 혹은 황후 등의 죽음에 대한 위문 등이다. 이러한 외교적 왕래의 개념, 儀式과 외교 辭命 등은 완전히 중국인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해 모두 상세한 규정이 있었고 全權을 대표하는 出行과 그들이 알현할 때의 대우, 예의 규칙 등도 중시되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파견된 사절 이외에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어떠한 교섭이 진행될 때 역시 일종의 特使가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빈번한 외교 왕래는 대량의 문서 작업을 필요로 하였고 당시 자료 가운데 많은 외교 문건이 남아 있다.

그러나 요에 대한 승인은 결코 지위상의 진정한 평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비록 ‘황제’라는 신분으로 서로 승인하기는 하였지만 일종 미묘한 구별을 두었다. 虛構의 친속관계의 용어를 사용하여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양측의 황제를 형제로 부른 것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어느 정도 불평등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규범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서로의 관계에 대한 조정은 서양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그들은 공유하는 한 장의 문서상에 서로가 서명한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각기 한쪽에서 상대방에게 내용이 같은 誓書를 쓰고 그 가운데 근엄하게 서로 약정을 지킨다는 것을 승인하고 아울러 천지신명을 향해 서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내용은 물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조약

을 정립하는 의식으로써 서약하는 형식을 이루고 있다. 송과 맹약을 체결한 국가(요, 서하, 금 등)들은 모두 중국의 제도를 채용하였는데, 이는 절차상의 일치성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치성은 사절에 대한 접대에서도 확대 전개되었다. 사절에 대한 접대상의 의식은 상고 중국인의 관념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즉, 그 예절과 의식은 예의를 기술한 서적인 『禮記』와 『儀禮』 가운데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절과 문건을 통해 진행된 외교 접촉을 정복국가를 중국적인 세계 안으로 흡수하는 것을 강화하고 촉진시켰다.

송은 비록 매년 세폐로 은 10만 냥, 견 20만 필의 손해를 보게 되었으나 이는 장기간의 평화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북송 말에 금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키기까지 송요 간에는 평화적인 관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동안의 중요한 외교교섭으로는 이후 전연의 맹약에서 38년이 지난 인종 경력 2년(1042), 增幣 교섭이 있었다. 즉, 요 성종을 이은 興宗은 국력의 안정을 배경으로 후주의 세종이 요에서 탈환했던 연운 16주 중의 10현과 북한에 옛 영토를 할양하라고 요구하였다. 송은 富弼을 사신으로 보내어 영토 할양을 거부하는 대신 세폐를 견·은 각 10만씩 증액하는 조건으로 매듭지었다. 또한 1074~1075년의 邊界 答판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조약 내용에서 은과 견은 사실상 군사보상비로, 거란이 요구했던 관남지역의 반환을 무마한 것이며, 바로 세폐인 셈이다. 이 세폐는 명칭상 朝貢, 또는 進貢으로 되어 있지 않다. 물건을 주는 형식도 거란의 수도에 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경지역에 가서 교부하는 것이었다. 이 세폐를 제외하면 전연의 맹약에서 규정된 내용은 비교적 평등하게 되어 있다. 평등한 규정이란 첫째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군주를 '황제'로 호칭하였다. 둘째는 '남북조'라는 칭호이다. 이러한 칭호는 조약 가운데 존재하는 것 이외에도 차후의 國書와 관방 문서 중에 역시 적지 않게 기재되어 있다. 셋째는 양조 평등한 외교의 예절이다. 이러한 예절은 상대방 사절에 대한 대우와 예물의 교환을 포괄한다. 모두 세심하게 어떠한 일방이 굴욕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넷째, 의제적 親緣關係를 설정하여 군주 간의 친속關係를 만들었다. 즉, 상하 준비의 개념이 아닌 長幼의 구분으로 關係를 설정한 것이다. 송 진종은 요 성종과 형제가 되

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요 태후를 숙모라 존칭하였다. 이는 차후 친속관계가 계속 존재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처럼 전연의 맹약에서 ‘송은 형제관계를 통해 외교적 평등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평가되지만, 세폐의 규정에서 보건대, 사실상 조약은 불평등한 성격도 없지 않다. 1008년 거행된 진종의 泰山 封禪은 이러한 외교적 좌절과 전연의 맹약에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이었다.<sup>62)</sup> 전연의 맹약은 불평등한 실제 내용을 외교적 평등함을 통해 감추었던 것이다.

또한 경덕 誓書 가운데 이미 ‘남북조’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었고 서로 이렇게 호칭한 것은 습관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남북조라는 호칭은 평등한 것으로 일부 송인은 이것이 하나의 큰 실책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맹약 성립 직후인 진종 경덕 2년(1005) 2월에 태자 中允과 孫僅을 거란에 보내 그 태후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남조라고 자칭하고, 거란을 북조라고 하여 치서하였다. 그러자 直史館 王儗이 상언하기를,

“『春秋』에서는 夷狄을 외로 하고 작위는 子를 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 국호를 따르는 것만 해도 죽한테 어찌하여 양조를 대등하게 칭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sup>63)</sup>

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평등한 호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대체로 당시에 이 용어가 공식화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sup>64)</sup>

물론 이러한 관계설정에 대해 모두 이념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다.<sup>65)</sup> 즉,

62) 박지훈, 2000a, 「北宋 眞宗의 封禪과 道教崇拜」, 『宋遼金元史研究』 4호, 87~88쪽

63) 『송사기사본말』 권21, 147쪽

64) 陶晉生, 1983, 『宋遼關係史研究』,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30~31쪽

65) 陶晉生の 「北宋朝野人士對於契丹的看法」(『宋遼關係史研究』, 97~30쪽)에서는 거란에 대한 태도를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官方的 공개적인 대요태도, 둘째, 官方과 個人的 私的인 宋朝의 우월한 지위를 강조하는 태도, 셋째, 私的으로 實事求是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등이다.

송 측에서는 거란이 이적이라는 화이관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단지 현실논리에 따라 ‘息民’이라는 목적이 명분론보다 앞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연의 맹약을 맺은 당시의 기사에는 華夷觀에 관계된 고려는 없다. 단지 당시에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이었을 뿐이다.<sup>66)</sup> 전연맹약의 체결은 송요 간의 장기간 평화의 기초를 이루었고 양국 문화와 경제적 발전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평화는 북송 조야 인사에게 일종의 진취적이 아닌 현실에 안주하는 심리를 만들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통계에 따르면 북송 통치 기간 165년 가운데 송요 평화 기간은 122년이고, 평화를 잃은 기간은 겨우 43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요의 침입으로 인해 일어난 전연의 전역을 마무리하면서 맺은 전연의 맹약은 송요 외교관계의 기초가 된 것이다. 비록 송 태종은 소위 ‘攘夷’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여러 차례의 좌절과 패배였다. 진중은 거란과 맺은 전연의 맹약에서 양조 간의 평등관계를 명확히 수립했다. 이는 이후 송요의 평등한 외교관계와 장기적인 평화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위의 조약 내용에서 은과 견은 사실상 군사보상비로, 거란이 요구했던 관남지역의 반환을 무마한 것이며, 바로 세폐인 셈이다. 이 세폐를 제외하면 전연의 맹약에서 규정된 내용은 비교적 평등하게 되어 있다. 평등한 규정이란 첫째,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군주를 ‘황제’로 호칭하였다. 둘째는 ‘남북조’

66) 박지훈, 2000b, 「宋代 異民族 國家에 대한 認識」, 『外大史學』 12, 491~519쪽; 박지훈, 2002, 「北宋代 華夷論의 性格」, 『梨花史學研究』 29, 59~81쪽; 박지훈, 2004, 「北宋代 澶淵의 盟約과 華夷論」, 『京畿史論』 8, 373~394쪽

라는 칭호이다. 셋째는 양조 사이의 평등한 외교의 예절이다. 넷째, 의제적 親緣관계를 설정하여 군주 간의 친속관계를 만들었다. 즉, 상하 준비의 개념이 아닌 長幼의 구분으로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대체로 전통시대에 진중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편이었다. 특히 전쟁 이후 天晝와 封禪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까지 더해져 있었다. 송조의 병폐가 되는 積貧積弱이 노정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연의 전역 당시 송요 양측의 객관적인 군사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군사력 뿐만 아니라 開戰과 終戰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쟁도 일종의 정치적인 교섭의 하나라고 보는 클라우제비츠의 견해<sup>67)</sup>에 대입한다면 전연의 맹약은 그 이전부터의 송요 전투의 과정에서 강화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요의 남침에 따라서 시작된 전연의 전쟁은 서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북송의 입장에서 전례에 없이 요에 대해 거의 대등한 국가적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전연의 맹약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다민족 일체주의에 입각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농후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중국의 영토 내에서 존재했던 모든 민족의 역사가 모두 중국의 역사라는 다민족주의적 관점에 의거한다면 송요 간의 전쟁도 일종의 내전(civil war)이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연구성과에서도 요송 전쟁은 10세기 후반기부터 11세기 초까지 중국 북방의 광대한 지구에서 발생했던 일종의 내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68)</sup>

67) 클라우제비츠, 李鍾學 譯, 1987, 앞의 책, 217~218쪽. “전쟁은 정치적 교섭의 계속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고 정치적 계속에 있어서 다른 수단을 섞은 계속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로 알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교섭은 전쟁에 의해서 단절되는 것도 아니며, 또 전혀 별개의 것으로 轉化되는 것도 아니다. 가령 이러한 경우에 정치적 교섭으로 사용되는 수단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여전히 그 본질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쟁에 있어서의 일체의 사건이 더듬는 주요한 路線은 전쟁을 뚫고 講和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계속되는 정치적 교섭의 要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68) 徐紅年, 1994, 『論遼宋戰爭的性質』, 『北京社會科學』 1994-1, 109~113쪽. 그것은 두 봉건정권 사이의 역사상에 남아 있던 영토분쟁이 일으킨 전쟁으로 많은 폐해

그러나 당시에 송과 요는 분명히 독립적인 정권이었고, 별개의 민족이었다. 더구나 전연의 맹약에서 서로 인정한 활책에서는 상대를 남조와 북조로 인정하고 있다. 전통적인 史書의 기술 자체가 한족 왕조인 송을 정통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맹약이 송에게 굴욕적이었는가, 아니면 평등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현재의 입장을 역사해석에 투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즉, 오늘날 중국의 민족융합을 강조하는 의도가 개재된 평가는 지양하면서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바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를 일으켰고, 비정의적이고 약탈적이며 인민의 생명과 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요송전쟁은 쌍방의 교전 세력이 비슷하여 전쟁이 계속 되다가 최후에는 쌍방이 평화협정 즉 '전연맹약'을 체결함으로써 끝났다. 즉 '전연맹약'은 중국 역사상 100여 년에 달하는 삼국정립과 평화상태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다고 평가하였다.

## 참고문헌

### 〈자료〉

- 『文淵閣 四庫全書』(1782),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影印本, 1983
- 『全遼文』, 中華書局, 1982
- 馬端臨(元), 『文獻通考』
- 徐松, 『宋會要輯稿』,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影印本
- 葉隆禮·賈敬顏·林榮貴 點校, 1985, 『契丹國志』, 上海古籍出版社
- 葉紹翁(宋)·心錫麟·馮惠民 點校, 1989, 『四朝聞見錄』, 『唐宋史料筆記叢刊』, 北京: 中華書局
- 楊士奇(明), 1983, 『歷代名臣奏議』, 『文淵閣 四庫全書』, 第442卷,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影印本
- 李燾(宋), 1985, 『續資治通鑑長編』, 上海師範學院古籍整理研究室·華東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室 點校, 北京: 中華書局
- 著者未詳(元), 『宋史全文』, 『四庫全書』, 第330·331卷
- 著者未詳, 『兩朝綱目備要』, 『四庫全書』, 第329卷
- 趙汝愚 編, 1999, 北京大學中國中古史研究室校點整理, 『宋朝諸臣奏議』上下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陳邦瞻(明), 1977, 『宋史紀事本末』, 全3冊, 北京: 中華書局
- 脫脫 等(元), 『宋史』, 中華書局本
- 脫脫 等(元), 『遼史』, 中華書局本

### 〈단행본〉

- 陶晉生, 1983, 『宋遼關係史研究』,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 任崇嶽 주권, 2004, 『中原地區歷史上的民族融合』, 內蒙古人民出版社
- 張其凡, 2009, 『宋代政治軍事論稿』, 合肥: 安徽人民出版社
- 張希清·田浩·穆紹珩·劉鄉英 主編, 2007, 『瀟淵之盟新論』, 上海: 人民出版社
- 白奇寅, 1998, 『中國軍事制度史』,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 정해은, 2006, 『고려시대 군사전략』,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몽고메리, 송영조 역, 1995, 『전쟁의 역사』 I, 서울: 책세상
- 클라우제비츠, 李鍾學 역, 1987, 『戰爭論』增補新版, 서울: 一潮閣

## 〈논문〉

- 朴志焄, 2000, 「宋代 異民族 國家에 대한 認識」, 『외대사학』, 12집
- 朴志焄, 2000, 「北宋 眞宗의 封禪과 道教崇拜」, 『宋遼金元史研究』, 4호
- 朴志焄, 2002, 「北宋代 華夷論의 性格」, 『이화사학연구』, 29집
- 朴志焄, 2004, 「北宋代 澶淵의 盟約과 華夷論」, 『경기사론』, 8호
- 朴志焄, 2008, 「복송대 禦戎論과 華夷論」, 『역사문화연구』, 30호
- 朴志焄, 2010, 「송요시기 민족융합론에 대한 시각과 비판: 최근 중국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35호
- 朴志焄, 2010, 「송 태종대 옹희복벌에 관한 연구」, 『군사』, 제74호
- 李錫炫, 2009, 「전연의 맹의 성립과 송인의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6호
- 피터 윤, 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45-3.
- 賈玉英, 2005, 「宋遼交聘制度論略」, 『中州學刊』, 總第150期
- 葛兆光, 2004, 「宋代“中國”意識의 凸顯: 關於近世民族主義思想的一個遠源」, 『文史哲』, 總第280期
- 高美玲, 1988, 「關於澶淵之盟的幾個問題」, 『華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8年 1期
- 郭正忠, 1982, 「歐陽修與宋遼關係」, 『社會科學輯刊』, 1982年 2期
- 管彥波, 2001, 「中國古代史上的民族融合問題(上)」, 『歷史教學』, 2001年 8期
- 管彥波, 2001, 「中國古代史上的民族融合問題(下)」, 『歷史教學』, 2001年 9期
- 羅朝霞, 2000, 「“澶淵之盟”之性質辨」, 『貴陽師專學報(社會科學版)』, 總第59期
- 陶玉坤, 1999, 「遼宋對峙中的使節往來」,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31卷 第2期
- 陶玉坤, 2000, 「遼宋和盟狀態下的政治對抗」,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32卷 增刊
- 孟古托力, 1990, 「宋遼“南北朝”說考論」, 『學習與探索』, 總第68期
- 孟古托力, 1998, 「遼代東北亞各族關係述論」, 『黑龍江社會科學』, 總第49期
- 苗浚1, 1993, 「試論遼王朝的外交政策」, 『昭烏達蒙族古師專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第14卷 第1期
- 方良, 2000, 「宋眞宗和遼國策平議」, 『蘇州鐵道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7卷

第1期

- 范家全·吳曉萍, 2008, 「兩宋與遼金外交之比較: 以盟約和國書爲中心」, 『安徽師範大學學報』, 第36卷第3期
- 徐傑舜, 2005, 「宋遼夏金民族互動過程述論」, 『貴州民族研究』, 總第103期
- 徐紅年, 1994, 「論遼宋戰爭的性質」, 『北京社會科學』, 1994年 第1期
- 宋德金, 1998, 「二十世紀中國遼金史研究」『歷史研究』, 1998年 第4期
- 楊浣, 2006, 「遼夏關係史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 閻玉啓, 1990, 「遼朝的養馬業和遼宋關係」, 『北京師範大學學報』, 1990年 第4期
- 芮忠漢, 2002, 「談澶淵之盟」,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2002年 第5期
- 王善軍·王慧傑, 2006, 「簡論使遼對北宋使臣政治性格的影響」,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總第128期
- 王成國, 1987, 「遼代民族政策初探」, 『北方文物』, 1987年 2期
- 王育濟, 1996, 「宋初“先南後北”統一策略的再探討」, 『東嶽論叢』, 1996年 第1期
- 王才忠, 2003, 「略論“澶淵之盟”」, 『阜陽師院學報(社科版)』, 1994年 第1期
- 王曉波, 2000, 「宋太宗雍熙北伐失敗後的對遼策略」,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總第109期
- 王曉波, 2003, 「對澶淵之盟的重新認識和評價」,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3年 第4期
- 熊燕軍, 2002, 「試論宋代堅持“重文輕武”政策的原因」, 『湖北省社會主義學院學報』, 2002年 第4期
- 韋祖松·張其凡, 2005, 「簡論高璟澶淵之功」, 『歷史教學』, 總第503期
- 李錫厚, 2005, 「宋遼金時期中原地區的民族融合」, 『中州學刊』, 總第149期
- 李華瑞, 1997, 「關於宋初先南後北統一方針討論中的幾個問題」,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2卷 第4期
- 林榮貴, 2000, 「北宋與遼的邊疆經略」『中國邊疆史研究』, 第10卷 第1期
- 任仲書·蘇紅, 2006, 「遼宋金元時期的民族關係」, 『渤海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8卷 第6期
- 張國慶, 1995, 「遼朝軍隊的軍事訓練和後勤制度述論」, 『內蒙古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5年 第4期
- 蔣復璁, 1964, 「澶淵之盟的研究」, 宋史座談會(編), 『宋史研究集』, 第2輯, 臺北: 國立編譯館中華叢書編審委員會

- 蔣維忠·安貴臣, 1996, 「遼, 宋, 金, 元時期各族的中華意識評析」, 『中央民族大學學報』, 1996年 第2期
- 田相林, 2001, 「宋遼“澶淵之盟”: 古代少數民族與漢族長期和好的範例」, 『平原大學學報』, 第18卷 第4期
- 趙永春, 2008, 「試論“澶淵之盟”對宋遼關係的影響」, 『社會科學輯刊』, 總第175期
- 曹顯徵, 2006, 「遼宋實現首次交聘之背景分析」, 『北方文物』, 總第85期
- 曹顯徵, 2008, 「遼宋交聘制度的初步確立」, 『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0卷 第4期
- 陳隆濤, 1984, 「《遼宋關係和澶淵之盟》教材分析」, 『歷史教學』, 1984年 第1期
- 陳峰, 2007, 「北宋禦遼戰爭的演變與“澶淵之盟”的產生及影響」, 『史學集刊』, 2007年 第3期
- 肖華忠, 1991, 「關於“澶淵之盟”簽訂原因的商兌」, 『江西師範大學學報』, 第24卷 第3期
- 彭鳳萍, 2001, 「北宋與遼朝的關係」,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漆俠, 1991, 「宋太宗第一次伐遼: 高粱河之戰—宋遼戰爭研究之一」, 『河北大學學報』, 1991年 第3期
- 漆俠, 1992, 「遼國的戰略進攻與澶淵之盟的訂立」, 『河北大學學報』, 1992年 第3期
- 何天明, 2002, 「澶淵議和與王繼忠」, 『內蒙古社會科學』, 第23卷 第3期
- 黃鳳岐, 1885, 「遼宋交聘及其有關制度」, 『社會科學輯刊』, 總第37期
- Frank, Herbert and Denis Twitchett, 1944, “Introducti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sabbi, Morris, ed., 1983,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urs, 10–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War and the Peace Treaty between Song China and Liao:  
An Inference from the Battle and Pact of Chanyuan

Park Jihhun

The diplomatic policy of Song during the period from the eleventh to twelfth century is characterized by its pursuit of practical orientation. Because of the impossibility of defeating the the Khitans by military powers Song could not help choosing the policy of a relatively short war and a long-lasting peace at the cost of national territory. The process of the battle and peace at Chanyuan (澶淵) well reflected this policy. After the dynasty had accomplished the re-unification within the original territory of the earlier Song dynasty, it again tried to expand its northern territory by war, but ended in failure and the loss of national strength.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of Chanyuan in 1004 the long war was over, and this w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to decide the diplomatic policy with Liao. It also had been influential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states.

The Song-Liao War was a kind of political tool to conclude the Treaty of Chanyuan to maintain peace with other states; an original goal. The Song-Liao War broke out due to Liao's invasion of Song, but neither attained superiority over the other. Thus Song could not help approving Liao as a state with nearly equal status for the first time.

Since 1980 Chinese historians' view of the Treaty of Chanyuan has been a good example that demonstrates the oneness of the multiple

ethnic groups under one nation. If the view of the perpetual history of the various ethnic groups contemporary Chinese territory belong to Han ethnic group-oriented Chinese history is accepted, the Song-Liao War could be defined as a kind of civil war.

However, it is clear that Song and Liao had separate national identifies from each other at that time and also consisted of different ethnic groups. Furthermore, the Treaty of Chanyuan had content in which Song and Liao approved each other as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Because the authoritative history described the Song dynasty as “genuine” Chinese history, the Treaty of Chanyuan has been debated as to whether it was humiliating to the Han ethnic group or reached between two equals.

I think the arbitrary interpretation of history through contemporary viewpoints contaminated by political power is inclined to be distorted. It is desirable to evaluate history as it was. But, recently, most Chinese historians have a deviated intention to describe their history as such that all of their own past history of different states by different ethnic groups within present Chinese territory belongs to the single Chinese history continued through the Han ethnic group.

#### Keywords

Song Dynasty, Liao Dynasty, War, Peace, Chanyuan, Zhenzong, Empress Xiao

## 복송 초 송 · 서하 전쟁 발발과 확산

유원준 |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9세기 이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였다. 비록 華夷의 엄격한 구별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隋唐제국의 국제질서는 수당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가 배열되는 안정된 동심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안사의 난을 계기로 중원왕조 중심의 책봉질서가 형해화하면서 점차 주변의 제 국가와 민족들이 중원왕조의 역사 전개에 적극 개입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중원왕조와 북방왕조 사이에 힘의 역전이 발생하여 점차 북방왕조로 중심이 옮겨지기 시작해 결국에는 거란<sup>1)</sup>과 금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 투고일: 2011년 10월 4일, 심사일: 2011년 11월 14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30일

1) 『遼史』에는 916년 耶律阿保機가 황제에 즉위하여 ‘大聖大明天皇帝’라는 존호를 받았고 연호를 ‘神冊’으로 했다고 하였으나 국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태종 耶律德光이 947년 후진을 멸망시킨 뒤 국호를 ‘大遼’로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하지만 건국하면서 국호를 정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사료적 신빙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契丹國志』, 권1의 기록에 의거 최초의 국호를 ‘거란’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송 측 사료에는 『요사』와 달리 거란 聖宗이 統和 1년(983)에 ‘大契丹’

자리 잡았다. 이렇게 여러 국가 간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되고, 또 장기 지속되었다는 점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국제질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이 시도되었다. 우선 중원왕조 대외 인식의 근간을 이룬 전통적인 ‘華夷論’에 근거하여 그 구체적 적용 사례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거란·송·금은 물론 주변 국가 간의 상호관계를 다양한 연동관계 안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陳寅恪<sup>2)</sup>의 ‘連環性’ 개념, 당말 이후 중원왕조의 특징을 ‘財政國家’로 파악하고 대외관계를 설명하려는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의 견해 등이 대표적이다. 또 최근에는 南詔·大理를 비롯해 角廝囉 정권 등 그동안 소홀하게 다뤄 왔던 세력까지 이 시대의 주역으로 수용하고 그 관계를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9~13세기 동아시아는 수당제국의 국제질서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지 못한 채 여러 국가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서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 경향성을 일정한 유형으로 정형화하기란 쉽지 않다. 또 당시의 다핵화된 국제정세를 동아시아사적 시각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송·거란, 송·금을 중심으로 한 이원론적 접근 방식을 택하는 연구자들이 절대다수인 점도 하나

---

으로 개칭하였고, 거란 道宗이 咸雍 2년(1066)에 다시 ‘대요’로 개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劉浦江은 건국 초 국호가 ‘大契丹’이었으나 거란 태종이 漢地에서는 ‘대요’, 유목지대는 ‘대거란’이라는 두 개의 국호를 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劉浦江, 2008, 『遼朝國號考釋』, 『松漠之間: 遼金契丹女真史研究』, 北京: 中華書局). 이처럼 여러 차례 국호를 바꾸거나 병용한 것은 거란의 ‘이원정치체제’와 관련 있으며 몽골이 몽골과 대원을 병용한 경우와 흡사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漢文 사료와 달리 거란문자로 된 모든 사료에서는 시종 ‘하라치만(哈喇契丹)’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다. 국호를 비롯해 호칭은 당사자들의 사용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거란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만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고에서는 ‘거란’으로 통일하였다.

- 2) ‘恪’은 보통화에서는 ‘kè’로 읽지만 客家人은 què로 읽는다. 진인각 자신은 義寧話(修水話) 음인 què로 발음하고 영문 서명도 que로 하였기 때문에 통상 ‘천인취’로 표기한다.

의 패러다임을 도출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다.<sup>3)</sup> 그 결과 대외관계에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미시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특징을 관통하는 포괄적인 해석의 틀은 아직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9~13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해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찾는 여러 가지 노력에도 시대를 정형화하기 어렵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요인의 하나가 바로 西夏(1038~1227)다.<sup>4)</sup> 서하는 비록 거란·송·금<sup>5)</sup>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여서 이들 3국의 존망 자체를 위협할 정도가 못 되었고,<sup>6)</sup> 형식적으로

- 3) 黃巢의 난에 참전하면서 더욱더 위세를 떨친 沙陀族은 後唐·後晉·後漢을 건국하면서 중원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사타족의 역할을 빼놓고는 오대의 정치사를 논하기 힘들며, 특히 石敬瑭이 장성 일대 16개 주를 거란에 할양한 사건은 이후 남북관계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송의 건국과 동시에 이 시대를 한족과 북방민족의 관계사로 파악해 온 기존의 시각은 상당 부분 조정을 필요로 한다. 또 송은 건국 당시 오대의 초단기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송 역시 오대를 잇는 또 하나의 단기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송의 통일과 장기 지속을 당연한 결과로 간주하기 보다는 송이 오대적 속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장기 지속이 가능한 통일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원에 대해 정치·군사적 개입을 서슴지 않았던 거란이 송 건국기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지도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 서하의 정식 국호는 大夏다. 국호가 大夏임에도 西夏라고 칭하는 것은 송대인의 관습에 따른 것이어서 송 편향적인 용어이기는 하나 禹가 건국했다는 夏와 중복된 데다가 이미 관습화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서하로 기술하였다. 또 서하가 하나의 할거세력으로 자리 잡은 것은 唐 中和 1年(881), 拓跋思恭이 夏國公으로 봉해진 뒤부터지만 서하의 건국은 1038년이므로 건국 이전의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건국기 이전에 대해 학자들은 夏州정권, 党項정권, 夏州李氏정권, 심지어는 夏州지방정권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건국 전후를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술의 편의를 위해 서하로 통일하였다.
- 5) 우리 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송·요·금’이라고 표기하여 왔다. 하지만 거란의 건국이 916년이고, 송의 건국이 960년이며, 송이 거란에 세폐를 바치는 등 정치군사적으로도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송·요·금’이라는 중원왕조 중심의 표기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 학계에서도 건국 연대에 따라 ‘요·송·금’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거란·송·금’으로 표기하였다.
- 6) 至道 2년(996), 參知政事 張洎는 사막 지형을 이용하여 유격전을 전개하고 있는 李繼遷을 공략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송 태종에게 설명하면서 ‘이계천이 승리 하건 패하건 송의 안위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며 전력을 기울여 전쟁을 계속할 필

도 이들 3국에 신복하였지만, 거란·송·금 역시 서하를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존재였다.<sup>7)</sup> 또한 서하는 거란·송 양국 간의 외교적·군사적 모순을 최대한 이용하여 독자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실크로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면서 200여 년 동안 동아시아 정세의 유동성을 극대화시킨 국가였다. 따라서 이 시대의 다극체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서하에 대한 사료는 그 역사적 비중에 비해 매우 영성한다다가<sup>8)</sup> 남아 있는 사료도 거의 전적으로 송 측에서 작성한 것들이다. 또 그 내용도 거의 대부분 전쟁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거란과 서하의 동맹관계가 송조의 안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에 송으로서는 거란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도 서하를 군사적으로 제압 내지는 소멸시킴으로써 그 압력 고리를 타파하는 것이 대서하정책의 핵심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서하를 통해 송을 견제하는 것이 거란의 대송정책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환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송·서하 전쟁사에 대한 분석은 서하사 연구의 출발점인 동시에 핵심 과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9)</sup>

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李燾, 『續資治通鑑長編』(이하 『長編』으로 약칭함), 卷 39, 至道 2년 5월 壬子).

- 7) 원의 관찬 사학자들은 부득이 거란의 정통왕조 지위를 인정하였지만 서하는 정통왕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서하는 거란과 마찬가지로 정통왕조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다. 두 왕조 모두 장기 지속한 안정된 정권이었고, 일부 한인들이 1천 년 이상 거주하던 지역에 강하게 뿌리 내린 채 적대적인 한인정권 송조와 오랫동안 마주하였기 때문이다(Denis Twitchett 等著, 史衛民 等譯, 1998, 『劍橋遼西夏金元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쪽).
- 8) 원대에 『요사』·『송사』·『금사』 등을 편찬하면서 서하의 역사는 별도의 정사를 만들지 않고 『요사』의 『西夏傳』, 『송사』의 『夏國傳』, 『금사』의 『西夏外紀』로 처리하였다. 이는 서하가 이들 3개국에 필적할 만하지 못하다고 간주했기 때문인데, 서하는 '傳'이나 '紀'로 간략하게 처리하기에는 국력이나 역사적 비중이 너무 컸다. 아무튼 정통론에 따른 고정 관념 때문에 실제에 어울리지 않게 전과 기로 처리한 결과, 서하사는 상대적으로 가장 소략하게 다루졌고, 상당 부분 파악하기 힘든 상태로 남아 있다.
- 9) 송·서하 전쟁사 관련 전문서로는 杜建錄의 『西夏與周邊民族關係史』(1995, 甘肅文化出版社)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송·서하 전쟁사만 다룬 것은 아니지만 '宋代以

송 · 서하전쟁사 사료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의 하나는 李燾의 『장편』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어서 많은 연구가 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0)</sup>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시대의 다층 · 다핵적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한 사료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신 · 구 『오대사』를 비롯해서 『요사』와 『금사』 등의 기존 사료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나아가 최근 한역 출판된 黑水城 문서 등 서하 측 자료 활용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필자는 송 · 서하 관계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연구사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검토와 함께 송 건국기 양측의 충돌 원인과 확산 상황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前党項羌及夏州拓跋政權對外關係, '夏宋關係', '夏遼關係', '西夏與吐蕃 · 回鶻關係', '西夏與金 · 蒙關係' 등 여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란 · 송 · 금의 삼각관계와 상호계약 등 관계사 전반을 다루고 있어 송 · 서하 전쟁의 배경과 영향 등에 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송 · 서하 전쟁사 연구 성과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李華瑞의 『宋夏關係史』(1998,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를 들 수 있다. 이화서는 쌍방의 군사적 충돌 외에도 지휘체계, 병력배치, 장비보급 등 복송의 군정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엄밀한 사료 고증을 통해 양국의 전쟁사를 깊이 있게 잘 연구 분석하였다. 그 밖에도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는 李蔚, 1987, 「宋夏橫山之爭述論」, 『民族研究』 1987-6; 王天順, 1994, 「試論宋夏戰爭中雙方戰略地位的變化」, 『寧夏社會科學』 1994-3; 趙繼顏, 1980, 「北宋仁宗時的宋夏陝西之戰」, 『齊魯學刊』 1980-4; 劉建麗, 1996, 「宋夏戰爭中的秦州吐蕃」, 『寧夏社會科學』 1996-4; 趙一匡, 1987, 「宋夏對立與河湟地區的民族關係」, 『蘭州學刊』 1987-4 등이 있다. 이 논문들은 송 · 서하 전쟁의 정당성 여부에 치중한 기존의 도식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한 것이다.

- 10) 李華瑞는 사료의 이용에 앞서 엄격한 고증 작업을 실시한 뒤 『長編』을 제외 한 다른 사료는 거의 대부분 1차 사료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관계사 서술은 양측의 사료를 고르게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長編』에 의존하여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宋夏關係史』는 엄밀한 고증과 논리적 분석을 거친 수작임에도 필자 자신이 인정하듯 송 일방의 시각에 치중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李華瑞, 1998, 앞의 책, 3~4쪽).

## II. 송·서하 관계와 연구방법론 검토

10~13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심축은 거란·송 간의 남북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확대해 보면 그 안에는 서하와 고려를 비롯한 제 세력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중심축을 이루는 거란·송 양국은 상호 전면전을 비롯해 치열한 군사적·외교적 각축전을 치르면서 형성된 힘의 균형을 ‘전연의 맹약’을 통해 공식화하는 데 성공하여 110여 년에 걸친 장기 휴전과 평화국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심축의 하나인 송과 보조축의 하나인 서하는 양국의 국력 차가 현저한데도 시종 적절한 균형점을 찾지 못한 채 전쟁과 화의를 거듭 반복하는 불안정한 국면을 오랫동안 지속하였다. 서하사 자체가 전쟁사이기도 하지만<sup>11)</sup> 양국은 982년 李繼遷의 저항을 시작으로 금이 陝西路를 점령하여 지리적으로 단절될 때까지 근 150년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시간을 교전과 적대 상태로 보냈다. 따라서 송·서하 관계는 전쟁과 화의의 불연속선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작은 변방국가 서하가 송이란 거대 제국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독특한 형태로 전개되었다.<sup>12)</sup>

송·서하 관계는 宋 神宗<sup>13)</sup>이

- 
- 11) 拓跋思恭이 夏國公으로 봉해진 唐 中和 1年(881)부터 서하가 멸망할 때(1227)까지의 역사는 총 347년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채 10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하사는 그 자체로 전쟁사라고 할 수 있다(王天順, 1996, 『西夏戰史』,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쪽).
  - 12) 王天順, 1996, 앞의 책, 6쪽; 李華瑞, 1998, 앞의 책, 6쪽
  - 13)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9~13세기의 역사를 송 위주로 연구하여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송의 황제들에 대해서 진종·인종 등으로 표기하였고, 심지어는 송 태조·송 태종에 대해서도 태조·태종 등 보통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거란·금 황제에게는 거란 목종·거란 성종 등 별도의 국호를 명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는 송과 달리 거란·금에 대해서만 요나라·금나라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송조·송군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 데 비해 그에 대응하는 요조·요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분명 거란·송·금·서하·고려를 비롯해서 남조·대리 등 많은 국가가 활동했던 시

서하는 조종 이래 서쪽 지방에서 큰 우환이 된 지 80년이 지났는데, 조정에서는 천하의 국력을 기울이고 사방의 재물을 다하여 군수품을 공급했지만 여전히 밤낮으로 벌벌 떨면서 그들이 변방을 침탈할까 두려워할 뿐이다. …… 이 화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조종의 커다란 치욕을 가히 설욕할 날이 없을 것이며, 사방 백성의 부역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이다.<sup>14)</sup>

라고 한탄한 데서 잘 드러나듯이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송에 가장 큰 부담을 준 존재는 거란이 아니라 오히려 서하였다. 거대 제국 송이 재정 파탄의 위협을 무릅쓰고 군비를 쏟아 부으면서 서하 공략에 나섰지만 제압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실정이었다. 이는 송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다. 따라서 송·서하 문제는 송의 사회경제적 변성과 군사적 부진을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되기에 족하였다.<sup>15)</sup> 따라서 서하의 거듭된 공세 원인과 함께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송·서하 양국 관계사 연구의 중점이기도 하지만 송·서하 전쟁의 와중에 드러난 송의 구조적 한계를 밝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서하를 살펴보면 서하가 송의 존망을 좌우하는 국가가 아니었던 것처럼 거란도 서하의 존망을 좌우하는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었다. 물론 거란이 서하를 압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송을 능가하는 국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던 거란은 서하의 존립에 결정적인 위협을 주지는 않았다. 서하의 존망과 관련된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오히려 군사

기이므로 동등한 표기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국 황제를 표기할 때 왕조명을 더하여 ‘송 태조’, ‘송 신종’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

- 14) 『長編』卷349, 元豐 7年 10月 癸巳: “夏國自祖宗以來, 爲西方巨患歷八十年, 朝廷傾天下之力, 竭四方財用以供饋餉, 尚日夜惴惴然, 惟恐其盜邊也. …… 除此禍孽, 則祖宗大耻無日可雪, 四方生靈賦役無日可寬.”
- 15) 廖隆盛은 송대사에 대한 평가가 외교·군사 방면에 대한 후평과 사회·경제 방면에 대한 극찬으로 확연하게 갈린다면서 이민족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어떻게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송대사 연구의 주요 과제라고 지적하였다(廖隆盛, 2002, 「自序」, 『國際貿易戰爭』, 臺北: 萬卷樓).

적으로 약체였던 송이었다.

송은 시종 서하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며, 군사적 좌절과 경제적 부담에도 서하를 멸망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일견 모순되 보이는 이러한 삼국 관계 속에서 서하는 송의 압박을 극복하고 자신의 독립과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계천에서 李德明을 거쳐 李元昊에 이르기까지 3대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리고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여러 차례 송을 제압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독립을 유지하고 나아가 송으로부터 상당량의 세폐를 받아내는데도 성공하였다.<sup>16)</sup>

하지만 서하는 거듭된 군사적 성공에도 송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장기전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하였다.<sup>17)</sup>

송·서하 전쟁의 주도권은 서하가 야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였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송이 진지전 위주로 전략을 바꾸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송은 서하를 적극 공략할 수는 없었지만 서하 또한 진지를 중심으로 지역방어에 나선 송을 개전 초기처럼 쉽게 격멸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서하가 본래 추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힘의 균형이 점차 이동한 요인에 대하여 李華瑞는 종합적인 국력의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고, 생산력의 부족과 송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방어전에서의 우수성은 분명하나 그것이 공격전에서의 장점으로 이어지기 못하였다는 점, 거란과 송 위주로 형성된 국제질서의 안정 등을 들었다.<sup>18)</sup>

王天順은 송·서하 전쟁의 주도권 변화는 전술·전략과 군사력 등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일반적 요인 외에 서하의 경제적 취약성, 특히 송에 대한 경

16) 경력화의를 통해서 송은 매년 서하에 銀 5萬兩, 絹 13萬匹, 茶 2萬斤을 보내고, 주요 절기마다 銀 22,000兩, 絹 23,000匹, 茶 1萬斤을 보내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송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폐는 銀 72,000兩, 絹 153,000萬匹, 茶 3萬斤이었다.

17) 李華瑞, 2006, 王曾瑜 序, 『宋夏史研究』,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李蔚, 1997, 『簡明西夏史』, 北京: 人民出版社, 146~147쪽

18) 李華瑞, 1998, 앞의 책, 311~312쪽

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sup>19)</sup>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송 · 서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더욱 중요한 요소는 수많은 개별 전투에서의 승패가 아니라 거란의 향방이었다. 따라서 송 · 서하 전쟁사의 또 하나의 영역은 양국 전쟁에 대한 거란의 입장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이처럼 송 · 서하 관계는 중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었다. 그러면 기존의 송 · 서하 전쟁사에 관한 연구 성과를 넘어서 새로운 성과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송 · 서하 전쟁사를 접근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우선 ‘華夷論’을 들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자기중심적 세계관이 있기 마련이며, 그 점에서 화이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화이관은 화이의 준거가 인종적 · 국가적 차이보다는 농경문화와 유목문화라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근거한 문화적 차이에 있으며, 국력의 소장에 따라서 각기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유가적 윤리 기준이 대단히 강조된다는 점이 독특하

19) 王天順, 1996, 앞의 책, 6~7쪽

20) 송 태종을 발해 유민, 여진, 고려 등과 손을 잡고 거란을 군사 · 외교적으로 포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여 마침내 고려의 거란 협공을 약속받는 데 성공하였다. 송 태종이 986년 제2차 대거란전쟁을 일으킨 데는 이러한 외교적 배경이 있었다. 이에 대해 거란 성종은 송과 우호관계에 있는 이들 제 세력을 각개 격파함으로써 포위망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거란 성종은 983년 10월에 宣徽使 耶律阿沒里를 파견하여 여진을 정벌하였고, 985년 9월에는 耶律斜軫을 파견하여 安定國을 공략하여 10여만의 포로와 20여만 필의 말을 잡아 개선하였다. 나아가 송 태종의 전면 공세를 꺾는데 성공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거란 성종은 승세를 타서 얼마든지 송조를 공격할 수 있었는데도 송의 예상과 달리 군대를 철수시킨 뒤 방어에만 치중하였다. 그것은 992년에 있었던 고려 공략 준비를 위해서였다. 이는 아마도 송과의 일전을 위해서는 배후 위협세력인 고려에 대한 공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며, 80만이나 동원한 것은 고려가 차지하고 있던 비승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영한다. 이처럼 거란의 우선 전략 목표가 고려 공략이었던 것이 송에게는 재정비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거란 · 송관계의 주요 변수로 거란 · 고려관계가 작용한 것처럼 송 · 서하관계 역시 거란 · 서하관계가 작용하는 등 당시 국제정세는 다자간 외교의 특색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廖隆盛, 2002, 앞의 책, 4~13쪽).

다고 하겠다.

화이론은 기본적으로 농경 중심의 중원왕조와 유목 중심의 북방왕조라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양측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이론은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원왕조 중심의 천하관이 보편타당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모순된 구조를 안고 있다. 또 군사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양측 관계를 문화적 차이를 통해 설명하는 독특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다. 화이론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논리구조는 결국 중원왕조의 문화적 우월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윤리적·도덕적 장치를 더하게 한다.<sup>21)</sup>

또 역대 중원왕조는 보병 위주의 군사력으로는 기병 위주의 북방왕조를 꺾고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승리하여 유목지대를 차지한다고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음은 물론 막대한 관리 비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승패에 상관없이 지출해야만 하는 막대한 전비 부담이 엄청난 후유증을 불러온다는 점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화이론은 왕왕 반전론의 유력한 근거 내지는 전쟁에서 패배한 중원왕조의 자기 합리화 수단으로 활용되고는 하였다. 특히 송처럼 국방력이 약한 국가에서의 화이론은 반전이나 자기 합리화의 논리로 매우 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패전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도 널리 쓰였다.<sup>22)</sup>

하지만 그럼에도 화이론은 이 시대의 대외관계를 파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할 뿐 아니라 그 폭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경우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다. 왜냐하면 宋人 역시 중국과 四夷의 관계를 규정한 전통적인 화

21) 朴志焄, 1990, 「宋代華夷論研究」, 梨花女子大學 博士學位論文, 11~13, 30~34쪽

22) 徐夢莘, 『三朝北盟會編』卷1, 11쪽, 趙普, 「諫伐燕疏劄子」, “唯彼番戎, 豈爲敵對? 遷徙高舉, 自古難得制之. 前代聖帝明王, 無不置於化外, 任其隨逐水草, 皆以禽獸畜之.”; 卷2, 5쪽, 安堯臣, 「上奏」, “王者不治夷狄, 『春秋』亦內諸侯而外夷狄, 非謂中國之力不能制之, 以其言語不通, 贄幣不同, 種類乖殊, 法俗詭異, 居於絕域之外, 山河之表崎嶇, 川谷險阻之地, 是以外而不內, 疏而不戚, 政教不及其人, 正朔不加其國, 誠不欲竭內以事外故也.”

이론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질적인 敵國意識과 제한된 空間意識이라는 송 고유의 특성이 더하여졌기 때문이다.<sup>23)</sup> 화이론은 중원왕조와 북방왕조의 관계에서만 적용된 개념이 아니라 거란·금 등 자신이 중심국가라고 자처하는 국가마다 다소 변형된 형태일지언정 화이론을 수용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화이론은 중원왕조가 북방왕조를 바라보는 고유한 시각일 뿐 아니라 중심국가를 자처하는 측에서 널리 확산한 것으로서 어찌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이론이 중원왕조 이외의 국가 관계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다층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다면 다핵·다층으로 이루어진 이 시대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중원왕조와 주변 국가의 외교적 접근방법 가운데 가장 전통적인 ‘以夷制夷’ 전략이다. 화이론이 당시 송인들의 사고방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지만 엄존하는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이이제가 전략 또한 그 못지않게 중시되어 왔다. 그리고 다자간 외교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면 될수록 각국은 자신들의 입장에 가장 유용한 방안을 수립하고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sup>24)</sup>

이이제는 본래 匈奴를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없었던 漢이 자신의 군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면서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사실 다자간 경쟁 구도에서는 누구나 고려해 봄직한 당연한 전략이기도 하다. 송이 이이제 전략의 대상 국가로 가장 중시한 대상은 고려였다. 하지만 상호 많이 탐색했음에도 고려와 연계한 이이제 전략은 결국 동상이몽으로 끝나고 말았다. 왜냐하면 상당한 명분과 공동 이익이 예상된다고 해도 그것이

23) 葛兆光, 2004, 「宋代‘中國’意識의凸顯」, 『文史哲』 2004-1

24) 廖隆盛은 당시 다자간 외교에서 以夷制夷는 가장 전통적이며 전형적인 외교적 모델로서 송의 대외정책은 태종의 對거란 개전시기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이이제이라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으며, 이 점은 거란·서하·고려 등 각국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이제 전략이야말로 송·서하관계 분석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廖隆盛, 2002, 앞의 책, 1쪽).

구체적인 군사동맹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필요조건을 넘어서는 충분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이 철저히 우선시되는 국제관계에서 양국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이이제이 전략은 일종의 분위기 조성용이었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sup>25)</sup>

그런데도 송은 가능한 한 이이제이 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하였고,<sup>26)</sup> 결국에는 송·금동맹과 송·몽고동맹처럼 송조의 멸망을 자초한 결정을 두 차례나 실행하기도 했다.<sup>27)</sup> 송이 이처럼 이이제이 전략을 끈질기게 모색한 것은 건국 초 감행한 대거란전쟁의 실패와 점증한 거란의 군사적 압력 속에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자력으로 거란을 제압할 수 있다는 송 태종의 자신감은<sup>28)</sup> 거듭된 패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패배의식이 조야에

25) 거란은 당시 매우 우월한 기동력과 지구전 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반대로 송의 군사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 외교력 역시 제한되어 있었다. 여진은 무역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고, 고려는 군사력은 있었지만 북송을 통해 거란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양자의 충돌을 계기로 복진하려는 계산이 있었기에 소극적으로 정세를 관망할 뿐이었다. 실제 협조가 가능한 세력은 발해유민이었지만 그들의 군사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송의 이이제이정책은 각기 다른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는 세력을 통해 초강대국인 거란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廖隆盛, 2002, 앞의 책, 16쪽).

26) 송 태종의 제2차 대거란 공세는 기본적으로 거란이 여진과 고려 등 동방 경략에 주력하고 있는 틈을 노린 것이었다. 당시 송은 대규모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재상 李昉과 宋琪 모두 개전에 반대하는 등 여론 역시 부정적이였다. 또 거란에 심각한 내분 등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송 태종이 중서성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추밀원과 모든 문제를 직접 논의하면서 출병을 서두른 것은 거란의 병력이 분산되어 있고, 거란과 고려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廖隆盛, 2002, 앞의 책, 12~13쪽).

27) 송 태종의 聯夷攻遼 정책은 송조 以夷制夷 정책의 효시였고, 송·금동맹과 송·몽고동맹 외에도 仁宗 慶曆년간에는 以遼制夏 정책이, 眞宗·仁宗·神宗 때에는 聯吐蕃制西夏 정책이 추진되었다. 심지어 남북송 교체기에는 아무런 실질적 유인 수단도 없고, 현실성도 없었지만 금을 견제하기 위해 서하를 끌어드리려는 외교적 노력이 경주되기도 했다.

28) 송 태종은 즉위 직후 전투력과 병참 모두에서 거란을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기 때문에 북한을 공략하면서 거란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였고, 심

만연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외교적 절충과 타협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sup>29)</sup> 이이제이는 군사외교 전략 수립 때마다 필수적인 고려 사항으로 중시되었다. 이이제이 전략은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는 하다.

셋째는 ‘連環性’의 개념이다. 진인각은 당조와 주변 국가 사이에서 전개된 활발한 교류와 밀접한 관계는 중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강조하면서 주변 국가 성쇠에 드러난 상호관계, 외환과 내정의 영향 등에 주목하며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진인각은 당 주변 국가는 당조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지만 그와 동시에 경계를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와도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흥망성쇠 역시 상호 긴밀한 연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貞觀년간에 唐太宗이 돌궐을 제압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바로 회흘의 흥성이 돌궐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며, 회흘의 쇠망 역시 자처 분열 등의 내부 요인과 함께 주변에서 키르키즈[黠戛斯]라는 새로운 세력이 흥기한 것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당대 국제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단선적 관계를 넘어서 다수의 連環性을 通觀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sup>30)</sup>

당대 국제관계에 대한 진인각의 이러한 시각은 9~13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화이론과 이이제이는 본래 중원왕조와 북방왕조 간의 쌍방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다자간 외교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 포괄적이며 입체적인 ‘연환성’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재정국가론’이다. 안사의 난 이후 당조는 군사적 위기 국면에 봉착

지어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개전을 공개적으로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송 태종은 즉위 직후에는 이이제이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廖隆盛, 2002, 앞의 책, 3쪽).

29) 廖隆盛, 2002, 앞의 책, 1쪽

30) 陳寅恪, 1982,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與內政之關係」, 『唐代政治史述論稿』(陳寅恪先生文集③), 臺北: 里仁書局

할 때마다 세폐 등 경제적 보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선보였는데, 미야자키 이치사다는 이를 가리켜 '무력국가'에서 '재정국가'로 변신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원왕조가 무력을 통한 화이질서의 유지를 포기하고 경제적 이익을 대외관계의 자산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은 중원왕조의 경제적 역량이 북방왕조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발전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서 세폐의 부담이 전란 발생 시 지출해야 할 군비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을 말해 주기도 한다. 세폐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폐는 농업경제 위주의 중원왕조와 유목경제 위주의 북방왕조가 서로의 경제적 특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안사의 난 이후 당조는 회홀과 토번의 군사적 지원 대가로 공개적인 약탈 내지는 貢絹 지급을 상례화하였다. 오대에는 국가 간 군사지원의 대가 내지는 타협의 완충제로서 정례적인 세폐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澶淵의 맹약', '慶曆화' 등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안착되기에 이른다. 세폐를 통한 군사적 충돌의 완화가 이 시대의 외교적 타협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 하나가 되었음은 靖康년간 금군이 河北과 山西의 송군을 모두 격파하고 수도 汴京을 향해 진군해 내려오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충분한 경제적 보상만 해 주면 금군이 물러갈 것이라는 극히 순진한 사고가 여전히 팽배해서 송조는 금군에 대한 저항을 최대한 삼가라는 조치를 거듭 하달하였던 데 잘 나타난다.

하지만 세폐는 군사적 약자에게 평화를 담보해 주는 수단임과 동시에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굴욕감을 안겨 주는 족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세폐를 통해 타협이 가능했다는 것은 당시 중원왕조와 북방왕조의 전쟁과 대립이 각기 다른 경제구조에서 기인한 것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서 양측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세폐를 지급해야 하는 송으로서의 매년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보다는 세폐 공납에 따른 정치적 부담, 즉 굴욕감이 더욱 참기 힘든 것이었다.

이는 비교적 성공적인 교섭으로 칭송되는 경령화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란은 송이 서하와의 전쟁에서 패한 틈을 이용하여 關南 10현의 반환을 요구했

고, 거란과 서하가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 宋 仁宗은 富弼을 파견하여 세폐를 20만 증액하는 데 동의하였다. 하지만 거란은 ‘納’이라는 불평등한 용어를 강요함으로써 송 인종으로 하여금 대신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협상 당사자였던 부필은 ‘금백을 증액하여 오랑캐에게 주고 화의한 것은 신의 본의가 아니었다’며 협상 체결에 따른 포상을 사양하면서 ‘군비를 증강하고 國恥를 잊지 말 것’을 송 인종에게 건의하였다.<sup>31)</sup>

이처럼 군사적 열세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세폐 공여를 매개로 남북관계의 균형을 유지한 것은 경제적 우위와 군사적 우위의 적절한 교환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장기 평화와 군비 감소라는 막대한 현실적 이익에도 세폐 공여국이라는 정치적 명에는 언제나 그 균형점을 깨트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잠재하였다.

재정국가론과 관련된 또 하나의 과제는 국경무역 문제이다. 송은 자신들의 경제적 우위에 대해 자부하고 있었고, 거란과 서하가 자신들의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국경무역이야말로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핵심 요건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송은 국경무역 통제권을 활용하면 거란과 서하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거란과 달리 경제규모가 작고 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하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자신하였다.

따라서 거란과 서하에 대한 송의 군사외교정책과 국경무역 상황은 정비례하였다. 송은 전연의 맹약을 체결한 뒤 거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통해서 거란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높이고자 했다. 송은 국경무역에서 가급적이면 ‘넉넉하게 값을 매겨 주도록’<sup>32)</sup> 하였고 밀무역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31) 『長編』 卷326, 元豐 5년 5월 辛卯; 『長編』 卷138, 慶曆 2년 10월 丙午

32) 『長編』 卷80, 大中祥符 6년, 7월

미결제 문제 등도 관에서 해결해 주도록 하였다.<sup>33)</sup> 또 燕京 지역 주민이 오랜 가뭄 때문에 종자를 구입하고자 했을 때 기꺼이 허용해 주었으며,<sup>34)</sup> 재해가 발생하자 조 2만 석을 싼값에 방출하여 도와주는 우대조치도 취하였다.<sup>35)</sup>

이와 달리 송·서하의 불안정한 관계는 국경무역의 수시 중단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서하를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다 해도 경제 봉쇄를 통해 지속적으로 압박하면 얼마든지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sup>36)</sup>

### Ⅲ. 송·서하의 초기 관계와 충돌 원인

송 태조는 건국 직후 남중국 통일에 주력하기 위해 거란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폭넓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37)</sup> 송 건국 당시 서북방 국경은 현 山西·陝西·內蒙古의 交界地인 黃河 河曲의 豐州에서 시작해서 서남쪽으로 府州·麟州·夏州를 거쳐 靈州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이 서북방 국경에 연한 지역은 沙州의 曹씨, 甘州의 回鶻, 涼州의 折逋씨, 夏州의 李彝殷 등 여러 할거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송 태조는 이 일대의 모든 세력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고자 매우 느슨한 羈縻정책을 채택하여 각 지역 유력자의 해당지역 장관직 세습을 허용하는 등 기득권을 모두 인정하며 안정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sup>38)</sup> 이들 역시 말무역의 이

33) 『長編』卷78, 大中祥符 5년, 6월

34) 『長編』卷68, 大中祥符 1년, 1월

35) 『長編』卷73, 大中祥符 3년, 6월

36) 廖隆盛, 2002, 앞의 책, 175쪽

37) 李攸, 『宋朝事實』卷20, “太祖受命, 務保境息民, 不欲生事邊境.”

38) 『宋史』卷318, 「張方平傳」, “太祖不勤遠略, 如靈夏, 河西皆因其酋豪, 許之世襲.”

의 등을 고려하여 송조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夏州[陝西省 橫山縣]·銀州[陝西省 米脂縣]·綏州[陝西省 綏德縣]·宥州[陝西省 靖邊縣]·靜州[陝西省 米脂縣] 등 현 陝北 5개 주를 다스리고 있던 定難軍節度使 이이은에게도 太尉직을 하사하고 기존의 권력을 모두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이은 역시 오대 각 왕조에게 그러하였듯이 송에 대해 신복을 표방하고 표문을 올려 송 태조의 즉위를 축하함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당말 오대 이래 서북방 지역에는 이들 할거 세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많은 유목민들이 산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때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와 사람을 잡아 다른 부족에게 팔거나 재물을 약탈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러면 송의 지방관들은 군대를 동원해 사태를 해결하고는 하였는데, 송 태조는 무력 진압 대신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을 강조하였다.<sup>39)</sup>

또 오대에는 이곳 주민들이 키우는 말을 훔쳐올 경우 관에서 구매하여 전마로 보충하고는 했는데, 태조는 '신의를 돈독히 하여 변경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며 각 주에 칙령을 내려 함부로 월경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이전에 훔쳐온 말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여 인심을 사는 데 성공하였다.<sup>40)</sup>

한편 송 태조는 이 지역 지휘관으로 14명의 장수를 임명하여 국경지대의 안정을 도모하였다.<sup>41)</sup> 그리고 군 지휘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 전체에 대해 강력한 통제 조치를 취한 것과 달리 국경을 수비하는 지휘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외조항을 두고 우대함으로써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sup>42)</sup> 그러면서도 이곳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39) 湯開建, 2005, 『党項西夏史探微』, 臺北: 允晨文化, 277~285쪽

40) 『長編』卷2, 建隆 2년 10월 癸巳

41) 李華瑞, 1998, 앞의 책, 15~16쪽

42) 송 태조는 汴京에 남은 지휘관 가족에 대해 후대해 주었고, 군 지휘관 관할 州縣 榷場에서 거둔 수익을 回圖貿易의 자본으로 활용하도록 해 주었을 뿐 아니라 관련 세금까지 면제해 주었다. 또 용맹한 자들을 선발하여 지휘관의 친위대로 삼는 행위와 관할 부대에 대한 상당 수준의 임의 처결권도 인정해 주는 등 오대의 전례를 거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sup>43)</sup> 상당한 규모의 충돌에 대해서까지 최대한 인내하고 아량을 베풀면서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하였다.<sup>44)</sup> 이처럼 당말 오대 이래 관습적으로 행해져 오던 각종 강압적인 조치들을 혁파하고 관용과 우의로 대한 결과, 태조 재위 기간에는 서북방 방위에 문제가 없었음은 물론<sup>45)</sup> 영주와 하서 주량을 잇는 무역로가暢通하는 등 국경지역 안정이 잘 이루어졌다.<sup>46)</sup>

송 태종 즉위 직후에도 양측 관계는 여전히 우호적이어서 太平興國 2년(977) 태종이 北漢을 친정하였을 때, 李光睿의 아들 李繼筠은 銀州刺史 李光遠과 綏州자사 李光憲을 파견하여 호응케 할 정도였다.<sup>47)</sup> 송 태종 역시 태조의 정책을 이어받아 변경 유목민들로부터 말을 구입할 때 가격을 후하게 쳐서 주도록 하였고, 송으로 귀순하는 유목민에 대해서는 음식을 제공하는 등 우대하도록 하였다.<sup>48)</sup>

송 태조와 태종이 서북방 지역에 대해 이처럼 기존 세력을 모두 인정해 주고 나아가 우대정책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영역에 대한 송 태조와 태종의 기본적인 인식과 관련있다.

의 다 인정해 주었다. 국경지역 군 지휘관은 이런 파격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군을 양성하고 첩자를 파견하여 적의 동정을 파악함으로써 적의 침공을 사전에 파악하고 매복하여 기습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長編』卷17, 開寶9年 11月 庚午).

- 43) 建隆 3년, 夏州의 吐蕃 尙波于가 1천 명을 동원해 운반 중인 목재를 탈취하고 송 군을 살해했다가 秦州 지사 高防과의 전투에서 패해 47명이 체포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송 태조는 按撫의 조서를 내리고 47명 전원 석방과 함께 부족장에게 비단과 은 허리띠를 주었다. 나아가 더 이상의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高防을 해임시키고 송군의 벌목을 금지시키는 등의 유화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관한 『송사』卷 257·270·492의 유관 기록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宋史』卷 257, 「吳廷祚傳」; 卷270, 「高防傳」; 卷492, 「吐蕃傳」).
- 44) 開寶 1년, 송 태조는 党項의 直蕩部 啜佶이 府州를 침공하였다가 패한 뒤 투항하자 처벌하기는커녕 檢校司徒 겸 懷化將軍 직을 하사하고 돌려보냈다(『宋史』卷 491, 「党項傳」).
- 45) 范鎮, 『東齋記事』卷4, “宋初十餘年無西北之憂也.”
- 46) 967년 李彝殷이 사망한 뒤 그 뒤를 이은 李光睿는 北漢의 吳堡砦를 공격하고 砦主 侯遇를 사로잡아 송에 보내기도 하였다(『宋史』卷453, 「夏國傳①」).
- 47) 『宋史』卷453, 「夏國傳①」
- 48) 『宋會要輯稿』第183冊, 兵22之1, 太平興國 6년 12월

송 태조는 송을 건국하면서 漢 · 唐의 계승을 자연스럽게 표방하였다. 하지만 건국 당시 송 태조의 국가 건설 구상은 後晉 때 거란에 할양한 燕京과 西京 일대<sup>49)</sup>를 회복하는 선, 즉 장성이남의 통일로 영토문제를 일단 종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0)</sup> 이는 신하들이 송 태조에게 ‘一統太平’이 포함된 존호를 올리자 송 태조가 거란의 연경과 서경 일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통’과 ‘태평’이란 용어가 들어간 존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양한 일이 있다.<sup>51)</sup> 이는 역으로 이 일대를 차지하기만 하면 통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는 송 태조의 인식을 말해 준다.

그리고 송 태조가 서북방 국경선으로 이해한 지역은 秦州 · 靈州 · 夏州를 잇는 지역으로서 오대의 영역 그대로였다. 이런 인식은 建隆 3년(962), 尙書左丞 高防이 秦州 지사가 되어 올린 상주문에서 “위수 이북은 여러 오랑캐에 속한 지역이고, 위수 이남은 우리의 지역이다”<sup>52)</sup>라고 언급한 데에도 잘 드러난

49) 後晉의 石敬瑭이 거란에 할양한 지역을 가리켜 송대 사서에서는 통상 ‘燕雲16州’라고 하며, 이미 고유명사화되었기에 한 · 중 · 일 학계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거란이 석경당으로부터 연운16주를 할양받은 것은 938년으로서 송의 건국보다 22년이나 앞선 일이다. 따라서 송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아무런 객관적 · 논리적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도 송 태조를 시작으로 송의 역대 황제는 모두 다 이 지역을 자신의 ‘내지’로 간주하고 영토에 편입시키기를 열망하였다. 이에 송은 거란의 점유 자체가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의로 거란의 행정 지명 대신 당대의 행정 지명인 ‘연운16주’라는 용어를 고집하였다. 필자는 이 시대의 다자간 외교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송 편향의 용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후진이 거란에 할양한) 연경 · 서경 일대’ 등으로 표기하였다. 물론 이러한 표기 방식은 고유명사화 된 ‘연운16주’라는 표기 방식에 비해 생경하고 개념상 다소 모호한 점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 학계에서 적절한 표기 방식을 찾을 때까지 일단 사용하고 자 한다.

50) 李華瑞는 송 태조와 태종의 영토에 대한 인식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서북방 영토에 대한 관련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고, 결국 두 사람은 오대의 영역을 유지하는 선에서 통일을 완성하려 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송 태조에게서는 한 · 당의 개국황제와 같은 방대한 기백은 찾아보기 힘들며, 실제 그가 달성한 영토의 확장 역시 제한적이어서 일종의 대할거 정권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李華瑞, 1998, 앞의 책, 9~14쪽).

51) 『宋會要輯稿』 第1冊, 帝系1之3, 開寶 9년 1월 26일

52) 『長編』 卷3, 建隆 3년 6월 辛卯, “自渭而北則屬諸戎, 自渭而南則爲吾有.”

다. 그런데 이는 당조의 출발점이자 주요 경영 대상이었던 秦隴지방, 즉 河西走廊·朔方 지역을 처음부터 송의 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말한다.

송 태조의 이러한 구상은 송의 건국 이전에 이미 중원의 정국을 좌우하던 거란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국제 정세를 南北朝 대치 국면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53)</sup> 즉, 송 태조가 이 같은 일방적 유희책을 지속할 생각은 없었겠지만 신생 왕조가 안착하고 남중국을 통일하기까지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정책이었고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태평흥국 7년(982), 夏州 일대를 통치하던 定難軍節度使 李繼捧의 입조와 이에 대한 송 태종의 부적절한 조치를 계기로 급변하였다.

태평흥국 7년 5월, 하주를 장악하며 4대에 걸쳐 입조한 일이 없었던 이계봉이 갑자기 송에 입조하고 관할 지역을 송에 헌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異論이 있기는 하지만<sup>54)</sup> 하주를 다스리던 李繼筠이 사망한 뒤 관례에 따라 그의 아들이 계승해야 하나 동생이었던 이계봉이 후계자가 됨으로써 당항족 내부에서 커다란 반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계봉이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정통 계승자가 아닌 이계봉에 대해서 종족인 銀州자사 李克文 형제가 공개적으로 반발하여 송에 그 부당함을 상서하는 한편 하주를 직접 공격하는 일이

53) 李華瑞, 1998, 앞의 책, 312쪽

54) 이계봉의 입조와 현지 요인에 대해서는 3종의 각기 다른 해석이 있다. 첫째, 내부 권력투쟁에서 수세에 처한 이계봉이 그 타개책으로 송조에 귀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것을 당항족 전체의 의사로 오인한 태종이 이계봉과 그 일족의 변경 이주를 허용하면서 관할 주현을 헌납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다. 둘째, 이계봉의 입조는 송조와의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지지를 획득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는데, 태종은 이를 이계봉 관할 지역의 점수를 위한 호기로 간주하고 헌납을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송 측의 기록과 달리 이계봉의 입조와 현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송조의 오랜 음모와 강압의 결과이며, 당항인 내부의 갈등 역시 송조가 개입의 이유로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李華瑞, 1998, 앞의 책, 19쪽; 吳天墀, 2006, 『西夏史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3~14쪽).

벌어졌다.<sup>55)</sup> 하주 내부에서도 거센 저항이 일어났다. 이계봉은 이들의 반발을 무력 진압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극심한 내분에 빠진 당항족을 추스르고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힘이 부쳤다. 이에 이계봉은 그 탈출구로 송에 입조하여 하주 일대를 헌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송 태종은 저절로 굴러온 이 같은 행운을 태평흥국 3년(978) 4월에 平海軍節度使 陳洪進이 福建의 泉州와 漳州를 헌납한 일, 5월에 吳越王 錢俶이 관할 13개 주를 헌납한 일과 마찬가지로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 심지어 오월왕 전숙에게 입조할 것을 강요한 뒤 그에 응해 汴京에 온 전숙을 억류하고 영토 헌납을 강제하였던 경험을 이계봉에게도 적용하는 무리한 조치를 취하였다.

송 태종은 이계봉이 변경에 거주하기로 하고 하주 일대를 송에 헌납하는데 동의하자마자 서둘러 관리를 파견하여 관할 주현을 접수하는 동시에 이계봉의 總麻 이상의 친척을 모두 변경으로 강제 이주케 함으로써 사실상 당항의 집권 세력 모두를 인질로 억류하였다. 또 綏州자사 李克憲과 銀州자사 李克文의 병권까지도 박탈하고 입조를 강요함으로써 오랫동안 하주 일대에 뿌리를 내린 이씨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sup>56)</sup>

하지만 하주 문제는 송 태종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100년 이상 유지되어온 이씨 정권의 뿌리는 여전히 강고하였고, 그들의 내분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후계 문제를 둘러싼 것이었지 송에 귀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더구나 이계봉은 다수의 종족으로부터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자칭 정난군절도사에 불과하였다. 단 입조와 현지의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이든 이계봉이 송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점은 다른 당항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주요 집권세력이 송 태종의 무리한 요구에도 순수히 변경으로 이주하였던 것이 그 증거이며, 은주자사 이극문 형제

55) 『宋史』 卷453, 「夏國傳①」

56) 李克文은 송에 상서하여 李繼捧의 부당한 계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송 태종은 이계봉은 물론 이극문까지 소환함으로써 공정한 해결사로서의 역할 대신 새로운 점령자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가 송 태종에게 객관적인 심판역을 청원하였다라는 점도 당항인들이 송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송 태종이 당항족 내에서 벌어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라도 해 주면서 신중하게 처리했다라면 송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음은 물론 자연스럽게 확대할 수도 있었다. 이계봉이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해 줄 수도 있었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을 후계자로 선정하여 후원함으로써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하지만 송 태종은 사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송 태종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당항족 내에서 이계봉의 권위를 소멸시키고 反宋 정서를 격발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변경으로 이주하라는 태종의 강압적인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17세 청년이었던 夏州 蕃落使 李繼遷은 이주 대열에서 빠져나와 송의 처사에 분노한 당항족을 결속하여 羈縻政權이 아닌 독립된 국가를 세우기 위한 대송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다.

확고한 세력 기반도 없었던 17세 청년이 송이란 거대 제국을 상대로 전면 투쟁에 나설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이계천이 일시적인 분노를 넘어서 나름대로 사태의 추이를 판단했다면 그의 저울에 올라온 성공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을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결론을 내린 연구는 없지만 이계천의 도박이 성공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송 태종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당항족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의 기류가 깔려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계봉의 입조와 현지는 송 태종의 입장에서는 대거란전쟁 패배에 따른 권위 상실과 민심 이반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저절로 굴러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이 일이 발생하기 3년 전인 태평흥국 4년(979)에 송 태종은 모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北漢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연경 공략에 나섰다. 오히려 高梁河에서 耶律休哥와 耶律解斡에게 참패를 당한 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 태종으로서는 이계봉의 입조와 현지는 자신의 실패에 따른 책임을 상당 부분 희석시키고 나아가 통치자로서의 위신을 대내

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이계봉 문제를 처리하는 데 송 태종이 취한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이 많았다. 우선 이유야 어떻든 자신 입조하여 5개 주를 헌납한 이계봉을 각별히 대접하기는커녕 전쟁에서 항복한 포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항복한 북한 군주 劉繼元과 동격으로 대접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그 일족들에 대해서도 인질 취급을 했으니 이계천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계봉에 대한 송 태종의 태도는 태종 자신의 도량이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교만했는지를 드러내기에 족한 것이었다.

통상 대부분의 왕조사에서 태조와 태종은 그 시호가 말해 주듯이 왕조의 통치기반을 다진 주인공으로 높이 평가받기 마련이다. 송 태종의 치적에 관한 송대 관찬사료 역시 일방적이다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사료에 적힌 긍정적 기사와 달리 송 태종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며, 심지어는 송 태종이야말로 송조의 고질적인 ‘積貧積弱’<sup>57)</sup>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보는 부정적 평가가 점차 늘고 있다. 즉, 다른 왕조와 달리 송의 경우 그 구조적인 취약성이 후대로 가면서 점차 누적된 것이 아니라 송 태종의 실책으로 인해 갑자기 시작되었으며,<sup>58)</sup> 심지어는 건국기에 해당하는 태종 말기에 이미 심각한 통치 위기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

57) 통상 송조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積貧積弱인데, 積貧은 흑자재정을 유지하던 처음과 달리 갈수록 적자규모가 커졌음은 물론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성적이며 구조적인 적자가 심화되었음을 말하며, 積弱은 본래 갖고 있던 군사적 주도권을 상실하였음은 물론 점차 단순 방어조차도 힘든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음을 말한다.

58)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송사 연구자들은 송 태종의 군사적 실패와 그에 따른 積貧積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積貧積弱으로 대표되는 송대의 구조적 문제점이 후대로 가면서 오랜 세월을 걸쳐 점진적으로 누적된 결과라기보다는 주로 송 태종의 대거란전쟁 패전과 그에 따른 후유증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송 태종의 책임을 좀 더 엄격하게 묻는 견해가 강조되고 있다. 張其凡과 何忠禮 등의 주장이 대표적이다(何忠禮, 2007, 『宋代政治史』,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57쪽; 張其凡, 2009, 「從高梁河之敗到雍熙北伐」, 『宋代政治軍事論稿』, 合肥: 安徽人民出版社, 120~123쪽).

기되기도 한다.<sup>59)</sup>

송 태종은 22년의 통치기간 중 중앙집권화와 통일이라는 송 태조의 국책을 기본적으로 답습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그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송 태조가 구상하고 실천에 옮긴 송조의 정치적·제도적 설계는 사실 장기적인 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대의 빈번한 정권 교체를 방지하고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防弊'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한계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sup>60)</sup> 따라서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아 시의적절한 탄력적 운용이 더욱 요구되었다. 그런데도 송 태종은 건국기 황제로서 취해야 할 원대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만든 송 태조의 제도를 지나치게 절대시하고 경직시키는 조치를 남발하였다.<sup>61)</sup>

대표적인 崇文抑武 정책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최우선 과제로 알고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둘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었다. 송 태조는 무신 권력 제한이라는 전반적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변경을 지키는 지휘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주는 이중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군 통수권의 안정과 변경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보여주었다. 이는 송 태조 자신이 군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군 지휘관 개인에 대한 파악도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군사적 재능도 없고 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송 태종은 군에

59) 張其凡是 거란과 서하의 군사적 압력, 王小波·李順의 난을 비롯한 농민반란, 계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말미암아 송 태종 후기에 이미 심각한 통치상의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하였다(張其凡, 2004, 『宋代史①』, 澳門: 澳亞週刊出版社, 78~80쪽).

60) 汪聖鐸, 2008, 「試論北宋前期過度集權及其影響」, 『宋史研究論文集』, 上海人民出版社, 41~65쪽

61) 송 태종의 각종 조치는 후대 황제들이 '祖宗之法'을 각별히 존중하였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송 진종은 송 태종이 결정한 각종 정책을 넘어서려 하지 않으며, 仁宗 이후 '조종지법'이 성역화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鄧小南은 祖宗之法에 대한 존승이 송조처럼 철저했던 경우가 없다며 그 형성과정과 신성화 단계 등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鄧小南, 2006, 『祖宗之法』, 北京: 三聯書店).

대한 경계심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지나친 경계심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과도한 권위주의와 공명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나아가 유능한 인물에 대한 견제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군에 대한 견제는 문치주의의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넘어서 지나친 무관 경시 풍조를 조성했고, 관료·재정과 함께 군비의 과도한 팽창, 즉 '3冗'을 초래하였다.<sup>62)</sup>

제1차 대거란전쟁은 이런 송 태종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북한 정벌의 피로감이 쌓인 상태에서 연경 지역을 공격하는 것이 무리라고 거의 대부분의 장수가 반대했는데도 연경 정벌을 통해 본인의 위업을 과시하고픈 욕심이 무리수를 범하게 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송 태종이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무리수를 두었다는 점이다. 송 태종은 여전히 통수권자로서의 권위에 집착해서 통수 체계의 일시불란한 수행만 강조할 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놓기는커녕 본말이 전도된 조치를 남발하였다.<sup>63)</sup> 유능한 장수보다는 순종하는 장수를 선호해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이 빈번했고, 작은 일에도 후한 포상을 내려 사실상 장수를 '매수'하는 과도한 대우를 남발하였다. 반면 국경 지역 지휘관에게는 회도무역 독점권을 비롯해 牙兵 혁파 등 재량권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스스로 무너트렸던 것이다.<sup>64)</sup>

이렇게 된 데에는 송 태종의 개인적 자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sup>65)</sup> 그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것 또한 결정적

62) 何忠禮, 2007, 앞의 책, 57~58쪽; 陳峰, 2010, 「從定都開封說北宋國防政策的演變及失敗」, 『宋代軍政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23~224쪽

63) 陳峰, 2004, 『北宋武裝群體與相關問題研究』, 北京: 中華書局, 266~269쪽

64) 陳峰, 2004, 위의 책, 309~315쪽

65) 송 태종의 자질은 형이었던 태조와 달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였다. 젊은 시절 많은 고생을 겪고 자수성가하여 권좌에 오르고, 평생 근검절약하면서 국사에 전념하였던 형과 달리 태종은 22세부터 皇弟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호의호식하였고 각종 불법을 자행하였을 뿐 별다른 정치적·군사적 경험을 쌓지 못하였다. 특히 군사적 재능이 매우 부족하였다. 하지만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아부에 귀 기울이는 등 실패한 군주의 전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何忠禮, 2007, 앞의 책,

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제 계승의 정통성 여부는 통치자의 각종 정치적 입장과 정책 결정에서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형을 살해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즉위한 송 태종으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sup>66)</sup>

조속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형을 능가하는 업적을 쌓음으로써 대내외에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해야만 하는 강박관념이 늘 송 태종을 따라다녔다.<sup>67)</sup> 강박관념은 송 태종으로 하여금 매사에 조급하고 권위적하게 했고, 조그만 공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집착하게 했던 것 같다. 이런 태도는 대외 문제를 다루는데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송 태종에게는 송 태조 같은 신중함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했다.

송 태조는 북한을 멸망시키려는 강한 갈망을 갖고 있었음에도 “河東이 거란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거란으로 인한 전란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북한을 그대로 두어 우리의 병풍으로 삼고 이후 우리가 부유해지면 그때 차지하는 것이 좋다”<sup>68)</sup>고 할 정도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했다.

자기들보다 약한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중하게 대한 것은 송 태조 스스로 자신들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한 결과일 수도 있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는 즉흥적으로 대거란전쟁을 주도했던 송 태종과 명확한 대비를 이룬다. 바로 이러한 점이 송·서하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이계봉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69)</sup>

57~58쪽; 鄧廣銘, 2008, 『宋史10講』, 北京: 中華書局, 36~39쪽).

66) 梁鍾國처럼 태종의 태조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梁鍾國, 2000, 「북송 초 帝權 확립과 태종정권의 성격」, 『송요금원사연구』 4) 거의 모든 송사 전공자들은 태종의 정권 장악이 명백한 찬탈 행위라고 보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鄧廣銘, 1997, 「宋太祖太宗皇位授受問題辨析」, 『鄧廣銘治史叢稿』,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475~502쪽이다.

67) 張其凡, 1997, 『宋帝列傳: 宋太宗』,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313~315쪽

68) 王稱, 『東都事略』 卷23, 「孟昶傳」 論贊

69)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과도하게 내세우려는 경향은 찬탈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 국가에까지 강조하면서 기존의 느

#### IV. 송 · 서하 전쟁과 송 태종의 대응

이계천은 조부 李彝興의 초상을 꺼내들고 정권의 부흥을 호소하며 세력을 규합하였다. 이러한 감성적 행동이 호소력 있었다는 사실은 이계천의 반발이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인지, 그리고 송조가 어떠한 오류를 범하였으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역으로 설명해준다. 하지만 이계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송 태종은 거의 개의치 않았고 그저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다. 雍熙 1년(984) 9월에 하주 지사 尹憲과 巡檢使 曹光實은 이계천의 주둔지 斤澤을 야간에 기습하여 500여 명을 살해하고 400여 개의 장막을 불태웠으며, 이계천의 모친과 아내를 포로로 잡는 데 성공하였다. 이계천은 겨우 달아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재기하였다.

이듬해인 옹희 2년(985) 2월, 이계천은 투항을 한다고 속여 방심하고 있던 순검사 조광실을 살해하였고, 송 태종은 대노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다시 濁輪川에서 이계천을 격파하였다. 이에 일대 125개 부족이 송에 투항했지만 이계천은 거란으로 달아나서 夏國王으로 책봉받고 義成 공주와 결혼하는 등 뛰어난 정치력을 과시하였다. 거란으로부터 군사적 · 외교적 후원을 얻는 데 성공한 이계천은 단순한 반란세력이 아닌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다. 당항족 내에서 강력한 권위와 흡인력을 갖게 된 이계천은 송의 주력군과의 결전을 피한 채, 사막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철저하게 치고 빠지는 유격전을 채택하였다. 송군은 이계천에 비해 객관적으로 우세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효과적으로 제압하기는 힘든 상태에서 장기전에 말려든 것이다.

송과 서하가 혈전을 벌인 서북 변경지역은 700km에 달하는 광활한 사막이 가로놓여 있는 곳이어서 보병으로서는 기동이 극히 어려운 곳이고, 군수 보급

---

스한 羈縻體制를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일거에 바꾸고, 기득권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의 과정은 王莽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의 곤란함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至道 2년(996), 參知政事 張洎는 “이계천이 군수품을 기습하여 탈취한 뒤 그것을 이용하여 송의 진지를 공격하고 있는데, 영주 일대는 황하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군수품 조달이 매우 곤란한 지역”이라고 언급하면서 “지금 이계천이 풍주와 하주 전역을 장악하고 사막의 요충지를 근거지로 삼아 신속하게 기동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군을 출병시켜 전면전을 펼치면 미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새처럼 흩어져 그 흔적을 찾기도 힘들게 되며, 군수품을 대량 운반하기 위해서는 개미처럼 많은 인력이 달라붙어 적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 약탈당하기 쉽다”며 이계천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을 송 태종에게 토로한 바 있다.<sup>70)</sup>

송 태종 재위기간 내내 서북방 지역은 송군과 이계천군의 지속적인 충돌로 혼란이 계속되었다. 송 태종은 이계천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데 실패하자 당항족 내부의 갈등을 극대화하는 한편 각종 유화책을 병행하여 이계천의 투항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이계천은 송조에 투항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군사적 저항과 세력 확대에 주력하는 등 교묘하게 대처하였다. 이는 이계천이 송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처럼 유격전 형태로 전개되는 이계천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군사·외교 전략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민전술이 병행되어야 했다. 현지 지휘관의 정확한 판단력과 재량권, 기동성과 충분한 보급, 그리고 유연한 전술전략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송 태종은 현지에서의 기대와 달리 ‘將從中御’라는 비상식적 통제를 고집하였다. 유격전을 채택하고 있는 이계천군과의 전투에서 지휘관의 임기응변을 억제하는 ‘장중중어’ 방식은 억지나 마찬가지였다.<sup>71)</sup> 송군의 부진이 전투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견제 때문이라는 지적처럼 현지 지휘관들은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가 없었다.<sup>72)</sup>

70) 『長編』卷39, 至道 2년 5월 壬子

71) 陳峰, 2010, 「平戎萬全陣」與宋太宗·「北宋御製陣法·陣圖與消極國防戰略的影響」, 『宋代軍政研究』, 219~251쪽

72) 李華瑞, 1998, 앞의 책, 314쪽

결국 송 태종은 옹희 2년(985) 이계천을 崇信節度使, 이극현을 道州防禦使, 이극문을 博州防禦使로 임명함으로써 그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지만 이미 정치적 설득력을 상실한 뒤여서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송 태종은 이계천의 거듭된 도발에도 어떻게 해서든 명목상의 臣服을 받아내어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송 태종을 신뢰할 수 없었던 이계천은 명목상의 신복조차도 거부하고 계속 ‘도발’을 감행하여 송 태종의 입장을 몹시 곤란하게 만들었다.

淳化 5년(994) 5월에 있었던 대규모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서북의 신흥 할거세력에 불과한 이계천조차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현실은 송 조야에 무력감과 패배주의를 만연시켰다.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송 태종은 부득이 퇴행적인 군사 전략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순화 5년(994) 송 태종은 하주가 “사막 깊숙한 곳에 위치해 본래부터 간웅이 웅거하던 곳”이라는 것을 구실로 ‘성곽을 허물고 그곳 주민들을 수주와 은주 등지로 이주’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태종은 內憂外患은 피하기 힘든 것이며, 외환보다는 내우가 더 큰 문제라고 자위하면서 이계천으로 인한 곤혹감을 달라고자 했다.<sup>73)</sup>

하지만 至道 2년(996), 이계천이 전략적 요충지인 영주를 공격해 오자 한 때 방어를 포기할 정도로 위축되었던 송 태종은 다시 강경책으로 돌아서 영주 방어를 천명하였고,<sup>74)</sup> 4월에는 대군을 파견하여 이계천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결국 송 태종은 지도 3년(997), 다시 대군 파견을 준비하던 중 사망하고 말았다.

객관적 전력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계천이 송과의 거듭된 전쟁에서 승전을 거두며 강성해진 것은 그 자신의 군사적·정치적 능력이 뛰어났기 때

73) 『長編』 卷32, 淳化 2년 8월 丁亥, “國家若無外憂, 必有內患. 外憂不過邊事, 皆可豫防. 有奸邪無狀, 若爲內患, 深可懼也. 帝王用心, 常需謹此.”

74) 송 태종은 본래 영주 방어를 포기하려고 했으나 곧 후회하였다. 당시 송조 내부에서도 국력을 다 기울여서도 영주 하나를 구하지 못한다면 일대 치욕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였다. 영주 방어를 포기하자는 張洎의 상소에 대하여 송 태종은 “경이 말하는 바를 나는 한 구절도 이해할 수 없다”며 張洎가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질책하였다(『長編』 卷39, 至道 2년 5월 壬子).

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송 태종의 명확한 전략이 없었던 점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sup>75)</sup>

송 태종은 하주 일대를 확실하게 장악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하서주랑을 경략하고 對西域 교역을 주도한다는 등의 거시적 전략이 없었다.<sup>76)</sup>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루한 소모전이 계속되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和戰을 거듭하는 정책 혼선을 드러낸 것이다.

송 진종은 즉위와 동시에 영주에 대해 맹공을 하고 있던 이계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영주를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는 진종에게 주어질 첫 번째 군사·외교적 과제였다. 당시 송조에는 영주를 굳게 방어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내세워 주변 세력과 군사동맹을 맺어 이계천을 제압하자는 견해, 서한이 흉노를 우회 공격한 것을 본받아 하서주랑의 토번과 함께 서하를 견제하자는 견해, 그리고 영주를 포기하자는 견해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첫째 안과 둘째 안은 토번과의 동맹이 선결조건이었는데, 이계천을 제압하기 위해 토번을 끌어들이는 것은 여우를 잡기 위해 호랑이를 불러오는 격이라며 반대가 많았다. 고민하던 송 진종은 결국 포기론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완전히 고립된 영주는 함평 5년(1002) 3월에 함락되고, 송은 하서주랑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景德 1년(1004), 거란군이 대거 남하하자 송 진종은 寇準의 건의에 따라

75) 李華瑞는 송 태조와 태종의 '통일'에 대한 구도가 漢·唐과 달리 매우 폭이 좁아 서북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서북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전략이 부재한 원인이며, 西夏와 河西走廊 등에 대한 정책이 임기응변에 그치게 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李華瑞, 1998, 앞의 책, 9~14쪽).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곤란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대 각 왕조와 송이 어떤 연관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6) 송 태종은 태평흥국 8년(983), 吐蕃에서 말을 헌납하자 걸로로는 후하게 위무했지만 대신들에게는 “토번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의복도 다르기 때문에 짐은 그들을 교화의 대상 밖의 존재로 본다”며 자신의 통치영역 밖이라고 밝혔다(『長編』 卷24, 太平興國 8년 9월 庚午).

瀟淵으로 親征을 단행하기는 하였지만 이계천이 서북지방에서 여전히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서북지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sup>77)</sup> 전선이 양쪽으로 확대되는 것은 송 진종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에 송 진종은 거란과 화의를 논할 때 세폐의 부담을 따지지 말고 조속히 성사시키는데 힘쓰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전연의 맹약이 체결된 다음해 ‘河西를 회복하고 군현을 설치하자’며 서하 정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sup>78)</sup> 송 진종으로서 이계천의 갑작스러운 전사를 계기로 예기치 않게 도래한 화의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결국 이계천의 아들 李德明을 西平王으로 봉함으로써 진정한 화해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나마 ‘위태로운 평화’로 사태를 수습하였다.

## V. 맺음말

오대를 극복하고 당조의 부흥을 이룩한다는 데는 송 태조와 태종 형제의 견해가 일치하였지만 서북방 경영에 대해서는 본래부터 일치된 구상이나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다만 송 태조가 신생 왕조의 국력과 군사력을 고려하여 서북방 지역의 제 세력에 대해 온화한 削藩 내지는 유화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을 달성한 데 비해 태종은 지나치게 조급하고 강압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이계천의 반발과 서하의 독립, 그리고 소모적인 장기전을 초래하고 말았다.

송 태종은 불법적 계승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월과 복한을 통합하는 데 서둘렀을 뿐 아니라 ‘연경’ 회복을 명분으

77) 『長編』 卷58, 景德 1년 10월 乙未

78) 戴錫章, 『西夏紀』 卷4, 11쪽

로 거란과의 친정을 주도하였다가 패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이계천의 도전에 대해서만은 양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송 태종의 예상과 달리 이계천의 저항은 매우 거셌고, 사태는 점차 수습 불가능한 국면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송 태종은 국경무역을 봉쇄하여 압박하는 것 외에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다만 현저한 국력 차이 때문에 서하와의 전쟁은 송의 안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서하를 동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하였고, 무역 통제만으로도 서하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 군사적 우세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서하를 소멸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상대를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정서에 경제적 우월감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조는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군대를 동원한 압박 내지는 점령을 추구하였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역 봉쇄를 통한 경제적 압박을 반복하였다.

주위의 만류를 물리치고 무모하게 공세를 취했다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 송 태종은 말년에는 역으로 극도의 보수적 대외정책을 취하였고, 심지어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덕을 쌓는 데 있으니 四夷는 마땅히 교화의 범주의 밖에 두어야 한다”<sup>79)</sup>고 유언하여 송 진종에게 대외문제에 대한 방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위기 국면 속에서 즉위한 송 진종은 사태의 수습과 정국의 안정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송 진종은 “천하의 창생을 위해 굴욕을 참는 것이 마땅하다”며 즉위 초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며 서하와 조속히 화의를 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송 태종과 진종 부자가 서하 문제를 처리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서하 자체의 문제와 함께 거란의 향배였다. 송·서하 양국의 和戰관계는 항상 거란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존재와 간섭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송과 서하 당사국보다 거란의 태도가 더 큰 고려사항이었다. 송은 서하를 군사적으로 제압할 능력이 없는데다가 거란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부득이 세폐의 제

79) 陳均, 『九朝編年備要』卷5, “治國在乎修德, 四夷當置度外.”

공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는 유화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천조’의 위신과 서하와의 국력 차이는 언제라도 강경론이 고개 들 수 있는 온상이 되었다.

세폐를 통한 안정은 군사적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한 방안이었지만 양국의 충돌을 야기한 군사적 불균형 문제가 지속하는 한 그것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양측이 서로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서하의 세폐 외교는 상시적 불안정 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단, 전연의 맹약이 거란·송 간의 110여 년에 걸친 장기 평화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세폐의 규모가 양국 군사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적합한 규모였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송·서하 관계의 군사적 불균형을 조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송·서하 관계는 전연의 맹 체결과 함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송 진종은 송 태종 재위 기간에 발생한 각종 난제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군사적 여유를 갖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정국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서하 역시 자신들의 세력을 대내외적으로 공인받으면서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국가로 성장함으로써 이후 계속된 송·서하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되었다.

## 참고문헌

### 〈원사료〉

- 戴錫章, 1988, 『西夏紀』,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范鎮, 1997, 『東齋記事』, 北京: 中華書局  
 徐夢莘, 1987, 『三朝北盟會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徐松, 1997, 『宋會要輯稿』, 北京: 中華書局  
 王稱, 1997, 『東都事略』, 北京: 中華書局  
 李燾, 2004, 『續資治通鑑長編』, 北京: 中華書局  
 李攸, 1995, 『宋朝事實』, 北京: 中華書局  
 陳均, 2006, 『九朝編年備要』, 北京: 中華書局  
 脫脫, 1993, 『遼史』, 北京: 中華書局  
 脫脫, 1995, 『宋史』, 北京: 中華書局  
 脫脫, 1995, 『金史』, 北京: 中華書局

### 〈단행본〉

- 杜建錄, 1995, 『西夏與周邊民族關係史』, 甘肅文化出版社  
 廖隆盛, 2002, 『國際貿易戰爭』, 臺北: 萬卷樓  
 吳天墀, 2006, 『西夏史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王天順, 1996, 『西夏戰史』,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劉浦江, 2008, 『松漠之間: 遼金契丹女真史研究』, 北京: 中華書局  
 李華瑞, 1998, 『宋夏關係史』,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李華瑞, 2006, 『宋夏史研究』,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張其凡, 2009, 『宋代政治軍事論稿』, 合肥: 安徽人民出版社  
 陳寅恪, 1982, 『唐代政治史述論稿』(陳寅恪先生文集③), 臺北: 里仁書局  
 湯開建, 2005, 『党項西夏史探微』, 臺北: 允晨文化

### 〈논문〉

- 金容完, 1987, 「北宋과 遼·夏 邊境上の 密貿易 問題」, 『濟州史學』 3  
 金渭顯, 1985, 「契丹의 對西夏政策①」, 『白山學報』 32  
 金渭顯, 1986, 「契丹의 對西夏政策②」, 『白山學報』 33

- 金涓顯, 1995, 「西夏與宋·契丹之關係(986~1048)」, 『明知史論』 7
- 金涓顯, 2002, 「宋史筌·西夏列傳」, 『宋史研究論文集』, 河北大學出版社
- 朴志焄, 1990, 「宋代華夷論研究」, 梨花女子大學 博士學位論文
- 朴志焄, 1990, 「北宋의 對外經濟關係와 華夷觀: 對遼·西夏關係를 中心으로」, 『梨花史學研究』 19
- 安俊光, 1994, 「宋·夏戰爭에 對하여」, 『陸軍3士官學校論文集』 39
- 安俊光, 1997, 「宋·夏7年戰爭에 對하여」, 『陸軍3士官學校論文集』 44
- 梁鍾國, 2000, 「북송초 帝權 확립과 태종정권의 성격」, 『송요금원사연구』 4
- 
- 葛兆光, 2004, 「宋代‘中國’意識의 凸顯」, 『文史哲』 2004-1
- 羅矛昆, 1981, 「李繼遷攻取靈州對西夏建國的作用」, 『寧夏社會科學』 1981-3
- 隴夫, 1991, 「試論宋·夏與吐蕃關係的幾個問題」, 『甘肅民族研究』 1991-4
- 徐庄, 1981, 「試論李繼遷的歷史作用」, 『寧夏大學學報』 1981-4
- 王天順, 1994, 「試論宋夏戰爭中雙方戰略地位的變化」, 『寧夏社會科學』 1994-3
- 劉建麗, 1996, 「宋夏戰爭中的秦州吐蕃」, 『寧夏社會科學』 1996-4
- 李克武, 1988, 「李繼棒‘入覲納土’析論」, 『華中師大學報』 1988-3
- 李蔚, 1987, 「宋夏橫山之爭述論」, 『民族研究』 1987-6
- 李華瑞, 1997, 「貿易與西夏侵宋的關係」, 『寧夏社會科學』 1997-3
- 張煉, 1994, 「論北宋對西夏外交的失敗」, 『西南民族學院學報』 1994-5
- 趙繼顏, 1980, 「北宋仁宗時的宋夏陝西之戰」, 『齊魯學刊』 1980-4
- 趙一匡, 1987, 「宋夏對立與河湟地區的民族關係」, 『蘭州學刊』 1987-4
- 陳炳應, 1991, 「遼夏關係及其相互政策」, 『寧夏社會科學』 1991-4

**[ABSTRACT]**

The Outbreak and Escalation of the Song–Western Xia  
War in the Early Northern Song Period

Yoo Wonjun

In the ninth century, East Asia was faced with a complicated international situation: the north–south axis (the Khitans and Song China), the east–west axis (Western Xia and Goryeo), and several countries (including Turfan, Huigu and Southern Zhao) competed against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there began to emerge a “reversal of power” between the dynasty in central China and the dynasty of the northern border region.

Among these ancient kingdoms, Western Xia was the most measurable dynasty. First, Western Xia could not threaten the existence of its counterparts: the Khitans, Song China, or Jin. Also, they could not overwhelm Western Xia through military power. Although Western Xia was a small country the distant from central region, it was able to keep challenging Song China, and to put more pressure on Song China than the Khitan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only enemy threatening Western Xia was not the Khitans, the great power, but Song China.

To generally understand this perio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huayi concept* (華夷論), the ancient Chinese strategy of surrounding countries and ethnic groups (以夷制夷), the concept of link relations, and financial policies. In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concept of territory in Song China, the authenticity of Taizong, the change of foreign policies with the loss to the Khitans, the checks and balances of

military power in Song China, and the Khitans position against Song China and Western Xia.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Song China and Western Xia during the reign of Taizong.

Whereas Emperor Taizu had adopted a positive policy of appeasement toward the northwestern regions, Taizong handled the internal conflict in Dangxiang (党項) with more haste than caution, with his political ambition of authenticity. Finally, this contributed to cause a prolonged war of nearly 100 years. He lacked the military and political talent, moreover, He suffered from stress while striving to outperform Taizu. This made a decisive diplomatic situation more worse.

Li Jiqian (李繼遷) defended his homeland against Song China's attack with a guerrilla war which made effective use of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desert, and finally he was successful in establishing an independent regime with the support of the Khitans. Taizong, who had already lost his justification and practical benefits, adopted an appeasement policy, but this was too late to change the situation. What was worse, he suffered humiliation at the refusal of his offer of obedient vassal. Eventually, Song China was confronted with a severe political and military crisis in the last period of Taizong. His successor, Emperor Zhenzong had no choice but to sustain stability through the payment of annual tribute. Most of the fundamental problems in the Song dynasty were deeply rooted in the political failure of Taizong. At the same time, it came to be a major cause of failure in the foreign policy towards Western Xia.

#### Keywords

Song China, Western Xia, Taizong, foreign policy, Li Jiqian



# 11세기 후반 송·베트남 사이의 전쟁과 외교 교섭

이근명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베트남이 오랜 시간에 걸친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한 것은 939년의 일이었다. 당시 중국은 오대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였다. 중국의 정복 상태에서 벗어나 최초의 독립왕조를 세웠던 吳權(응오 꾸엔)은, 중국 10국 정권 가운데 하나였던 南漢의 간섭을 뿌리치고 吳(응오) 왕조를 건립하였다.

이렇게 중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다 해도 베트남 독립왕조가 걸어가야 할 길은 험난하였다. 1000년 이상에 달하는 기간 지속되었던 중국의 지배로 인해 베트남 사회에는 중국의 영향이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이에 따라 토착 사회에도 중국과 연계된 세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각 정치 집단 사이의 경쟁과 지역 간 대립도 치열하였다. 939년 吳 왕조가 성립된 이래 1009년 李朝가 들어서서 비로소 베트남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게 되기까지, 베트남에는 十二使君의 동란시대, 丁(딘) 왕조의 시대, 前黎(띠엔 레)의 시대 등

※ 투고일: 2011년 10월 4일, 심사일: 2011년 11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28일

으로 격변을 겪어야 했다.

중국은 이러한 베트남의 독립과 정치적 변천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간여하고자 했다. 吳權의 독립 작업도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南漢에서 파견되어 온 대규모 군대를 물리친 연후에야 성공할 수 있었다. 丁 왕조 후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前黎 왕조가 들어설 때에도 중국 세력의 간섭은 지속되었다. 980년 前黎 왕조의 黎桓(레 호안)이 왕조를 개창했을 때 北宋의 太宗은 대군을 파견하여 베트남을 복속시키고자 했다. 10세기 베트남 제 정권의 건국 작업은 그 자체 중국의 견제와 간섭을 극복하는 지난한 사업이기도 했다.

송 태종의 베트남 정벌이 실패로 끝난 후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한동안 평온한 관계가 지속된다. 그 사이 약간의 곡절이 있고 소규모의 분쟁과 전투는 있었으나, 이전에 비교하면 양국 간에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책봉-조공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친선관계는 11세기 후반 북송에 왕안석 정권이 수립되어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변한다. 접경 지역의 분쟁이 잦아지고 양측 사이 긴장이 고조되어 가다가 마침내 그러한 대립이 1075년에 이르러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북송의 태종 이래 송조의 베트남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 성격을 띠었던 것일까? 신종 시대에 발생하는 전쟁은 어떠한 전후 배경에서 촉발된 것이었을까?

송대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당대 이전에 비해 그 구조와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대당제국이 멸망한 이래 중국의 중앙정권은 더 이상 주변국가에 위세를 떨치는 존재가 아니었다. 종래 중원왕조에 조공을 바치던 북방민족들도 자립하여 속속 독자적인 국가를 이루었다. 국제질서의 굴절은 송이 중국 내지를 통일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오대 시기 만주 일대에 건립된 거란이 송과 나란히 황제를 칭하며, 시종 송과 대등한 외교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뒤를 이어 건국되는 서하도 일시 칭제하며 송 측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등한 자세를 취하였다. 대당제국 시기 중원의 당조를 구심점으로 하여 동아시아의 외교질서가 단일한 조공 체계를 구성하고 있던 것에 비추어, 오대 이후의 국제질서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원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의 국제환경에 대해, 독일의 동양학자 프랑케는 ‘대등자 속에서의

중국<sup>1)</sup>이라 칭하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베트남과 중국의 외교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었던 것일까? 송대에 들어 과거 번속관계에 있던 주변 민족들이 자립하였고 송조는 이들 제국의 독립과 발흥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해도 베트남은 이들 주변 국가와는 자못 다른 특수성이 있었다. 바로 기원전 111년 한 무제의 정벌 이래 1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 이상 중국의 직접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독립과 중국에 대한 저항은 송대의 지식인 내지 중앙정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던 것일까? 1009년 이조의 성립 이래 1075년 중월 간의 전쟁이 폭발할 때까지 양국관계는 어떠한 과정을 밟았으며, 이 전쟁은 이후 양국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또 이때의 전쟁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속되고 그 이후 양국 사이에는 어떠한 절충과 외교적 접촉이 진행되었던 것일까?

11세기 후반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점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어 있다.<sup>2)</sup> 이들 논고 중에는 중국과 베트남의 사료를 섭렵하며 중립자적인 시각으로 정치하게 당시의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기본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사이 관계사의 진전을 編年해간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11세기 후반의 전쟁이 어떠한 맥락에서 촉발되고 또 그것이 전후 중국-베트남사의 전개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 논구한다는 자세는 결여되어 있었다. 본고는 전쟁과 외교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11세기 후반 북송과 베트남 사이의 전쟁을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양국의 국내 정세, 특히 북송 측의 베트남에 대한 인식과 그 굴절을 살펴보고, 이어 전쟁이 결속되고 외교적 절충이 진행되는 과정을

1) Morris Rossabi ed., 1983, *China among Equals*, Univ. of California Press

2) 山本達郎 編, 1975,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呂士朋, 1986, 「宋代之中越關係」, 『宋史研究集』 16, 臺北: 國立編譯館; 黃純艷·王小寧, 2006, 「熙寧戰爭與宋越關係」, 『廈門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06-6; 蕭德浩, 「1075年越南李朝侵宋戰爭的原因剖析」 등. 이 가운데 蕭德浩의 논문은 철저히 중국적 시각을 지니고 宋朝에 左袒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呂士朋의 글은 분석적 論考라기보다 史料의 나열에 가깝다.

추적해 보고자 한다.

## 1\_ 북송 초기의 對李朝 정책과 儂智高의 반란

980년 건립된 前黎朝는 개국 황제인 黎桓이 재위 24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여환은 셋째 아들 龍鉞을 후계자로 삼고자 했으나, 이를 확고히 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여러 아들들 사이에 계승분쟁이 발생했다. 우여곡절 끝에 龍越이 간신히 등극하였지만, 그는 즉위 사흘 만에 아우인 龍鋌에게 살해되었다. 龍鋌의 통치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는 향락에 탐닉하며 잔학하게 통치하였으나 제위에 오른 지 4년 만인 1009년에 사망하였다. 이로부터 얼마 후 군권을 장악한 李公蘊이 관료와 승려들의 지지를 얻어 황제가 되었다. 그가 바로 李朝의 태조이다. 이로써 前黎朝는 30년만에 멸망하였다.

李朝의 태조는 곧바로 북송에 사지를 파견하여 책봉을 요청하였다. 북송 조정에서는 이 문제의 처리를 둘러싸고 약간의 논란이 벌어졌다. 交趾와 접경하며 일선에서 그 관련 문제를 직접 처리하고 있던 廣西轉運使 何亮은 大中祥符 3년(1010) 2월, “李公蘊은 龍鋌의 최측근으로서 가장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黎氏를 배반하고 새 왕조를 개창하였으니 인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이러한 주청을 받은 진중 역시, “龍鋌이 不義하였다 하나 李公蘊은 더 심하다”고 말하였으나, 베트남의 내정에 간여하지 않고 그대로 이공온의 즉위를 인준하였다.<sup>4)</sup>

송조는 交趾와의 관계에서 交趾郡王 - 南平王 - 南越王이라는 3단계의 冊封 제도를 견지하였다. 최초 황제로 즉위하였을 때는 交趾郡王에 冊封하였다가 얼마 후 南平王으로 冊封하고, 사후에 南越王을 追贈하는 형식이었다. 이것이 남송 淳熙 원년(1174)까지의 전형적인 책봉순서였다. 이에 대해 일부의 학

3) 『續資治通鑑長編』(이하 『長編』이라 약칭함) 권73, 眞宗 大中祥符 3년 2월 癸巳

4) 李公蘊은 大中祥符 3년(1010) 2월 檢校太傅·充靜海軍節度觀察處置等使·安南都護로서 交趾郡王에 봉해진다. 『宋會要輯稿』「蕃夷 4」「交趾」蕃夷 4之29

자는 송조가 交趾를 독립 국가가 아니라 內屬의 군현으로 보는 관념에서 연원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sup>5)</sup>

사실 태종 시기까지만 해도 송조는 적극적으로 베트남을 정벌하여 병합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黎桓이 前黎朝를 건립하였을 때 출정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太平興國 5년(980) 여환이 즉위하였을 때 태종은 그에 대한 책봉을 거부하며, “당송 교체기의 혼란을 이용하여 떨어져 나간 속지이니 강역 안으로 재흡수해야 한다”<sup>6)</sup>고 말하고 있다. 또 당시 베트남 전쟁을 총지휘하였던 侯仁寶는, “交趾의 내란은 천혜의 기회이며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sup>7)</sup>고 말한 바 있다. 베트남은 오랫동안 중국에 복속되어 있다가 당말 오대의 혼란에 휩싸여 있을 때 떨어져 나간 존재이니 다시 정복하여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태종 시기에 시도된 베트남 정벌전쟁은 그 총사령관인 侯仁寶가 전사할 정도로 참담하게 실패하였고 이후에는 재차 베트남에 대한 정벌의 논의가 대두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베트남과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후 眞宗과 仁宗 시대를 통해 지속되었다.

李朝가 건립되기 직전인 1006년, 前黎朝를 건립한 黎桓이 죽고 뒤이어 여러 아들들 사이 계승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일부 관료들이 交趾에 대한 정벌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베트남을 정벌하는 최적의 기회이며, 만일 荊湖 지방의 勁卒 2, 3천 명만 있으면 교지의 평정이 가능하다”<sup>8)</sup>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진종에게 호기를 이용하여 태종이 못다 이룬 교지 병합의 숙원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진종은 냉정히 거절하였다. “祖宗의 강역은 충분히 광대하며 이를 근실히 지키는 것이 급무이다. 공연히 백성을

5) 黃純艷·王小寧, 2006, 앞의 논문, 70쪽 참조.

6) 『安南志略』 권2, 太宗 太平興國 5년 5월 征交趾詔

7) 위와 같음.

8) 陳均, 『九朝編年備要』 권7, 眞宗皇帝

피곤하게 하며 아무 쓸모 없는 땅을 탐할 필요가 없다”<sup>9)</sup>고 답하고 있다.

眞宗은 그 치세를 통해 李朝에 대해 무력을 앞세워 위압적으로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그 요구에 대해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수용한다는 정책을 취하였다. 李朝의 李公蘊이 북송으로부터 制命을 얻은 직후인 大中祥符 3년(1010) 12월 조공을 바치며 太宗 御書의 하사를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100軸의 어서를 내려주었던 것<sup>10)</sup>도 그러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당시 베트남과 북송의 접경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단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양국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었다. 북송과 李朝 베트남은 공히 이들에 대해 招撫와 經略에 공을 들였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廣源州 일대에 거주하는 農氏 세력이었다. 이들의 거주지역인 廣源州는 金銀의 산지였다. 이에 주목하여 송조와 베트남은 광원주 일대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기도하였다. 접경 일대의 소수민족은 베트남, 송 양국의 압박을 받으며 한편으로 양국의 영역을 향해 反攻하는 일도 잦았다. 하지만 베트남, 송 양국이 모두 광원주 일대를 향해 경쟁하였다 해도, 眞宗 시대의 宋은 베트남에 비해 현저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한 양국 사이의 충돌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大中祥符 7년(1014)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해 12월 베트남 측이 廣西의 欽州와 如洪寨를 습격하여 人畜을 약탈해 갔다. 이는 베트남 관할 하의 소수민족(狄獠)이 죄를 짓고 欽州로 도망쳐 오자, 知欽州가 如洪寨에서 이들 소수민족을 맞아 성대히 대우해 주었던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보고되자 眞宗은, “향후 베트남 영역의 소수민족들을 誘召하여 공연히 사단을 만들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sup>11)</sup> 송의 진종은 베트남에 대해 극히 유화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듬해인 大中祥符 8년(1015) 12월에는 베트남 측 蘇茂州의 소수민족이

9) 위와 같음.

10) 『宋會要輯稿』「蕃夷 4」「交趾」蕃夷 4之29

11) 위의 책, 蠻夷 4之31

欽州 安遠縣을 침략하여 人畜을 약탈하였다. 하지만 이때 역시 조정에서는 광서로 전운사에게 詔勅을 내려 방어만을 명령하고 있을 뿐이다.<sup>12)</sup>

1022년 眞宗이 작고하고 仁宗이 즉위하였다. 진종 시대의 유희적인 대 베트남 정책은 인종 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조 베트남과 북송 사이에는 인종의 즉위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베트남 측의 북부 변경지역에 대한 공략과 팽창은 중단되지 않았다. 진종 天聖 6년(1022) 4월 베트남의 북부 진출은 중국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邕州의 북송 군대와 교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송 측에서는 邕州의 權寨主까지 전사하였다. 이때 李朝의 태조(李公蘊)는 북송에 入貢하면서도 한편으로는 子弟와 사위를 시켜 침공을 지속하였다.<sup>13)</sup> 5월에 들어서도 베트남 측의 공략은 멎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 전개에 송조는 어쩔 수 없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다. 베트남에 대해, 약탈해 간 人戶를 반환하지 않으면 邕州의 군대를 출동시켜 정벌을 진행시킬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베트남 측은 이러한 압박에 굴복하여 송 측 영역에 대한 공략을 중지하였다.<sup>14)</sup>

이조의 베트남에서는 이 직후인 1028년 太祖 李公蘊이 죽고 이후 상당 기간의 계승분쟁을 거쳐 德政(佛瑪)이 즉위하였다. 바로 2대 황제인 太宗이다. 태종이 즉위한 이후에는 한동안 북송과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 북송의 인종 景祐 元年(1036) 이후 역시 국경지대의 소수민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景祐 원년에는 베트남 측의 소수민족 추장인 陳公永 등 600여 명이 송 측에 투항해 왔다. 이에 李朝의 태종은 군대 1,000여 명을 동원하여 국경 지역에서 그들을 포획해 갔다. 송조에서는 조령을 내려, 그들을 죽이지는 말라고 권유하였다고 한다.<sup>15)</sup> 그로부터 2년 후인 景祐 3년(1036) 2월에는 邕州 변경의 甲峒과 諒州·門州·蘇茂州 등의 소수민족이 思陵州·西平州 등지에 침략

12) 『長編』 권85, 眞宗 大中祥符 8년 12월 己亥

13) 위의 책, 권106, 仁宗 天聖 6년 4월 庚午

14) 『宋會要』 「蕃夷 4」 「交趾」 蕃夷 4之32

15) 『長編』 권114, 仁宗 景祐 元年 6월 壬申

하여 鎭將을 살해하고 주민을 약탈해 갔다.<sup>16)</sup> 諒州·門州·蘇茂州 등은 오늘날 베트남 북부의 까오방과 랑선, 하이닌 일대에 해당한다. 베트남 변경의 소수민족이 중국의 영역 깊숙이 침략해 온 것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베트남 측의 도발에 대해서도 仁宗은 그저 李朝의 太宗에 下詔하여, 소수민족 추장들을 問罪하라고 책망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 북방 변경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이 빈번히 국경을 넘어 송 측의 변경지역을 약탈하였던 것은, 베트남의 적극적인 북방 경영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측의 기록에 따르면, 順天 18년(1027) 李朝의 太祖 李公蘊이 황태자인 佛瑪(德政)에게 명하여 북방의 변경지역인 七源州를 토벌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sup>17)</sup> 태조가 사망 후에는 七源州 정벌의 장본인인 李德政이 帝位에 올랐다. 따라서 李朝의 태종 시대가 되면 북방 소수민족 거주지에 대한 공략이 더욱 활발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베트남 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李朝의 공략,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소수민족의 동요는, 儂智高的 난이란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북송과 이조 베트남 양측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1030년대 이후 仁宗 皇祐 2년(1050)까지는 북송에 대한 베트남 내지 베트남 영역 내 소수민족의 침략은 없었다. 그런데 1040년대 후반 이후 廣源州에 거주하는 儂氏의 문제가 양측의 현안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廣源州는 左江의 상류 일대로서 현재의 까오방 동부에 위치한 팡 응우옌 일대이다. 이곳은 儂氏의 거주지였는데, 농씨 일족은 북송의 南漢 정벌(977) 이후 宋에 투항하여 그 지배를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 태종이 베트남을 정벌하다가 실패하자 宋 대신 베트남에 복속되었다. 송 측의 기록에서 이들의 동태가 태종 시대 이후 50여 년간 사라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10세기 초반 儂氏들이 베트남에 복속되어 있었던 것은 베트남 측 기록에, “儂氏들이 卍卍로 (베트남의) 영역을

16) 『송사』 권488, 「交陟傳」

17) 『大越史記全書』(이하 『全書』라 약칭함) 順天 18년條

지키며 공납을 바친다”<sup>18)</sup>고 적혀 있는 것에서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베트남의 지배를 받고 있던 廣源州의 農氏는, 李朝의 북부 변경지역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 강화되며 동요를 일으켰다. 이러한 불안과 동요는 1038년 農存福이 李朝 베트남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발전하였다.<sup>19)</sup> 農存福은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이듬해인 1039년 정월 칭제하고 국호를 長生國이라 선포하였다. 하지만 이 반란은 이조 태종의 진압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실패하였다. 농존복과 그 아들 智聰은 李朝의 정벌군에게 생포되어 수도로 압송된 다음 斬刑에 처해졌다.

이때 농존복의 또 다른 아들 農智高는 모친 阿農과 함께 이조 진압군을 피해 도망하였다가 까오방 지역으로 돌아와 재차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大曆國이라 하였다. 이조의 태종은 곧바로 농지고에 대해서도 토벌을 단행하여 농지고를 생포하였다. 하지만 태종은 농지고의 부친 농존복과 형 농지충이 처형된 것을 불쌍히 여겨 사면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1043년 이조의 태종은 농지고에게 廣源州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농지고는 이조 중앙정부에 조공을 바치며 복속하였다. 농지고는 광원주를 기반으로 하여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갔다. 1040년대 말엽이 되면 인근 지역인 思琅州와 四洞도 그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 대략 현재의 중국과 베트남 접경 지역이 그의 영향 아래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세력 확대를 기반으로 그는 1048년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농지고는 반란을 일으킨 후 이조 베트남의 토벌에 맞서면서 한편으로는 북방으로 진출하여 邕州의 변경도 공격하였다. 廣西路 鈐轄司에서는 농지고 세력이 침입해 오는 경로인 羅徊洞에 寨柵을 건설하여 대비에 나섰다. 농지고는 이조 베트남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 右江 방면으로 이동하여 송 측으로 바짝 다가섰다. 그리고 인종 皇祐 3년(1051) 2월 송에의 복속을 청원하며 刺史의 직

18) 『全書』 권 2

19) 농존복 및 농지고의 반란에 대해서는,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권 50, 「廣源蠻叛」; 山本達郎 編, 1975, 앞의 책, 34~37쪽; 呂士朋, 1986, 앞의 논문, 279~285쪽 참조.

위를 요청하였으나, 송 측은 李朝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거절하였다.

농지고가 宋에의 內屬을 청하였을 당시 송조는 廣西路 轉運使와 提點刑獄에게 可否의 의견을 물었다. 전운사 蕭固는 이에 대해, “농지고는 장차 남방의 우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에게 관직을 주어 초무함으로써 交趾와 맞서도록 하십시오”<sup>20)</sup>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宋 조정에서는, 농지고가 본디 李朝의 관할을 받는 존재였는데 그의 투항을 허용할 경우 이조 베트남과의 사이에 불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 3월, 농지고는 宋 조정에 길들인 코끼리와 廣源州의 산물인 金銀을 바치겠다고 청원하였다. 宋은 이에 대해서도, “廣源州는 본디 交趾의 관할 지역이므로 交趾와 함께 進奉할 경우 허락하겠다”<sup>21)</sup>고 답하였다. 송 조정의 李朝 베트남에 대한 우호정책 내지 유화책은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농지고는 송에 대해 청원을 지속하였다. 刺史 직위의 요청이 거부되자 教鍊使 직위로 요구를 낮추기도 했으며, 南郊 때마다 金 1,000냥을 헌상하겠다고도 제의했다. 또 邕州에 互市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을 송조에서는 모두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투항의사가 송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농지고는 皇祐 4년(1052) 4월 어쩔 수 없이 송에 대한 무장 투쟁을 시작하여 5,000명을 이끌고 右江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송 측의 기록에서는 이때로부터 農智高의 亂이 시작되었다고 적고 있다. 농지고는 거병 이후 신속히 주변지역을 점령해 갔다. 5월 1일에는 邕州를 함락시키고, 국호를 大南國이라 정한 다음 스스로 仁惠皇帝라 칭하였다. 이어 주변지역을 속속 점령하고, 5월 22일에는 광남동로의 路治인 廣州를 포위하였다.

이러한 사태 전개에 송 조정은 당황하였다. 10월에 이르러 농지고가, “邕州와 桂州 등 7州的 절도사 직위를 내려주면 투항하겠다”<sup>22)</sup>는 의사를 전달해 오

20)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권50, 「廣源蠻叛」

21) 위와 같음.

22) 위와 같음.

자 인종은 그것을 들어주고자 하는 의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樞密副使인 梁適은, “만일 그렇게 하면 兩廣 지방은 조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sup>23)</sup>라고 말하여 인종의 생각을 돌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0월에 樞密副使 狄靑을 宣撫使로 파견하여 농지고 난을 진압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송 조정의 농지고에 대한 토벌 방침이 결정되자, 이조 베트남은 이를 지원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12월의 일이었다. 知桂州 余靖은, “이를 받아들여 향후에도 農氏와 李朝 베트남으로 하여금 서로 대립하는 형세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sup>24)</sup>고 말했다. 하지만 狄靑은, “交趾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면 蠻夷들이 향후 송을 가버려 여겨 쉽게 이반할 것”<sup>25)</sup>이라 말하며 반대했다. 조정은 狄靑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狄靑의 토벌군은 이듬해인 皇祐 5년(1053) 정월 농지고에 대한 공략에 착수하여 불과 10일 만에 완전히 토벌하였다. 농지고는 狄靑의 진압군이 압박해 오자 邕州로 후퇴하였다가 崑崙關 전투에서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후 야간에 용주성을 방화하고 大理國으로 숨어 들어갔다. 余靖은 농지고의 모친 阿農과 동생인 智光, 아들인 繼宗·繼封 등을 생포하였다. 또 대리국으로 사신을 보내 피신한 농지고의 압송을 요구하였다. 농지고는 이 직후 대리국에서 살해되어 그 시신이 송에 보내졌다. 송 조정은 농지고의 모친과 동생, 아들들을 모두 주살하였다.

이로써 1040년대 중반 이래 중국과 베트남 변경지대에서 발생하여 양국 모두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農氏의 반란은 최종적으로 진압되었다. 농지고의 난은 송대를 통해 소수민족이 야기한 최대의 반란이었다.

지금까지 진종과 인종 시기 송조의 대베트남 정책이 어떠한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송 정권은, 태종 시대 베트남에 대한 정벌이 실패로 끝난 이래 무력을 앞세운 강압책을 포기하고, 가능한 한 우호적인 자세를

23) 위와 같음.

24) 『太平治迹統類』 권10, 「仁宗平農智高」, 皇祐 4년 12월條

25) 위와 같음.

견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북송 정권의 유화적 태도는 1050년 전후에 발생하였던 농지고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듯 평화적인 관계가 지속되던 북송과 베트남 사이에서 어떠한 연유로 대규모 전쟁이 폭발하게 되는가 하는 점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 2\_ 神宗 시기의 정책 변환과 베트남 정벌

治平 4년(1067) 정월, 북송 제5대 황제 英宗이 붕어하고 이어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 그가 바로 神宗이다. 당시 神宗은 약관 20세의 청년이었다. 그는 이후 元豐 8년(1085) 38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20년 가까이 帝位에 있으면서 王安石(1021~1086)을 발탁하여 이른바 新法 혹은 變法이라 불리는 대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이러한 신종 시대를 통해 북송의 대베트남 정책은 이전까지와는 전연 다른 면모를 취하게 된다. 신종과 왕안석이 대외정벌을 통해 공업을 이루고 송조의 국세를 떨치고자 하는 강렬한 염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종에게 이러한 군사적 공업의 성취의욕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즉, 북송 말의 기록인 『鐵圍山叢談』에는,

神宗은 즉위한 이후 커다란 성취를 남기려 하는 뜻을 慨然히 일으켜 西와 北 두 방향의 罪를 묻고자 했다. 하루는 金甲을 입고 慈壽宮에 나아가 太皇太后를 보고 말하기를, “할머니, 臣이 이것을 입었는데 잘 어울리나요?”라고 물었다. 曹后는 웃으며, “너(汝)는 갑옷이 매우 잘 어울리는구나. 하지만 너까지 이러한 것을 입게 된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神宗은 가만히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金甲을 벗었다.<sup>26)</sup>

26) 蔡條, 『鐵圍山叢談』 권1

는 일화가 적혀 있다. 비록 즉위한 직후의 일기기는 하지만 이처럼 태황태후에게 스스로를 臣이라 칭하고 또 태황태후는 그러한 황제를 너라고 호칭하고 있는 위의 일화는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이 상황이 사적인 친밀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신종은 스스로 갑주를 차리고 친정하여 군사적인 공업을 이루려는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러한 열망은 위와 같이 태황태후에 대한 치기어린 허세로 나타날 정도였던 것이다.

신종에게 이처럼 강력한 군사적 성취의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은 허다하다. 잘 알려진 사례이지만 다음과 일화<sup>27)</sup>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熙寧 연간(1068~1077)의 어느 때인지 불분명하지만, 신종은 대신들과 협의하여 거란에 대한 원정을 결의하고 이를 太皇太后 曹氏에게 알렸다. 이에 曹后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거란 정벌이 가능했으면, 太祖나 太宗 때에 벌써 해냈을 것이지 어찌 지금까지 방치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종은, “감히 그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太皇太后 曹氏는 신종의 父皇인 英宗을 양자로 들어 손수 양육<sup>28)</sup>한 인물로서, 英宗의 등극 후에는 한동안 수렴청정을 했었다. 神宗은 이러한 曹后에게 지극한 효성을 바쳐서,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했으며 정무의 처리에서도 늘 그녀의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고 한다.<sup>29)</sup> 그런데도 신종은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처럼 결연히 曹后의 제지를 뿌리치고 있는 것이다.

神宗의 대외정벌에 대한 의지는 그것을 위해 특별히 물자를 비축하는 別儲를 두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한 창고가 그의 治世 말엽이 되면 20개에 이르

27) 『宋史』 권242, 「慈聖光獻曹皇后列傳」

28) 위와 같음.

29) 위와 같음. 神宗의 曹后에 대한 태도는, “帝致極誠孝 所以承迎娛悅 無所不盡 從行登翫 每先後策掖”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렀다. 나아가 그는, “매일 저녁마다 삼가 두려워 반성하노라, 遺業을 망령되어 저버리거나 앉았나 하고. 돌아보니 나는 호반된 모습이 없구나, 언제나 오랑캐를 쳐부술 수 있을까?”라는 시를 친히 지어 이곳에 걸어두었다고 한다.<sup>30)</sup> 神宗에게 군사적인 성취는 평생의 염원이었던 것이다.

신종은 황제로 즉위한 이후 국정 of 대대적인 쇄신을 이루고자 했다. 그는 황제 등극 직후인 治平 4년 윤3월에 内外의 文武 群臣들에게 下命하여 内政과 邊防을 위시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숨김없는 직언을 구했다.<sup>31)</sup> 그의 이러한 内外 臣僚에 대한 개혁의 자문은, 나아가 재정수지의 절감방안과 재정책의 개선방향,<sup>32)</sup> 전반적인 治道の 방향과 변경의 군사문제<sup>33)</sup>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들에게 수시로 행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神宗의 적극적인 모색에도 당시의 유력한 대신들은 그의 개혁의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제시한 方略이 전혀 신종의 의도에 부합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蘇轍(1039~1112)은 훗날,

(신종황제는) 처음 즉위한 때 萬事를 經營하여 海內를 바로잡고 四夷를 제압하려는 뜻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老臣과 宿將들은 팔를 끼고 서로 바라만 보았습니다.<sup>34)</sup>

라고 회고하고 있다. 신종은 국정의 개혁과 이를 바탕으로 거란과 서하를 제압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의를 지녔으나, 주변의 신료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仁宗 이래의 老臣이었던 富弼(1004~1083)은 신종이 자신의 주된 관심사인 邊事に 대해 자문하자, “폐하

30) 『宋史』 권179, 「食貨 下」 「會計」

31) 『長編』 권209, 英宗 治平 4年 閏3月 庚子

32) 『長編拾補』 권3上, 神宗 熙寧 元年 6월 丙寅. 이때 神宗은 司馬光과 滕甫에게 명하여, “看詳裁減國用制度”하도록 했다.

33) 예컨대 熙寧 元年(1068) 神宗은 富弼에게 治道와 邊事に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宋史』 권313, 「富弼傳」), 이듬해 7월에는 文彥博에게 邊防久遠備禦之策을 묻고 있다(『長編拾補』 권5, 神宗 熙寧 2년 7월 乙丑).

34) 『蘇轍集』, 「欒城集」 권47, 「進御集表」

께서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 마땅히 德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원컨대 20년간 兵을 입에 올리지 마소서”라고 대답할 정도였다.<sup>35)</sup>

이러한 상황에서 神宗이 국정개혁을 추진할 대안으로서 선택한 인물이, 당시 朝野에서 명망을 얻고 있던 王安石이었다. 이렇게 신종이 王安石을 발탁하는 저간의 사정에 대해, 明末清初의 인물 王夫之는,

神宗에게는 暢言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는데, 國政을 맡은 大臣 가운데는 그 뜻을 헤아려 더불어 잘 도모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 그리하여 王安石이 이를 타고 나아갔다. 神宗은 처음 즉위했을 때 文彦博에게 이르기를, “兵을 길러 邊境을 막기 위해서는 府庫가 충실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는 安石이 이끈 것이 아니다. 그 뜻이 정해진 것이 오래였다.<sup>36)</sup>

라고 말하고 있다. 신종 시기 추진되는 왕안석의 신법에는 다양한 성격과 측면이 있으나, 그 중심된 지향 가운데 하나가 국력을 충실히 하여 당시의 수세적이고 굴욕적인 대외관계를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신종의 즉위, 그리고 뒤이은 왕안석의 발탁 및 신법의 시행과 더불어 송조의 대베트남 정책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취하게 된다. 熙寧 4년(1071) 정월, “交趾가 占城에게 패배하여 그 部衆이 만 명이 채 되지 못하니 손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sup>37)</sup> 이에 따라 송 조정은 蕭注를 知桂州에 임명하였다. 蕭注는 仁宗 치세 말엽에 知邕州로 재직하면서 交趾 정벌을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송조가 蕭注를 발탁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에게 교지

35) 『宋史』 권313, 「富弼傳」. 남송시대의 인물인 葉適(1150~1223)이, “弼初執政 更張之意過于范韓 至作相 乃以一切堅守無所施爲爲是 雖如琦之微有改作 亦不能從也”(『習學記言序目』 권48, 「皇朝文鑑 2」 「奏疏」)라고 평하듯, 富弼은 본시 時弊에 대한 개혁의지가 강한 인물이었으나 神宗 무렵이 되면 철저한 무사안일론자가 되어 있었다.

36) 王夫之, 『宋論』 권6, 「神宗」 2

37)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권87, 「討交趾」

공격의 준비를 진행시키라는 의미였다.<sup>38)</sup>

신종은 蕭注가 부임하기 전 그에게 교지 정벌의 계획을 물었다. 그러자 蕭注는, “10여 년 전에는 溪洞兵이 一當十 정도로 훈련이 잘되어 있었고 무장도 우수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交趾의 部衆이 채 만 명도 되지 못한다는 말은 망언이다”라고 답하였다.<sup>39)</sup> 신종은 이러한 蕭注의 답변에 실망하였을 것이지만 교지에 대한 무력 정벌의 의도는 버리지 않았다. 蕭注가 지계주로 부임한 이듬해인 熙寧 5년(1072), 추밀원에서는 諸路의 經略司勾當公事를 폐지하였으나, 廣西만은 예외로 하였다. 이에 대해 『長編』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交州의 정벌을 위한 것이었다고 적고 있다.<sup>40)</sup>

蕭注는 桂州의 知州로 부임한 이래 변경 지역 소수민족의 정황을 탐지하면서 인심을 잘 수습하였다. 베트남 쪽의 사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파악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의거하여, 베트남에 대한 정벌을 주장하는 의견을 철저히 차단하였다고 한다.<sup>41)</sup> 이러한 蕭注의 행동은 神宗 및 왕안석에게 달갑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는 부임한 지 2년 후인 熙寧 6년(1073) 정월 파직되고 그 대신 度支判官으로 재직하고 있던 沈起를 知桂州로 임명하였다. 沈起는 이전부터, “남방의 交州는 작은 무리이다. 攻取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sup>42)</sup>

새로 부임한 지주 沈起는 조정에서 密旨를 받았다고 말하며 베트남 정벌을 위한 준비에 온 힘을 기울였다.<sup>43)</sup> 그는 멋대로 恩靖州의 儂善美를 招納하였으며 베트남과의 접경지역에 城寨를 수축하였다. 邕州 관내 소수민족으로부터

38) 이에 대해 『宋史』에서는, “是時議者言 交趾可取 朝廷命蕭注守桂經略之”라 적고 있다(권334, 「沈起傳」).

39) 위와 같음.

40) 『長編』 권237, 神宗 熙寧 5년 8월 甲申

41) 이러한 사정에 대해 『宋史』에서는, “既至桂 種酋皆來謁. 注延訪山川曲折 老幼安否 均得其驩心 故李乾德動息必知之. 然有獻征南策者 輒不聽”이라 적고 있다(권334, 「蕭注傳」).

42) 『太平治迹統類』 권17, 「神宗平交趾」. 이러한 沈起의 주장을 접한 후 왕안석은, ‘安石喜 乃罷注歸 以起知桂州’ 하였다고 한다.

43) 이에 대해서는 『宋史』 권334, 「沈起傳」을 참조.

군대를 차출하여 保甲으로 편성하고 교관을 보내 군사훈련을 시켰다. 또 베트남 경내로 드나들며 그 백성을 무수히 살육하기도 했다. 이러한 沈起의 활동은 신종이나 왕안석의 의도를 훨씬 벗어난 것이었다. 신종은, 沈起의 조치로 말미암아 예상보다 빨리 베트남과 문제가 불거지고 또 변경 소수민족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하여 沈起를 파직시켰다. 熙寧 7년(1074) 3월의 일이었다.<sup>44)</sup>

沈起의 뒤를 이어 知桂州가 된 劉彝은 오히려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다.<sup>45)</sup> 그는 沈起와 마찬가지로 장차 조정에서 베트남 정벌을 단행할 것이라 말하며, 변경지역의 溪洞에 관원을 파견하여 土丁을 모집하고 이를 保甲으로 편성하였다. 溪洞에서 모집된 土兵들은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나아가 劉彝은 鹽運을 핑계로 어부들을 모아 水戰을 훈련시켰다. 交趾와의 互市도 전면 중단하였다.

이러한 劉彝의 조치에 대해 베트남과 접경하고 있던 邕州의 知州 蘇緘이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sup>46)</sup> 蘇緘은 서신을 보내, 交趾를 자극하는 일체의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또 交趾에게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劉彝은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이지는커녕, 도리어 조정에 상주하여 蘇緘을 탄핵하였다. 북송 조정에서는 유이와 소함의 대립에서 유이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함에게는 變事에 대해 발언하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심기와 유이의 조치는 사실상 베트남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북송 측의 전쟁 준비는 이조 베트남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베트남은 북송의 전쟁 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선제 공격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베트남은 1075년 11월 대군을 동원하여 廣西 지역으로 침공하였다. 11월 5일이 되자 交趾가 군대를 결집시키고 두 갈래로 침공하려 한다는 보고가 송 측에 접수되었다.<sup>47)</sup> 동원된 군대는 10만이라 칭해졌으며, 두 갈래로 진격로를

44) 『長編』 권251, 神宗 熙寧 7년 3월 甲子

45) 이러한 劉彝의 조치에 대해서는, 『太平治迹統類』 권17, 「神宗平交趾」를 참조.

46) 『長編』 권271, 神宗 熙寧 8년 12월 丁酉 참조.

47) 『宋會要』 「蕃夷 4」 「交趾」 蕃夷 4之36

설정하여 한 부대는 해안을 따라 欽州와 廉州로 진격하고, 다른 부대는 육로로 邕州를 공격하였다.<sup>48)</sup> 水軍은 李常傑의 지휘 아래 湖陽鎮으로부터 진격하여 20일에 欽州를 함락시키고 이어 23일에는 廉州를 함락시켰다.<sup>49)</sup>

陸路軍은 宗奩의 지휘 아래 永平(思明州)·太平(七源州)·遷隆·古萬의 4寨를 함락시키고, 李常傑의 水路軍과 합류하여 邕州를 포위하였다. 베트남군은 점령지마다 주요 가로에 게시문을 내걸고 침입의 이유를 설명하였다.<sup>50)</sup> 우선 첫째로, 베트남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고 중국에 망명하면 중국 측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베트남에 송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트남 측이 그 송환을 위해 桂州에 사자를 보내거나 혹은 바다를 통해 廣州에 가서 호소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둘째로는 宋이 桂州의 지휘 아래 변경 소수민족인 溪蠻의 壯丁을 부대로 편성시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베트남 정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국 측이 왕안석을 발탁하여 新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이었다. 베트남 측은 이와 관련하여 점령지에서, “中國에서 靑苗法과 募役法을 실시하여 生民이 곤경에 처해 있다. 우리가 지금 군대를 내는 것은 그 난리에서 구해 내고자 함이다.”<sup>51)</sup> 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내걸었다.

베트남 군대가 邕州로 진격해 오자 知州 蘇緘은 방어를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옹주성의 병력은 극히 미미했다. 禁軍과 廂軍을 포함하여 잔존한 병사는 2,800명에 불과했다.<sup>52)</sup> 소함은 이 밖에 수백 명의 군대를 추가로 모집하여 방어의 진용을 갖추었다. 베트남군은 12월 중순 옹주성을 포위하였다. 이후 양측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서로 간 소규모 승패를 주고 받았지만, 소수의 수비군으로 압도적 다수의 베트남 군대를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었

48) 『越史略』 권 중

49) 『長編』 권271, 神宗 熙寧 8년 12월 癸巳 참조.

50) 이에 대해서는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권87, 「討交阯」 참조.

51) 『長編』 권271, 神宗 熙寧 8년 12월 癸丑

52) 『長編』 권271, 神宗 熙寧 8년 12월 丁酉

다. 결국 옹주성은 베트남군에게 포위된 지 42일만인 1076년 정월 23일 함락되었다. 지주 소함과 그 가족 36명은 모두 전사하거나 살해되었으며 이 밖에 옹주성의 軍民 5만여 명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베트남 군대는 欽州와 廉州를 함락시키고 나서도 참혹한 살육을 자행하였다. 옹주성 전투와 그 이전의 欽州·廉州를 합하면 대략 10여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宋側の 史書는 전하고 있다. 살육한 시체는 강에 내던져 그것으로 강을 메웠다고 전해진다.<sup>53)</sup> 베트남 군대는 이렇게 송 측에 막심한 타격을 입힌 후 포로를 이끌고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1076년 정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고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의 일이었다.

북송의 재상 왕안석은 옹주성이 포위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온 이후에도, 옹주성은 방비가 튼튼하므로 결코 함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자신하였다. 그러던 그에게 옹주의 함락은 큰 충격을 주었다.<sup>54)</sup>

베트남의 침입이 개시된 직후인 희녕 8년(1075) 12월, 송은 베트남과의 전쟁을 위한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知延州 趙高을 安南道行營馬步軍都總管經略招討使兼廣南西路安撫使로 삼고, 嘉州防禦使 李憲을 副使로, 그리고 燕達을 副都總管으로 임명하였다. 趙高과 李憲으로 하여금 正副 사령관으로서 대베트남 전쟁을 총괄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진용을 갖춘 직후인 이듬해 2월 조설과 이현 양인 사이에 불화가 불거졌다. 어쩔 수 없이 송 조정은 조설 대신 判太原府 郭達를 安南道行營馬步軍都總管經略招討使로 삼았다. 조설은 副使가 되었으며 이현은 파직되었다.<sup>55)</sup>

이어 宋朝는 각지에서 군대를 차출하여 베트남 정벌군을 편성하는 한편, 점성과 진랍에 사자를 파견하여 대베트남 전쟁에서의 공동전선을 구축하고자 했다. 점성과 진랍에 대해서는 베트남 공략 이후 막대한 사여를 약속하였다.<sup>56)</sup> 이러한 송 측의 요청에 응하여 점성은 군대를 내어 베트남을 공격하기도 했으

53) 이에 대해서는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권87, 「討交阯」 참조.

54) 『長編』 권273, 神宗 熙寧 9년 2월 辛丑

55) 이에 대해서는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권87, 「討交阯」 참조.

56) 『長編』 권273, 神宗 熙寧 9년 2월 戊子

나, 실제 송조의 베트남 정벌 과정에서 점성의 원조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송조는 북방의 禁軍 가운데 일부를 동원하였으며 이 밖에 壯丁을 招募하기도 했다. 서북지방에서는 精銳兵 10만을 차출하였고, 광서·형호·광동·하북 등지에서도 兵員과 물자를 차출하였다. 광서 현지에서는 병사를 募丁하였으며 諸州의 强壯한 자는 모두 桂州로 보내 대베트남 정벌군에 배속시켰다. 募丁은 광서와 마찬가지로 광둥에서도 진행되었다. 베트남 정벌군에게 지급하기 위한 군량도 각처에서 조달하였으며, 이를 운반하기 위한 人夫도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에서 모집되었다.<sup>57)</sup>

교지 정벌을 위한 군대는 熙寧 9년(1076) 7월 광서의 桂州에 집결하여 10월부터 베트남 영역으로 진군해 갔다. 선봉을 맡은 燕達은 邕州의 太平寨로부터 베트남의 廣源州로 진격하였다. 廣源州의 觀察使 劉紀는 이에 맞서다가 견디다 못해 항복하였다. 廣源州의 劉紀가 항복하자 뒤를 이어 인근 지역의 소수 민족들도 연이어 투항하였다. 12월 초의 일이었다.<sup>58)</sup>

12월 11일에는 郭達의 본대도 베트남 영역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조 베트남 측은 국경 안쪽의 決里隘(오늘날의 동당)에서 코끼리를 앞세우고 저항하였다. 송의 군대는 이에 맞서 强弩를 발사하고 巨刀로 코끼리의 코를 베어 가며 전투를 벌였다. 베트남 군대는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다.<sup>59)</sup>

곽규의 군대는 진군을 계속하여 12월 21일 富良江(오늘날의 흥 강)에 도착하였다.<sup>60)</sup> 베트남 측에서는 모든 배들을 강의 남쪽에 집결시켜 정박해둔 상태였다. 송의 군대는 富良江을 건널 방도가 없었다. 그곳에서 이조 베트남의 수도 昇龍(탕롱, 오늘날의 하노이)까지는 30리가 남아 있었다. 이때 燕達이 선봉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자신이 소부대로 전투를 걸어 敗走함으로써 베트남

57) 이에 대해서는, 黃純艷·王小寧, 「熙寧戰爭與宋越關係」, 72쪽 참조.

58) 이에 대해서는, 『長編』 권279, 神宗 熙寧 9년 12월 丙戌 및 癸巳 참조.

59) 『長編』 권279, 神宗 熙寧 9년 12월 癸巳

60) 이하 富良江 전투의 경과에 대해서는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권87, 「討交阯」 참조.

측을 유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송의 군대와 베트남 군대 사이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다.

이 富良江 전투의 승패를 두고서는 송과 베트남의 기록 사이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宋 측의 사서들은 모두 대승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洪眞太子라는 인물까지 戰死할 정도로 베트남 측이 참패를 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史書에서 洪眞太子라 적고 있는 인물은 결코 태자가 아니었다. 베트남 측 사서에서 宏眞侯라 일컫고 있는 장수일 뿐이다.<sup>61)</sup> 송 측에서는, “적이 대패하여 강에 떨어져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강물이 3일간이나 흐르지 않았다. 1,000여 명을 참수하는 대승을 거두었고 수많은 적의 장군이 살해되거나 생포되었다. 이 전투의 패배로 결국 이조 베트남의 仁宗이 항복한 것이다”라고 기록<sup>62)</sup>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 측의 기록은 또 李朝 베트남의 완벽한 승리라 적고 있다. 『越史略』의 경우, “李常傑은 宋軍이 지친 것을 알고 밤에 강을 건너 습격함으로써 대승을 거뒀다. 송의 전사자는 10에 5, 6명이나 되었고 결국 (이로써) 廣源州도 되찾을 수 있었다”<sup>63)</sup>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전쟁의 승패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지만, 宋의 군대가 이 富良江 전투를 계기로 베트남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전투 직후 베트남 측은 宋에 강화를 요청하고, 이를 宋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쟁은 종결되었다. 베트남이 송에 제시한 강화의 조건은 접경지역 5개 주의 할양이었다.

베트남 정벌군의 사령관 郭達는 철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다.

나는 결국 적의 소굴을 뒤엎고 李乾德(李朝의 仁宗 황제)을 포로로 잡지 못한 채 되돌아간다. 이는 하늘의 뜻이다. 내 一身으로 (모든 전쟁의 책임을 지고) 10여만 명의 人命을 구하고 싶다.<sup>64)</sup>

61) 이에 대해서는 앞서 든, 山本達郎 編, 『ベトナム中國關係史』, 53쪽 참조.

62) 『范太史集』 권40, 「檢校司空左武衛上將軍郭公墓誌銘」

63) 『越史略』 권 中

64)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권87, 「討交阯」

여기서 곽규는 자신의 철군이 부득이한 것이며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송 측의 철수는 일종의 戰敗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곽규가 철군을 결정할 당시 송의 군대는 더 이상 전투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곽규의 副將들은 전투의 종결과 철군을 권유하며, ‘모든 군대의 식량이 바닥났다. 전체 병사 10만 명과 人夫 20여만 명 가운데 더위와 瘴毒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과반수이다. 살아 남은 자들도 모두 지쳐 있다’<sup>65)</sup>고 말하고 있다.

富良江 전투 당시 베트남 군을 충지휘한 인물은 李常傑이었다. 그는 최후의 결전이 있기 전날 저녁, 민간 영웅을 모신 사당에 부하들을 보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한다.

南國山河南帝居	남국의 산하에는 南帝가居한다고
截然定分在天書	天書에 분명히 나와 있거늘
如何逆虜來侵犯	어이하여 逆虜는 우리 땅을 침범하는가?
汝等行看取敗虛	너희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아야 말지니라.

李常傑은 베트남을 중국에 대하여 南國이라 지칭하고, 또 베트남의 군주를 南帝라 하며 중국의 황제, 즉 北帝와 대비시키고 있다. 이 시는 훗날 두고 두고 베트남 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베트남의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고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 3\_ 송-베트남 사이 경계 확정 문제와 그 결말

I 장과 II 장을 통해서는 眞宗과 仁宗 시기 宋朝의 대베트남 정책이 대단히 유화적인 것이었으며 그러한 면모는 儂智高의 亂 진압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유화적 정책이 神宗의 즉위와 더불어 일변하여 적극적인 攻取를 지향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제 本章에서는 熙寧 8

65) 위와 같음.

년(1075), 熙寧 9년(1076)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결정된 양국 사이의 국경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경계 획정 문제가 어떻게 결착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베트남이 富良江의 전투 직후 송 측에 割地를 조건으로 한 강화를 요청하였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베트남 측이 송에 제시하였던 할양 대상 지역은 蘇茂州·門州·諒州·思琅州·廣源州의 5개 주로서, 대략 오늘날의 량썬과 하이닌, 까오방 일대에 해당한다. 郭逵가 이끄는 宋軍은 이 강화 요청을 받아들여 곧바로 철군하였다. 그리고 郭逵의 군대가 돌아온 직후인 熙寧 10년(1077) 2월 재상 吳充 등은 上表하여 安南의 평정을 경하하였다.<sup>66)</sup> 宋 神宗은 廣源州를 順州로 개칭하고 知邕州인 陶弼을 신임 順州 知州로 임명하였다.<sup>67)</sup> 이렇게 하여 베트남으로부터 할양받은 5개 주는 정식으로 송의 영역에 편입되었다.

사실 神宗과 王安石은 熙寧 8년(1075) 베트남의 廣西 침공으로 宋과 베트남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부터, 베트남을 정복하여 송의 판도로 재편입시킨다는 의지를 명확히 지니고 있었다. 신종이나 왕안석은 베트남이 정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에 대해 애석히 여기고 있었다. 이를테면 神宗은 熙寧 9년(1076) 5월 베트남 정벌의 方略과 진용에 대해 논의하며, 眞宗 시기 베트남 정벌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sup>68)</sup> 왕안석 역시, ‘交趾의 李 乾德(仁宗)이 처음 즉위했을 때 변경의 소수민족들이 다투어 이반하는 상태였다. 이때 중간 정도의 자질을 지닌 장수에게 2만 명의 精兵만 거느리고 진군하게 했으면 반드시 정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69)</sup> 신종과 왕안석에게 베트남은 서북방의 거란이나 서하에 비해 손쉽게 군사적 功業을 성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종이 출정하는 郭逵에게 詔勅을

66)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권87, 「討交趾」

67) 마찬가지로 熙寧 10년(1077) 2월의 일이었다. 위와 같음.

68) 『長編』 권275, 神宗 熙寧 9년 5월 己卯

69) 『長編』 권276, 神宗 熙寧 9년 6월 丁亥

내려, “交州를 평정하고 나서는 内地의 방식에 따라 州郡을 설치하라”<sup>70)</sup>라고 명하고 있는 사실은, 베트남 정벌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전쟁이 종료되고 베트남으로부터 접경 지역 5개 주가 송에 할양된 다음 宋朝는 베트남과의 분쟁이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희녕 10년(1077) 2월 安南道經略招討使 郭逵가 전쟁 결과를 총괄하며 5개 주의 수복 및 베트남과의 강화 사실을 보고하자, 신종은 베트남의 仁宗에게 다음과 같이 下詔하였다.

(그대의) 請에 따라 예전처럼 入貢하는 것을 허용하노라. (송 조정에서) 수복한 州縣들은 이미 安撫使에게 명하여 각각 관리를 파견하여 경계를 확정토록 하였으니 앞으로 함부로 침범치 말도록 하라. 지난날 약탈해 간 포로들도 모두 송환하라.<sup>71)</sup>

宋朝는 베트남이 강화의 조건으로 넘겨준 5개주에 관원을 파견하여 실질적인 통치를 시작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들 지역이 이미 宋朝의 판도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베트남과의 전투로 말미암은 분쟁은 종결되었으니 향후 조공을 통한 외교 접촉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후 송조는 새로이 획득한 5개주에 대한 통치와 内地化를 속속 진행시켜 갔다. 郭逵의 전쟁 결과 보고와 베트남 仁宗에 대한 下詔가 있기 직전인 熙寧 10년 1월에는, 廣西路 宣撫使가 廣源州의 방어와 개척을 위해 罪人을 보내자고 건의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졌다.<sup>72)</sup> 또 거의 같은 시기 베트남 전쟁을 중지했었던 曷覓가 廣源州 등에 金銀의 坑冶를 설치하자고 주청하였다. 이 주장 역시 그대로 재가되었다.<sup>73)</sup> 전술한 바와 같이 廣源州는 당시 주요한 金 산지였다. 이어 2월에는 廣源州에 대한 대대적인 관사 증축 공사가 단행되어 武臣이

70) 『長編』 권273, 神宗 熙寧 9년 2월 甲寅

71) 『宋會要』 「蕃夷 4」 「交趾」 蕃夷 4之36

72) 『長編』 권280, 神宗 熙寧 10년 正月 己卯

73) 위와 같음.

파견되었고,<sup>74)</sup> 廣源州와 思琅州 등지에 북방에서 차출된 군대가 배치되었다.<sup>75)</sup>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인근 지역 소수민족들도 다수 송조에 투항해 왔다.<sup>76)</sup> 하지만 베트남과의 접경 지역 5개 주는 관원들이 부임하기를 꺼리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송조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파견되는 문무 관원들에 대해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sup>77)</sup> 6월에는 廣西經略使에 詔을 내려, 邕州와 順州 일대 소수민족에 대한 관할을 확실히 구획지이라 명하고 있다.<sup>78)</sup> 이 조치는 順州, 그러니까 옛 廣源州의 지배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들어 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베트남으로부터 새로 획득한 5주의 땅은 송으로서 너무도 남방에 치우친 변경이었다. 현지의 습속이나 풍토도 익숙하지 않았다. 더욱이 베트남은 1077년 여름 이래 이들 지역을 되찾기 위해 단속적으로 침입해 왔다. 1077년 7월의 시점에서 5개 주의 일부였던 機榔縣은 베트남에게 점거된 상태였다.<sup>79)</sup> 順州 관내의 桃榔縣도 베트남의 습격을 받았다. 베트남 군은 桃榔縣을 점령한 다음 順州에 대한 공격까지 공언하기도 했다.<sup>80)</sup> 이러한 상황에서 1077년 7월, 신중은 知桂州 趙高 및 광서전운사 李平一, 광서전운부사 苗時中 등에게, “決里와 順州 등지를 과연 고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國威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또 병력과 재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라”<sup>81)</sup> 고 명하고 있다. 5개 주의 땅을 송의 영역으로 편입하고 불과 반 년이

74) 『長編』 권281, 神宗 熙寧 10년 3월 戊午

75) 위와 같음.

76) 『長編』 권281, 神宗 熙寧 10년 4월 戊戌

77) 이러한 상황에 대해 『長編』에서는, “詔廣源知州·通判·簽書判官·鈐轄·都監·監押竝遷一官 候及一年更遷一官 任滿陞一任. 幕職官·錄事參軍·判·司·簿·尉·知縣 候任滿各推恩. 戶曹兼理法 以正攝官文學·長史等充 任滿與令錄 優其請給 更與驛券. 以收復廣源·機榔置郡縣 人憚行故也”라고 기록하고 있다(권 280, 신중 희녕 10년 2월 임인).

78) 『長編』 권283, 神宗 熙寧 10년 6월 乙巳

79) 『長編』 권283, 神宗 熙寧 10년 7월 庚午

80) 『宋史』 권334, 「陶弼傳」

81) 『長編』 권283, 神宗 熙寧 10년 7월 庚午

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 지역의 영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정도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송조 내부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인 1078년 정월, 李朝 베트남의 인종(李乾德)이 宋에 견사하여 5주의 賜還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神宗은, “進奉인이 궁궐에 이른 다음 따로 그와 관련한 답변을 내리겠다”고 답하고 있다.<sup>82)</sup> 적극적인 거절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후 송 조정에서는 이들 지역의 반환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전개되었다. 현지의 관료들, 특히 1077년 당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그 반환의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郭逵와 같은 인물은, ‘그 문제는 富良江에서 交趾와 강화하면서 이미 논의가 끝났다. 조정의 大兵이 이르는 곳까지가 封疆이다’라고 말했다.<sup>83)</sup>

하지만 송에게 5주의 관할은 심대한 부담이었다. 당시 順州에는 戍兵 3,000명이 파견되어야 했는데, 그 가운데 매년 10에 5, 6명이 사망하고 있었다.<sup>84)</sup> 順州는 광서로의 서남단인 邕州에서 2,000리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당시인들에게 이들 지역은 毒草와 瘴霧가 만연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심지어 초대 順州 知州로 부임한 陶弼 역시 도입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심한 병고에 시달렸다.<sup>85)</sup>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5개 주의 영유를 지속시킬 수는 없었다. 신종은 元豐 元年(1078)의 시점이 되면 이들 지역을 베트남에 반환하기로 결심하고 만다. 그는, “베트남의 李乾德(仁宗)이 침범하여 군대를 일으켜 問罪하려 했다. 하지만 郭逵 등이 討滅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順州 등지는 황폐하고 瘴癘가 들끓는 지역이니 조정에서 지니고 있어 보아야 아무 이익이 없다”고 말하

82) 『長編』 권287, 神宗 元豐 元年 正月 乙卯

83) 『長編』 권349, 神宗 元豐 7년 10월 戊子

84) 『長編』 권300, 神宗 元豐 2년 10월 戊申

85) 『宋史』 권334, 「陶弼傳」. 여기서의 이와 같은 정황에 대해, “州去邕二千里 多毒草瘴霧 戍卒死者什七八 弼亦疾甚 然蚤莫勞軍 視其良苦 意氣激揚 士莫不感泣”이라 적고 있다.

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사람을 보내면 10에 5, 6명이 죽어가니 어찌 애처롭지 않겠는가?”라고 탄식하고 있다.<sup>86)</sup> 현지의 관료인 廣西의 전운부사 苗時中 역시, ‘順州에 건설한 堡寨는 賊의 境域에 깊숙이 위치하여 饋運이 어렵다. 戍卒 가운데 죽는 자도 늘 10에 8, 9명이나 된다. 버리는 것만 못하다’는 보고를 올렸다.<sup>87)</sup> 이러한 과정과 타진을 거쳐 결국 宋朝는 廣源州와 기타 점령 州縣을 베트남에 되돌려 주기로 결정하였다.

1078년 9월 교지에서 方物을 조공하며 광원주 등의 반환을 요청하자, 신종은 邕州·欽州·廉州의 포로를 반환하면 廣源州·蘇茂州·機糧縣 등을 돌려 주겠다고 답하였다.<sup>88)</sup> 그리고 신임 광서 경략안무사겸 지계주 曾布로 하여금 반환의 조치를 담당케 하였다.<sup>89)</sup> 위신과 체면을 위해 먼저 邕州·欽州·廉州의 포로를 받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1079년 10월 안남으로부터 포로 221인이 송환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그 직후 順州 등을 폐지하는 조령을 내리고, 李朝 베트남에 점령 지역 일체를 반환하였다.<sup>90)</sup>

## II. 맺음말

북송 정권은 태종 시기까지 적극적으로 베트남을 정벌하여 병합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黎桓이 前黎朝를 건립하였을 때 출정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태종 시기에 시도된 베트남 정벌전쟁은 그 총사령관이 侯仁寶가 전사할 정도로 참담하게 실패하였고 이후에는 재차 베트남에 대

86) 『長編』 권300, 神宗 元豐 2년 10월 戊申

87) 위와 같음.

88) 『長編』 권292, 神宗 元豐 元年 9월 癸未

89) 위와 같음.

90) 『宋史』 권488, 「交趾傳」

한 정벌의 논의가 대두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베트남과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후 眞宗과 仁宗 시대를 통해 지속되었다.

당시 베트남과 북송의 접경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단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양국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었다. 북송과 李朝 베트남은 공히 이들에 대한 經略에 공을 들였다.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廣源州 일대에 거주하는 農氏 세력이었다. 이들의 거주지역인 廣源州는 金銀의 산지였다. 이에 주목하여 송조와 베트남은 광원주 일대에 영향력을 확대하려 기도하였다. 접경 일대의 소수민족은 베트남, 송 양국의 압박을 받으며 한편으로 양국의 영역을 향해 反攻하는 일도 잦았다. 하지만 베트남, 송 양국이 모두 광원주 일대를 향해 경쟁하였다 해도, 眞宗과 仁宗 시대의 宋은 베트남에 비해 현저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太宗 이후 仁宗 말년에 이르기까지 송과 베트남 사이에는 별다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1040년대 후반 이후 廣源州에 거주하는 農氏 문제가 양측의 현안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廣源州는 左江의 상류 일대로서 현재의 까오방 동부에 위치한 팡 응우옌 일대이다. 베트남의 지배를 받고 있던 農氏는 李朝 베트남의 압박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반란은 송조에까지 파장을 미쳤다. 송조는 農氏의 반란에 대처하며 베트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을 펴다. 農氏의 반란은 1053년 狄靑의 파견으로 진압되었다.

베트남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은 神宗의 즉위 및 王安石의 집권과 함께 일변하였다. 神宗과 王安石이 대외정벌을 통해 功業을 이루고 송조의 국세를 떨치고자 하는 강렬한 염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송은 1073년 이래 광서 일대에 沈起 및 劉彝를 파견하여 베트남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적 대비를 증강시켜 갔다. 송 측에서 전쟁을 위한 준비를 진행시켜 가자 1075년 11월 위협을 느낀 베트남이 먼저 송에 대해 선공을 해 왔다. 베트남은 欽州와 廉州를 함락시키고 이어 邕州까지 유린한 다음 철수하였다. 송은 곧바로 反攻 체제를 구축하고 정벌군을 편성하여 1076년 10월 이래 베트남 정내로 진입하

였다.

송의 군대는 12월 21일 富良江에 도착하여 베트남 군대와 결전을 벌였다. 이 富良江 전투의 승패를 두고서는 송과 베트남의 기록 사이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송 측의 사서들은 모두 대승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洪眞太子라는 인물까지 전사할 정도로 베트남 측이 참패를 당했다는 것이다. 반면 베트남 측의 기록은 또 이조 베트남의 완벽한 승리라 적고 있다. 이처럼 전쟁의 승패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지만, 송의 군대가 이 부양강 전투를 계기로 베트남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전투 직후 베트남 측은 송에 강화를 요청하고, 이를 송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쟁은 종결되었다. 베트남이 송에 제시한 강화의 조건은 접경지역 5개 주의 할양이었다. 사실 송의 철군은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행된 것이었다. 송 측의 철수는 일종의 戰敗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조 베트남이 송 측에 할양한 지역은 蘇茂州, 思琅州, 門州, 諒州, 廣源州의 5州였다. 이후 송조는 새로이 획득한 5개 주에 대한 통치와 內地化를 속속 진행시켜 갔다. 하지만 5주의 땅은 송으로서 너무도 남방에 치우친 변경이었다. 현지의 습속이나 풍토도 익숙치 않았다. 더욱이 베트남은 1077년 여름 이래 이들 지역을 되찾기 위해 단속적으로 침입해 왔다. 이러한 공세로 1077년 7월에는 5개 주의 일부였던 機榔縣이 베트남에게 점거되고 만다. 광원주 管內의 桃榔縣도 베트남의 습격을 받았다. 베트남은 桃榔縣을 점령한 다음 광원주에 대한 공격까지 공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77년 7월, 神宗은 知桂州 趙高 및 廣西轉運使 李平一, 廣西轉運副使 苗時中 등에게, 5개 주의 유지에 대한 득실을 하문하고 있다. 송조 내부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인 1078년 정월, 이조 베트남 측에서 遣使하여 5주의 賜還을 요청하였다. 송에게 이들 지역의 관할은 심대한 부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5개 주의 영유를 지속시킬 수는 없었다. 송조는 1079년 이들 지역을 베트남에 반환하였다.

## 참고문헌

- 『大越史記全書』, 東洋文化研究所 東洋學文獻센터 간행본
- 『宋史』, 북경: 중화서국 標點校勘本
- 『宋史紀事本末』, 北京: 中華書局, 1977
- 『宋會要輯稿』, 北京: 中華書局 影印本
- 『越史略』, 守山閣叢書本
- 『資治通鑑』, 북경: 중화서국 校點本
- 馬端臨, 『文獻通考』, 북경: 중화서국 영인본
- 方國瑜 主編, 『雲南史料叢刊』,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1998
- 楊仲良, 『皇宋通鑑長編紀事本末』, 黑龍江人民出版社 校點本
- 李燾, 『續資治通鑑長編』, 북경: 중화서국 點校本
- 彭百川, 『太平治迹統類』, 사고전서본
- 김한규, 1982, 『고대중국적세계질서연구』, 서울: 일조각
- 김한규 外, 1988, 『中國의 天下思想』, 민음사
- 王枷 지음, 김정희 역, 2005, 『민족과 국가—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동북  
아역사재단
- 劉仁善,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 馬曜 主編, 1983, 『雲南簡史』,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 方國瑜, 1987, 『中國西南歷史地理考釋』, 北京: 中華書局
- 山本達郎 編, 1975,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 石井迷雄 等 編, 1999, 『東南アジア史 I 大陸部』, 東京: 山川出版社
- 松本信廣, 1969, 『ベトナム民族小史』, 東京: 岩波書店
- 閻明恕, 2003, 『中國古代和親史』, 貴陽: 貴州民族出版社
- 王文光·龍曉燕·陳斌, 2005, 『中國西南民族關係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尤中, 1994, 『雲南民族史』,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 李云泉, 2004, 『朝貢制度史論—中國古代對外關係體制研究』, 北京: 新華出版社
- 丁謙, 1915, 『宋史外國傳地理考證』(浙江圖書館叢書), 蓬萊閣地理學叢書本
- 池端雪浦 編, 1999, 『東南アジア史 II 島嶼部』, 東京: 山川出版社
- 片倉穰, 1977, 『ベトナムの歴史と東アジア』, 東京: 衫山書店

- 後藤均平, 1975, 『ベトナム救國抗爭史』, 東京: 新人物往來社
- Taylor, 1983, *The Birth of Vietnam*, Univ. of California Press
- 유인선, 1971, 「秦漢時代の越南－중국문화의 침윤도와 관련하여」, 『사총』 15·16합집
- 유인선, 1987, 「中國關係와 朝貢關係－假想과 實像」, 『역사학보』 114
- 유인선, 1993, 「베트남의 전통적 왕권개념」, 동양사학회 편, 『東亞史上의 王權』, 서울: 한울
- 유인선, 1996, 「전근대 베트남 사회의 양계적 성격과 여성의 지위」, 『역사학보』 150
- 유인선, 1999, 「베트남인의 남진과 남부문화의 형성」, 『동방학지』 105
- 유인선, 2001, 「전근대 베트남인의 역사인식」, 『동양사학연구』 73
- 段玉明, 1997, 「大理國的周邊關係」, 『雲南社會科學』 1997-3
- 戴可來, 1980, 「宋代越南對中國的朝貢」, 『世界史研究動態』 1980-11
- 戴可來, 1980, 「略論宋代越南對中國的朝貢－宋代中越關係史論之一」, 『印度支那研究』 1980年增刊
- 戴可來, 1987, 「宋代早期的中越關係」, 『中外關係史論叢』 2
- 桃木至朗, 1998, 「一家の事業としての李朝」, 『東洋學報』 79-4
- 藤原利一郎, 1971, 「トヴェトナム諸王朝の變遷」, 『岩波講座 世界歴史』 12, 東京: 岩波書店
- 方鐵, 2006, 「論宋代以大理國爲外藩的原因及其守內虛外政策」, 『中央民族大學學報』 2000-6
- 粟冠昌·魏火賢, 1991, 「宋王朝與交趾關係叙論」, 『中國邊疆史地研究』 1991-2
- 櫻井由躬雄, 1980, 「李朝期紅河デルタ開拓試論」, 『東南アジア研究』 18-2
- 楊宗亮, 1997, 「大理國與南宋的交通」, 『雲南學術探索』 1997-6
- 楊宗亮, 1998, 「唐宋時期滇東南桂西南的民族關係」, 『雲南大學民族學報』 1998-1
- 呂士朋, 1986, 「宋代之中越關係」, 『宋史研究集』 16, 臺北: 國立編譯館
- 王繼東, 2008, 「北宋對越南從‘郡縣其地’到宗藩關係確立的轉變－從與丁黎李朝的關係看宋朝對越南政策」, 『鄭州大學學報』, 2008-3
- 王祥春, 2007, 「兩宋時期的中越邊境貿易」, 『廣西地方志』 2007-5
- 王世基, 1987, 「試論大理與宋朝的關係」, 『大理文化』 1987-2
- 河原正博, 1965, 「丁部領の即位年代について」, 『法政大學文學部紀要』 15
- 黃純艷·王小寧, 2006, 「熙寧戰爭與宋越關係」, 『廈門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06-6

- Taylor, K. W., 1983, "The Twelve Lords' in Tenth Century Vietnam",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4-1
- Taylor, K. W., 1986, "Authority and Legitimacy in 11th Century Vietnam" in *Southeast Asia in the 9th to 14th Centuries*, edited by David Marr and A. C. Milner,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Whitmore, John K., 1986, "Elephants San Actually Swim" in *Southeast Asia in the 9th to 14th Centuries*, edited by David Marr and A. C. Milner,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 War and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Song China and Vietnam in the Late Tenth Century

Lee Geunmyung

The early Northern Song regime had actively intended to conquer Vietnam for annexation when Le Hoan (黎桓) established the Tien Le dynasty (前黎朝), Song dispatched troops to go to war. It decisively revealed Song's intention to annex Vietnam, but after a miserable defeat, Song could not help but accept the reality and was consistent in carrying out a policy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Vietnam until the reigns of emperors of Zhenzong (眞宗) and Renzong (仁宗).

Due to this principle, there were few military conflicts between Song and Vietnam until the reign of Taizong (太宗). But after late 1040, the rebellion of the Nong clan (農氏), who resided in Quảng Nguyên (廣源), came to be a pending issue between the two sides. As the Ly dynasty (李朝) of Vietnam intensified pressure on and control over the Nong clan, the Nong clan rose in revolt. This rebellion exerted a strong influence on the Song dynasty. To cope with Nong's rebellion, Song adopted countermeasures by careful consideration of relations with Vietnam. In 1053, the Nong rebellion was suppressed by Di Qing (狄青), who was dispatched by Song.

Song's appeasement policy toward Vietnam was changed by the accession of Shenzong (神宗) and Wang Anshi (王安石). After 1073, Northern Song sent Shen Qi (沈起) and Liu Yi (劉彝) to Guangxi to p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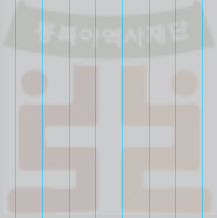
military pressure on Vietnam. As Song was preparing for war against Vietnam, Vietnam felt a threat of invasion and launched a preemptive attack on Song in the eleventh month of 1075. As Qinzhou (欽州), Lanzhou (廉州) were captured and Yongzhou (邕州) devastated by Vietnam, Song immediately entered into a state of war and organized expeditionary forces. In the tenth month of 1076, Song's military forces entered into Vietnam, Song's military arrived at the Phu Lu River (富良江) on the twenty first day of the twelfth month, and fought Vietnam's army. Directly after this combat, Vietnam asked for terms of peace and with their acceptance by Song, the war came to an end. The terms of peace which was suggested by Vietnam was the "cession of five states: To-mau (蘇茂), Tu-lang (思琅), Mon (門), Lang (諒), and Quảng-Nguyên" in the borderland. In fact, Song could not help but withdraw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and also could not achieve the intended goal.

The Song dynasty set to govern the newly acquired territory, but these five states were located in the southern border area, too far away from central districts. Thus it was very difficult for Song to settle in unaccustomed climate and foreign customs. Further, after 1077, Vietnam intermittently aggressed upon these territory to recover their territory. In January 1078, the Ly dynasty sent an envoy to Song, and demanded the return of the territory. It was a heavy burden for Song to govern these regions, and Song could not continue to possess these five states. Finally, Song dynasty returned the territory to Vietnam in 1079.

#### Keywords

war, diplomatic negotiations, Song, Ly dynasty of Vietnam.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부여·고구려 건국신화의 계통과 형성과정

- 『三國遺事』 북부여조 인용 '古記'에 대한 분석을 실마리로 하여 -

박기범 ■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동북아역사재단

## I. 머리말

부여계 국가들의 건국신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해명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중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삼국유사』 북부여조에 기록되어 있는 북부여 건국신화에 대해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하였다.<sup>1)</sup>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북부여의 건국신화는 비록 그 내용이 소략하지만, 북부여의 실체, 나아가서는 부여와 고구려를 비롯한 소위 부여계 국가들의 건국신화의 계통과 성립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

※ 투고일: 2011년 9월 19일, 심사일: 2011년 11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30일

1) 리준영, 1964, 「고구려의 국가 기원에 대하여 - 주몽 설화를 중심으로」, 『역사과학』 1964-4; 朱昇澤, 1993, 「北方系 建國神話의 文獻的 再考察 - 解夫婁神話의 再構를 中心으로」, 『韓國學報』 70; 徐永大, 1997, 「高句麗 王室 始祖神話의 類型」, 『晚耕 李忠憲 先生 華甲紀念 東西文化論叢』 II, 仁荷大學校 東洋史研究室 정도가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이다.

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명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 해모수·해부루신화 등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중 동명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sup>2)</sup> 최근 양자를 구분하여 각각을 부여와 고구려의 건국신화로 나누어 파악하는 경향이 완전히 정착되었다.<sup>3)</sup> 따라서 남은 문제는 이 양자와 해모수·해부루신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고구려 건국신화는 부여 동명신화의 한 변용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동명신화에는 없던 해모수와 해부루에 관한 내용이 고구려 건국신화에는 삽입되어 있

- 2) 근대역사학의 성립 이후 부여·고구려 건국신화에 관해 가장 먼저 언급한 논문은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 第四章 高句麗考」, 『史學雜誌』 5-9이다. 여기서 那珂通世는 동명과 주몽을 同音異譯으로 보고 『論衡』에서 동명을 부여의 시조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논형』의 橐離國은 『위략』에 橐離國으로 되어 있는데, 이 ‘橐’는 ‘高句’ 두 자의 誤寫로,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거의 같은 견해는 李丙燾도 개진하여(李丙燾, 1959,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216쪽), 국내 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동명신화가 부여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견해는 今西龍, 1970, 「朱蒙傳說及老獺稚傳說」,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475~477쪽(원재 1915, 『藝文』 6-11); 內藤湖南, 1969, 「東北亞細亞諸國の感生帝說」, 『內藤湖南全集』 8, 筑摩書房, 182~185쪽(원재 1919, 『民族と歴史』 1-4); 白鳥庫吉, 1970, 「夫餘國の始祖東明王の傳説に就いて」, 『白鳥庫吉全集』 5, 岩波書店, 373~386쪽(원재 1936, 『服部先生古稀祝賀記念論文集』, 富山房) 등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고구려가 부여의 전설을 자기 것인 양 말한 것 같다고 하거나(內藤), 고구려가 부여의 것을 표절, 개작했다고까지 하였다(白鳥). 그래서인지 동명과 주몽이 동일한 명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비해 池內宏의 경우는 白鳥庫吉을 비판하면서 동명과 주몽은 전설의 주인공으로서도 각각 별개의 인물로, 부여의 동명전설과 고구려의 주몽전설은 확실하게 구별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할 만하다(池內宏, 1951a, 「高句麗の建國傳説と史上の事實」, 『滿鮮史研究』 上世第一冊, 吉川弘文館, 91~97쪽; 원재 1941, 『東洋學報』 28-2). 이 문제에 관한 池內宏 이후의 연구사는 이복규, 1998, 「부여·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을 참고하기 바란다.
- 3) 다만, 중국 학계의 경우는 최근까지도 동명과 주몽을 동일인으로 보고, 『논형』의 동명신화를 고구려의 것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李大龍, 2005, 「高句麗建國神話蘊涵的歷史資訊」,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미』, 고구려연구재단, 160~161쪽). 중국 학계의 연구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우연, 2010, 「고구려 始祖神話에 나타나는 ‘夫餘出自’의 의미」, 『東아시아古代學』 22, 6~9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 이에 대해 단순히 해모수와 해부루에 관한 이야기가 고구려의 古傳에 의거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지만,<sup>4)</sup>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이들에 관한 내용이 동명신화에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던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어떠한 계통의 신화로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고구려 건국신화에 포함되게 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신화의 변용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고구려사의 중요 문제 설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 이와 관련한 몇 편의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지만,<sup>5)</sup> 아직 충분한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먼저 언급한 『삼국유사』 소재 북부여 건국신화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부여계 국가들의 건국신화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더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위에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논의의 진행은 우선 『삼국유사』 북부여조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부터 시작하여 다음으로 동명신화와 북부여·동부여 건국신화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고구려 건국신화의 형성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4) 那珂通世, 1894, 앞의 논문, 37쪽

5) 盧泰敦, 1993,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の 起源」, 『韓國古代史論叢』 5(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재수록; 朱昇澤, 1993, 앞의 논문; 徐永大, 1997, 앞의 논문; 高寬敏, 1999, 「扶餘·高句麗·百濟의 建國神話」, 『社會科學研究』 7, 朝鮮大學校社會科學研究所; 윤성용, 2005, 「고구려 建國神話와 祭儀」, 『韓國古代史研究』 39; 임기환, 2008, 「동명신화의 전개와 변용 - 문헌 자료 계통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이상을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로 들 수 있는데, 각각의 견해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언급하기로 하겠다.

## II. 『삼국유사』 북부여조의 기초적 검토

『삼국유사』에는 북부여조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古記’가 인용되어 있다. 이들 ‘고기’에 대해서 그것이 단일 書目인지 아닌지, 『舊三國史』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자료의 형성 시점은 언제인지 등 여러 의문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최소한 그것이 단일 서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sup>6)</sup> ‘고기’의 사료적 가치를 일괄적으로 논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삼국유사』 소재 각종 ‘고기’ 인용문들의 사료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항목별로 상세한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장에서 행할 『삼국유사』 북부여조 인용 ‘고기’에 대한 검토 또한 이러한 과정의 일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부여조 인용 ‘고기’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우선 『삼국유사』 북부여조의 전문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古記云, 前漢書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 天帝降于訖升骨城(在大遼醫州界), 乘五龍車, 立都稱王, 國號北扶餘. 自稱名解慕漱, 生子名扶婁, 以解爲氏焉. 王後因上帝之命, 移都于東扶餘. 東明帝繼北扶餘而興, 立都于卒本州, 爲卒本扶餘, 卽高句麗之始(見下).

위 기록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고기’ 인용문의 범위이다. 형식상으로는 ‘古記云’ 이하의 전문이 ‘고기’의 범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위 기록에는 ‘訖升骨城’과 ‘卒本州’라는 지명이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두 지명은 고구려의 첫 도읍지로서 사실은 같은

6)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13~207쪽. 사실 최근에 들어서도 ‘古記’를 단일한 서목으로 보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河廷龍이 『삼국유사』 소재 ‘고기’에 대해 신화와 불교 연기설화로 구성되는 단일한 서목일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그것이다(河廷龍, 2005, 『삼국유사 사료 비판』, 民族社, 161~169쪽). 하지만 ‘고기’ 내용이 일정한 경향성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단일한 서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위 기록에는 두 개의 다른 표기로 되어 있어 마치 양자가 서로 다른 곳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위의 인용문에 서로 다른 계통의 전승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흥승골성은 『魏書』를 비롯한 중국 측 史書에 주로 보이는 지명이고,<sup>7)</sup> 반면에 졸본은 '고기' 계통의 지명<sup>8)</sup>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부여조의 '고기' 인용 범위를 朱蒙의 고구려 건국 및 졸본주 立都 사실에 한정하여 파악하기도 했다.<sup>9)</sup>

하지만 북부여조의 서술 구조상 '고기' 인용문의 범위를 후반부만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 '古記云'이 冒頭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기'의 인용 범위는 일단 북부여조의 전반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간 부분의 '生子名扶婁, 以解爲氏焉'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후반부의 東扶餘 천도에 관한 서술은 또 다른 '고기'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거나,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등에 보이는 동부여 천도 기사를 참고하여 일연이 덧붙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후반부 기사에 관해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후반부 서술의 전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東明帝繼北扶餘而興'이라는 구절에 있다. 고구려 동명왕이 북부여를 계승해 일어났다는 인식은 『삼국유사』에만 보이는 것으로, 『삼국사기』나 「東明王篇」은 물론이고 조선시대 문헌들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sup>10)</sup> 반면 『삼국유사』에는 동명왕이 북부여를 계승했다는 인식이 북부여조뿐만 아니라 동부여조와 고구려조에서도 찾아진다.

北扶餘王解夫婁之相阿蘭弗, 夢天帝降而謂曰, 將使吾子孫立國於此, 汝其避之(謂東明將興之兆也). (東扶餘條)

7) 紇升骨城이라는 지명 표기는 『魏書』에 처음 보이는데, 이후 『北史』와 『通典』 등에도 보인다. 『周書』에는 紇斗骨城으로 나타나는데, 紇升骨城의 오기일 것이다.

8) 李康來, 1996, 앞의 책, 135~138쪽

9) 李康來, 1996, 위의 책, 191~192쪽

10) 이복규, 1998, 앞의 책에 부여 · 고구려 건국신화의 원문과 번역문이 실려 있어 검토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卽東明帝爲卒本扶餘王之謂也. 此卒本扶餘, 亦是北扶餘之別都. (高句麗條)

일연은 동부여조에서 天帝가 阿蘭弗에게 천도를 권하는 내용에 분주를 달아 그것이 “동명이 장차 일어날 조짐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고구려조에서는 『珠琳傳』 소재 부여 東明神話를 인용한 다음 거기에 분주를 달아 고증하는 과정에서 卒本扶餘[고구려]를 북부여의 別都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연의 인식은 고구려 동명왕이 북부여를 계승했다고 하는 북부여조 후반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의 인식이 『삼국유사』 이외에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북부여조 후반부는 결국 순수한 ‘고기’의 인용이 아니라 일연 자신의 서술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후반부 기록을 ‘고기’의 인용 범위로 보는 견해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일연은 고구려가 북부여를 계승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부여조, 동부여조, 고구려조 어디에도 동부여 천도 후의 舊都에 해모수가 강림해서 도읍했다는 내용을 서술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와 같은 내용이 서술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및 「동명왕편」과는 판이한 서술 태도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연의 인식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북부여조 전반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부여조 전반부에서는 해모수가 해부루를 낳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보 관계는 이 외에는 찾아지지 않는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나 「동명왕편」 등에서 해모수와 해부루는 하등의 혈연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 기록에서는 전술했듯이

11) 高寬敏의 경우 『삼국유사』 북부여조 전체를 『구삼국사』의 동명왕기와 온조왕기, 『삼국사기』 지리지 등을 참조하여 일연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高寬敏, 1999, 앞의 논문, 68~73쪽). 그가 제시한 『삼국유사』 북부여조의 구성 과정 자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굳이 수긍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만, 북부여가 부여와 동일한 실체이며 부여의 건국신화는 동명신화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전제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고기’를 인용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상 북부여조 전반부의 기록은 독립된 전승으로서 일단 존중할 필요가 있다. 高寬敏 견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해부루가 동부여로 천도해 간 이후 부여의 구도에 해모수가 강림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쨌든 일연은 북부여조의 계보 관계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부루의 동부여 천도 후에야 해모수가 강림했다는 내용을 『삼국유사』에 서술할 수 없었다. 그 대신 해모수가 흘승골성에 내려와 북부여를 세웠다고 하는 북부여조의 내용을 신뢰하여 고구려가 북부여를 계승해 일어났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그러면 일연이 이와 같이 신빙한 북부여조의 전반부는 대체 어떠한 성격의 기록이었을까. 그것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그것이 '고기' 계통의 국내 자료인데도 흘승골성이라는 중국 사서 계통의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부터가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흘字가 『위서』 등에는 '紇'로 되어 있고, 북부여조에는 '訖'로 되어 있어서 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 계통의 지명 표기로 보는 것에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 역측을 하자면 흘승골성이라는 표기가 국내 전승에서도 사용되었다고 보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사실 『위서』의 내용이 고구려인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거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흘승골성이라는 지명 표기 방식이 국내 전승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구나 지명 표기 방식만을 가지고 이 기록이 중국계 사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따르게 된다. 인용서목이 분명히 '고기'로 되어 있는데다가 중국 측 사서에서는 해모수나 해부루 등의 이름도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간의 계통상의 혼란이 보이지만, 북부여조의 전반부가 국내 전승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12) 고구려조 인용 『珠琳傳』의 분주에서 卒本扶餘가 북부여의 別都라고 한 것을 보면 일연이 졸본과 흘승골성을 같은 곳으로 인식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졸본을 북부여의 別都로 파악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구려가 북부여를 계승해 일어났다는 인식을 가지기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해 준다. 또한 일연은 고구려조에서 졸본주가 요동 경계에 있다고 하였고("卒本州在遼東界"), 북부여조에서는 역시 요동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遼의 醫州 경계에 흘승골성이 있다고 하였고 때문에 두 지명을 가까운 곳으로 인식한 것 또한 분명하다. 의주는 『遼史』 地理志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에 따르면 요동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 전승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인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에 있다. 북부여조 전반부의 내용이 고려시대에 들어와 생성된 것이라면 사료로서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겠지만, 만약 삼국시대 당시부터의 전승이라면 부여의 건국신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나아가 고구려 건국신화의 성립 과정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이미 보았듯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나 「동명왕편」 등에서 전하는 관련 내용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기’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일찍이 三品彰英이 분주의 ‘在大遼醫州界’에 보이는 ‘大遼’라는 표현에 착목하여 이것이 11세기 후반경의 ‘고기’ 자료에 있던 原註일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sup>13)</sup> 혹은 같은 점에 주목하면서도, 고려와 요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1019년에서 요가 멸망한 1125년 사이에 ‘고기’가 저술되었다고 보기도 한다.<sup>14)</sup> 이러한 견해들을 따를 경우 ‘고기’ 성립 시점의 하한은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가 된다.<sup>15)</sup> 그렇지만 이는 단지 전승이 문자로 기록된 시기의 하한을 나타낼 뿐으로, 전승 그 자체의 형성 시점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전승의 형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에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고, 뒤에서 살펴보듯이 단군신화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전부터의 전승으로 보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고기’의 내용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자. 우선 북부여조 전반부의 내용에서 확실히 간파되는 점은 그것이 개국신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부루는 천제의 아들로 신성화되어 있고, 구체적 개국 연대와 도읍의 위치, 王姓에 대한 언급 등 간략하지만 건국신화에 보이는 기본적 요소들이 집약되어 있다. 하지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3) 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證』上, 塙書房, 375쪽

14) 徐永大, 1997, 앞의 논문, 68~69쪽

15) 일연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참고하여 분주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李康來, 1996, 앞의 책, 187쪽). 이러한 견해를 따를 경우 ‘고기’의 작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해부루의 부모로 해모수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해모수가 양성구유의 신이거나<sup>16)</sup> 처녀수태를 했다고 하면 큰 문제없이 설명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화의 전승 내용에 불안정한 점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해모수가 남성 신격으로 등장하는 고구려 건국신화를 염두에 둔다면 후자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한다.<sup>17)</sup>

그렇다면 이 경우, 해부루의 모계에 대한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록은 『삼국유사』 고구려조에 인용된 「壇君記」이다. 여기서는 夫妻가 단군과 西河河伯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있는데,<sup>18)</sup> 일연은 이에 대해 고증하며 단군과 해모수를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부루와 주몽을 형제관계로 파악하고 있다.<sup>19)</sup> 단군과 河伯女 사이에서 부루가 탄생했다는 이러한 착종된 인식은 아마도 고려 후기에 단군신화와 해모수신화 등이 서로 뒤섞이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일연의 인식에서 보듯이 당시에 단군과 해모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면, 「단군기」의 계보관계에서 단군을 해모수로 치환하는 것이 원래의 전승에 가까운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부루는 해모수와 하백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된

16)李玉은 해모수의 이름을 해(태양)+뫏(연뫏)의 의미로 파악하면서 그를 양성구유의 존재로 파악한 바 있다(李玉, 1984, 『高句麗 民族形成과 社會』, 教保文庫, 135~136쪽).

17) 해모수의 양성구유설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남성으로 인격화 되는 것은 후대의 변용인 것이 된다. 하지만 해모수가 고구려 신화에 남성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가 이전부터 남성 신격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 아닐까. 朱昇澤은 해부루의 모계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해부루 신화가 심히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朱昇澤, 1993, 앞의 논문, 222쪽).

18) 『帝王韻紀』에 인용된 「檀君本紀」에서도 “與非西岬河伯之女, 婚而生男, 名夫妻”라고 하고 있다.

19) 『三國遺事』 卷1, 紀異 1, 高句麗條 “壇君記云, 君與西河河伯之女要親, 有產子, 名曰夫妻. 今按此記, 則解慕漱私河伯之女而後產朱蒙. 壇君記云, 產子名曰夫妻, 夫妻與朱蒙異母兄弟也.”

다.<sup>20)</sup> 이렇게 수정된 계보관계는 부자관계에 있어 북부여조 인용 ‘고기’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원류가 되는 기록에도 해부루의 어머니로 하백녀를 설정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사 이러한 추론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해모수를 남성의 신격을 가진 천신(혹은 태양신)으로 간주한다면, 명칭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대지신이나 수신 계열의 배우자가 존재했다고 보는 편이 신화의 구조상 자연스럽다.

한편, 고구려 건국신화와 같이 해부루가 등장하는 이외의 기록들에서는 해부루의 선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해부루는 고구려 건국신화에 포함된 동부여 천도에 관한 설화나, 『삼국사기』 백제본기 소재 沸流 시조설화 등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다. 예컨대, 백제 비류 시조설화에서는 백제의 건국자 비류와 濫祚의 출자를 설명하면서 “아버지는 북부여왕 해부루의 庶孫인 優台이며……”<sup>21)</sup>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해부루가 북부여왕으로서의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부여계 국가들에서 해부루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부루의 출자에 관해서도 일정한 전승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 일부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삼국유사』 북부여조의 ‘고기’와 ‘단군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이렇게 보면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해부루의 선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해모수-해부루 신화가 고구려 건국신화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변용을

20) 羅景洙 역시 『단군기』와 북부여조의 이야기를 하나로 통합시키면 天孫해모수가 하백녀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다는 것으로 묶어진다고 한 바 있다(羅景洙, 1988, 「韓國 建國神話 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4쪽).

21)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1, 濫祚王 卽位年條 “其父優台, 北扶餘王解扶婁庶孫.”

22) 해모수와 해부루가 모두 ‘解’를 관칭하고 있다는 점만 생각해 보아도 그들에게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 이에 대해 신종원은 막연히 ‘解’가 시조격의 인물에게 붙일 수 있는 어떤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북부여조의 계보를 상호 무관한 두 왕계를 연결시킨 것으로 보았다(신종원, 2006, 「부여·고구려 건국신화의 同異樣相」,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 225쪽). 하지만 ‘解’를 관칭한 고구려 초기 왕들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견해이다.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다음의 점을 생각하면 한층 더 분명해진다. 즉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동명왕편」을 보면, 해모수가 '來都'한 사실을 전하고 있음에도 그 국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더구나 해모수는 그 후계자도 남기지 않은 채 하늘로 올라가버리고 만다.<sup>23)</sup> 매우 어색한 전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해모수의 강림과 건국, 해부루의 출생에 관한 원신화의 내용이 고구려 건국신화 속에 삽입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해체와 변용을 거쳤음을 반증하는 유력한 현상이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봤을 때, 북부여조 인용 '고기'는 일부 불완전한 점이 있기는 해도, 북부여가 고구려에 흡수되기 이전 북부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해모수-해부루 신화의 원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삼국유사』 북부여조 인용의 '고기'가 지니는 사료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 III. 동명신화와 북부여·동부여의 건국신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유사』 북부여조에 인용된 '고기'가 북부여 건국신화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여의 건국신화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해모수-해부루 신화와 동명신화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여의 건국신화로는 동명신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것은 1세기대의 기록인 王充의 『論衡』에서 처음 보이며, 이후 『三國志』와 『後漢書』 부여전 등에도 수록된다. 과거 이 동명신화를 부여의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고구려의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두고 견해들이 양

23) 해모수가 후계자로 주몽을 남겼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으나, 유화가 주몽을 잉태한 것은 해모수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도 한참 뒤의 일이다.

립하기도 했지만,<sup>24)</sup> 동명신화의 재생성 현상에 주목이 이루어지면서<sup>25)</sup> 그것이 본래 부여의 것이었다는 데 대한 이론은 더 이상 없다. 아래는 『논형』 吉驗篇에 인용되어 있는 동명신화의 전문인데, 후대의 기록도 지명 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른 내용은 없다.

北夷橐離國王侍婢有娠，王欲殺之，婢對曰，有氣大如雞子，從天而下，我故有娠，後產子，捐於豬溷中，豬以口氣噓之，不死，復徙置馬欄中，欲使馬藉殺之，馬復以口氣噓之，不死，王疑以爲天子，令其母收取奴畜之，名東明，令牧牛馬，東明善射，王恐奪其國也，欲殺之，東明走，南至掩淲水，以弓擊水，魚鼈浮爲橋，東明得渡，魚鼈解散，追兵不得渡，因都王夫餘，故北夷有夫餘國焉。

이 동명신화의 줄거리는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橐離國에서 天氣를 받아 출생한 동명이 박해를 피해 남쪽으로 달아나 강을 건너 부여를 건국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와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와 북부여를 건국했다는 『삼국유사』 북부여조의 내용은 전체적인 줄거리나 인명 구성 등에서 어떠한 상관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두 신화의 문화적 성립 기반에 대한 비교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자. 이와 관련하여 동명형 신화의 큰 특징은 동명이 박해를 피해 새로운 천지를 찾아 떠나는 영웅전승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청동기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성립한 단군신화와 달리 철기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성립한 것이라는 견해가 우선 주목된다.<sup>26)</sup> 동명신화와 달리 해모수-해부루 신화에서는 영웅전승적 성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해모수-해부루 신화는 오히려 천제의 아들인 桓雄과 熊女의 결합을 통해 단군

24) 주 2) 참조.

25) 金哲垓, 1975, 「百濟社會와 그 文化」,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盧明鎬, 1981,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 『歷史學研究』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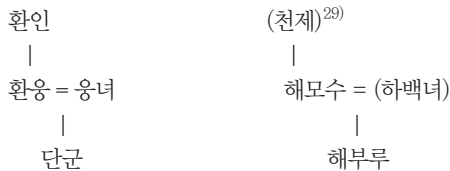
26) 金杜珍, 1999, 「高句麗 建國神話의 英雄傳承의 성격」,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一潮閣

이 출생하였다는 고조선의 단군신화와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해모수의 신격이 단군신화에서의 환웅에 해당한다는 점은 일찍이 최남선도 지적한 바 있으며,<sup>27)</sup> 解慕의 합음과 桓의 음이 비슷하고, 漱의 음과 雄의 훈 '스'가 같으므로 해모수와 환웅은 서로 통한다는 견해도 있다.<sup>28)</sup>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해모수-해부루 신화는 단군신화와 마찬가지로 청동기시대의 문화 기반에서 성립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정은 「동명왕편」에 보이는 해모수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층 분명해진다.

漢神雀三年壬戌歲，天帝遣太子降遊扶余王古都。號解慕漱，從天而下，乘五龍車，從者百餘人，皆騎白鶴。彩雲浮於上，音樂動雲中。止熊心山，經十餘日始下，首戴烏羽之冠，腰帶龍光之劍。朝則聽事，暮即升天，世謂之天王郎。

위 인용문에 보이듯이 「동명왕편」에 인용된 『구삼국사』 추정 逸文에는 해모수가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날이 저물면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해모수를 정치적 최고 권력자인 동시에 하늘과 소통하는 샤먼적 성격을 동시에 구비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청동기문화를 배경으로 한 제정일치시대 신화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단군신화와 해모수-해부루 신화〉



27) 崔南善, 1973, 「朝鮮의 神話」, 『六堂崔南善全集』 5, 玄岩社, 24쪽

28) 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215쪽. 이 설은 李丙燾가 安廓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는데, 張承斗, 1939, 「朱蒙傳說의 民俗學的考察」, 『朝鮮』 286, 83~84쪽에도 같은 견해가 보이고 있다.

29) 『삼국유사』 북부여조에는 해모수가 천제 자신으로 되어 있지만, 『삼국사기』 소재 고구려 건국신화는 물론이고, 북부여조의 내용을 신뢰한 일연의 『삼국유사』 고구

이와 같이 동명신화와 해모수-해부루 신화는 그 구조와 내용에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는 각각 성립 시기와 지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체계를 가진 신화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주목해야 할 점은 부여와 북부여의 관계이다. 동명신화는 부여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해모수-해부루 신화는 북부여의 신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여와 북부여, 그리고 동부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일이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견해들이 개진되어 있지만,<sup>30)</sup> 국내 학계에서는 부여와 북부여를 동일한 실체로 보는 것이<sup>31)</sup> 통설로 되어 있다. 하지만 동명신화와 해모수-해부루 신화가 별개의 계통을 갖는 신화라면, 부여와 북부여를 단순히 동일한 실체로 보는 견해는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본고의 목적이 북부여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장황하게 논의를 전개할 여유는 없지만, 해모수-해부루 신화가 부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북부여와 부여가 구분되는 실체였다는 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확인해 두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선 「廣開土王碑文」에 북부여와, 부여, 동부여가 모두 나타나고 있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물론 북부여와 부여를 동일한 실체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비문의 북부여를 고구려 중심적 방위관에서 나온 명칭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래의 사료들을 보면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sup>32)</sup>

려조에도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로 되어 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해모수와 환웅을 동일 신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천공신은 보통 지상 권력의 보증자로서 직접 강림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모수를 천제의 아들로 설정하는 것이 원래의 전승에 가까운 형태였을 것이다.

30) 이 문제에 대해서는 宋基豪, 2005, 「扶餘史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韓國古代史研究』 37, 18~35쪽의 정리가 참고된다.

31) 노태돈, 1999, 앞의 책, 28~32쪽

32) 북부여나 동부여에 관한 문헌 기록은 불명확하고 혼선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료를 한번에 종합적으로 설명해 내기는 힘들다. 때문에 비교적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을 토대로 하여 사료비판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관련 기록들은 후일에 다룰 것을 기약해 본다.

豆莫婁國, 在勿吉國北千里, 去洛六千里, 舊北扶餘也. (『魏書』 卷100, 豆莫婁傳)

開元十一年, 又有達末婁, 達姁二部首領朝貢, 達末婁自言北扶餘之裔, 高麗滅其國, 遣人度那河, 因居之. (『新唐書』 卷220, 流鬼傳)

위 『신당서』 기록에 따르면 豆莫婁(達末婁)인들은 스스로를 북부여의 후예로 자처하고 있었다. 이는 북부여라는 명칭이 고구려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sup>33)</sup> 백제가 南扶餘로 국호를 개칭했던 것이 고구려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듯, 북부여 역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관념에서 나온 명칭은 아닌 것이다.

북부여의 명칭이 고구려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남부여에 대한 대칭적 표현이거나, 부여를 중심에 둔 사고에서 나온 표현일 수밖에 없다. 만약 남부여에 대한 대칭적 표현일 경우 부여와 북부여를 여전히 동일한 존재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경우 남부여는 부여 혹은 백제 두 경우 중 하나인데, 부여를 남부여로 인식한다면 자연히 부여와 북부여는 별개의 존재가 된다. 반면 백제를 남부여로 상정하는 경우라면 부여와 북부여를 동일한 실체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백제의 경우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일시적 국호 변경이기 때문에, 백제와 별다른 접촉이 없었던 두마루인들이 백제를 남부여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북부여는 부여와 구분되는 별개의 실체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의 사료 상황에서 북부여의 실체에 대한 신빙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부여와 북부여를 구분하여 파악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북부여 건국신화가 청동기시대의 문화기반에서 성립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북부여가 부여보다 먼저 국가적 성장을 이루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명의 출처지인 탁리국을 북부여와

33) 북부여를 부여와 동일한 실체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두마루인들이 고구려인의 인식을 물려받았다고 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궁색한 설명이다.

동일시하는 견해<sup>34)</sup>는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한번 음미해볼 가치를 지닌다.

이상에서 해모수-해부루 신화와 동명신화가 서로 구분되는 북부여와 부여의 건국신화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동부여의 경우는 어떠할까. 「동명왕편」이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삼국유사』 등에 기록된 동부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여 혹은 북부여의 왕이었던 해부루가 천제의 명에 따라 동해가의 가섭원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동부여로 고치는 내용, 해부루가 그의 후계자로 금와를 얻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일종의 동부여 건국설화와 같은 성격의 내용으로 후대의 부회라는 점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sup>35)</sup>

이 동부여 건국설화에서는 북부여 건국신화와 마찬가지로 해부루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북부여 건국신화와 동부여 건국설화가 원래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던 신화는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해모수에 이어 해부루가 북부여의 왕이 되고 얼마 안 있어 동부여로 옮겨간 것이 된다. 『삼국유사』 북부여조에도 이러한 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부여조의 후반부는 일연 자신의 서술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부여 건국신화는 천신과 수신의 聖婚에 의해 지상의 최고권력자가 탄생했음을 밝히는 그 자체 완결된 구조를 가진 신화이다. 거기에 다시 금와의 탄생 설화가 덧붙여질 필요는 없다. 금와왕 설화는 인간이 대지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출현 신화(emergence myth)의 일종이라고 한다.<sup>36)</sup> 북부여 건국신화와 금와왕 설화는 최고권력자의 탄생에 대해 서로 다른

34) 리지린·강인숙, 1988, 『고구려 역사』, 논장(원제: 1976, 『고구려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23쪽; 송호정, 1997, 「부여의 성장과 대외관계」,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83쪽. 청동기에서 초기철기시대에 걸친 白金寶-漢書2期文化를 중국 학계에서 탁리국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도(宋基豪, 2005, 앞의 논문, 45~46쪽) 참고할 필요가 있다.

35) 島田好, 1934, 「東夫餘の位置と高句麗の開國傳説」, 『靑丘學叢』 16, 96쪽; 李龍範, 1966, 「高句麗의 成長과 鐵」, 『白山學報』 1, 61쪽; 노태돈, 1999, 앞의 책, 34~35쪽

36) 金和經, 1998, 「高句麗 建國神話의 研究」, 『震檀學報』 86, 32~36쪽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계통적으로 구분되는 전승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들은 그 성립기반을 달리하는 전승임이 분명하다. 동부여 건국설화에 해부루가 등장하는 것은 동부여의 지배층이 해부루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정도로 해석하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sup>37)</sup>

다음으로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동부여로 천도하기 이전의 해부루에 대해 「동명왕편」이나 『삼국사기』 소재 고구려 건국신화에서는 부여왕이었다고 한 데 비해, 『삼국유사』의 관련 기록들에서는 북부여왕이었다고 하고 있는 점이다. 『삼국유사』 북부여조 전반의 '고기' 내용을 신뢰한 일연의 『삼국유사』에서 해부루를 북부여왕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아마도 『구삼국사』나 『삼국사기』 등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서도 북부여조 '고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여왕 해부루'를 '북부여왕 해부루'로 고쳐 표기한 결과일 것이다.<sup>38)</sup> 이렇게 보면 『삼국유사』 쪽의 사료적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본고에서의 검토 결과와 같이 『삼국유사』 북부여조 인용 '고기'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결과적으로 '북부여왕 해부루'가 원래의 전승에 가까운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 소재 비류 시조설화에서도 해부루를 북부여왕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게 참고할 만하다. 「동명왕편」 등에 해모수와 해부루가 부여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북부여, 부여, 동부여의 건국신화가 모두 서로 구분되는 독자적 계통의 신화임을 확인했다. 그간 동명신화에 대해서는 많은 주목과 함께 연구업적의 축적이 이루어져 왔지만, 해모수-해부루 신화의 독자성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백제 비류 시조설화에

37) 이도학의 경우 그간 무시되어 왔던 동부여의 국가 이동 설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문화적 배경을 유목사회적 풍토에서 찾고 있다(이도학, 2006, 「高句麗와 夫餘 關係에 對한 再檢討」,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 185~186쪽).

38) 高寬敏, 1999, 앞의 논문, 69쪽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는 해부루를 중시하고 있었고, 동부여 천도설화는 해부루가 북부여뿐만 아니라 동부여에서도 시조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부여왕 해부루가 부여족에게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명신화의 재생성 현상뿐만 아니라, 해모수-해부루 신화가 변용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까지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IV. 고구려 건국신화의 형성과정

앞 장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번 장에서는 해모수와 해부루가 고구려 건국신화에 포함되는 과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고구려 건국신화 형성 과정의 일단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5세기 무렵 고구려 건국신화의 형태에 대해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때 검토의 기초 자료로는 사서에 기록된 것으로는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며 내용적으로도 풍부한 『위서』 고구려전의 건국신화를 택하도록 하겠다. 5세기 무렵의 고구려 건국신화의 내용을 전하는 자료로는 「광개토왕비문」과 「牟頭婁墓誌」 등의 당대 자료도 있지만, 이들 자료는 금석문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서』 전승에 비해 내용이 소략하다. 반면 『위서』는 554년에 완성되었지만, 거기에 수록된 고구려 건국신화가 6세기에 처음 채록된 것은 아니었다. 이하 논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잠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위서』의 전승이 李敖의 견문을 통해 435년 무렵에 北魏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어 오기는 했다.<sup>39)</sup> 가능성 있는 지적이

39)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340쪽; 徐永大, 1997, 앞의 논문, 43~44쪽

긴 하나 앞으로 언급하듯이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위서』에 고구려 건국신화가 채록된 배경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그 검토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건국신화에 바로 이어서 기술된 초기 왕계이다. 건국신화와 초기 왕계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한번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서』 고구려전에서는 고구려의 초기 왕계를 朱蒙 - 閔達 - 如栗 - 莫來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왕계는 『삼국사기』와도 「광개토왕비문」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중 莫來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를 자형의 유사성에 따라 慕本王으로 볼 경우<sup>40)</sup> 『위서』의 왕계가 『삼국사기』보다 한 대수 적은 것이 되고, 부여 정벌 기사에 의거해 大武神王으로 비정하면<sup>41)</sup> 오히려 한 대수가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 등으로 인해 고구려 초기 왕계에 두 가지 이상의 전승이 있었다고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국사기』의 왕계와 「광개토왕비문」의 왕계는 일부 논란이 있기는 해도 왕명과 대수의 설명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sup>42)</sup> 이로 보면 광개토왕비가 건립되던 시기에는 초기 왕계가 『삼국사기』에 보이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았을 때 드는 의문은 이오의 고구려 방문이 광개토왕비 건립보다 시기적으로 늦다는 점이다. 새롭게 정리되어 공인된 왕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그와는 다른 형태의 왕계가 이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불과 20년 정도 만에 고구려 조정에서 비문에 기록된 왕계를 폐기하고 그와는 다른 왕계를 전해 주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위서』의 왕계는 자연히 비문보다 늦은 시기에 채록된 것일 수는 없다.

『위서』의 왕계는 비문보다 앞선 시기부터 전해지던 어떤 전승에 기초한 것

40) 津田左右吉, 1964, 「三國史記高句麗紀の批判」, 『津田左右吉全集』 12, 岩波書店, 414쪽; 池内宏, 1951b, 「高句麗王家の上世の世系について」, 『滿鮮史研究』 上世第一冊, 吉川弘文館, 212쪽; 武田幸男, 1989, 위의 책, 288쪽

41) 노태돈, 1999, 앞의 책, 48~49쪽

42) 노태돈, 1999, 위의 책, 93~94쪽

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동시에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승이 전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다른 가능성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북조 내에 존재하던 고구려 출신 관인을 통해 전승이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周書』 열전에 입전된 高琳이다.<sup>43)</sup> 그의 집안은 고구려 출신으로, 6세조가 慕容廆에게 붙잡혀와 前燕에서 出仕한 이래 5세조부터는 북위에서 관인층으로 활약해 왔다.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임관의 때에 반드시 관에 소장되어 있는 簿狀(개인조사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역대 왕조에서는 圖譜局을 두어古今에 博通한 학자가 족보를 편찬했고, 백관 중에 家狀이 있는 자는 그것을 제출하여 도부국에서 실정을 조사, 秘閣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만약 그 가장에 부정이 있으면 官籍으로써 바로잡았다고 한다. 『위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다수의 家譜와 狀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고, 그 열전은 가보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sup>44)</sup>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하면 고림 집안의 가보 또한 북위 조정은 물론이고 『위서』의 편찬자인 魏收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며, 그것의 내용은 고구려 초기의 건국신화와 왕계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고림 집안이 고구려 왕실과 같은 고씨인데다가, 「모두루모지」에서 보이듯이 고구려의 중견 귀족들 또한 그들의 시조를 고구려 건국신화와 연결시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위서』 고구려전의 앞부분은 고림과 같은 고구려 출신 관인층의 가보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렇게 보면 당시 고구려에서 공식화한 왕계와 다른 형태의 왕계가 수록된 것도 이해 가능하게 된다.

이상에서 『위서』의 고구려 건국신화가 5세기 이전부터의 전승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볼 경우에 문제가 되는 점은 『위서』의 전승이 5세기 이후 고구려 왕실의 공식적 건국신화와는 다른 형태일

43) 『周書』 卷29, 高琳傳

44) 『위서』의 편찬 배경에 관한 이상의 서술은 松下憲一, 2007, 『北魏胡族體制論』, 北海道大學出版會, 181~183쪽을 따랐다.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인 구조나 줄거리에서는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인다. 이 점은 이하에서의 검토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자. 『위서』 소재 고구려 건국신화는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명신화와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필자 역시 이에 대해 이의는 없지만, 시조 탄생에 관한 기본 모티프는 동명신화뿐만 아니라 북부여 신화라도 문화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우선 『위서』 고구려전의 건국신화에서 주몽 출생에 관한 부분만을 옮겨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高句麗者，出於夫餘，自言先祖朱蒙。朱蒙母河伯女，爲夫餘王閉於室中，爲日所照，引身避之，日影又逐。既而有孕，生一卵，大如五升。夫餘王棄之與犬，犬不食，棄之與豕，豕又不食，棄之於路，牛馬避之，後棄之野，衆鳥以毛茹之。夫餘王割割之，不能破，遂還其母。其母以物裹之，置於暖處，有一男破殼而出。及其長也，字之曰朱蒙，其俗言朱蒙者，善射也。(『魏書』卷100, 高句麗傳)

앞서 제시한 동명신화와 위의 고구려 건국신화에 보이는 시조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동명은 시비가 천기를 받아 출생했고, 주몽은 하백녀가 일광에 감응된 것이 계기가 되어 탄생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난생의 유무에서 차이점을 지닌다는 점 역시 주목되어 왔다.<sup>45)</sup> 이 중 난생의 경우 부여와 고구려 신화 사이의 결정적 차이점으로 강조되기도 했다.<sup>46)</sup> 하지만 난생

45) 池内宏은 동명신화의 경우 이야기의 기록자인 중국인의 손에서 왜곡된 것으로, 그 원형은 주몽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난생전설이었을 것으로 보았다(池内宏, 1951a, 앞의 논문, 95쪽). 그러나 부여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여인들 스스로가 그러한 형태의 전승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羅景洙, 1988, 앞의 논문, 57~58쪽; 神崎勝, 1995, 「夫餘·高句麗の建國傳承と百濟王家の始祖傳承」, 『日本古代の傳承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264~273쪽이 참고된다.

46) 李成市, 1998, 「『梁書』高句麗傳と東明王傳説」,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李成市는 난생을 남방문화의 요소로 파악하여 고구려 신화에 북방적 일

을 남방문화의 요소로만 단정할 수 없으며, 동시에 동명신화의 ‘有氣大如雞子’가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난생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sup>47)</sup> 본고에서는 난생의 문제는 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

동명과 주몽의 탄생에서 보다 주목해야 하는 차이점은 그 어머니의 성격이라고 본다. 양자의 어머니가 모두 천기나 일광에 감응되어 시조를 출생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어머니의 신성에 큰 차이가 있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다. 동명신화에서의 시비는 동명을 낳기는 했지만 신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물이다. 그는 단지 천기를 받은 동명을 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려져 있을 뿐이다. 반면 하백녀는 수신의 딸로서 신성을 보유한 중요한 인물로, 고구려 후기까지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앞서 살펴본 해모수-해부루 신화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앞 장에서 해부루는 태양신인 해모수와 하백녀(혹은 그 외의 대지신이나 수신 계열의 신)와의 결합을 통해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부루의 탄생과 주몽의 탄생을 비교해 보면, 태양의 인격화 여부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모의 성격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고구려 건국신화의 초기형은 북부여 문화와의 연관성 위에 동명신화의 서사구조가 융합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sup>48)</sup> 초기 고구려 건국신화는 이와 같이 북부여 건국신화와 일정한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표현 방법과 서사구조를 사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모수나 해부루의 이름이 굳이 등장할 여지는 없다.<sup>49)</sup> 「광개토왕비문」이나

광감정 요소와 남방문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본 三品彰英의 연구(三品彰英, 1971, 『神話と文化史』, 平凡社)를 주요 논거의 하나로 하여 부여와 고구려의 민족적 동일성에 관한 그간의 관념을 비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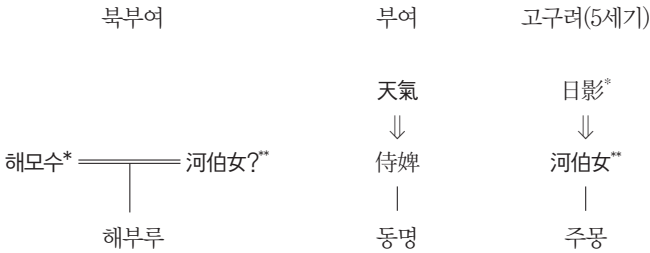
47) 金和經, 1998, 앞의 논문, 37~44쪽

48) 羅景洙의 경우는 동명신화에 기마민족의 신화모티프인 일광감정형이 습합된 것으로 보았다(羅景洙, 1988, 앞의 논문, 58~59쪽). 이 외에 「광개토왕비문」의 시조전승을 예맥계 시조전승의 기본형으로 파악한 후,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부여 동명왕전승과의 융합을 통해 『위서』 이후 보이는 주몽전승이 성립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神崎勝, 1995, 앞의 논문, 274~280쪽).

49) 朱昇澤의 경우는 고구려 건국신화가 처음 구성될 때부터 해모수-해부루 신화와

「모두루모지」에서도 이들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음을 물론이다. 해모수와 해부루가 고구려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것은 「동명왕편」이나 『삼국사기』 등 비교적 후대의 기록들뿐이다.

〈북부여·부여·고구려 시조의 탄생 과정〉



※ 고딕체는 부계와 모계 중 상대적으로 중시된 쪽을 나타냄

그런데 5세기 당시 고구려에 주몽의 부계를天帝로 설정한 전승(「광개토왕비문」)과 日로 설정한 전승(『위서』 고구려전과 「모두루모지」)의 두 가지 시조전승이 있었다고 보면서, 천제로 설정한 전승에 등장하는 천제를 해모수와 동일시하는 견해들도 있다.<sup>50)</sup> 그러나 「광개토왕비문」의 천제가 해모수를 지

동명신화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입장인 듯한데(朱昇澤, 1993, 앞의 논문, 218~223쪽),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화의 내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한편, 高寬敏은 『삼국유사』 북부여조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의 기본 전제를 토대로 해모수와 유화를 고구려 건국신화 독자의 요소로 파악했다(高寬敏, 1999, 앞의 논문, 73~75쪽). 더욱이 그는 『신집』이 『유기』의 초략본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모수와 유화에 대한 이야기가 『유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所傳일 것으로 보았다(이들의 이름이 정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소수림왕대라고 한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견해에는 논리의 비약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지적하고 있듯이(高寬敏, 1996, 『『三國史記』의原典的研究』, 雄山閣, 138~142쪽) 고구려 건국신화에는 『신집』 편찬 단계에 새로운 내용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앞으로 살펴보듯이 6세기 무렵까지도 고구려의 공식적 건국신화에 해모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50) 윤성용, 2005, 앞의 논문, 11~13쪽; 임기환, 2008, 앞의 논문, 164~165쪽. 한편, 天帝之子와 日子の 의미를 구분해서 파악하는 시각은 이미 武田幸男에게서 보인 바 있다(武田幸男, 1989, 앞의 책, 342쪽). 그는 日(影)에서 日月로, 거기서 다시

칭<sup>51)</sup>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선 주몽의 부계에 대해 같은 비문에서 천제 이외에 皇天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천제나 황천은 모두 중국식 天觀念에서 차용한 용어이다. 즉, 비문의 천제라는 표현은 시조의 부계에 대해 중국식 용어를 차용해 수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sup>52)</sup> 그것만으로는 해모수의 존재가 전제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해모수가 5세기 건국신화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주서』 고구려전에 기록된 6세기 무렵의 고구려 국가제사 체계를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又有神廟二所，一曰夫餘神，刻木作婦人之象，一曰登高神，云是其始祖夫餘神之子。並置官司，遣人守護。蓋河伯女與朱蒙云。(『周書』卷49, 高麗傳)

위의 기록에서 6세기 후반 무렵 고구려에서 夫餘神과 登高神의 두 신을 숭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sup>53)</sup> 부여신은 하백녀, 등고신은 주몽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백녀와 주몽만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을 뿐, 해모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기록의 누락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당시 고구려의 공식적 건국신화 체계와 관

天帝로 발전해 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발전은 시계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신분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발전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天帝라는 용어를 이해할 때에 그것이 갖는 정치적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시각은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51) 王健群도 이러한 인식을 피력한 바 있다. 그의 경우 「광개토왕비문」의 “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을 “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으로 끊어 읽어 비문의 내용이 『삼국사기』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았다(王健群, 林東錫 역,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295~297쪽). 즉 비문의 ‘北夫餘天帝之子’가 『삼국사기』에서 ‘天帝子’로 표현한 해모수라는 것이다.
- 52) 비문에 보이는 천제 등의 표현이 중국사상에 의한 운색이라는 점은 이미 津田左右吉도 지적한 바 있다(津田左右吉, 1964, 앞의 논문, 412쪽).
- 53) 『주서』 異域傳은 그 모두에서 “其四夷來朝聘者，今並紀之於後。至於道路遠近，物產風俗，詳諸前史，或有不同。斯皆錄其當時所記，以備遺闕云爾”라고 하듯이 기본적으로 당대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련되어 있는 것이다. 우선 하백녀가 日光에 감응되어 주몽을 잉태하게 된다는 『위서』 고구려전 소재 주몽신화의 기본적 구조를 떠올려 보도록 하자. 여기에서 日光은 인격신의 모습이 아니라 聖性이 하백녀에게 전이되는 수단으로써만 표현되어 있다.<sup>54)</sup> 이러한 신화 구조 아래에서는 주몽의 부계를 인격화하여 숭배하는 제사체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sup>55)</sup> 위 『주서』의 기록은 6세기까지도 고구려의 공식적 건국신화의 골격이 『위서』에 수록된 형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고구려 건국신화의 기본적 형태는 『삼국지』에 기록된 東盟祭의 모습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삼국지』 고구려전에 기록된 동맹제가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재연하는 형태로 거행되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어 왔는데,<sup>56)</sup> 여기에서 새삼 환기하고 싶은 점은 하백녀로 생각되는 隧神의 모습을 본뜬 神像[木隧]만 등장하고 해모수의 신상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유독 「광개토왕비문」의 신화에만 해모수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sup>57)</sup> 비문의 신화가 전반적인 신화 구조

54) 본고에서 말하는 聖性的 전이라는 것은 엘리아데의 히에로파니(hierophany, 聖顯)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임을 밝혀 둔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인간이 특정한 수목이나 돌 등을 숭배하는 것은 그러한 사물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聖이 그러한 사물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숭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聖의 드러남이 聖顯, 즉 히에로파니이다(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1996,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8, 『성과 속』, 한길사). 이러한 관점에서 하백녀가 일광에 감응된 것은 천공에 충만해 있는 聖의 일부를 나누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태어난 주몽은 일종의 히에로파니가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것이 고구려 왕이 가진 신성성의 기원이다.

55) 노태돈은 5세기 고구려인의 천하관에서 천은 자연현상이나 이법이 아니라, 인격신이자 왕실의 조상신으로 여겨졌다고 보았다(노태돈, 1999, 앞의 책, 361~363쪽).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견해는 6세기 고구려 제사체계에 대한 검토가 결여된 것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6) 徐永大, 2003, 「高句麗의 國家祭祀 - 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0, 10~15쪽

57) 그렇다면 「광개토왕비문」에만 天帝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어째서일까. 그것이 중국식 용어를 차용한 것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이지만, 여기서 그 배경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두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비문에서는 백제와 신라 등을 조공국으로 인식하는 천하관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관념이 중국적 화

면에서 계통의 차이를 논할 만큼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sup>58)</sup>

결국 해모수라는 인격신이 주몽의 아버지로 설정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고구려 후기 이후의 현상일 수밖에 없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나 「동명왕편」 등과 같은 비교적 후대에 기록된 신화를 보면, 해모수가 柳花와 관계를 가짐에도 여전히 유화의 직접적 잉태 계기는 일광의 감응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59)</sup> 즉, 해모수와 주몽의 관계가 상당히 기계적으로 짜

이관에서 차용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비문에서 추모왕을 天帝之子로 표현한 것은 화이관적 천하관 채용과 동일한 궤도 위에서 이루어진 수식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즉, 시조왕을 日子로 표현해서는 이러한 천하관과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하늘과 시조의 관계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이 표현되는 점은 역시 중국식 용어를 차용했음에도 그 바탕에는 고구려적 관념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그 고구려적 관념의 실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해모수와 같은 인격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념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구려에서는 시조왕을 日子(『위서』)나 日月之子(「모두루모지」)로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의 검토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표현들에 인격신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히에로파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의 계기가 日에 의한 것이든, 日月에 의한 것이든, 天에 의한 것이든 큰 차원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어떻게 표현하든 천공의 聖性を 이어받은 것에는 변함이 없다. 결과적으로 天帝之子는 부계 인격신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화이관의 차용에 따라 日子를 운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며, 그것이 고구려의 전통적 관념에 크게 배치되는 것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문의 天帝之子라는 표현이 신화나 국가제사 체계의 변화에 수반되어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고구려 왕들의 천손의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천이라는 것은 인격신이나 조상신이 아니다. 천손의식은 하늘의 聖性を 체현한 주몽의 후예라는 의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58) 依田千百子は 자료의 시간적 순서에 유의하여, 고구려에서 천신을 日神으로 한정하는 신앙이 일어나 주몽이 天의 아들(「광개토왕비문」)에서 日의 아들(『위서』 이후)로 정립되어 갔다고 논하고 있다(依田千百子, 2007, 『朝鮮の王權と神話傳承』, 勉誠出版, 134~135쪽 및 266~268쪽; 2009, 『韓國の天空神話-天, 太陽・月, 星の神話傳承をめぐって』, 『アジア遊學』 121, 71~72쪽). 이는 천공의 지고존재자에 대한 숭배가 태양신에 대한 숭배로 전화해 간다는 엘리아데의 설명(미르치야 엘리아데, 이은봉 역, 1996, 앞의 책)에 기초한 것으로 일견 일리 있는 견해이긴 하나, 본고에서의 검토 결과를 생각하면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 59) 「東明王篇」 “其女懷中日耀, 因以有娠.” 句文에 차이는 있지만 『삼국사기』 고구려

맞추어져 있는 감이 보이는데,<sup>60)</sup> 이는 이미 완결된 체계를 갖춘 신화에 뒤늦게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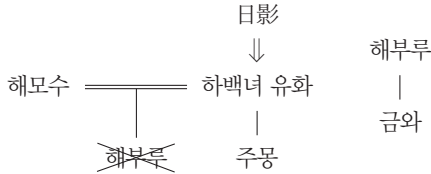
그러면 이번에는 해부루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런데 해부루는 동부여 이야기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므로, 동부여에 관한 내용이 과연 초기 신화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록에 따른 주몽의 출자지 차이의 문제<sup>61)</sup>와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건국신화가 처음부터 현전하는 형태로 존재했다고 보는 견해<sup>62)</sup>에서는, 출자는 출생지가 아니라 혈통의 연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국사기』 등의 신화가 주몽의 동부여 출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 없다는 견해<sup>63)</sup>를 참고하여 기록에 따른 출자지의 차이를 해결하려 하기도 한다. 즉, 주몽은 북부여의 해모수를 혈통의 근원으로 하여 동부여에서 출생했다는 것으로, 「광개토왕비문」이나 『위서』 등의 내용에는 생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루모지」의 “奴客祖先 北夫餘隨聖王來”라는 구절에서 엿볼 수 있듯이, 5세기 당시 고구려에서 주몽이 고난 극복을 위해 떠나는 곳은 분명히 북부여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로 볼 때 동부여에 관한 내용이 5세기 이후에 덧붙여진 것임은 분명하며, 해부루 역시 초기 신화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래 모식도에 보이듯이 해부루와 금와는 주몽의 탄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도 신화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또한 이들이 고구려 건국신화에 뒤늦게 포함된

본기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 60) 이러한 점은 羅景洙, 1988, 앞의 논문, 28쪽; 朱昇澤, 1993, 앞의 논문, 223쪽; 徐永大, 1997, 앞의 논문, 66쪽; 임기환, 2008, 앞의 논문, 162~163쪽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 61) 「광개토왕비문」에 의하면 5세기 무렵 고구려에서는 주몽의 출자지를 북부여로 인식하고 있었다[“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許興植 編, 1984,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5쪽)]. 이는 「모두루모지」에서도 마찬가지다[“河泊之孫日月之子鄒牟聖王元出北夫餘”(許興植 編, 1984, 위의 책, 12쪽)].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나 「동명왕편」 등에 전하는 것과 같이 해모수와 해부루 등에 관한 내용이 건국신화에 삽입되면서 주몽의 출자지가 북부여에서 동부여로 변하게 된다.
- 62) 윤성용, 2005, 앞의 논문
- 63) 金基興, 2001, 「高句麗 建國神話의 검토」, 『韓國史研究』 113, 6~7쪽

부수적 요소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 후기 건국신화에서의 시조 탄생 과정〉



그렇다면 고구려 건국신화에 해모수와 해부루 등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이와 관련하여 文咨王 3년(494)에 부여왕 일족이 고구려에 투항한 것을 계기로, 부여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그들의 동화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해모수 신화를 고구려 건국신화에 결합하였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sup>64)</sup> 물론 문자왕대에 부여가 흡수된 후 어떠한 형태로든 부여 유민들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기는 했겠지만, 해모수 신화가 본래 북부여의 건국신화이자 부여의 동명신화와는 구분되는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어렵다. 사실 이 견해에서도 『삼국유사』 북부여조의 내용이 북부여 시조신화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부여와 북부여를 동일한 실체로 보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동명신화와 해모수-해부루 신화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했고, 그 결과 고구려 건국신화에 해모수가 포함되는 원인과 시기에 대한 설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었다.<sup>65)</sup>

64) 徐永大, 1997, 앞의 논문, 66~72쪽

65)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인지는 몰라도 최근 해부루의 계보가 동명신화에 본래부터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견해들이 등장했다(윤성용, 2005, 앞의 논문, 9~11쪽; 임기환, 2008, 앞의 논문, 163~167쪽). 그러나 이 견해들 역시 『삼국유사』 북부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된 연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기엔 문제가 있다. 이들은 동명신화가 확산되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해부루 전승이 다양한 형태로 변개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해부루 전승이 다양하게 변개되었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지만, 해부루 전승의 독자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이 본래부터 동명신화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이 외에 고구려에서는 원래 母子神만이 존숭되고 있었지만, 사서 편찬 때에 慕華思想에 따라 시조의 부계가 중시되게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sup>66)</sup> 고구려 건국신화의 원형이 모자신을 존숭하는 형태였다는 것은 앞의 검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긴 하다. 하지만 단지 부계의 인격신이 필요할 뿐이었다면, 해부루와 금와에 대한 이야기는 삽입될 필요도 없이 일광 요소를 해모수로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또한 일광감정 요소가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견해 역시 본고의 문제의식에 충분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해모수의 등장에 따라 주몽이 天帝之子에서 天帝之孫으로 신분이 '격하'되었음을 중시하기도 한다.<sup>67)</sup> 이 점을 강조하다 보면 시조의 신분적 위상을 조정하기 위해 해모수가 삽입되었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주목한 결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5세기 무렵에 보이는 天帝之子·日子 등의 표현에는 인격신의 존재가 전제된 것이 아니었다. 반면, 후기 신화에서 주몽의 할아버지, 즉 해모수의 아버지로 설정된 천제는 분명히 인격신적 존재이다. 이는 「동명왕편」에서 해모수가 강립하는 장면을 설명하며 “天帝遣太子”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즉,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천제와 「동명왕편」 등에 보이는 천제는 표현은 동일하지만,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성격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68)</sup> 이는 후기의 신화가 해

다. 이들 견해에 따르면 동명신화의 확산과정과 해부루 계보의 변개과정은 동일 궤도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어야 하지만, 이 두 과정은 본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임기환의 경우 해모수의 계보가 고구려 건국신화에 기계적으로 결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모수와 해부루가 본래부터 동명신화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견해이다. 동명신화에 처음부터 해모수와 해부루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가 동명신화의 충신한 변용형태라고 파악한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해모수와 주몽이 어색하게 결합될 이유가 없다.

66) 井上秀雄, 1978, 『古代朝鮮史序說－王者と宗教』, 寧樂社, 99~101쪽

67) 조우연, 2010, 앞의 논문, 20~21쪽

68) “천신은 하늘과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주의 창조자로서의 천신은 하늘도 창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천신은 창조자, 전능자, 주, 우두머리, 아버지 등으로 불린다. 천신은 하나의 인격이지 천문학상의 현현이 아니다.” (미르치아 엘리아

모수뿐만 아니라 천제-해모수 계보 전체를 복부여 신화에서 통째로 이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천제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하여 시조왕의 신분이 격하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화 변용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짚은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일광감정 요소도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분이 격하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곤란하다.

고구려 후기의 건국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구려에 통합된 모든 부여계 국가의 신화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거칠게 섞여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기존의 일광감정 요소, 복부여의 천제-해모수 계보, 동부여의 해부루-금와 계보 등이 그대로 살아 있으며, 이들이 모두 주몽의 선계로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계보관계가 복잡해지고 부자연스러워졌지만, 이는 신화 정리의 미숙함에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인 작업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그 의도는 정치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고구려는 6세기 중반 이후 귀족세력 간의 내분 등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600년에 『新集』이 편찬되게 되는데, 이때 해모수와 해부루 등이 포함된 새로운 형태의 건국신화가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69)</sup>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새로운 신화는 6세기 이래의 귀족들 간의 분열을 통합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sup>70)</sup> 고구려에 통합되어 있던 부여계 국가들의 건국신화를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면서 주몽을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분열되어 있던 고구려 지배층을 다시 하나로 융합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sup>71)</sup> 이러한

데, 이은봉 역, 1998, 앞의 책, 124쪽)

69) 신화의 변용이 고구려 멸망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찾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70) 고구려가 그 지배하에 있는 다양한 기원과 유래를 갖고 있는 종족들을 하나로 묶는 수단으로 그들의 신화를 고구려 신화에 흡수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정원주, 2009, 「高句麗 건국신화의 전개와 변용」, 『高句麗渤海研究』 33, 59~62쪽).

71) 종래에는 『신집』 단계에서의 주몽의 출자지 변경에 주목하면서, 이것을 정치적 변동의 결과 새로이 집권하게 된 집권층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기도 했다(노태돈, 1999, 앞의 책, 36~44쪽).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신화의 통합 현상에 주목하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신화의 통합은 『舊唐書』 고구려전에 등장하는 새로운 神들<sup>72)</sup>과 함께 만들어진 전통을 창출하는 데 이용되어 고구려인들의 심성적 동질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sup>73)</sup>

지금까지 고구려 건국신화의 구성 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주제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기록한 주요 자료마다 출자인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 한 가지 재해석을 하고 논의를 끝맺고자 한다. 고구려의 출자는 『위서』에서는 부여, 「광개토왕비」와 「모두루묘지」 등의 5세기 금석문 자료에서는 북부여, 「동명왕편」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등의 후기 신화에서는 다시 부여(+동부여)로 나타나고 있다.<sup>74)</sup> 종래에는 부여와 북부여를 동일한 실체로 보고, (북)부여 출자설과 동부여 출자설의 차이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해 왔다. 하지만 주몽의 출자지가 동부여로 변경된 것은 해모수와 주몽이 어색하게 결합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신화들의 융합과정에서 생긴 부수물에 지나지 않는다. 「동명왕편」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점은 이야기 전개상에 아무런 필연성이 없는데도 해모수와 해부루가 북부여가 아닌 부여와 관련되어 등장한다는 점이다. 즉, 부여와 북부여를 구분해서 파악하는 본고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고구려의 출자가 북부여에서 부여로 변화한 것이 된다. 그런데 또한 주목되는 것은 5세기 금석문 자료보다 오래된 인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위서』 소재의 신화에서도 고구려의 출자가 부여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고구려의 북부여 출자설은 5세기에만 한정적으로 확인되는 셈이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72) 『舊唐書』卷199上, 高麗傳 “其俗多淫祀, 事靈星神·日神·可汗神·箕子神.”

73) 신화는 현실세계를 규제하고 정당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현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것은 특히 통일국가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시기에 그러한데, 중국에서 전국 말, 한 초에 이르러 黃帝가 華夏 국가 사이의 영웅조상의 공동 선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좋은 예의 하나이다(왕명커, 2004, 「영웅, 변경을 가다 - 중국 전근대·근대의 상상된 변강(邊疆)」,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휴머니스트 참조).

74) 『삼국유사』에는 북부여로 되어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일연의 개찬이다.

이 문제는 5세기 고구려의 천하관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제의 비류 시조설화나 동부여 건국설화는 북부여 신화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여계 국가들에서 부여보다는 오히려 북부여가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간취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5세기에 자신들을 천하의 중심에 놓고 동부여나 백제 같은 주변국들을 속민으로 취급하던 고구려에서 고구려 왕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조왕과 북부여의 관계가 어떻게든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북부여 출자설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온 지극히 정치적인 선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5세기 고구려 왕실은 북부여 출자설을 통해 고구려야말로 북부여의 정통을 이은 부여계 국가의 중심임을 표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부여와 동부여는 6세기 이후에는 완전한 고구려 영역으로 재편되어 있었고,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에서 확인되듯이 백제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북부여 계승의식 대신 부여 계승의식을 내세우고 있었다.<sup>75)</sup> 따라서 고구려의 북부여 출자설은 『신집』 편찬 단계가 되면 더 이상 정치적으로 큰 효용성을 갖지 못하였을 공산이 크다. 오히려 고구려의 부여 고지 지배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몽의 선계로 설정된 해모수를 부여와 연관시키는 것이 부여 고지에 대한 고구려 지배의 역사적 당위성을 내세운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부여와 고구려 건국신화의 계통과 형성과정 등에 대해 기존과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정리해 보았다. 이는 『삼국유사』 북부여조에 인용된 ‘고기’

75) 『魏書』卷100, 百濟傳 “臣與高句麗源出夫餘.”

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작업이다. 그리고 그 기록의 재평가에서 기초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고기' 인용문 범위의 재확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해와는 달리 북부여조의 전반부만이 '고기'의 인용이고, 후반부는 일연 자신의 서술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동부여 천도 후의 북부여 舊都에서 고구려가 일어났다는 인식을 일연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일연의 이러한 인식은 북부여조 인용 '고기'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종래 일연이 '고기'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되기도 했는데,<sup>76)</sup>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북부여조 인용 '고기'의 성격을 살펴본 결과 그것이 북부여 건국신화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원 모습에는 해부루의 어머니로 하백녀와 같은 존재가 설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즉 해모수(父)+하백녀(母) → 해부루의 계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북부여조의 '고기'를 제외한 다른 관련 기록에서는 해모수와 해부루가 아무런 혈연관계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해모수-해부루 신화가 고구려 건국신화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변용을 거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고기'에서 전하는 북부여 건국신화와 동명신화의 관계이다. '고기'에서 전하는 해모수-해부루 신화는 단군신화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웅전승적 성격을 갖는 부여의 동명신화와는 계통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파악하려면 부여와 북부여를 서로 다른 실체로 보는 방법밖에는 없다. 부여와 북부여를 동일시하는 기존의 견해에서는 양 신화의 관계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해부루-금와로 이어지는 동부여 천도설화 역시 계통적으로 독립된 전승이었을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검토 결과가 타당성을 얻은 것이라면, 앞으로는 북부여 건국신화와 동명신화를 엄격히 구분하여 고찰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여계 국가에서의 동명신화의 재생성 현상뿐만 아니라, 해모수-해부루 신화가

76) 李康來, 1996, 앞의 책, 153~158쪽

변용되어 가는 과정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고구려 건국신화의 구성 과정과, 부여족에서 해부루가 갖는 의미, 고구려·백제의 부여 계승의식 등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이 중 고구려 건국신화의 형성·변용 과정을 재검토해 보고, 고구려의 북부여 계승의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보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國李相國集』, 『帝王韻紀』  
『論衡』, 『三國志』, 『魏書』, 『周書』, 『北史』, 『舊唐書』, 『新唐書』, 『通典』, 『遼史』  
許興植 編, 1984,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 〈단행본〉

盧泰敦,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리지린 · 강인숙, 1988, 『고구려 역사』, 논장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1996, 『종교형태론』, 한길사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1998, 『성과 속』, 한길사  
王健群, 林東錫 역,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李康來, 1996,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李丙燾, 1959,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이복규, 1998, 『부여 · 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  
李玉, 1984, 『高句麗 民族形成과 社會』, 教保文庫  
河廷龍, 2005, 『삼국유사 사료 비판』, 民族社  
  
高寬敏, 1996, 『『三國史記』의 原典的研究』, 雄山閣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三品彰英, 1971, 『神話と文化史』, 平凡社  
三品彰英, 1975, 『三國遺事考證』 上, 塙書房  
松下憲一, 2007, 『北魏胡族體制論』, 北海道大學出版會  
依田千百子, 2007, 『朝鮮の王權と神話傳承』, 勉誠出版  
井上秀雄, 1978, 『古代朝鮮史序說 - 王者と宗教』, 寧樂社

### 〈논문〉

金基興, 2001, 「高句麗 建國神話의 검토」, 『韓國史研究』 113  
金杜珍, 1999, 「高句麗 建國神話의 英雄傳承의 성격」, 『韓國古代的 建國神話와 祭

儀』, 一潮閣

- 金哲埈, 1975, 「百濟社會와 그 文化」,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 金和經, 1998, 「高句麗 建國神話의 研究」, 『震檀學報』 86
- 羅景洙, 1988, 「韓國 建國神話 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盧明鎬, 1981,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 『歷史學研究』 10
- 리준영, 1964, 「고구려의 국가 기원에 대하여－주몽 설화를 중심으로」, 『역사과학』 1964-4
- 徐永大, 1997, 「高句麗 王室 始祖神話의 類型」, 『晚耕 李忠憲 先生 華甲紀念 東西文化論叢』 II, 仁荷大學校 東洋史研究室
- 徐永大, 2003, 「高句麗의 國家祭祀－東盟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0
- 宋基豪, 2005, 「扶餘史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韓國古代史研究』 37
- 송호정, 1997, 「부여의 성장과 대외관계」,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신종원, 2006, 「부여·고구려 건국신화의 同異樣相」,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왕명기, 2004, 「영웅, 變경을 가다－중국 近근대·근대의 상상된 邊疆(邊疆)」, 『근대의 국경 역사의 變경』, 휴머니스트
- 윤성용, 2005, 「고구려 建國神話와 祭儀」, 『韓國古代史研究』 39
- 李大龍, 2005, 「高句麗建國神話蘊涵的歷史資訊」,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연구재단
- 이도학, 2006, 「高句麗와 夫餘 關係에 對한 再檢討」,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
- 李龍範, 1966, 「高句麗의 成長과 鐵」, 『白山學報』 1
- 임기환, 2008, 「동명신화의 전개와 변용－문헌 자료 계통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 정원주, 2009, 「高句麗 건국신화의 전개와 변용」, 『高句麗渤海研究』 33
- 조우연, 2010, 「고구려 始祖神話에 나타나는 ‘夫餘出自’의 의미」, 『東아시아古代學』 22
- 朱昇澤, 1993, 「北方系 建國神話의 文獻的 再考察－解夫婁神話의 再構를 中心으로」, 『韓國學報』 70
- 崔南善, 1973, 「朝鮮의 神話」, 『六堂崔南善全集』 5, 玄岩社

- 高寛敏, 1999, 「扶餘 · 高句麗 · 百濟の建國神話」, 『社會科學研究』 7, 朝鮮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 今西龍, 1970, 「朱蒙傳説及老獺稚傳説」,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 那珂通世, 1894, 「朝鮮古史考 第四章 高句麗考」, 『史學雜誌』 5-9
- 内藤湖南, 1969, 「東北亞細亞諸國の感生帝説」, 『内藤湖南全集』 8, 筑摩書房
- 島田好, 1934, 「東夫餘の位置と高句麗の開國傳説」, 『靑丘學叢』 16
- 白鳥庫吉, 1970, 「夫餘國の始祖東明王の傳説に就いて」, 『白鳥庫吉全集』 5, 岩波書店
- 神崎勝, 1995, 「夫餘 · 高句麗の建國傳承と百濟王家の始祖傳承」, 『日本古代の傳承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 依田千百子, 2009, 「韓國の天空神話 - 天, 太陽 · 月, 星の神話傳承をめぐって」, 『アジア遊學』 121
- 李成市, 1998, 「『梁書』高句麗傳と東明王傳説」,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 張承斗, 1939, 「朱蒙傳説の民俗學的考察」, 『朝鮮』 286
- 池内宏, 1951, 「高句麗の建國傳説と史上の事實」, 『滿鮮史研究』 上世第一冊, 吉川弘文館
- 池内宏, 1951, 「高句麗王家の上世の世系について」, 『滿鮮史研究』 上世第一冊, 吉川弘文館
- 津田左右吉, 1964, 「三國史記高句麗紀の批判」, 『津田左右吉全集』 12, 岩波書店

## [ABSTRACT]

The Lineage and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Myths of  
Buyeo and Koguryo: An Analysis of “Kogi” Cited in  
“Northern Buyeo Articles” in *Samguk yusa*

Park Gibum

Despite its brevity, “Kogi” (Ancient Records), which is cited in “Northern Buyeo Articles” in *Samguk yusa*, includes important content that provides an important clue for understanding history Northern Buyeo and the lineage and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myths of Buyeo and Buyeo-descent nations such as Koguryo. In fact, these records were originally separate ones dealing with the foundation myth of Northern Buyeo with no connection to that of Koguryo. Although they do not remain intact, it is thought that the records originally contained the genealogical relationship between Haemosu (Father), the daughter of Habaek (Mother), and Haeburu (son). Other records, except for the “Northern Buyeo Articles” in *Samguk yusa*, do not state that there is a blood relationship between Haemosu and Haeburu. This is because the Haemosu-Haeburu myth went through a transformation in the process of being incorporated into the foundation myth of Koguryo.

What matters her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undation myth of Northern Buyeo and the myth of King Dongmyeong of Buyeo. The foundation myth of Northern Buyeo is very similar to the myth of Dangun in terms of structure, while it has no correlation with the myth of King Dongmyeong, a type of transmitted heroic tale, in terms of

lineage. Thus, in order to reasonab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yths, Buyeo and Northern Buyeo should be regarded as two separate states. The existing view that equates Buyeo with Northern Buyeo has not been able to properly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yths. In addition, the Eastern Buyeo capital-transfer myth, which represents Haeburu moving to Geumwa, can also be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foundation myth of Eastern Buyeo in terms of lineage because it is a type of emergence myth, which is different in terms of its establishment.

Accordingly, the foundation myth of Northern Buyeo, that of Eastern Buyeo, and the myth of King Dongmyeong should be strictly distinguished from one another. Furthermore, based on this,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myth of Koguryo, the significance of Haeburu to the Buyeo tribe, and the ethos of succession of Koguryo and Baekje to Buyeo need to be reconsidered. In this regard,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myth of Koguryo is as follows. The myth in the early years of Koguryo shared certain literary similarities with the foundation myth of Northern Buyeo, and yet employed the structure of the myth of King Dongmyeong in terms of expression. Therefore, it did not include Haemosu and Haeburu, who appear in the Northern Buyeo myth, but presented the daughter of Habaek as the mother of Jumong. According to the ritual system of Koguryo in the sixth century as recorded in the "Gaoguli zhuan" in *Zhoushu*, it is clear that this structure of the myth remained the same until the sixth century. The current foundation myth of Koguryo that encompasses Haemosu and Haeburu was formed during the compilation of *Shin'jip* in the late years of Koguryo. This was part of the ideological integration policy for settling the political chaos since the late sixth century by combining the myths of the Buyeo-

descent nations that belonged to Koguryo.

Keywords

foundation myth of Nothern Buyeo, myth of King Dongmyeong,  
foundation myth of Koguryo, Haemosu, Haeburu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高句麗 清巖里土城 주변 출토 金銅冠의 系譜와 用途

양은경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I. 머리말

1950년대 평양시 대성구역의 청암리토성 부근에서 도로공사를 하던 중 금동관 2점을 비롯하여 금동광배, 금동불상, 금동장식물이 발견되었다. 구제발굴을 통해 이 유물들이 수습되었기 때문에 유물 출토 당시의 원상을 확인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발견지점이 고구려 청암리토성과는 100m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유물이 출토된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고구려 기와편들이 널려 있어 건축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sup>1)</sup>

고구려 금동관은 현존하는 유물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 금동관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금동관은 입식, 관대,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대의 넓이는 25.4cm이고 입식의 잔존 넓이는 32.3cm이다. 관대의 높

※ 투고일: 2011년 6월 23일, 심사일: 2011년 8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23일

1) 황욱, 1958, 「평양〈청암리 토성〉부근에서 발견된 고구려 금동 유물」, 『문화유산』 5, 63~66쪽

이는 2.3cm이고 입식의 잔존 높이는 12.4cm이다.

고구려 벽화와 고문헌 기록을 통해 고구려인의 관식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지만 현존하는 유물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연구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금동관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금동관은 고구려의 관과 관식에 대한 연구에는 물론이고 삼국 시대 관·관식의 기원을 언급할 때에도 항상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금동관에 대한 단독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 금동관은 제작기법과 형태의 독특함으로 인해 고구려의 왕이나 귀족이 착용하였던 실용품이 아니라 불상의 머리를 장식한 보관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sup>2)</sup> 그러나 불상이라는 단어의 부적합함, 고정된 예배대상에 사용된 금동관이라는 간단한 언급만이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구성요소가 특이하고 제작기술 역시 정교하고 입체적인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에 대해 우선 현존하는 벽화와 고고유물을 통해 그 계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요소, 제작기법, 문양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존하는 고구려와 중국, 일본 불교조각과의 비교를 통해 이 금동관의 계보와 특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금동관을 착용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존상의 명칭과 재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李浩官, 1981, 「高句麗 工藝－金銅透刻冠을 中心하여」, 『考古美術』 150, 108~109쪽;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439쪽

## II. 考古資料로 본 系譜와 年代

고구려인의 관모에 대해서는 문헌기록, 벽화 속의 인물상, 출토유물을 통해 대략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계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실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하여 부품구성, 제작기법, 문양의 계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部品構成

고구려 무덤에서 출토된 관은 集安 太王陵 출토 금동관(도 1)<sup>3)</sup>이 대표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冠飾이다. 관식은 집안 禹山下3560호묘(JKM3560) 출토 관식(도 2),<sup>4)</sup> 禹山下3105호묘(JKM3105) 출토 관식,<sup>5)</sup> 傳 집안 출토 관식(遼寧省博物館 소장)(도 3),<sup>6)</sup> 德5193 관식(國立中央博物館 소장)(도 4)<sup>7)</sup>이 있다.

집안 태왕릉 출토 금동관은 고깔모양 관모 2점, 鳥翼形 관식 1점, 관테로 추정되는 장식품 여러 점이 수습되었지만 모두 분리되어 출토되었기 때문에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지 않다(도 1). 傳 평양 부근의 고분 출토 透彫草花形 금동관은 관테 위쪽에 관모의 기능을 한 풀, 꽃무늬를 투각한 금동관을 부착시켰다.

구성요소면에서 태왕릉 출토 금동관은 冠帶, 冠帽, 冠飾이 확인되었고,<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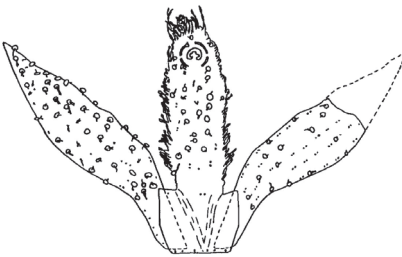
- 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4,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288쪽
- 4) 孫仁杰·遲勇·張雪岩, 1993, 「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石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延邊大學出版部, 32~35·65쪽
- 5) 孫仁杰·遲勇·張雪岩, 1993, 위의 논문, 32~35·65쪽
- 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4 고구려편(2), 272쪽
- 7) 申大坤, 1991, 「高句麗 金屬製 一括遺物の 한 例」, 『考古學誌』 3, 136~142쪽, 참고로 '德'은 국립박물관 유물등록번호의 '德壽品'을 간략하게 말한 것이다.
- 8) 금동관의 구성요소로 사용된 단어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필자는 尹世英, 1980, 「韓國古代冠帽考—三國時代冠帽를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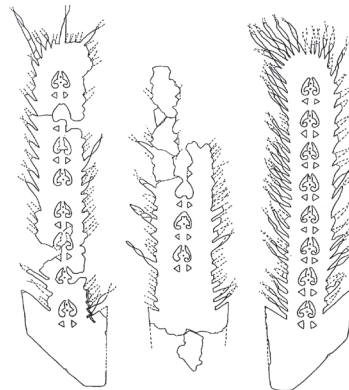
〈도 1〉 集安 太王陵 출토 금동관(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4,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사진 92-1)』



〈도 2〉 집안 禹山下3560호묘(JKM3560) 출토 관식(申大坤, 1997, 『羽毛附冠飾의 始末, 『考古學誌』 8, 71쪽 도 1-1)』



〈도 3〉 傳 집안 출토 관식, 遼寧省博物館 소장 (申大坤, 1991, 『高句麗 金屬製 一括遺物의 한 例, 『考古學誌』 3, 154쪽 삽도 1)』



〈도 4〉 德5193 관식,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申大坤, 1997, 위의 논문, 71쪽 1-4)』

동북아역사논총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투조초화형 금동관은 관대, 관모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가로방향으로 길이가 긴 관대와 그 위쪽에 세로방향으로 관모 혹은 관식을 올렸다. 금동관의 구성요소면에서 2점의 금동관과 청암리토성 부근에서 발견된 금동관은 관대, 입식의 요소에서는 일치하지만 2점의 금동관에서는 청암리토성 부근 발견품에서 확인되는 垂飾은 찾아볼 수 없다.

禹山下3560호묘(JKM3560: 도 2), 禹山下3105호묘, 傳 집안 출토(도 3), 德5193에서 발견된 관식은 말 그대로 관식만이 수습되었다(도 4). 구성요소면에서 이러한 관식들은 관대, 관모, 수식들과 함께 출토되지 않았다. 고구려 무덤에서 흔히 금동제 관식들만이 출토되는 것은 관대를 포함한 관모는 금속제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금동제 관식은 鳥羽形 혹은 羽毛形을 기본형으로 하며 모자, 특히 折風帽에 덧붙여 꽃혀졌던 것이다. 금동제 조우형 관식은 고구려에서 성행한 관 장식 중 하나이며 새 깃털을 절풍모 등에 부가하던 습속에서 연유한 것이다.<sup>9)</sup> 고구려는 신분의 차이를 관식으로 표현하였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금으로 된 깃털을 관모 좌우에 꽂아서 착용하였다.<sup>10)</sup>

『三國志』, 『梁書』, 『舊唐書』 등의 중국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관은 왕, 大臣, 서민 등 신분에 근거하여 차이가 있다. 왕은 白羅로 만든 冠에 금장식을 하였고 대신은 靑羅로 만든 관, 이보다 신분이 낮은 신하는 緋羅로 만든 관을 쓰는데 두 개의 鳥羽를 꽂고 금으로 장식하였다. 이것은 蘇骨로 추정되고 있다. 國人 혹은 서민은 단순한 弁을 착용하였는데 이것이 折風인 것으로 이해된다.<sup>11)</sup>

구성요소면에서 고구려의 관식들은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에서 보

心으로」, 『韓國考古學報』 9, 23~44쪽의 명칭을 참고하였음.

9) 이은창, 1978, 『韓國古代的服飾』 고대편, 교양국사총서, 203쪽

10) 이송란, 2004, 『신라 금속공예 연구』, 일지사, 75쪽

11) 권오영, 2006, 「유물과 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의 冠 - 折風과 蘇骨을 중심으로」, 『고고자료에서 찾은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 연구총서 14, 고구려연구재단, 19~21쪽



〈도 5〉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 1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Ⅱ』 고구려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60쪽 사진 384)

이는 금속제 관대와 수식은 확인되지 않는다(도 5). 특히 이러한 관식들은 세로방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立飾[세움장식]으로 볼 수 있다. 傳 집안 출토 관식, 德5193 출토 관식은 중간, 좌, 우에 각각 관 장식이 세워졌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세 개의 입식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禹山下3560호묘와 禹山下3105호묘에서 출토된 관식 역시 중간에 세운 입식과 좌우에 鳥翼形 입식으로 구성된 것

으로 추정되기 때문에,<sup>12)</sup> 전체적으로 입식이 세 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입식은 아홉 개이기 때문에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 금동 관식의 입식 숫자보다 월등히 많다. 이는 고구려 관식들이 유기질 관모에 세 개의 금동제 입식으로서 부착된 것<sup>13)</sup>에 비해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은 유기질의 관모가 사용되지 않고 금동제 관대와 입식들이 하나의 금동관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고고유물로 출토된 고구려의 관식, 관모가 그리 많지 않은 것과는 달리 백제, 신라, 가야에서는 금동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토되었다.<sup>14)</sup> 백제, 신라, 가

12) 申大坤, 1997, 「羽毛附冠飾의 始末」, 『考古學誌』 8, 68~69쪽

13) 고구려 관은 문헌기록과 실물자료, 고분벽화에 나타난 양상으로 보아 주로 새깃털 혹은 조우형 관식을 부착한 帽冠으로 보인다. 이 모관은 실제 생활 속에서 착용한 실용관으로 판단된다. 咸舜燮, 1997, 「小倉 Collection 金製帶冠의 製作技法과 그 系統」, 『古代研究』 5, 88~89쪽

14) 백제, 신라, 가야에서 출토된 관의 재질은 금동, 금, 은, 동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 출토된 대다수의 관은 금동이 많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금동관'이라는 단어로 다양한 재질의 관을 통칭하도록 하겠다.

야의 금동관은 기본적으로 관대와 입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황남대총(도 6), 서봉총 등 신라의 금관에서는 수식도 드리워져 있다.<sup>15)</sup>

백제, 신라, 가야 출토 금동관의 관대는 흔히 긴 띠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대의 양쪽에는 구멍이 있다.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관대 역시 긴 띠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관대의 양쪽 끝단에는 구멍이 없다. 다만 관대의 중앙과 좌우쪽에는 일곱 개의 연꽃모양의 못이 배치되어 있다. 백제, 신라, 가야 금동관의 관대는 완전하게 둥근 원형을 이루지만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관대는 반원형으로 굽어진다.

백제, 신라, 가야 출토 금동관의 관대에는 樹枝形, 鹿角形, 草花形, 鳥羽形, 鳥翼形 등의 입식이 붙여져 세워졌다. 입식의 수는 세 개 혹은 다섯 개가 가장 일반적이며 관대와는 별도로 입식만이 단독으로 제작되어 두세 개의 금속제 못 혹은 실(絲)로 고정되었다.<sup>16)</sup> 백제, 신라, 가야에서 출토된 금동관의 관대와 입식이 각각 별도로 제작되어 연결된 것과는 달리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관대와 입식은 한 장의 금동판을 이용하여 떠내었기 때문에 못이나 실이 필요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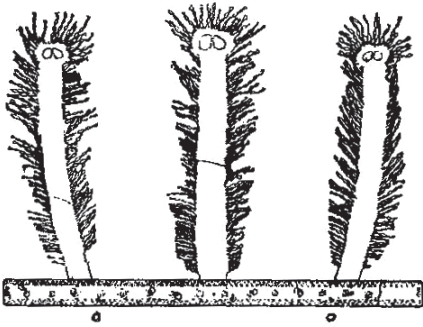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관대 양끝에는 수식이 매달려 있다. 수식



〈도 6〉 皇南大塚 北墳 출토 금관(국립경주박물관, 2001, 『新羅黃金』, 국립경주박물관, 사진 23)

15) 국립경주박물관, 2001, 『新羅黃金』, 국립경주박물관, 20~275쪽

16) 朴普鉉, 1986, 「樹枝形立華式冠型式分類試論」, 『歷史教育論集』 9, 4~5쪽; 이한상, 2004, 『황금의 나라-신라』, 김영사, 86~99쪽



〈도 7〉 義城 塔里 第 I 墓槨 출토 금동관(申大坤, 1997, 앞의 논문, 7쪽 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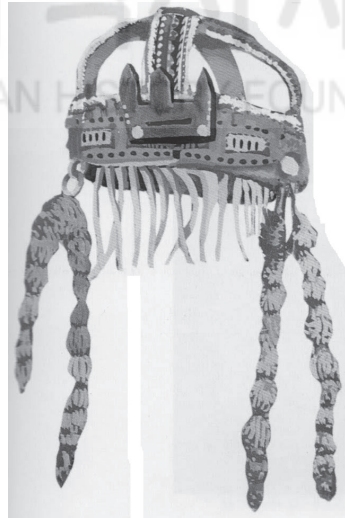
각 2개씩의 작은 구멍이 있으며 출토 당시에는 그 아래에서 한 개씩의 細環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식이 양쪽으로 늘어뜨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도 7).<sup>17)</sup> 신라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의 관대에는 太環 혹은 細環에 두 줄 혹은 세 줄의 수식이 달려 있다.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수식과 5세기 후반~6세기 초의 신라 금관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수식은 금속제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지만 매달린 수식의 구성물에서는 차이가 있다. 사슬모양의 셋장식, 펜촉모양의 장식물 등이 步搖, 曲玉과 함께 화려하고 복잡하게 매달려 있는 신라 금관의 수식과는 달리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수식에는 이러한 장식물들이 없다.

신라의 금관, 금동관에서 확인되는 수식은 구슬로 장식되어 있고 두세 줄로 구

은 관대, 입식과 동일하게 금동제로 제작되었는데 몇 가닥의 술이 중간부위에서 매듭(리본)을 이룬 후 늘어뜨려져 있다. 매듭에서 네 가닥으로 늘어뜨려진 술의 끝단에는 구슬모양의 장신구가 매달려 있다.

義城 塔里 第 I 墓槨에서 출토된 금동관의 관대 양끝에는 각



〈도 8〉 시베리아 에네트족(Ennets) 사면의 모자(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33쪽 도 12)

17) 申大坤, 1997, 「羽毛附冠飾의 始末」, 『考古學誌』 8, 68~69쪽

성되었다는 점에서 시베리아 샤먼의 모자와 그 유사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도 8). 특히 관대와 정상부가 십자형 열개로 구성된 半球形이고 정상부에 사슴 뿔이 달린 시베리아 샤먼의 관은 신라 금관의 內帽를 연상시킨다.<sup>18)</sup> 청암리토성 금동관의 수식은 길이가 길고 섬유질의 머리띠가 드리워진 모



〈도 9〉 사산조 페르시아 왕의 관(田邊勝美, 1987, 「ナルセ-王紋任式浮彫に關する一考察-アナーヒタ女神か王妃か」, 『シルクロード美術論集』, 吉川弘文館, 105쪽 도 4)

습을 모방하여 만든 형상과 유사하다. 이처럼 관에서 머리를 묶은 머리띠의 길이가 길어서 관의 뒤쪽에서 두 줄의 끈으로 표현된 것은 사산조 페르시아 왕관에서 그 기원이 확인된다(도 9).<sup>19)</sup>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은 관대, 입식,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고분을 중심으로 발견된 고구려 금동관에서는 이와 동일한 예를 찾을 수 없었다. 5세기 후반~6세기 초로 편년되는 신라 금관은 관대, 입식, 수식의 구성을 보이지만 각 구성요소들은 따로 제작되어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청암리 금동관과는 차이가 있다.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관대는 전체적인 형태가 반원형을 이루지만 고고유물의 금동관들은 원형을 형성한다. 청암리 출토 금동관의 입식은 아홉 개이지만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3~5개의 입식을 가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18) 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54~55쪽

19) 田邊勝美, 1987, 「ナルセ-王紋任式浮彫に關する一考察-アナーヒタ女神か王妃か」, 『シルクロード美術論集』, 吉川弘文館, 101~136쪽; 장영수, 2010, 「페르시아 사산조 왕관의 연구」, 『服飾』 60, 120·134쪽

## 2\_ 製作技法



〈도 10〉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정상 꽃봉오리모양 화염장식(申大坤, 1997, 앞의 논문, 87쪽 도 6-3을 바탕으로 조금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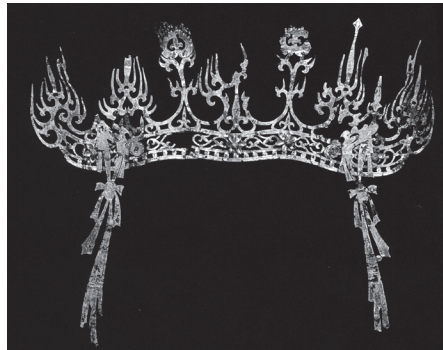
정상부에 꽃봉오리모양을 가진 입식의 좌우에는 다시 중앙 입식과 동일한 변형된 인동당초문의 화염문이 배치되어 있고 그 좌우에는 다시 꽃봉오리모양의 입식이 있다. 이처럼 두 가지 형태의 입식이 중앙의 입식을 기준으로 교대로 배치되어 있다.

변형된 인동당초문이 화염문 형태를 이룬 입식은 모두 다섯 개인데 앞뒤 2중으로 세워진 것도 있어 입체감을 갖게 한다(도 11).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유물에서는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과 같이 입식을 앞뒤 2중으로 배치한 다른 예를 찾기는 힘들다.

傳 집안 출토 관식을 비롯하여 백제, 신라, 가야 관과 관식의 표면장식에 원형 보요가 장식되어 있는데(도 12), 청암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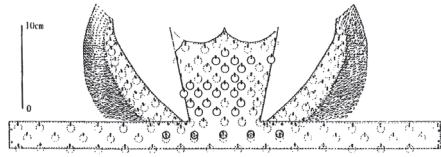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관대와 입식은 한 장의 금동판을 이용하여 떠내었지만 입식에서 특이한 제작기법과 문양형태가 확인된다. 아홉 개의 입식은 중앙의 입식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각각 네 개씩의 입식을 배치하였다. 중앙의 입식은 변형된 인동당초문이 화염문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 좌우의 입식은 화

焰모양의 갈기를 2단 올리고 정상부에서는 꽃봉오리모양으로 장식되었다(도 10). 정상부에 꽃봉오리모양을 가진 입식의 좌우에는 다시 중앙 입식과 동일한 변형된 인동당초문의 화염문이 배치되어 있고 그 좌우에는 다시 꽃봉오리모양의 입식이 있다. 이처럼 두 가지 형태의 입식이 중앙의 입식을 기준으로 교



〈도 11〉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 II(고려대학교박물관, 2005,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통천문화사, 306쪽)

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표면에서는 보요가 사용되지 않았다.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품은 보요가 아니라 입식을 2중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식적인 효과를 증가시켰던 것이다.



〈도 12〉 皇南大塚 南墳 출토 은관(申大坤, 1997, 앞의 논문, 77쪽 도 3-5)

더욱이 꽃봉오리모양의 장식물은 아래쪽에 위치한 2단의 火焰모양의 입식과는 별도로 만들어져 2매의 못으로 접합되어 있는데(도 10), 이러한 제작기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저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금동관 입식에서 하나의 입식은 흔히 한 판으로 제작되었다. 금령총에서 출토된 금관에는 녹각형 입식 중 일부분을 따로 만들어 못으로 접합한 것이 확인되어 이 금관만의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sup>20)</sup>

꽃봉오리모양의 장식물은 따로 제작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동근 주연부를 돌아가며 가늘게 절단하고 비틀어 꼬은 제작기법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제작기법은 고구려 관식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고구려적인 속성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sup>21)</sup> 신라에서 출토된 관의 관식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傳 집안 출토 관식에서는 중간식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가늘게 자르고 꼬았으며 德5193 관식은 세 개의 관식의 가장자리를 경사지게 자른 뒤 오른쪽으로 비틀어 꼬았다.<sup>22)</sup> 관식 내에는 三葉透彫紋이 배풀어져 있는데 이 모든 특징들은 청암리토성 출토 금동관의 꽃봉오리모양의 장식물과 유사하다.

鎧馬塚의 벽화 속에 묘사된 인물상 중 무덤 주인의 관식은 傳 집안 출토 관

20) 국립경주박물관, 2001, 앞의 책, 28쪽

21) 朴普鉉, 1996, 「제작기법에서 본 이른바 깃털형 입식 관의 몇가지 문제」, 『碩喆尹容鎭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碩喆尹容鎭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443~455쪽; 趙珍淑, 2003, 「壁畫에 나타난 高句麗 裝身具에 關한 研究 - 金屬 裝身具를 中心으로」, 『高句麗研究』 17, 51쪽

22) 申大坤, 1997, 앞의 논문, 69~70쪽



〈도 13〉 鎧馬塚 玄室 천장의 벽화(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앞의 책, 123쪽 사진 152)

화 속 인물상에서도 개마총의 인물상과 동일하게 관의 정면에 위치한 입식은 주위의 관식 혹은 장신구보다 높게 세워졌다(도 14).<sup>24)</sup> 입식의 정상부는 둥글고 투조된 것처럼 보인다. 입식 가장자리에서 중상부까지는 수평으로 선처리되었고 정상부의 둥근 장식물의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둥글게 선처리되었다. 마선구 1호묘는 도굴로 인해 출토 유물은 적지만 무덤의 구조, 벽화 소재를 통해 5세기대로 편년된다.<sup>25)</sup>

식과 매우 유사하다(도 13).<sup>23)</sup> 관의 중앙에 곧고 길쭉한 입식이 부착되어 있는데 가장자리에는 깃털모양의 표현이 보인다. 입식의 중상부까지는 깃털모양을 수평으로 선처리하였고 상부는 수직에 가깝게 위쪽을 향하게 선처리하였다. 또한 이 입식은 금속제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상부는 둥글고 투조문양이 있다.

통구 麻線溝 1호묘의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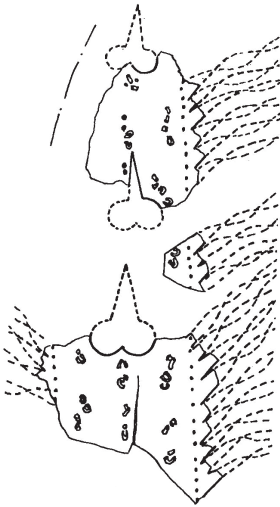


〈도 14〉 麻線溝 1호묘 벽화(尹國有, 2003, 『高句麗壁畫研究』, 吉林大學出版社, 15쪽 도 2-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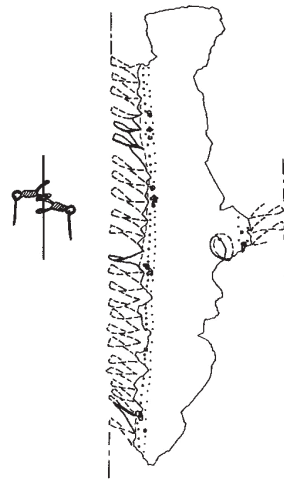
23) 이한상, 2005, 「고구려 금속제 장신구문화의 흐름과 특색」, 『고구려인의 사상과 문화』, 연구총서 4, 고구려연구재단, 103쪽

24) 尹國有, 2003, 『高句麗壁畫研究』, 吉林大學出版社, 15쪽

25) 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 1964, 「吉林輯安麻淺溝一號壁畫墓」, 『考古』 10, 520~



〈도 15〉 金鈴塚 출토 관식(申大坤, 1997, 앞의 논문, 77쪽 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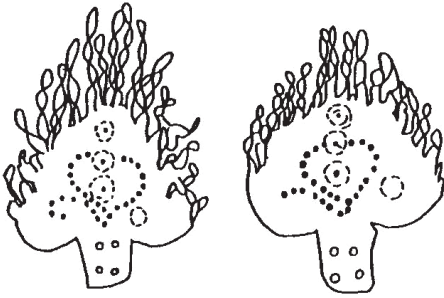


〈도 16〉 飛山洞37호분 2石室 출토 금동제 관식(威舜燮, 1995, 「大邱 飛山洞37號墳 2石室 出土 冠」, 『古代研究』 4, 86쪽 도 1-3)

개마총, 마선구 1호묘의 인물상의 관식 중 정면 입식의 정상부가 둥글고 가장자리를 따라 선처리되어 있는 것은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입식 중 꽃봉오리를 정상에 가지는 장식과 전체적인 형태와 가장자리 처리 방식이 서로 유사하다.

고구려 관식 혹은 입식의 가장자리를 자르고 꼬은 제작기법은 의성 탐리제 I 묘곽 출토 금동관(도 7), 皇南大塚 南墳 출토 금동관과 은관(도 12), 金鈴塚 출토 관식(도 15), 金冠塚 출토 관식, 대구 飛山洞37호분 2石室 출토 금동제 관식(도 16), 傳 충남(부여, 공주 부근)에서 출토된 금제 장식물(도 17) 등 신라와 백제(추정) 관, 관식에서 확인된다.

의성 탐리 출토품은 세 개의 입식의 가장자리를 경사지게 자르고 오른쪽으로 비틀어 꼬았다. 세 개의 입식 정상부에는 간략화된 삼엽문이 투조되어 있어



〈도 17〉 傳 충남 출토 금제 장식물(申大坤, 1997, 앞의 논문, 87쪽 도 6-6)

고구려 관식과 흡사하다.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동관과 은관은 좌, 우에 세운 입식의 外緣을 폭 5mm 정도로 자르고 4~5회 정도 꼬았다. 금령총과 금관총에서 출토된 관식 역시 가장자리를 4~5mm 폭으로 가늘게 자르고 2~3회 정도 비틀어 꼬았다.<sup>26)</sup> 비산

동37호분 2석실의 금동제 입식 1개는 장방형 판의 가장자리를 약 45° 각도로 비스듬하게 잘라 2~3회 정도 꼬아 만들었다.<sup>27)</sup>

傳 충남에서 출토된 금제 장식물 두 개는 1963년 부여, 공주 부근의 고분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진다(도 17). 잔존 높이는 4, 4.3cm이고 넓이는 2.9cm이다.<sup>28)</sup> 전체적으로 꽃봉오리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장자리를 잘라 3회 정도 꼬았다. 아래쪽에는 네 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어떠한 대상물에 부착되게 하였다. 이 순금 장식물은 모양, 제작기법면에서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 입식의 꽃봉오리모양 장식물과 거의 동일하다.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입식 정상에 배치된 장식물은 形을 떠내는 절취기법에서 잘라서 꼬는 切振기법을 채택하였다. 입식의 가장자리를 절렬기법으로 제작한 기법은 고구려적인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고 판을 잘라서 꼬는 기법은 삼국시대 조우형 관식에서 보편적으로 시술된 방법이다. 판을 가늘게 자르기만 하고 꼬지 않은 切斷기법은 절렬기법보다는 간단하고 단순하다.

북연 馮素弗 부인묘에서 출토된 金飾은 판의 가장자리를 일정한 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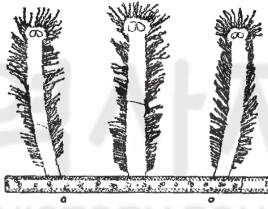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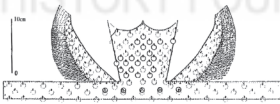


26) 申大坤, 1997, 앞의 논문, 68~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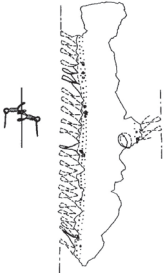
27) 咸舜燮, 1995, 「大邱 飛山洞37號墳 2石室 出土 冠」, 『古代研究』 4, 88쪽

28) 黃壽永, 1964, 「百濟 純金裝飾金具」, 『考古美術』 42, 484~485쪽

〈표 1〉 절렬기법이 확인되는 삼국시대 관과 관식

國家	類型	名稱	圖面
高句麗	壁畫	鎧馬塚 벽화 속 인물상의 정면 입식	
		麻線溝 1호묘 벽화 속 인물상의 정면 입식	
	考古 遺物	傳 집안 출토 관식(遼寧省博物館 소장)	
		德5193 관식(國立中央博物館 소장)	

國家	類型	名稱	圖面
		清巖里土城 부근 출토 금동관	
百濟	考古 遺物	傳 충남 출토 금제 장식물	
新羅	考古 遺物	義城 塔里 第 I 墓槨 출토 금동관 관식	
		皇南大塚 南墳 출토 금동관, 은관 관식	
		金鈴塚 출토 관식	
		金冠塚 출토 관식	

國家	類型	名稱	圖面
		飛山洞37호분 2石室 출토 금동제 관식	

가늘게 잘랐다(도 18).<sup>29)</sup> 풍소불묘는 4세기 후~5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시기에는 금속제 장식물을 잘라서 끼는 기법이 보편적이지 않았다. 풍소불 부인묘 출토 금식과 동일하게 절단기법이 확인되는 예로는 백제 공



〈도 18〉 馮素弗 부인묘 출토 金飾(申大坤, 1997, 앞의 논문, 87쪽 도 6-1)



〈도 19〉 傳 陵山里古墳 출토 金飾(申大坤, 1997, 앞의 논문, 87쪽 도 6-5)

29) 黎瑤渤, 1973, 「遼寧北票縣西官營子北燕馮素弗墓」, 『文物』 3, 9쪽

주 玉龍洞古墳에서 출토된 金飾,<sup>30)</sup> 傳 陵山里古墳 출토 금식(도 19)<sup>31)</sup> 등이 있다.

### 3\_ 文樣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에서 확인되는 문양은 聯珠文, 忍冬唐草文(Palmette), 蓮花文, 三葉文, 變形 忍冬唐草文이 火焰형태를 이루고 있다(도 11, 23). 연주문, 인동당초문, 연화문은 관대에 표현되었고 삼엽문, 변형 인동당초문이 화염형태를 이룬 문양은 입식에 베풀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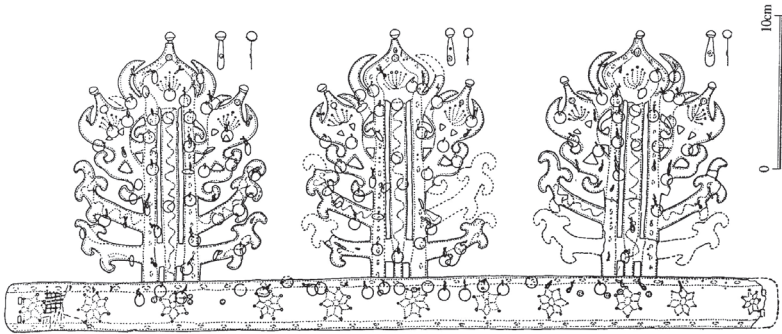
관대에는 6엽의 꽃잎이 둥근 못머리를 중심에 두고서 활짝 피어 있다. 관에서 관대에 표현된 꽃문양은 아프가니스탄 툴리아-테페(Tillya-Tepe) 6호



〈도 20〉 툴리아-테페(Tillya-Tepe) 4호분 출토 박트리아 금관(이승란, 2004, 『신라 금속공예 연구』, 일지사, 287쪽 사진 165)

분에서 출토된 기원후 1세기경의 박트리아 금관에서 확인된다(도 20).<sup>32)</sup> 박트리아 금관에서의 꽃문양은 끝이 뾰족한 6엽이며 중앙에는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이 박혀 있다. 박트리아 금관의 꽃문양은 청암리토성 부근에서 출토된 금동관과는 형태도 다르지만 두 관의 제작연대도

- 30) 國立公州博物館, 1989, 『百濟古墳出土遺物特別展』, 國立公州博物館, 37쪽  
 31)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90, 『博物館』,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創立100周年記念館新築開館圖錄,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25쪽. 傳 宋山里古墳 출토 금식은 형태면에서 傳 陵山里古墳 출토 금식과 동일하지만 일제시기 출판된 책에서 작은 흑백사진만 실려 있어 제작기법은 확인하기 힘들었다. 輕部慈恩, 1946, 『百濟美術』, 寶雲舍, 11쪽 도 25-2, 165쪽  
 32) FREDRIK HIEBERT and PIERRE CAMBON, 2008, "AFGHANISTAN", *NATIONAL GEOGRAPHIC*, 284쪽; 李殷昌, 1982, 「新羅金屬工藝의 原流的인 中央亞細亞文化 - 아프가니스탄 시바르칸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考古學報』 26, 484~485쪽



〈도 21〉 新村里 9號墳 乙棺 출토 금동관(申大坤, 1997, 『羅州 新村里 出土 冠·冠帽 一考』, 『古代研究』 5, 43쪽 도 1)

몇백 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원 양식으로 주목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모델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제작된 유물에서 꽃잎이 피어 있는 꽃들은 일반적으로 연꽃을 표현한 연화문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sup>33)</sup> 청암리토성 부근의 금동관의 꽃문양도 연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관의 관대에 꽃문양을 표현한 예는 전라남도 羅州 新村里 9號乙棺에서 출토된 금동관이 대표적이다(도 21). 6~7엽의 연화문이 모두 11개 배치되었는데, 6~7각형이 되도록 굵은 점을 찍은 후 打出하였다.<sup>34)</sup>

청암리토성 부근 금동관과 신촌리 출토 금동관의 관대에 6엽의 연화문이 배치된 것은 동일하지만 전자는 못을 꼽는 입체의 연화형 못이고 후자는 점열문으로 타출된 연화문으로 관대를 장식한 문양의 기능만 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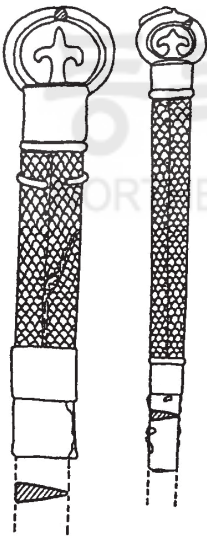
청암리토성 부근 금동관 입식의 아래 공간에는 크고 작은 삼엽문이 배치되

33) 林良一, 1974·1975·1976, 『佛教美術の裝飾文様—④,⑤,⑥,⑦—』 蓮花1,2,3,4, 『佛教藝術』 98·99·104·106, 106~123, 72~92, 92~115, 64~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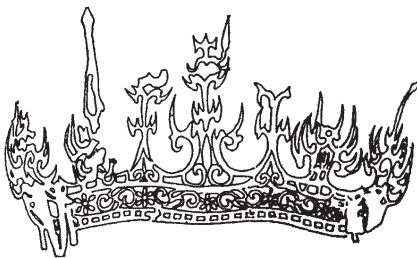
34) 申大坤, 1997, 『羅州 新村里 出土 冠·冠帽 一考』, 『古代研究』 5, 17~20쪽

어 있는데, 삼엽문의 형태는 좌우의 두 잎이 弧線을 그리며 길게 벌어져 끝은 아래를 향하고中间的 잎은 위를 향하여 길게 솟아 있다(도 10). 이러한 형태는 삼엽문이 팔메트화된 삼엽문으로 보인다.

흔히 삼엽문은 인동문(Palmette)과 관련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 한대의 삼엽문은 신선사상의 신비적인 약초인 芝草일 가능성이 많으나 남북조 시대에는 불교미술의 영향으로 Palmette化 되었다고 한다. 사실 팔메트화된 삼엽문은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에서 뿐만 아니라 온강석굴 등의 불교 유적과 유물에서 많이 등장한다. 더욱이 고구려 德5193 관식, 傳 집안 출토 관식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삼국시대 環頭大刀(도 22), 帶金具, 馬具 등 여러 금속용기에도 많이 사용되었다.<sup>35)</sup>



〈도 22〉 新村里 9號墳 乙棺 출토 環頭大刀(具滋奉, 1998, 「三葉環頭大刀에 대하여」, 『科技考古研究』 4, 92쪽 도 2-8)



〈도 23〉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변형 인동문 화염장식(궁성희, 1992, 「삼국시기 금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3, 11쪽 도 1-1)

변형 인동당초문이 화염형태를 이룬 문양은 입식에 표현되어 있다(도 23). 인동당초문은 넝쿨식물이 뻗어나가는 형상을 도안화한 문양인데 연꽃, 구름, 새 등과 결합되어 광범위한 분야의 문양으로 활용되었다. 고구려 벽화에서 표현된 인

35) 崔鍾圭, 1992, 「濟羅耶의 文物交流」, 『百濟研究』 23, 68쪽; 具滋奉, 1998, 「三葉環頭大刀에 대하여」, 『科技考古研究』 4, 69~96쪽

동당초문은 주로 S자 패턴으로 물결문에서 휘감아 뺀어 나온 줄기 끝부분에 4잎으로 구성된 팔메트형 화초문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sup>36)</sup>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관대에는 물결문을 이룬 3엽의 인동당초문이 배치되어 있지만 입식에 표현된 인동당초문은 C자형을 이룬 변형된 3엽의 인동당초문이 불꽃의 모습으로 위를 향해 뺀어 있다. 인동당초문과 화염문이 결합된 예로서 대표적인 유물로는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금제관식이 거론된다(도 24). 5엽의 인동당초문이 불꽃처럼 위로 뺀어 있는 형상은 고구려 통구 四神冢 벽화의 인동당초문과 유사하다.<sup>37)</sup>



〈도 24〉 무령왕릉 출토 왕의 금제관식(국립중앙박물관, 1999, 『백제』, 국립중앙박물관, 122쪽)



〈도 25〉 五灰墳 玄室 북벽의 팔메트와 화염문(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앞의 책, 157쪽 사진 20)

36) 郭東海, 2003, 「高句麗 古墳壁畫의 裝飾文樣 小考」, 『高句麗研究』 16, 532쪽

37) 『百濟武寧王陵』, 1991, 忠清南道·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210쪽

인동당초문과 화염문의 결합은 통구 사신총 벽화 이외에 五盃墳에서도 보이는데 연속된 당초문 내부에 팔메트문양과 화염문이 배치되어 있다(도 25).<sup>38)</sup> 4세기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화염문은 위로 뻗어 삼각형상을 이룬 단순한 형태이고, 이러한 모습은 5세기대까지 지속되었다. 6세기에 접어들면 단순한 삼각형에서 벗어나서 바람에 위를 향해 뻗은 사실적인 불꽃형태로 변화한다.<sup>39)</sup>

전체적으로 C자형을 이룬 화염문이 변형 인동문처럼 몇 가닥의 작은 줄기로 갈라지면서 불꽃형상으로 바람에 날리는 형태는 진파리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투조장식품을 비롯하여 청암리토성 부근에서 발견된 금동광배의 가장자리에서도 확인된다(도 36).

### III. 菩薩像 寶冠과의 비교

#### 1\_ 고구려 보살상의 보관

지금까지 고구려 불교조각상은 남한, 북한에서 발굴되거나 발견되었다. 중국에서 발견된 고구려 불상은 아직 없으며, 집안 長川1호분에 묘사된 禮佛圖와 菩薩像이 유일하다. 북한에서는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도에서 고구려 불상이 출토되었지만 평양시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남한에서는 서울시,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에서 5구 정도가 발견되었다. 한반도에서 출토되거나 발견된 고구려 불상은 총 20여 구 정도이며 대부분 금동제로 6세기에 조성된

38) 李松蘭, 1998, 「高句麗 古墳壁畫의 天上表現에 나타난 火焰文의 意味와 展開」, 『美術史學研究』 220, 25~28쪽

39) 안창현, 2003,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난 장식문양 연구」, 『服飾』 53, 142쪽



것으로 판단된다.<sup>40)</sup>

불교조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살상이 보관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보살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구려 보살상이거나 보살상이 표현된 광배와 불상은 7구 정도이다. 그 현황과 내용을 표로 간략하게 작성하면 표 2와 같다.



〈도 26〉 長川1호분 前室 동벽의 벽화배치도(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앞의 책, 12쪽 도 1)

1985년 집안 국내성에서 출토된 금동불좌상은 당시 중국 학지들에 의해 고구려대로 비정되었지만,<sup>41)</sup> 최근 연구 결과 이 불좌상은 발해 시대의 작품인 것으로 판단되었다.<sup>42)</sup> 長川1호분 前室 동벽에 묘사된 예불도와 남벽, 북벽에 각각 그려진 4보살입상의 벽화는 5세기 초로 편년되며 고구려 초기 불상양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도 26).<sup>43)</sup>

남벽과 북벽의 천장에 묘사된 8구의 보살입상은 供養天人像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지만,<sup>44)</sup> 높고 화려한 보관과 영락 등을 착용하고 있고 연화대좌와 광배가 표현되었기 때문에 보

40) 梁銀景, 2008, 「大陸과 海洋을 품은 高句麗 佛教彫刻」, 『先史와 古代』 28, 75~95쪽

41)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纂, 1991, 『吉林省志』 卷43 文物志, 吉林人民出版社, 60·260쪽

42) 양은경, 2010, 「最近 中國 吉林, 遼寧地域에서 발견된 高句麗, 渤海 金銅佛像에 대한 檢討」, 『부산대학교고고학과 20주년기념논문집』,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75~95쪽

43) 文明大, 1991, 「長川1號墓 佛像禮拜圖壁畫와 佛像의 始原問題」, 『先史와 古代』 창간호, 138~147쪽

44) 溫玉成, 2001, 「集安長川高句麗1號墓의 佛教壁畫」, 『敦煌研究』 1, 64~71쪽



〈도 27〉 太和 22年(498) 吳道興造像  
(李靜傑, 1996, 『早期金銅佛  
의 譜系研究』, 『中國金銅佛』,  
宗教文化出版社, 252쪽 삼  
도 36)



〈도 28〉 洞溝 三室墓 제2실 북도 서쪽 벽의 衛士(吉林  
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吉林集安高句麗墓  
葬報告集』, 科學出版社, 사진 3-3)

살상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 같다. 가슴에서 X자형으로 걸쳐진 瓔珞과 양쪽으로 뾰족하게 뻗친 天衣 옷자락은 5세기 후반의 北魏 보살상과 유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도 27).<sup>45)</sup>

보살상은 콧수염을 가진 남성형 얼굴을 하고 있으며 머리에 착용한 보관은 관대, 입식, 수식으로 구성되었다.<sup>46)</sup> 벽화의 보존상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식, 수식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관대 위쪽의 중앙부에는 타원형의 입식이 배치되었다. 보살상의 보관 중 타원형 입식의 가장자리에는 4엽의 연꽃봉오리

45) 金理那, 1996,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禮耕, 81~85쪽

46) 보관의 관대 양끝에서 아래로 드리워진 것은 寶繪, 冠繪, 寶冠帶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고분에서 출토된 관 명칭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垂飾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장식물이 삽입된 예도 있다. 이 보관의 전체적인 모습은 洞溝 三室墓의 제2실 복도의 동서벽에 그려진 衛士의 보관 형태와 유사하다(도 28).

장천1호분 보살상 보관의 양쪽 끝에는 수식이 드리워져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넓게 퍼진 형태이며 길이는 어깨 정도에까지 이른다. 수식 중에는 보관의 양끝에서 지그재그식으로 뻗치면서 늘어뜨려진 예도 있다. 이 보살상 보관의 전체적인 모습은 북량석탑 속의 보살상, 금탑사석굴 보살상, 북위 금동보살상 등 5세기 중기~6세기 초기까지의 보살상에서도 보인다.<sup>47)</sup> 특히 수식의 끝이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향한 형태는 이란 사산조 왕관의 수식과 유사하다.<sup>48)</sup>

고고유물로서 현존하는 고구려 보살상이 보관을 착용하였는지에 대한 내용과 구성요소, 입식내용, 수식길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고구려 보살상의 보관 유무와 내용

명칭	보관 유무	구성요소			立飾내용	垂飾 길이
		冠帶	立飾	垂飾		
장천1호분 보살입상	有	◎	◎	◎	반원형, 연꽃봉오리	어깨
건흥5년명 금동광배 보살입상	有, 無	◎	◎		불명확	
춘천 출토 금동보살삼존상	有	◎	◎	◎	三花	어깨
보물33호 금동보살입상	有	◎	◎		세 개의 장식	
평천리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有	◎	◎		三山	
원오리사지 출토 소조보살입상	無					
경4년신묘명 금동삼존상	有	◎	◎	◎	三花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금동삼존상	有	◎	◎	◎	불명확	불명확

47) 金申, 1994, 『中國歷代紀年佛像圖典』, 文物出版社, 27~113쪽; 양은경, 2006, 「甘肅省 金塔寺石窟의 개착년대와 北涼 불교와의 관계」, 『美術史學』 20, 157~158쪽

48) 보살상의 보관과 사산조 왕관, 중앙아시아 지역 왕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鄭禮京, 1991a, 「韓國半跏思惟像의 編年에 關する一考察(二)-寶冠形式を通して見た(下)」, 『佛教藝術』 197, 64~71쪽을 참고하기 바람.

표 3의 고구려 보살상 중 원오리사지에서 출토된 소조보살입상은 寶髻만을 2층으로 간단하게 올리고 보관을 쓰지 않았다. 이 외의 대다수의 고구려 보살상은 세 개의 장식, 삼산, 삼화 등 세 개의 입식을 가진 보관을 착용하였다.

건흥5년명 금동광배와 경4년명 금동상의 오른쪽 보살입상은 보발이 닭벼슬모양의 鷄冠形을 하고 있고 중심 부분은 보주로 장식되었는데(도 29), 이러한 머리모양은 중국 산둥지역 동위대 보살상에서 발견된다.<sup>49)</sup>



〈도 29〉 景4年銘 금동상(곽동석, 2000, 『KOREAN ART BOOK-금동불』, 예경, 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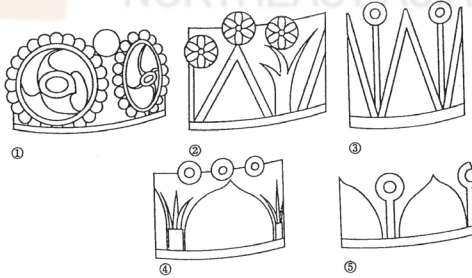
〈도 30〉 平川里 출토 금동반가상(문화재청, 2007, 『한국의 국보-회화/조각』,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단, 195쪽)

49) 최성은, 2007, 「고구려 불상과 산둥지역의 북위 말~동위 불상」,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둥 불상』, 동북아역사재단, 70쪽

경4년명 금동상의 왼쪽 보살입상과 춘천 출토 금동보살삼존상의 본존 보살상은 관대 중앙의 삼각형 장식 위쪽과 좌우에 둥근 꽃이 달린 삼화보관을 착용하였다. 이 보관의 관대 좌우에는 수식이 드리워져 있다. 삼화관은 백제, 신라 보살상에서도 많이 보이는 보관 형태인데 부여 군수리사지 목탑지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상, 순흥 속수사지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삼화관은 기원처가 인도 굽타 계통의 관으로 비정되고 있다.<sup>50)</sup>

평천리 출토 금동반가상은 세 개의 간단한 반월형의 입식을 山형태로 표현한 삼산관을 쓰고 있는데 수식은 표현되지 않았다(도 30). 이러한 삼산관은 국보 83호 금동반가상도 착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보살상은 세 개의 산형 입식 사이사이에 수목형태의 입식을 배치한 예도 있다. 삼산관은 세 개의 원형 입식을 세운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삼각형을 이룬 후 산자형을 형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인도 굽타계통의 보관이 중국화된 것이다(도 31).<sup>51)</sup>

현존하는 고구려 보살상의 유존 예가 적을 뿐 아니라 30cm 이하의 크기와 금동이라는 재질상의 제약으로 인해 보살상의 보관은 구체적이고 정교하지 못



(도 31) 중국에서의 三山冠 성립과정(鄭禮京, 1991, 『韓國半跏思惟像の編年に関する一考察(一)-寶冠形式を通して見た(上)』, 『佛敎藝術』 194, 87쪽 도 11)

하다. 실제 착용한 금동관, 관식과는 달리 고구려 보살상의 보관은 인도 계통의 관 혹은 사산조 페르시아 관과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금동제 고구려 보살상이 착용한 보관의 관대에서는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품의 관대에 꽃혀 있었던 연꽃모양의 꽃이 표현되지 않았다.

50) 鄭禮京, 1991b, 『韓國半跏思惟像の編年に関する一考察(一)-寶冠形式を通して見た(上)』, 『佛敎藝術』 194, 92~101쪽

51) 鄭禮京, 1991b, 앞의 논문, 79~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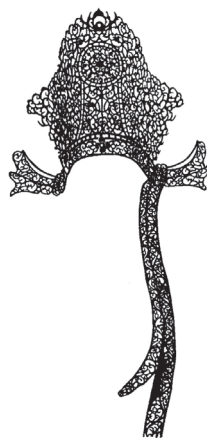
고구려 금동보살상의 관은 구성요소면에서 관대, 입식, 수식으로 구성된 것과 관대, 입식으로 이루어진 예가 모두 존재한다. 금동보살상 관의 입식의 문양은 삼산, 삼화, 반원형 등인데 이러한 내용은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품의 화염문, 변형 인동문의 화염문 등의 내용과는 다르다. 또한 금동보살상의 입식의 숫자는 세 개가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청암리토성 출토품의 아홉 개와는 차이가 있다. 금동보살상의 수식의 전체적인 형태는 청암리토성 출토품과 유사하지만 리본형태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 2\_ 日本 法隆寺 소장 보살상의 보관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관대에 배치된 연꽃모양의 못은 일본 법륭사에 소장된 救世觀音像, 百濟觀音像, 天王像 등 목조 불교조각상의 보관 관대에서 보인다. 이러한 동일성은 두 곳의 예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연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도 32〉 法隆寺 百濟觀音菩薩像의 보관(高田良信 監修, 1993, 『百濟觀音—法隆寺』, 小學館, 18쪽)



〈도 33〉 法隆寺 救世觀音菩薩像의 보관(水野敬三郎, 1979, 『夢殿觀音と百濟觀音—飛鳥·白鳳時代の木彫』, 『日本古寺美術全集 2—法隆寺と斑鳩の古寺』, 集英社, 112쪽 도 51)

백제관음보살상(도 32), 구세관음보살상의 보관은 금동제 관대, 입식,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도 33). 관대와 입식은 한 장의 금속판을 이용하여 떼내었고 수식은 별도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금동판 떼내기 기법은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품과 동일하다. 관대, 입식, 수식의 문양들은 모두 투조로 제작되었는데, 이 역시 청암리의 예와 같다. 또한 보관이 통형을 이루면서 불교조각상의 머리에 착용된 것이 아니라 반원형을 이루면서 불교조각상의 머리에 못으로 고정된 것 역시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과 동일하다.

법륜사 夢殿에 봉안되어 있는 구세관음보살상은 관대의 정면 위쪽에는 사다리꼴 장식물, 원형 장식물이 배치되어 있고 보관의 정상에는 日月文이 있다.<sup>52)</sup> 보관의 나머지 부분에는 인동당초문 형태를 가진 C자 혹은 반C자형 문양이 복잡하게 배치되었다. 보관 중앙의 사다리형, 원형 입식 장식물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식물문양 혹은 조익형문양이 배치된 보관은 사산계 속드지역 보관과 유사성이 지적된다.<sup>53)</sup> 구세관음상의 보관은 높고 화려한 三山冠에 속하는데,<sup>54)</sup> 보관에는 보요장식과 푸른색 유리가 장식되어 있어 더욱 복잡하고 번잡하다.

관대에는 인동당초문이 투조로 조각되어 있지만 당초문은 둥근 環형태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 입식과 수식에 배치된 물결무늬모양(波狀)의 인동당초문과는 다르다. 중국에서 물결모양을 이룬 인동당초문의 유행시기는 길었던 것에 비해 환형태를 이룬 인동당초문은 6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sup>55)</sup> 관대에는 푸른색의 둥근 유리가 4엽의 연꽃 안쪽에 배치되어 보관을 고정하는 못으로 사용되었다. 원래 다섯 개의 연꽃모양의 못이 있었던 것으

52) 구세관음상은 백제 성왕을 위하여 위덕왕이 조성하였다는 학설을 문헌기록과의 고찰을 통해 주장한 견해가 있어 흥미롭다. 金相鉉, 1995, 「百濟 威德王의 父王을 위한 追福과 夢殿觀音」, 『韓國古代史研究』 15, 47~75쪽

53) 鄭禮京, 1991a, 앞의 논문, 93~104쪽

54) 東京國立博物館·法隆寺, 1987, 『特別展 百濟觀音』, NHK서비스센터, 102쪽

55) 李延恩, 2002, 『北朝裝飾紋樣研究-5, 6世紀石窟裝飾紋樣的考古學研究』,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博士學位論文, 7~18쪽

로 판단되지만 지금은 세 개만 현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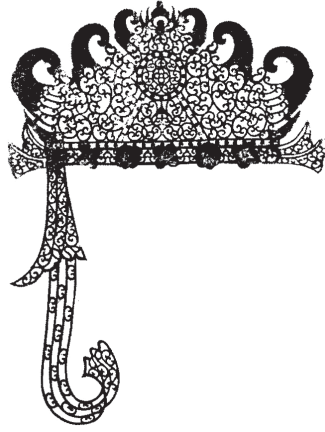
수식은 관대 양쪽에서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데 왼쪽의 수식만이 잔존한다. 수식에도 물결모양을 이룬 인동당초문이 투조로 새겨져 있다. 관대, 입식에서와 동일하게 푸른색의 등근 유리가 박혀 있다. 수식은 두 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끝자락에서 두 가닥으로 나뉘어진다.

법륜사 金堂에 안치된 사천왕상의 보관은 보관의 형태, C자 혹은 반C자형 인동당초문, 환형 인동당초문, 보요 등 전체적인 양식이 구세관음상과 흡사하다(도 34).

일본 학자들은 전체적인 보관의 양식과 제작기법에 기초하여 구세관음의 제작 연대가 가장 이르고 사천왕상, 백제관음의 순서로 제작되었다고 간주한다. 구세관음상은 7세기 전기, 사천왕상은 7세기 중기, 백제관음상은 7세기 중후반으로 비정된다.<sup>56)</sup>

구세관음보살상과 사천왕상의 보관은 관대와 입식이 한 장의 동판으로 떼내어지고 인동당초문이 투조로 새겨진 것은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과 유사하지만 입식의 형태와 보요, 유리구슬의 사용 유무에서는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해 구세관음상, 사천왕상의 보관은 불교 보살상에서 유행한 보관과 더욱 흡사하며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품과는 차이점이 많이 보인다.

법륜사박물관(聖寶館)에 소장되어 있는 백제관음보살상이 머리에 쓰고 있는 보관은 1911년 법륜사 내부의 土藏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sup>57)</sup> 1872년에 촬



〈도 34〉 法隆寺 金堂 四天王像의 보관  
(水野敬三郎, 1979, 앞의 논문,  
112쪽 도 52)

56) 町田甲一, 1970, 「百濟觀音—その様式の飛鳥後期的性格について」, 『國華』 923, 9~17쪽

57) 高田良信, 1987, 「百濟觀音像の傳來と名稱起源の考察」, 『東アジアと日本』 考古美術編, 吉川弘文館; 이 논문은 1993, 『百濟觀音—法隆寺』, 小學館, 94쪽에 다시 수록됨.



〈도 35〉 法隆寺 百濟觀音菩薩像의 보관  
모방작(高田良信 監修, 1993, 앞  
의 책, 44쪽)

35).<sup>59)</sup> 이후 이 보관은 실측도가 작성되었고 각종 저서와 도록집에 백제관음상의 보관으로 오해되어 수록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보관은 현재 백제관음상의 보관과는 다른 별개의 작품이다.<sup>60)</sup>

1941년 이전에 촬영된 보관은 구체적인 조사 결과 백제관음상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sup>61)</sup> 현재 이 보관은 아쉽게도 소실되어 소장처를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 보관은 백제관음상의 보관과 비교하여 구성요소, 형태, 제작기법면에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원래 백제관음상과 동일한 보살상

영된 백제관음상의 사진에는 보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준다. 발견 당시 백제관음상의 보관에 남아 있던 금과 백제관음상의 머리에 잔존한 금의 흔적이 서로 일치하였기 때문에 이 보관을 백제관음상의 보관으로 확신하게 되었다.<sup>58)</sup>

오가와 세이요[小川晴暘]가 1941년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장의 사진 속의 보관은 현재 백제관음상이 착용하고 있는 보관과 거의 동일하지만 관대에 표현된 연꽃의 투조 여부, 연꽃모양의 뿔의 숫자 등에서 차이가 있다(도

58) 倉西裕子, 2006, 『國寶·百濟觀音は誰なのか?—實在したモデルとその素顔』, 小學館, 29쪽

59) 高田良信監修, 1993, 『百濟觀音—法隆寺』, 小學館, 44쪽 사진

60) 水野敬三郎, 1979, 「夢殿觀音と百濟觀音—飛鳥·白鳳時代の木彫」, 『日本古寺美術全集 2—法隆寺と斑鳩の古寺』, 集英社, 112쪽 실측도 53; 郭東錫, 1996, 「高句麗 彫刻의 對日交涉에 關한 研究」,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涉』, 藝耕, 136쪽 도 6

61) 大阪大學大學院 文學研究科의 藤岡 様 교수와의 書信 교환을 통해 小川晴暘이 촬영한 사진 속의 보관이 백제관음상과 관련이 없으며 이후의 조사상황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에 감사드린다.

이 한 구 있었을 것으로 의문을 품게 한다.

백제관음상이 착용한 금동제 보관의 관대와 입식은 한 장의 동판을 사용하여 떼어내었고 수식은 따로 제작하여 꽃모양의 못을 이용하여 서로 결합시켰다. 관대는 아홉 개의 방형으로 구획된 후 안쪽에 6엽의 꽃문양이 배치되었다. 이마 중앙에 위치한 구획 내부의 꽃문양이 가장 크다. 꽃문양의 바깥쪽은 투조로 새겨졌고 중앙, 양쪽 끝단에는 못이 박혀 있다.

못은 4엽의 꽃잎 속에 푸른색 유리로 제작되었다. 세 개의 꽃모양의 못은 보관이 발견된 1911년에 구세관음상의 꽃모양의 못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sup>62)</sup> 백제관음상과 구세관음상의 못은 세 개, 다섯 개의 푸른색 유리를 4엽의 金銅製 꽃잎이 감싸고 있다. 사천왕상의 보관의 못은 다섯 개의 금동제 보관으로 된 4엽의 꽃잎 속에 금동제 못이 박혀 있다.

관대를 장식한 문양을 살펴보면 구세관음상과 사천왕상은 環形 인동당초문이고 백제관음상은 연꽃모양의 꽃문양이다.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의 관대에는 波狀形 인동당초문과 연주문이 배풀어져 있다. 또한 구세관음상과 사천왕상의 보관의 관대는 좌우 양끝에서 두 가닥으로 펼쳐져 있지만 백제관음상과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은 입식이 관대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백제관음상 보관의 관대 위쪽에는 정면과 좌우에 장식물인 입식이 배치되어 있는데 입식의 수가 세 개라고 말할 수 있다. 정면 중앙에는 반원형의 입식 내부에 화불이 표현되어 있다. 주위에는 인동당초문양이 네 줄을 이루며 좌우에서 불꽃형태로 투조되었다. 관대의 양끝단 위쪽에도 인동당초문이 C자형 혹은 반C자형을 이루면서 불꽃형상을 이룬다. 이러한 형태는 무령왕릉 출토 왕의 관식, 청암리토성 부근에서 출토된 금동관의 입식문양 중 변형 인동당초문이 불꽃형상을 이룬 것과 유사하다. 백제관음상의 입식의 숫자와 입식 속의 문양은 구세관음상, 사천왕상과는 다르다.

관대의 양쪽 끝의 아래에는 수식이 드리워져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네 줄로 펼쳐진다. 수식 내부에는 원형, 6엽 꽃문양, C자형, S자형, 다이아몬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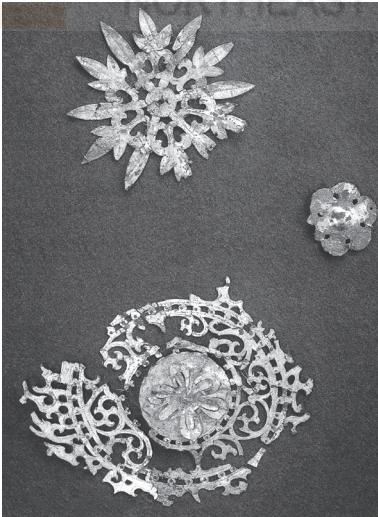
62) 《朝日新聞》, 1997. 8. 10, “百濟觀音のガラス玉明治時代の作でした” 기사 내용

등의 문양들이 투조되었다.

법륜사에 소장되어 있는 백제관음상, 구세관음상, 사천왕상의 보관 중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과 구성요소, 문양이 가장 유사한 예는 백제관음상의 보관이다.

#### IV. 金銅冠의 用途 推定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은 2점이라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관이 반원형을 이루면서 머리에 착용된 점, 수식이 금동제로 제작된 것은 이 금동관의 주인공이 고분 출토 금동관과 달리 비실용적인 유물임을 시사한다. 특히 못으로 보관을 어떠한 대상물에 고정시킨 사실은 사람이 착용한 관이 아니었고 일본 법륜사 소장 백제관음상처럼 못을 꽂을 수 있는 재질의 보살상이었을 가능성을 높게 한다.



(도 36)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장식품(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앞의 책, 262쪽 사진 387)

또한 청암리토성 부근에서는 금동보관과 함께 발견된 투조로 제작된 금동광배편들(도 36), 광배에 쇠줄로 달아 매어져 있었던 금동제 소불상들, 인동문과 花瓣文으로 구성된 투조품, 대좌편으로 추정되는 금동제 장식품<sup>63)</sup> 등은 2점의 금동보관이 불교와 관련된 유물임을 확정시킨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은 2점의 목조 협시보살상의 머리에 착용된 보관이었다

고 추론된다.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 현존하는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고구려 사원 내부의 금당에 봉안된 불상과 보살상의 재료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출토된 고구려 불상을 통해 보면 재질은 금동이 가장 많으며 흙(소조), 돌(활석)이 다음을 차지한다. 소조상은 원오리사지 출토품이 유일하고 석상은 황해도 황주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 불좌상 1구를 제외하고는 알려진 예가 없다. 고구려의 적석총, 산성의 많은 수량과는 달리 돌을 재료로 하여 조성한 불교조각품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sup>64)</sup>

법륜사에 소장되어 오는 목조 보살상들과 사천왕상처럼 일본에서는 7세기 대로 편년되는 불교조각상에서부터 나무 재질이 확인된다. 그러나 나무의 부식과 보존상의 난이한 점으로 인해 중국, 한국에서는 4~7세기대에 해당되는 목조 불교조각상이 현존하는 예는 없다. 중국은 『魏書』 卷114 「釋老志」, 『洛陽伽藍記』, 『高僧傳』, 『法苑珠林』 등의 문헌기록을 통해 당시 사찰 내의 금당에 봉안된 불교조각상의 재료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魏書』 卷114 「釋老志」의 기록에서 북위 수도 평성에는 452년 석상이 만들어지고,<sup>65)</sup> 454년 五級寺에는 태조 이하 다섯 황제를 위해 금동석가입상 5구가 주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66)</sup> 또한 460년부터 운강석굴이 개착되기 시작하였고,<sup>67)</sup> 466년 天宮寺에 금동석가입상이 주조되었다고 한다.<sup>68)</sup>

『洛陽伽藍記』에는 낙양의 최대 사찰인 永寧寺의 금당에는 1장 8척의 금동불 1구와 중간 크기의 금불상 10구, 색실과 진주로 꾸며진 불상 3구, 금실로 만

63) 황옥, 1958, 앞의 논문, 63~66쪽

64) 梁銀景, 2008, 앞의 논문, 87~90쪽

65) 『魏書』 卷114 「釋老志」에는 “詔有司爲石像, 令如帝身. 既成, 顏上足下, 各有黑石, 冥同帝體上下黑子”(中華書局標點本, 1995(中華書局), 3036쪽).

66) “興光元年秋, 敕有司於五級大寺內, 爲太祖已下五帝, 鑄釋迦立像五, 各長一丈六尺, 都用赤金二十五萬斤”(中華書局標點本, 1995(中華書局), 3036쪽).

67) 宿白, 1996, 「雲岡石窟分期試論」, 『中國石窟寺研究』, 文物出版社, 76~77쪽

68) “又於天宮寺, 造釋迦立像, 高四十三尺, 用赤金十萬斤, 黃金六百斤”(中華書局標點本, 1995(中華書局), 3037~3038쪽).

든 불상 5구, 옥불상 2구가 봉안되었다고 한다. 또한 長秋寺에 봉안된 불상은 금과 옥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平等寺의 절 문 밖에는 2장 8척의 금불상 1구와 석불상이 있었다고 전한다.

위의 문헌기록을 통해 북위의 수도 평성과 낙양의 주요 황실사찰에 봉안된 불교조각상의 재료는 금, 금동, 옥, 금실, 색실과 진주, 돌이 확인된다. 제한적인 문헌자료의 내용을 통해 북조 불교조각상의 전체적인 재료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금동, 돌이 주로 사용된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북방에 개착되어 있는 많은 수량의 석굴과 마애불, 금동불상과 석불상은 문헌기록의 내용과 서로 부합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조에서는 나무를 이용하여 불교조각상을 조성한 내용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조의 상황과는 달리 남조의 문헌기록에서는 나무를 재료로 한 불교조각상의 내용들이 많이 확인된다. 문헌기록에서는 단순히 나무(木)로 표기된 것이 아니라 檀像 혹은 梅檀像의 단어가 사용되었고, 건칠은 夾紵로 표기되었다. 단과 전단은 단향목이지만 전단보다 단이 좀 더 고급스러운 단향목이었다.

동진 戴逵(戴安道)가 招隱寺에서 협저상 5구를 조성하였으며 梁代에는 협저구박 丈八像, 陳代에는 10구의 협저상이 定林寺에서 조성되었다. 북방에서도 협저상의 제작은 이루어졌으나 남방에 비해서는 그다지 성행하지 않았다.<sup>69)</sup> 협저불(건칠불)은 灰, 布, 漆을 주된 재료로 하는데 점토나 석고 등으로 原型을 만든 이후 마포를 여러 겹 바르며 이후 원형은 제거하고 다시 옷칠, 채색, 개금으로 마무리하는 제작과정을 거친다.<sup>70)</sup>

남조에서도 황공귀족들이 발원하여 조성한 불교조각상의 재료로 금동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남조 불교부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양 무제가 발원하여 만들었던 불상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무제는 507년 小莊嚴寺에

69) 光森正士·岡田健, 1999, 『佛像彫刻の鑑賞基礎知識』, 至文堂, 116쪽

70) 임석규, 2007, 「한국 乾漆佛像의 광학적 조사현황」, 『한국의 사찰문화재 학술세미나 논문집』,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104쪽

銅無量壽像을 주조하였고,<sup>71)</sup> 509년 光宅寺에 금동무량수상(1장 8척)을 조성하였다.<sup>72)</sup> 大愛敬寺의 龍淵別殿에는 1장 8척의 금동불상,<sup>73)</sup> 동태사에는 正殿에 十方金像과 十方銀像을 봉안하였다.<sup>74)</sup> 그는 350년 荊州(오늘날의 江陵)에 출현한 阿育王金像을 동태사 瑞像殿에 이전하여 봉안하기도 하였다.<sup>75)</sup> 大智度寺에는 1장 8척의 금상,<sup>76)</sup> 궁전 안 重雲殿에 금상과 은상의 불상을 주조하여 안치하였다.<sup>77)</sup>

무제는 금동상 이외에 목제의 단향목 재료를 이용하여 旃檀像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集神州三寶感通錄』 中卷 「梁荊州優填王梅檀像緣」의 “梁高祖. 以天監元年正月八日. 夢檀像入國……帝欲迎請此像. 時決勝將軍郝騫謝文華等八十人應募往達……此中天正像不可乃令三十二匠更刻紫檀人圖一相……至天監十年四月五日. 騫等達於楊都……迎還太極殿”<sup>78)</sup>의 기록을 통해 양 무제는 중천축에서 모사하여 511년 가져온 梅檀 불상을 태극전에 안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建康實錄』 卷17의 기록인 “大通四年又造一丈六尺旃檀像……及

71) “天監六年……於小莊嚴寺造無量寺像長一丈八尺”[『建康實錄』 卷17 「高祖武帝」(1986, 『(景印)文淵閣 四庫全書』 第370冊 史部 128 別史類(臺灣商務印書館), 539쪽].

72) “以梁天監八年五月三日於小莊嚴寺營鑄……其年九月二十六日移像光宅寺”[『高僧傳』 卷13 「梁京師正覺寺釋法悅傳」(『大正新修大藏經』 卷50, 412쪽 下~413쪽 上)].

73) “帝又於寺中龍淵別殿. 造金銅像舉高丈八”[『續高僧傳』 卷1 「梁揚都莊嚴寺金陵沙門釋寶唱傳」(『大正新修大藏經』 卷50, 427쪽 上)].

74) “御講金字摩訶般若波羅密經序” “懺禮栽畢而正殿十方大像忽放光明……俄而左邊十方菩薩像續復放光”[『廣弘明集』 卷19(『大正新修大藏經』 卷52, 237쪽 上)].

75) “永和六年二月八日夜有像現于荊州城北. 長七尺五寸. 合光跣高一丈一尺……中大通四年……至二十三日屈于金陵……勅於同泰寺大殿東北起殿三間兩覆. 施七寶帳座以安瑞像. 又造金銅菩薩二軀”[『集神州三寶感通錄』 中卷 「東晉荊州金像遠降緣」(『大正新修大藏經』 卷52, 415쪽 中~416쪽 上)].

76) “大智度寺……正殿亦造丈八金像”[『續高僧傳』 卷1 「釋寶唱傳」(『大正新修大藏經』 卷50, 427쪽 上)].

77) “梁祖登極之後……又造等身金銀像兩軀. 於重雲殿晨夕禮事. 五十許年”[『法苑珠林』 卷14 「敬佛篇·觀佛部·感應緣」(『大正新修大藏經』 卷53, 389쪽 中)].

78) 『大正新修大藏經』 卷52, 419쪽 中, 下

終成後乃高二丈有二”<sup>79)</sup>를 통해 무제가 530년 아버지를 위해 종산에 건립한 大愛敬寺 中院 正殿에는 2장 2척의 旃檀像이 있었다 한다.

『法苑珠林』卷13 “東晉會稽山陰靈寶寺木像者。微士譙國戴逵所製。逵以中古製像略皆朴拙。至於開敬不足動心。素有潔信。又甚巧思。方欲改斲。威容庶參真極注慮。累年乃得成。遂東夏製像之妙。未之有如上之像也……像今在越州嘉祥寺”<sup>80)</sup>와 『集神州三寶感通錄』卷中 “二十四宋泰始中。東海何敬叔。少而奉法。隨湘州刺史劉韞監縣。遇有梅檀。製以爲像。既就無光。營索甚勤而卒無可獲。馮兒思之。如睡見沙門納衣杖錫來日。檀非可得。僂木不堪”<sup>81)</sup>의 내용을 통해 동진대 회계산 음영보사에 봉안된 木像은 당시 최고의 匠人 대구가 만든 것이었고, 송 태시연간(465~471)에는 전단상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高僧傳』卷10 「齊京師枳園寺沙彌釋法匱」의 “釋法匱，本姓阮，吳興於潛人。少出家，爲京師枳園寺法楷弟子……及勝亡殯葬如法，每齋會得直，聚以造梅檀像。像成自設大會”<sup>82)</sup>와 『國清百錄』卷4의 기록 “梁武帝大同四年戊午禪師一歲父姓陳，開國侯荊州華容人……梁元帝承聖元年，十五歲欲出家，二親不聽。乃刻檀像禮誦一日正拜佛時”에서도 남조 사찰에서 조성된 전단상 혹은 단상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불교미술에서는 북조와의 관련뿐만 아니라 남조의 영향도 확인되기 때문에 남조에서 제작된 목조 불교조각상이 고구려에서도 조성되었다고 추론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고구려 유적과 유물의 재질과는 상이하게 불교 조각상에서는 돌을 사용한 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불상, 목보살상의 제작

79) 1986, 『(景印)文淵閣 四庫全書』第370册 史部 128 別史類, 臺灣商務印書館, 541쪽

80) 『大正新修大藏經』卷53, 386쪽 中

81) 『大正新修大藏經』卷52, 418쪽 下. 이 기록은 『法苑珠林』卷14의 “宋泰始中。東海何敬叔少而奉法。隨湘州刺史劉韞監縣。遇有梅檀製以爲像。既就無光營索甚勤。而卒無可獲。馮兒思之。如睡見沙門納衣杖錫來日。檀非可得僂木不堪”(『大正新修大藏經』卷53, 388쪽 中)에서도 확인된다.

82) 湯用彤 校注, 1996, 『高僧傳』, 中華書局, 391쪽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한다.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은 법륜사에 소장된 목조 보살상과 가장 친연성이 지적되지만 관의 입식 내용과 제작기법은 서로 다르며, 청암리의 보관은 오히려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 관식과 더욱 가깝다. 보살상이 착용한 보관은 그 기원을 인도 혹은 사산조 페르시아 보관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청암리토성 부근에서 출토된 금동관에서처럼 보살상의 보관에서 인도, 페르시아의 요소가 아닌 현지 사람들이 머리에 쓴 관 혹은 관식의 요소가 보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중국 남북조시대 보살의 보관 중에는 입식의 정면에 매미가 새겨진 것이 있다. 1976년 山東省 博興縣 龍興寺 유적지에서 발견된 70여 구의 석불상들 중 보살상 1점에는 보관의 정면 중앙에 매미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도 37).<sup>83)</sup> 산동성 청주시 용화사 유적지에서도 대량의 석불상들이 출토되었는데,<sup>84)</sup> 보살상의 보관 중앙 정면에 매미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보살입상이 발견되었다. 2점의 보살상은 남북조시대 동위, 북제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관의 정면 정중앙에 매미가 표현된 관은 ‘蟬冠’이라고 한다. 선관은 중국에



〈도 37〉 山東省 博興縣 龍興寺 유적지 출토 보살상의 蟬冠(博興縣博物館 안내 책자 표지 사진)

83) 1976년 박흥현 용화사 유적지에서 출토된 불교조각상에 대해서는 常敍政·李少南, 1983, 「山東省博興縣出土一批北朝造像」, 『文物』 7, 38~44쪽을 참고하기 바람.

84) 山東省青州市博物館, 1998, 「山東龍興寺佛教造像窟藏清理簡報」, 『文物』 2, 5~6쪽; 夏名采, 2004, 『青州龍興寺佛教造像窟7藏』, 三聯書店, 7~9쪽

서는 漢代에 출현하였다. 황제의 近臣이었던 侍中 등의 인물이 착용한 최고급의 武冠 혹은 籠冠에는 매미가 부착되고 담비꼬리[貂尾]가 꽂혀졌다. 금판에 표현된 매미는 ‘金璫’이라는 명칭으로서 관식으로 사용되었다. 금당은 오호십육국시대를 거쳐 남북조시대에는 성행하게 되지만 남북조 후기에는 함부로 사용되지 못하게 제한을 받게 되었다.<sup>85)</sup>

고고유물을 통해 보면, 금당은 정상부가 뾰족하고 두 어깨가 둥근 山形을 이루며 매미는 중앙에 표현되었다. 금당은 남성들의 관 이외에도 귀족 여성들의 관에도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6)</sup> 실제 출토된 고고유물에서는 매미가 금판에 새겨져서 관식으로 사용되었는데, 박흥현 용흥사지에서 출토된 보살상의 보관에는 금당은 없고 매미가 보관 중앙에 직접 새겨져 있다.

매미는 청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왔다. 남북조시대 세속귀족의 관식으로 사용된 선관은 불교 보살상의 보관에도 부가되었다. 이는 당시 세속예술과 불교예술의 상호 영향과 융합을 설명하고 있다.<sup>87)</sup>

중국 남북조시대 보살상의 보관 중 당시 귀족들의 선관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있었다면, 고구려에서도 귀족들의 관식의 요소를 보살상의 보관에 새기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 V. 맺음말

구성요소면에서 고구려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은 입식, 관대, 수식으로

85) 孫機, 1993, 「進賢冠與武弁大冠」, 『中國古輿服論叢』, 文物出版社, 136~139쪽

86) 이송란, 2004, 앞의 책, 296~299쪽; 권오영, 2006, 앞의 논문, 34~40쪽

87) 李廣英, 2005, 「蟬冠菩薩像考」, 『四門塔阿閼佛與山東佛像藝術研究』, 中國文史出版社, 257~268쪽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요소는 불교조각상의 보살상과 동일하다. 특히 수식의 길이와 형태는 일본 법륜사에 현존하는 목조 불교조각상과 비슷하다. 불교조각상의 입식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관을 이루지만 청암리의 예는 고구려 금동제 입식을 비롯한 우리나라 삼국시대 금동관의 입식과 동일하게 각각의 독립된 입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암리 출토 금동관의 입식은 아홉 개지만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3~5개의 입식을 가지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차이점이 보인다.

제작기법면에서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은 관식과 입식을 한 장의 금속제 판으로 떼어내고 수식은 별도의 판으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제작기법은 백제관음보살상, 구세관음보살상 등 법륜사 소장 불교조각상과 유사하다. 관대, 입식, 수식의 문양들을 모두 투조로 제작한 것 역시 두 예가 같다. 그러나 청암리의 금동관에서는 고분출토 금동관과 법륜사 구세관음상, 사천왕상의 금동관에 매달린 보요장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몇몇 입식은 앞과 뒤의 2중으로 제작되어 있어 서로 다르다.

청암리토성 금동관의 정상에 배치된 꽃봉오리모양의 장식물은 아래쪽의 입식과는 별도로 만들어져 2매의 못으로 접합되어 있는데, 금령총 금관의 녹각형 입식 중 일부분을 따로 만들어 못으로 접합한 것과 傳 충남 출토 금제 장식물에서 이 기법의 흔적이 확인된다. 특히 이 꽃봉오리모양의 장식물에서는 가장자리를 잘라서 깎는 절렬(切捩)기법이 채택되었다. 이 제작기법은 고구려적인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고 삼국시대 조우형 관식에서도 보편적으로 시술된 방법이다.

문양면에서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에서의 연화문은 못으로 활용되었는데 법륜사 소장 불교조각상의 보관과 같다. 청암리 금동관에서 확인되는 삼엽문은 고구려 금동관식과 동일하고 삼국시대 금속용기에서 확인되는 예와도 유사하다. 청암리 금동관의 문양 중 가장 중요한 변형 인동당초문이 불꽃형태를 이룬 문양은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금동 광배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이 문양은 사신총, 오회분 등 고구려 6세기대 고분벽화를 비롯하여 무령왕릉 왕의 금제관식, 법륜사 백제관음상의 보관에서도 보인다. 당시 보살상의 보관에

서 유행한 문양은 사산 페르시아 계통의 요소와 인도 굽타 계통의 문양이었던 사실과는 달리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에서는 고구려 벽화, 유물의 문양과 동일하였다.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은 2점이라는 사실, 반원형을 이루면서 머리에 착용된 점, 수식이 금동제로 제작된 사실은 사람이 착용한 관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같은 출토장소에서 불교 공예품들이 함께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이 보관 역시 불교유물임을 알려준다. 특히 꽃모양의 못으로 보관을 어떠한 대상물에 고정시킨 사실은 일본 법륜사 소장 백제관음상처럼 목조 보살상이었을 가능성을 높게 한다. 결국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은 2점의 목조 협시 보살상이 머리에 착용한 보관이었다고 추론된다.

이 금동관을 통해 고구려에 목조 보살상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구려 불교조각상에서의 재료의 다양성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 문헌기록을 통해 북조보다는 남조에서 목조 불교조각상이 더욱 많이 조성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고구려와 남조 불교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살상의 보관은 인도, 서아시아 보관이 수용, 발전되었던 것과는 달리 청암리토성 부근 출토 금동관에서는 고구려 귀족들의 관식의 요소가 강하게 확인되었다. 중국 남북조시대 보살상의 蟬冠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보이는데 보살상에서의 현세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 참고문헌

### 〈국문〉

- 고려대학교박물관, 2005,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통천문화사
- 郭東錫, 1996, 「高句麗 彫刻의 對日交涉에 關한 研究」,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藝耕
- 곽동석, 2000, 『KOREAN ART BOOK-금동불』, 예경
- 郭東海, 2003, 「高句麗 古墳壁畫의 裝飾文樣 小考」, 『高句麗研究』 16
- 具滋奉, 1998, 「三葉環頭大刀에 대하여」, 『科技考古研究』 4
- 국립경주박물관, 2001, 『新羅黃金』, 국립경주박물관
- 國立公州博物館, 1989, 『百濟古墳出土遺物特別展』, 國立公州博物館
- 국립중앙박물관, 1999, 『백제』, 국립중앙박물관
- 공성희, 1992, 「삼국시기 금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3
- 권오영, 2006, 「유물과 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의 冠-折風과 蘇骨을 중심으로」, 『고고자료에서 찾은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 연구총서 14, 고구려연구재단
- 金理那, 1996,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禮耕
- 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 金相鉉, 1995, 「百濟 威德王의 父王을 위한 追福과 夢殿觀音」, 『韓國古代史研究』 15
- 文明大, 1991, 「長川1號墓 佛像禮拜圖壁畫와 佛像의 始原問題」, 『先史와 古代』 창간호
- 문화재청, 2007, 『한국의 국보-회화/조각』,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 朴普鉉, 1986, 「樹枝形立華式冠型式分類試論」, 『歷史教育論集』 9
- 朴普鉉, 1996, 「제작기법에서 본 이른바 깃털형 입식 관의 몇가지 문제」, 『碩晤尹容鎮 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 申大坤, 1991, 「高句麗 金屬製 一括遺物の 한 例」, 『考古學誌』 3
- 申大坤, 1997, 「羽毛附冠飾의 始末」, 『考古學誌』 8
- 申大坤, 1997, 「羅州 新村里 出土 冠·冠帽 一考」, 『古代研究』 5
- 안창현, 2003,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난 장식문양 연구」, 『服飾』 53
- 양은경, 2006, 「甘肅省 金塔寺石窟의 개착년대와 北涼 불교와의 관계」, 『美術史學』

- 梁銀景, 2008, 「大陸과 海洋을 품은 高句麗 佛教彫刻」, 『先史와 古代』 28
- 양은경, 2009, 「梁武帝시기 불교사찰, 불교조각과 사회변화」, 『美術史學』 23
- 양은경, 2010, 「最近 中國 吉林, 遼寧地域에서 발견된 高句麗, 渤海 金銅佛像에 대한 檢討」, 『부산대학교고고학과 20주년기념논문집』,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 黎瑤渤, 1973, 「遼寧北票縣西官營子北燕馮素弗墓」, 『文物』 3
- 尹世英, 1980, 「韓國古代冠帽考－三國時代冠帽를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9
- 李松蘭, 1998, 「高句麗 古墳壁畫의 天上表現에 나타난 火焰文의 意味와 展開」, 『美術史學研究』 220
- 이송란, 2004, 『신라 금속공예 연구』, 일지사
- 이은창, 1978, 『韓國古代의 服飾』 고대편, 교양국사총서
- 李殷昌, 1982, 「新羅金屬工藝의 原流的인 中央亞細亞文化－아프가니스탄 시바르칸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考古學報』 26
- 이한상, 2004, 『황금의 나라－신라』, 김영사
- 이한상, 2005, 「고구려 금속제 장신구문화의 흐름과 특색」, 『고구려인의 사상과 문화』, 연구총서 4, 고구려연구재단
- 李浩官, 1981, 「高句麗 工藝－金銅透刻冠을 中心하여」, 『考古美術』 150
-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90, 『博物館』,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創立100周年記念館 新築開館圖錄,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 임석규, 2007, 「한국 乾漆佛像의 광학적 조사현황」, 『한국의 사찰문화재 학술세미나 논문집』,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 장영수, 2010, 「페르시아 사산조 왕관의 연구」, 『服飾』 60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4 고구려편(2)
- 최성은, 2007, 「고구려 불상과 산동지역의 복위 말~동위 불상」,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동 불상』, 동북아역사재단
- 崔鍾圭, 1992, 「濟羅耶의 文物交流」, 『百濟研究』 23
- 咸舜燮, 1995, 「大邱 飛山洞37號墳 2石室 出土 冠」, 『古代研究』 4
- 咸舜燮, 1997, 「小倉 Collection 金製帶冠의 製作技法과 그 系統」, 『古代研究』 5
- 黃壽永, 1964, 「百濟 純金裝飾金具」, 『考古美術』 42
- 황옥, 1958, 「평양《청암리 토성》부근에서 발견된 고구려 금동 유물」, 『문화유산』 5

## 〈일문〉

輕部慈恩, 1946, 『百濟美術』, 寶雲舍

高田良信, 1987, 「百濟觀音像の傳來と名稱起源の考察」, 『東アジアと日本』 考古美術編, 吉川弘文館

高田良信 監修, 1993, 『百濟觀音－法隆寺』, 小學館

光森正士・岡田健, 1999, 『佛像彫刻の鑑賞基礎知識』, 至文堂

東京國立博物館・法隆寺, 1987, 『特別展 百濟觀音』, NHKサビースセンター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水野敬三郎, 1979, 「夢殿觀音と百濟觀音－飛鳥・白鳳時代の木彫」, 『日本古寺美術全集 2－法隆寺と斑鳩の古寺』, 集英社

林良一, 1974・1975・1976, 「佛教美術の裝飾文様－④, ⑤, ⑥, ⑦」 蓮花1, 2, 3, 4, 『佛教藝術』 98・99・104・106

田邊勝美, 1987, 「ナルセー王紋任式浮彫に關する一考察－アナーヒタ女神が王妃か」, 『シルクロード美術論集』, 吉川弘文館

鄭禮京, 1991, 「韓國半跏思惟像の編年に關する一考察(一)－寶冠形式を通して見た(上)」, 『佛教藝術』 194

鄭禮京, 1991, 「韓國半跏思惟像の編年に關する一考察(二)－寶冠形式を通して見た(下)」, 『佛教藝術』 197

町田甲一, 1970, 「百濟觀音－その様式の飛鳥後期的性格について」, 『國華』 923

倉西裕子, 2006, 『國寶・百濟觀音は誰なのか?－實在したモデルとその素顔』, 小學館  
“百濟觀音のガラス玉明治時代の作でした”, 『朝日新聞』, 1997. 8. 10

## 〈중문〉

『建康實錄』 卷17: 『(景印)文淵閣 四庫全書』 第370冊 史部 128 別史類, 臺灣商務印書館, 1986

『高僧傳』 卷13: 『大正新修大藏經』 卷50

『廣弘明集』 卷19: 『大正新修大藏經』 卷5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吉林集安高句麗墓葬報告集』, 科學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4,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 1964, 「吉林輯安麻淺溝一號壁畫墓」, 『考古』 10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纂, 1991, 『吉林省志』 卷43 文物志, 吉林人民出版社

- 金申, 1994, 『中國歷代紀年佛像圖典』, 文物出版社
- 范祥雍 校注, 1999, 『洛陽伽藍記校注』, 上海古籍出版社
- 『法苑珠林』卷14: 『大正新修大藏經』卷53
- 山東省青州市博物館, 1998, 「山東龍興寺佛教造像窯藏清理簡報」, 『文物』2
- 常紱政·李少南, 1983, 「山東省博興縣出土一批北朝造像」, 『文物』7
- 『續高僧傳』卷1: 『大正新修大藏經』卷50
- 孫機, 1993, 「進賢冠與武弁大冠」, 『中國古輿服論叢』, 文物出版社
- 孫仁杰·遲勇·張雪岩, 1993, 「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石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延邊大學出版部
- 宿白, 1996, 「雲岡石窟分期試論」, 『中國石窟寺研究』, 文物出版社
- 溫玉成, 2001, 「集安長川高句麗1號墓的佛教壁畫」, 『敦煌研究』1
- 『魏書』卷114「釋老志」, 中華書局標點本, 1995
- 尹國有, 2003, 『高句麗壁畫研究』, 吉林大學出版社
- 李廣英, 2005, 「蟬冠菩薩像考」, 『四門塔阿閼佛與山東佛像藝術研究』, 中國文史出版社
- 李妍恩, 2002, 『北朝裝飾紋樣研究-5,6世紀石窟裝飾紋樣的考古學研究』,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博士學位論文
- 『集神州三寶感通錄』中卷: 『大正新修大藏經』卷52
- 湯用彤 校注, 1996, 『高僧傳』, 中華書局
- 夏名采, 2004, 『青州龍興寺佛教造像窖藏』, 三聯書店

#### 〈영문〉

- M. Ishiwata, 1987, "Crown with Tree-Shped Ornament", *Bulletin of the Ancient Orient Museum*, Vol. I X

**[ABSTRACT]**The Genealogy and Owner of Gilt Bronze Crowns Excavated  
Near the Cheongam-ri Earthen Fortresses of Koguryo

Yang Eungyeng

The gilt bronze crowns excavated near the Chenongam-ri (清巖里) earthen fortresses of Koguryo consist of a crown ornament, diadem, and pendant, which are similar to the Bodhisattva statue. In particular, the length and form of the pendant resembles that of the wooden statue of the Buddha at Horyuji (法隆寺) temple in Japan. The crown ornaments that decorated the Buddha one crown on the whole, but the Chenongam-ri find consisted of separated crown ornaments each of which can be observed from the crowns made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ncluding the gilt bronze crown of Koguryo.

The production technique of the gilt bronze crowns excavated near the Chenongam-ri earthen fortresses of Koguryo show two different methods: one is the technique of detaching the crown ornament and diadem from one metal board, and the other is the technique of making the pendant with an extra metal board. These production techniques are similar to the Kudara Kannon (百濟觀音像) of Baekje and the Kuse Kannon (救世觀音像) in Horyuji. The flower bud decoration which is arranged on the top of the gilt bronze crown found near the Cheongam-ri earthen fortresses was made by cutting the edges and twisting them. This technique is regarded as the method from Koguryo, and it is the general way to make wing-like decorations such as a diadem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patterns of the gilt bronze crowns excavated near the Chenongam-ri earthen fortresses are the same as the Bodhisattva statue in Horyuji, especially in the application of the lotus design as a nail. The trilobate patterns, which are observed in the gilt bronze crown of Cheongam-ri, are similar to the gilt bronze diadem of Koguryo, and those are also like the ones from metal container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most important patterns in the gilt bronze crown of Cheongam-ri are the flame forms that consist of transformational honeysuckle arabesque patterns, which were adopted in the sixth century, especially for ancient tomb murals in the Four-Gods tomb, the five-helmet shape tomb of Koguryo, the golden diadem in the royal tomb of Baekje, and the crown of the Kudara Kannon at Horyuji.

I infer that two of the gilt bronze crowns excavated near the Chenongam-ri earthen fortresses were crowns for the two wooden Bodhisattvas. The clues that led me to that conclusion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the gilt bronze crowns excavated near the Chenongam-ri earthen fortresses wear is two. They were semicircle in style and were worn on the head. Furthermore, the pendants of the crowns were made of gilt bronze, and they were excavated with various buddhist crafts. Lastly, the fact that using flower-type nails to make the crown fixed to certain objects is similar to the wooden Kudara Kannon of Baekje at Horyuji.

In general, The crowns of the Bodhisattva statue were accepted and developed through influences from India and western Asia, but I confirmed that the gilt bronze crowns excavated near the Chenongam-ri earthen fortresses expressed the components of the Koguryo crown decorations of the aristocratic class. These features can be found in the

Chan crown (蟬冠) of the Bodhisattva statue during the period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in China, and they are convincing clues to confirm the temporal characteristics of the Bodhisattva statue.

#### Keywords

gilt bronze crown, Chenongam-ri earthen fortresses, Koguryo, Horyuji, Baekj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16~17세기 여진의 성장과 요동 변경지대 성격 연구

- 변경지대의 변화를 통해 본 만리장성 동단기점설 비판 -

남의현 |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 I. 머리말

중국은 근세사 역사서술에서 명대의 女眞은 명나라의 屬衛로, 朝鮮은 명나라의 부속국 곧 藩國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이 정의하고 있는 屬衛는 자치성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명나라 강역에 소속된 지방정권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것은 명대 사료에 外夷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여진 지역을 일종의 명나라의 강역으로, 여진을 명에 종속된 세력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조선에 대해서는 ‘事大之誠’의 개념을 도입하여 명나라 곧 중주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독립된 국가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진과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향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명조와 여진의 관계는 정식적 관계로, 조선과 여진의 관계는 비정식적 관계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것은 여진이 초기부터 명과 조선을 상대로 외교관계를 지속하였지만,

※ 투고일: 2011년 6월 25일, 심사일: 2011년 8월 17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23일

명·여진의 관계와 조선·여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중국의 주장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조선, 여진, 명 3세력 사이에 놓인 변경지대를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됨으로써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변경이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처럼 여진에 대한 왜곡된 중국의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6~17세기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 여진의 역동적인 변화, 조선과 여진의 접경지역 상황분석을 해 보아야 한다.

16세기 여진은 만주 지역의 海西女眞에 해당하는 扈倫 4部(哈達, 輝發, 烏拉, 葉赫) 등 세 세력을 建州女眞 중심으로 통합하며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두만강 유역에서 조선의 울타리 역할을 하던 수천 호의 여진인들 곧 藩胡들은 조선으로부터 이탈하여 建州女眞으로 통합되어 흡수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다. 16세기 초까지만 해도 조선의 울타리 역할을 하던 여진족 藩胡들이 부락 8,000여 호를 구성하여 최소 4~5만의 인구를 유지하는 등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그 발전단계로 보면, 야만의 단계도 아니었고 순수한 유목·수렵민도 아닌 농경민으로써 정착생활을 하며 발전된 농업사회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여진의 성장은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 명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었음을 말해 주며 16세기 후기 명의 요동 방어선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여진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명대 요동변장을 만리장성으로 규정하고 장성의 동단기점을 압록강변의 호산산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6세기 명나라는 요동에 견고한 벽돌장성을 축조하기 힘든 대내외적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고 여진을 견제하는 데 한계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6세기 여진의 역동적인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북방의 몽고와 동쪽의 여진을 방어하려 한 명대 요동변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조그만 전초기지 중심의 성보였으며 결코 산해관과 같은 만리장성이 될 수 없었음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명대 만리장성 동단기점이 압록강이라는 주장의 진위문제는 여진의 발전을 배제하고 그 자체적으로 고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만리장성 동단기점설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숨어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우선

만리장성 동단기점을 압록강 虎山山城으로 고착화시킴으로써 요동도사가 명대 요동을 방어하는 견고하고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나아가 요동도사가 요동팔참 지역을 명의 강역으로, 압록강을 명과 조선의 국경선으로 고착화하려는 목적이 있다.<sup>1)</sup> 遼東都司의 안정된 지배는 다시 奴兒干都司의 진출로 두만강 유역을 명이 지배했다는 것과 연결되어 여진 지역은 명의 강역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은 조선과 명의 국경선이 된다는 중국의 주장과 연결된다. 이것은 요동사에서 보자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성장한 국가와 정권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은 적이 없다는 기존 중국 중심의 역사서술을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진의 성장과 명 요동 지배력의 약화라는 시각에서 명대 만리장성 압록강 동단기점설의 허구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中朝邊界史』와 같은 중국의 저작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정권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지 못한 것으로, 여진은 명나라의 종속세력이라는 시각에서 강역사를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sup>2)</sup> 이로써 조선의 사신이 압록강을 넘는 순간 명과 조선 사이에 존재하던 국경지대는 사라지고 명나라의 강역이 시작된다. 또한 조선이 두만강을 넘으면 명의 강역이자 명에 종속된 여진 지역으로 입경하는 것이 됨으로써 명나라 중심의 역사서술에 종속되며 여진은 후금 건국 전까지 명의 강역에 사는 소수민족이 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16~17세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우선 16세기 여진의 성장과 통일과정, 그에 대응하는 명나라 변경정책

- 1) 현재 중국은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을 山海關에서 鴨綠江으로 변경하고 벽돌성의 흔적이 없던 鴨綠江에 虎山山城이라는 호화로운 거대한 벽돌 성벽을 수축하여 고구려 석성을 벽돌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이라는 거대한 꽃말과 간판을 세우고 크고 작은 홍보물을 유포함으로써 세계인들의 관광지로 만들고 있다.
- 2) 楊昭全 외, 1993, 『中朝邊界史』, 吉林文史出版社. 이 저서는 고대 중국의 영향력을 漢나라 시기에는 청천강, 한4군 시기에는 조선반도 중북부, 唐나라 시기에는 한강이나 대동강, 金나라 시기에는 압록강, 元나라 시기에는 철령, 명나라 시기에는 압록~두만강으로 그 강역을 설정함으로써 중국 중심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대표적인 강역 관련 연구서이다.

의 한계를 분석해 명대 장성의 동단기점 鴨綠江說의 허구성을 밝혀내 중국의 왜곡된 관점을 바로잡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었다.<sup>3)</sup>

일반적으로 본 논문과 관련된 16~17세기의 연구는 명청교체기 여진의 성장, 이로 인한 조선·명관계의 동요, 조선과 후금관계의 재정립, 명 요동지배의 와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魏志江의 『中韓關係史研究』(中山大學出版社, 2006)와 「論後金努爾哈赤正權與朝鮮王朝的交涉及其影響」(民族研究, 2008. 2)은 명과 조선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후금에 초점을 둔 연구로 蘭立新의 「簡述後金與明朝關係的逐步演變」(『滿族研究』, 1997. 1)을 언급할 수 있는데, 누르하치의 建州女眞 통합과정 시기부터 북경 함락까지 넓은 시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조선과 후금의 관계와 관련하여 선진적인 연구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김선민의 「명말 요동 변경 지역을 둘러싼 명·후금·조선의 삼각관계」(『중국사연구』 55집, 중국사학회, 2008), 노기식의 「명대 몽골과 만주의 교체」(『사총』 59, 2004), 「임진왜란과 누르하치」(『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소나무, 2007) 계승범의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재와 그 성격」(『역사학보』 제193집, 역사학회, 2007), 한명기의 『임진왜란과 한중관계』(역사비평사, 199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푸른역사, 2009)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연구성과로는 周遠廉의 『清朝開國史研究』(遼寧人民, 1981), 趙鐸의 『清開國經濟發展史』(遼寧人民, 1992), 『中國東北史』(3·4권, 吉林文史, 1998)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시각으로 16~17세기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

3) 명대 만리장성의 대대적인 수축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개방과 폐쇄, 海禁과 冒險, 收縮과 膨脹, 專權과 民權, 王朝와 近代國家, 重農과 重商, 被動과 主動의 시대로 정의해 보면 세계사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고립된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영락제 이후 이러한 수동적·고립적·폐쇄적 15세기 명의 변경 정책은 16세기에도 세계사적·해양사적 개방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였는데 몽골과 여진을 방어하기 위한 장성수축사업도 그러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의 연구성과들은 여진 지역을 명의 변경, 중국 강역으로서의 변경으로 접근하여 중국 중심적 시각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결여되어 있다.

특히 여진의 성장과 명 북방정책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만리장성이 압록강에서 시작된다는 동단기점설은 설득력이 없다. 중국에서 동단기점설이 1990년대 발표된 이래 정식으로 논문을 통해 그 상황을 치밀하게 정확하게 분석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인 저술로는 景愛의 『中國長城史』(上海人民出版社, 2006), 劉謙의 『明遼東鎮長城及防禦考』(文物出版社, 1989) 등을 들 수 있는데, 실제 벽돌로 된 그리고 연결된 요동변장을 고증하고 있지는 못하다.<sup>4)</sup>

중국이 압록강 동단기점설과 같은 변경과 강역의 문제를 이론화하고 정형화시켜 가는 과정과 목적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명대 요동경영의 핵심인 遼東都司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遼東邊牆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과대평가하여 요동도사가 전 요동 지역을 지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는 여진 지역을 명나라의 강역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遼東邊牆 바깥에 존재하는 길림과 흑룡강 지역이 명의 판도였다는 것으로 그리고 이에서 더 확대하여 명대 요동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던 여진세력을 명왕조의 기미체제에 종속된 번속세력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더구나 이전 몽골제국을 명나라가 계승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며 전 요동 지역은 元 제국의 판도였으므로 명이 이 지역에 대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의 주장대로 만리장성 동단기점이 압록강이 된다면, 그리고 여진 지역 역시 명나라의 강역이 된다면, 한국사의 관점에서 조선시대 압록강은 자연스럽게 조선과 명의 경계가 됨으로써 조선과 명 사이에 수백 년간 놓여 있던 변경지대는 명의 강역이 될 수밖에 없다.<sup>5)</sup>

4) 이 외에도 朱耀廷의 『古代長城, 戰爭與和平的紐帶』(遼寧師範大學出版社, 1996), 華夏子の 『明長城考實』(檔案出版社, 1988), 遼寧省長城學會의 『遼寧長城』(1998), 佟冬 主編의 『中國東北史』(吉林文史出版社 1998) 등을 들 수 있다.

5) 南義鉉, 2004, 「明前期 遼東都司와 遼東八站 占據」, 『明清史研究』 21집

변경지대로서의 요동을 16세기 여진의 성장과 압록강 유역 성보에 관한 미시적인 접근과 분석을 통해 장성의 동단기점이 압록강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동시에 재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를 보충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에 대한 비판과 再考, ② 조선과 명 사이의 두만강·압록강 경계설의 모순에 대한 대응이론 설정, ③ 전통시대 국경선과 국경지대의 설정과 의미 ④ 요동도사의 기능과 성격에 대한 재평가, ⑤ 명과 여진 종속관계의 재검토, ⑥ 명대 강역 범위의 재설정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실마리 제공, ⑦ 16세기 변경지대의 특징과 여진 사회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16세기 建州部の 動向

建州部는 두만강 유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었으나 14~15세기경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여 渾河 유역으로 이동해 왔다. 흔히 지금의 渾江인데, 혼강은 백두산 서쪽에서 발원하여 동류하다가 桓仁을 거쳐 압록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따라서 渾河 유역은 서쪽으로는 요동도사와 가깝고, 동남쪽으로는 조선을 마주하는 위치에 있다. 成化年間 건주여진은 혼강 유역에 거주하다가 朝鮮과 明의 협공으로 타격을 받아 요동도사의 방어선에 너무 근접할 수도 없었고 조선의 변경에도 접근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成化年間 이후 여진의 거주지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우선 15세기 중엽 건주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劉得吉이 당시 건주위의 위치를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劉得吉은 압록강변 義州에 살다가 1461년(세조 7)에 建州衛 李古赤 등 80여 명의 군사에게 사로잡혔고 10일 후 愁愁厚에 사는 修答馬赤의 집에 이르러 노예가 되었다. 그 후 7년 후 산에 들어가 산삼을 캐다가 도망하였는데, 그가 조선에 전

한 정보는 다음과 같았다.

① 佟答馬赤의 酋長은 充尙인데, 금년에 휘하 520인을 거느리고 명나라에 入朝하였다가 모두 죽었고 살아남은 자는 겨우 50여 인이었다.

② 지난해에 명나라의 군사와 우리나라의 군사가 협공한 뒤에, 야인들은 우리나라 군사와 명의 군사를 두려워하고 있다.

③ 매양 약탈을 시도할 때는 火刺濫兀狄哈의 甫乙可土와 甫乙可大, 建州衛의 羅夏 그리고 李古赤 등과 더불어 군사 연합을 시도하였다.

④ 佟他麻赤의 집은 동쪽으로 李滿住 部落과 거리가 3일 路程이고, 북쪽으로 火刺濫兀狄哈 지방과 거리가 5일 노정이고 남쪽으로 義州와 거리가 10일 노정이며, 서남쪽으로 요동과 거리가 6일 노정이다.<sup>6)</sup>

이것을 보면 조선 義州와 당시 建州女眞의 거리가 대략 '10日程' 떨어져 있고, 서남쪽의 요동과는 대략 '6日程'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쪽 火刺濫兀狄哈와는 '5日程'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程'의 개념을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1程'은 50鮮里이며 1鮮은 대략 400미터 정도이다. 그렇다면 건주좌위는 의주와 대략 400여 리, 서남의 요동과는 240여 리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현재 지도의 거리와 비교해 보면 조선의 의주에서 渾河까지의 거리는 대략 350여 리 전후가 나오며 요양에서 동쪽의 渾河는 240여 리가 나온다. 이것은 劉得吉의 보고가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으로 본다면 당시 혼하 유역의 중심이던 桓仁과 新賓(현재의 신빈 滿族自治縣)을 중심으로 건주좌위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과 명의 협공을 받은 이후 1478년(성화 14) 5월 여진의 일파는 초기 거주지인 두만강 會寧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롭게 조선과 접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이를 거절하였다.<sup>7)</sup>

6) 『朝鮮王朝實錄』睿宗 卷2, 卽位年 11月 癸亥

7) 『朝鮮王朝實錄』成宗 卷92, 9年 5月 乙亥. 기록을 살펴보면, 愁州에 거주하는 兀良哈의 柳尙同哈이 와서 말하기를, 韓朶里的 甫乙加大 등 10인이 군사 1천여 騎를 거느리고 遼東에서 도둑질하며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 군사가 돌아올 때에 중국 군사 5만여 명이 찾아 쫓아왔으며, 그날 밤에 협격을 당하여 여진 군사가 모두 피살

이러한 조선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비교적 토지가 비옥하고 명의 압력을 받지 않던 압록강변이 새로운 여진의 이동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平安道節度使 李克均의 치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野人 金劉里介가 부락 사람을 거느리고 皇城 들에 옮겨 살면서 조선의 울타리가 될 의사가 있음을 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우선 황성이 비록 邊鎮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저들이 와서 살면서 울타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거주를 금하면 그 귀순하는 마음을 막게 되고 금하지 않으면 많은 종족이 섞여 살게 되어 상호간에 갈등이 쉽게 생기는 우환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김유리개가 황성에 옮겨 살면서 우리의 허실을 엿보고 도둑질하여 장차 혐의와 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단코 허락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의견도 제기되었다.<sup>8)</sup>

근경에 처한 建州女眞 管內的 童約沙 등은 滿浦江 바깥 지역에 와서 거주하며 조선의 경고를 무시하고 집을 짓고 밭을 갈면서 떠나가지 않았다.<sup>9)</sup> 오히려 建州女眞은 조선에 조공을 표시하며 우선 생존의 방책으로 조선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연산군대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종합해 보면 건주3위의 동향과 위치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三衛敬差官 童淸禮 등이 승정원에 나와서 그 노정을 보고한 것을 근거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교지를 받들고 滿浦에 이르러 강을 건너 강변에서 2息쯤 되는 三岐峴에 당도하여 휴식, ② 10월 초1일에는 弓知岫을 넘어 朴古伊에 당도하여 숙박하였는데, 삼기현과의 거리는 1息 반쯤, ③ 초2일에 白礮巖 앞길을 경유하여 蒲州 강변에 도착, ④ 3일 첫새벽에 포주강을 건너 3, 4리를 가서 李加乙豆의 집에 도착, 구경하

되고, 오직 10여 인만 겨우 蒲州 방면으로 몸을 빠져 나왔다. 그리고 妻子를 이끌고 東良北과 無乙界 등지로 옮겨와 살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에 조선의 韓明澮·沈澮·尹士昕 등은 보을가대 등이 그들의 본토가 불안하여 동량북 등지로 와 살려고 하나 조선에 이롭지 않으므로 변경에 마음대로 살기를 허락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8) 『朝鮮王朝實錄』成宗 卷154, 14年 5月 辛丑

9) 『朝鮮王朝實錄』成宗 卷241, 21年 6月 戊子

는 남녀노소가 무려 200여 명이었음, ⑤ 초5일에는 달한과 신이 함께 금산적 하가 사는 마을의 추장 王夫里介의 집에 도착, 이튿날은 그대로 부리개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눈이 많이 쌓여 길이 막히면 돌아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부리개의 아들 등도 제때에 돌아오기가 어렵겠으므로 신은 8일에 回程하면서 달한과 작별, 달한이 사는 마을은 이곳에서 북쪽으로 2息쯤 되는 곳에 있으며, 左衛는 여기서 서쪽으로 2息쯤 되는 곳에 있고, 우위는 여기서 8, 9일 정도의 길이 되는 곳에 있음.<sup>10)</sup>

이상에서 언급한 동청례의 노정 속에서 건주위의 거주지가 대략 파악되고 있으며, 그곳에 건주추장 이달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료에 나타나는 만포는 지금의 북한 만포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압록강을 건너면 지금의 길림성 집안시이며, 이곳에서 포주강 곧 지금의 혼강까지는 5식반이다. 1식은 鮮里로 30리이므로 5식반은 대체로 165鮮里, 1鮮里는 대략 400미터이므로, 대략 132리라는 계산이 된다. 건주좌위는 왕가의 집에서 서쪽 2息의 거리이므로 48리 밖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건주우위는 이곳에서 8일정에 있었으므로 대략 320~360리 밖에 위치한 것이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5세기 건주 3위는 혼하를 중심으로 매우 넓은 지역에 크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건주 위는 혼하 유역 부근에, 건주좌위는 혼하 상류에서 동쪽 富爾江 방면으로 형성되었고, 건주우위는 혼강을 중심으로 서쪽 蘇子河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누르하치가 권력을 집중하기 전까지 건주 3위의 형태로 혼하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sup>11)</sup>

16세기 중기에 들어서면서 조선과 여진, 명과 여진이 큰 충돌이 없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진이 혼강을 중심으로 충분히 세력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과정은 생산력 이외에 곧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인구증가의 요인은 자생적인 생산력 발전과 북부 여진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10) 『朝鮮王朝實錄』燕山 卷19, 2年 11月 甲辰

11) 『明武宗實錄』正德 13年 正月 癸卯

있다.

이러한 여진의 성장시기 16세기 명의 요동도사는 위소제도의 폐해와 이로 인한 衛所兵의 도망, 屯田의 와해 등 그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진에 대한 군사적 통제력이 오히려 약화되어가던 시기였다. 1532년 건주세력이 요동도사의 중요 관문이자 조선 사행로인 봉황성을 공격하여 守備 李漢, 指揮 修恩 등을 죽이고 약탈을 시도한 것은 당시 이러한 명나라의 변경 방어력의 약화와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544년(가정 23)에는 여진의 李撒哈赤 등이 800여 군사를 이끌고 역시 요동도사의 중요한 관문에 해당하는 鵝鵬關 등을 침입하여 명나라 군사 80여 명을 죽이고 160여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sup>12)</sup>

16세기 중엽 이후 건주여진은 명의 변경을 약탈하는 동시에 서서히 그 추진력을 더해가고 있었다. 16세기에 이르자 王昊, 鵝頭, 忙子勝, 兀堂, 李奴才 등의 건주 추장들은 海西女眞과 각축을 벌였다. 당시 이들 해서의 추장들은 蘇克蘇許河, 渾河, 棟鄂, 折陳 등의 5부를 나누어 통솔해 나가고 있었다. 이들 5부는 대부분 海西女眞에 속한 여진세력으로 이들을 건주의 추장들이 나누어 관할했다는 것은 16세기 건주의 영향력이 일부 海西女眞에게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王昊는 16세기 건주부의 강성함을 알리는 강력한 추장이었다.<sup>14)</sup> 1562년(가정 41) 王昊 등은 요동도사의 동쪽 방어선인 東州堡와 撫順 등 여러 차례 요동 동부 요충지를 공격하였다.<sup>15)</sup> 또한 1572년(용경 6), 1574년(만력 2)에도 여섯 차례 요동을 공격하였다. 물론 당시 요동총병관 李成梁의 전략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16세기에 여진의 요동동부 변경에 대한 공격이 날로 강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왕고 이후에는 다시 王兀堂이 동부 변장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1580년

12) 『明世宗實錄』嘉靖 23年 5月 丙午

13) 王臻, 2005, 『朝鮮前期與明建州女眞關係研究』, 中國文史出版社, 133쪽

14) 趙維和, 1999, 「試論建州右衛王昊」, 『滿族研究』1999年 第1期

15) 『明世宗實錄』嘉靖 41年 5月 庚寅

(만력 8) 永尊堡를 공격하였다. 이에 명나라의 李成梁이 그들을 공략하여 750여 명을 참수하고 160여 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 다시 王兀堂은 寬甸堡와 그 인근을 침략하였으나 부총병 요대절의 선방으로 여진인 67인이 참수되고 11명이 사로잡혔다. 이후 1582년(만력 10)에도 여진인의 공격에 맞서 여진인 1천여 명을 사로잡거나 참수하는 전과를 올렸다. 당시 여진 세력이 요동도사에 치명적인 공격은 가하지 못하였으나 중요한 사실은 이전의 어느 시대 보다 요동에 대한 공격이 가속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후에 누르하치가 등장하는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Ⅲ. 누르하치의 등장과 建州部の 통일과 팽창

건주부의 통일과정은 일반적으로 누르하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 시기인 1583(만력 11)~1589년(만력 17)의 7년은 建州女眞의 통합과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만력 11년 누르하치는 薩爾滸, 嘉木湖 등의 城寨와 연맹을 결성하는 것을 시점으로 부락을 통합해 나갔다. 1585년(만력 13)에는 薩爾滸城의 추장이던 界凡, 東家, 八兒答의 3추장을 대패시키고 蘇克蘇滸河部가 자리 잡고 있던 부락을 통합시켜 나갔다.<sup>16)</sup> 당시 蘇克蘇滸河部는 건주 세력 중 비교적 강대한 세력으로 寧古塔 6王이 이들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통합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1586년에는 누르하치에게 대항하며 소자하 하류에 자리 잡고 있던 折陳部の 托漠河城을 공격하여 그들을 대패시키고 1587년 완전히 정복하였다. 그리고 당시 파저강 유역에는 棟鄂部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동악부는 1584년 누르하치와 哈達部 사이에 모순이 격화된 틈을 이용하여 누르하치를 공격하고 있

16) 王臻, 2005, 앞의 책, 136쪽



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누르하치가 1584년 혼하부의 兆佳城, 1586년에 播一混城, 1587년에 八兒答城 등을 함락하면서 1589년에 마침내 혼하부를 통합하였다.

7년 동안의 내부 전쟁은 누르하치의 세력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성장은 명과 조선을 상대로 통호를 요구하고 사신을 파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나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시 그들의 특산품이던 인삼, 모피 등을 매개로 마시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16세기 건주부의 통합과정은 누르하치 통일전쟁과 성장의 서막이 되었다.

누르하치는 다시 海西女眞 扈倫 4부의 통일에 박차를 가하였다. 호룬 4부는 건주 북부에 자리 잡고 있던 海西女眞의 일파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건주 북부에서 가장 비옥한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비교적 좋은 농업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인삼, 모피 등을 이용해 명나라와 비교적 많은 교류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건주부가 통일된 후 누르하치의 통합 목표는 자연스럽게 海西女眞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호룬 4부 중 누르하치의 초기 목표가 된 것은 哈達部和 輝發部였다.

16세기 중엽 1551년(가정30) 王台가 哈達部の 추장이 된 이후 海西女眞은 성장세에 있었는데<sup>18)</sup> 나머지 3부인 葉赫, 烏拉, 輝發이 그에게 복종할 정도였으며 명나라도 그들을 ‘東夷長’으로 삼을 정도였다.<sup>19)</sup> 1582년 王台 사후 哈達部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3세력은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sup>20)</sup>

당시 건주의 일부세력이 누르하치를 등지고 哈達部の 歹商에게 투항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누르하치가 공격을 시도했다. 이것이 누르하치의 海西女眞에 대한 1차 공격이 되었다. 당시 명나라는 歹商을 지지하였고 건주에서 투항해온 건주인 장해를 추방하도록 명하는 등 이후 누르하치를 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哈達部를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누르하치의 哈達部 공격은 계

17) 黃栢棟 主編, 2006, 『桓仁建州女眞志』, 桓因建州女眞志編纂會, 155쪽

18) 『萬曆武功錄』卷11, 王臺列傳

19) 『東夷考略』卷14, 建州

20) 『萬曆武功錄』卷11, 虎兒罕赤, 猛骨孛羅, 康古六, 歹商列傳

속되었고 17세기 초기인 1603년(만력 31) 결국 哈達部는 누르하치에 정복되었다.<sup>21)</sup>

哈達部를 정복한 이후 누르하치의 목표는 다시 輝發部로 향했다. 당시 輝發部는 세력이 비교적 약했고 건주부가 북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훗날 烏拉部를 정복하기 위해 우선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다.<sup>22)</sup> 당시 輝發部는 건주에 비해 약세에 있었으나 葉赫部와 혼인을 통해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고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누르하치의 공격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상인 등 첩자를 이용하여 내통자를 포섭하고 거짓으로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결국 輝發部를 함락시킬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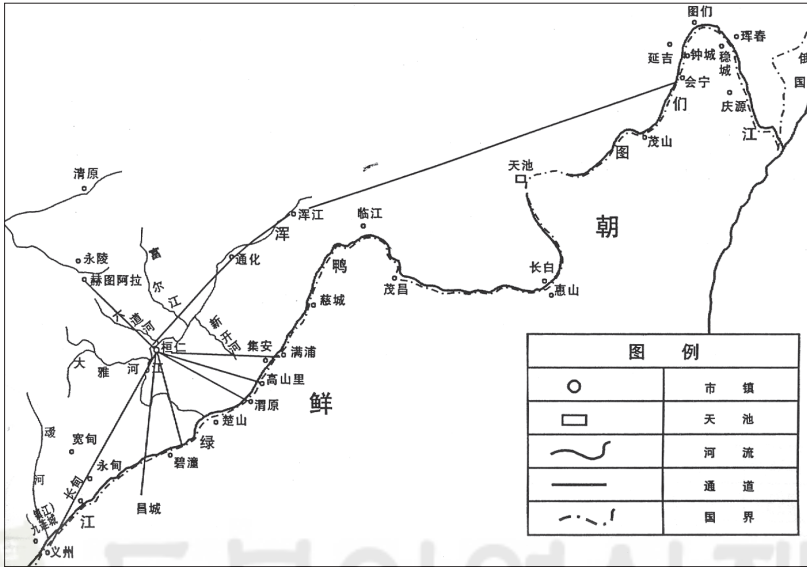
老土部落, 汝包車, 件退 등 오랑캐가 있는 곳에는 奇兵과 간첩을 두고 소재를 탐문하여 치계하라. 하였습시다. 신이 이 일에 유념하여 여러 길로 탐문한바 이곳에서 回波(즉 휘발부: 역자주)까지는 도로가 몹시 멀고 山外에 왕래하는 여러 오랑캐들도 서로 통보함이 없으며 간혹 듣고 아는 자가 있어도 극비로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여 저들의 진상을 얻어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즈음 藩胡를 통하여 암암리에 탐문하니, 당초에 老酋가 回波를 도모코자 하여 몰래 精兵 수십 騎를 상인으로 분장시켜 화물을 가지고 회파로 보내어 머물면서 장사하게 하고 또 수십 명을 보내어 이에 의해 일을 행하게 하였는데 수십 명씩 100여 명에 이르게 하여 저들의 事機를 자세히 탐문하여 내용하게 한 다음 갑자기 大兵을 출동시켜 곧장 회파에 이르렀습시다. 내용자가 난동을 부리고 성문을 열어 병사를 맞이하였으므로 성중에 몰아 들어가니 성중이 크게 어지러워 함락되고 말았습시다.<sup>23)</sup>

휘발부의 붕괴 이후 다음 정복대상은 烏拉部였다. 당시 烏拉部の 추장은 布占太였는데, 布占太는 葉赫 등 8부가 누르하치를 공격할 때 포로가 되었다

21) 『明神宗實錄』卷528, 萬曆 43年 正月 乙亥

22) 『朝鮮王朝實錄』宣祖 卷216, 40年 9月 癸卯

23) 『朝鮮王朝實錄』宣祖 卷217, 40年 10月 庚辰



〈지도 2〉 건주여진 지역에서 조선으로 통하는 여러 교통로

(黄栢棟 主編, 2006, 『桓仁建州女真志』 참조)

(16세기 여진 지역은 지리적인 특성상 그리고 명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으며 조선과 여진이 다양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대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조선과 명의 국경선이 될 수 없었다. 압록강은 국경지대로, 두만강은 조선과 여진 사이의 경계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조선과 여진의 국경에 대해서는 차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 烏拉部的 추장 만태가 죽은 후 누르하치에 의해 다시 오랍부의 추장이 된 경력이 있었다. 이 때문에 布占太는 누르하치에게 공손함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누르하치는 이러한 布占太를 이용하여 烏拉部를 견제하고자 하였고 烏拉部는 계속 동진의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당시 건주는 葉赫部와의 전쟁으로 잠시 동쪽으로 그 세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없었고 이틈을 이용해 布占太는 17세기 초 두만강 유역 종성과<sup>24)</sup> 온성, 경원 등지로 진출하여 조선의 藩胡들을 약탈하고자 하였다.<sup>25)</sup>

24) 『朝鮮王朝實錄』 宣祖 卷166, 36年 9月 甲寅, 丙辰

25) 『朝鮮王朝實錄』 宣祖 卷169, 36年 12月 癸卯, 己酉. 藩胡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한성주의 「조선전기 두만강유역 '여진藩籬·藩胡'의 형성과 성격」, 『고려

이러한 烏拉部の 동진에 대해 누르하치는 방치할 수 없었고 1607년(만력 35) 누르하치는 3천 명의 군사를 파견하여 縣城의 여진족을 모두 취하여 흡수하였다. 烏拉部는 이 소식을 듣고 건주부의 귀로를 차단하고자 하였고 결국 건주와 오랍은 조선 중성 부근의 烏礪岩에서 충돌하였다. 결국 烏拉部가 대패한 이후<sup>26)</sup> 누르하치는 동쪽 지역에 군사를 파견해 동부 여진인 세력을 그들에게 종속시켰다. 그리고 다시 1613년(만력 41) 3만여 명의 군사로 烏拉王城을 공략하자 추장 布占太는 葉赫部로 도망하였고 이후 烏拉의 부족들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sup>27)</sup>

哈達部가 멸망한 이후 명나라는 건주의 성장을 막기 위하여 葉赫部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누르하치는 1604년(만력 32) 葉赫部의 추장 納林卜祿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오랍으로 공략해 들어와 취하였다. 1613년(만력 41)에는 葉赫部와 이전 烏拉部の 추장 布占太가 누르하치를 피해 망명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유로 다시 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葉赫의 길당강, 울수, 압합, 흑아소 등 19처를 공략하여 엽혁은 점차 위기의 국면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에 엽혁은 명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고 명나라는 엽혁에 대한 공격을 중지할 것을 건주에게 명하였다. 그러나 건주는 1618년(천명 3) 오히려 더 군사력을 키워 명나라 동부의 중진인 무순, 청하 등 2성과 16보를 공략하고, 1619년(천명 4)에는 엽혁의 중앙부로 공격해 들어갔다. 1619년은 명과 여진이 사르후에서 대전이 있던 시기로, 명나라의 葉赫部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더구나 명과의 싸움에서 여러 차례 승세를 잡은 누르하치는 더 이상 명나라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海西女眞의 주축이었던 호룬 4부 역시 모두 누르하치에게 정복됨으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사학보』 41, 2010.11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두만강 유역 번호와 번리 문제를 통해 두만강 유역의 성격과 강역 등 근세 변경 문제의 새로운 관점정립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6) 『朝鮮王朝實錄』 宣祖 卷209, 40年 3月 辛卯

27) 『滿文老檔』 上册, 12~24쪽

호륜 4부와 더불어 누르하치는 백두산 지역의 여진도 통합하고자 하였다. 장백산 지역의 여진은 소위 ‘瓦爾喀’이라고 불렸다.<sup>28)</sup> 누르하치의 瓦爾喀 공략은 대략 1595년경부터 진행되었다. 1595년 조선의 신충일은 두만강 유역 瓦爾喀의 모련부 추장 老修이 만력 23년 12월에 건주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29)</sup>

건주의 두만강 유역의 瓦爾喀부 정벌은 인구 확보와 팔기제도의 강화라는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두만강 유역의 여진은 조선으로 많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쇄환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sup>30)</sup> 1636년 청 태종은 두만강 유역으로 군사를 파견하여 瓦爾喀부의 장정 2,306명과 부녀자와 어린이 등 2,435명을 흡수하였다.<sup>31)</sup>

1635년과 1637년에는 우수리강과 그 동쪽을 대상으로 瓦爾喀부의 인구를 조사하여 많은 瓦爾喀민을 다시 흡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635년(천총 9)에만 3,500명에 이르는 瓦爾喀인을 흡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建州女眞의 통일과 인구 흡수는 그들의 국력을 성장시키고 강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명나라의 요동도사를 향한 팽창이었고 1618년을 전후하여 명의 동부방어선인 무순과 청하에서의 대전투는 명나라의 동부방어선이 무너져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후 요서를 통과해 북경을 점령하는 여진의 성장과정과 팽창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중국이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으로 보고 있는 요동변장은 여진과의 분명한 국경의 상징물이며 여진과 명을 구분하는 국경선이다. 그러나 후기에는 여진의 점거지역이었으므로 견고한 명의 벽돌장성은 수축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경의 상징인 요동변장을 만리장성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은 타당한 것인가.

28) 瓦爾喀는 명말·청초 시기 주로 두만강 유역에 분포하던 여진인을 말하는데, 상당수의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들이 조선을 보호하는 藩胡와 藩籬로 존재하다가 누르하치의 성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는다.

29) 『朝鮮王朝實錄』 宣祖 卷71, 29年 正月 丁酉

30) 『清太宗實錄』 卷15 天聰 7年 9月 癸卯

31) 『清太宗實錄』 卷285 天聰 10年 4月 庚申, 己丑, 辛丑, 卷29, 崇德 元年 5月 丙午

#### IV. 만리장성 동단기점 虎山山城說의 비판

위에서 언급한 건주부의 이동과 통일, 그리고 후금의 건국은 최근 만리장성의 동쪽 시작점으로 압록강변의 虎山山城을 강조하고 있는 문제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 본 장에서는 여진의 성장과 위협으로 압록강 가에는 견고한 벽돌 장성이 설치될 수 없었으며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이 될 수 없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명나라는 여진 방어를 위해 산해관에서 압록강을 향해 방어선을 설치하였으며, 이것을 遼東邊牆이라 불렀다. 설치된 명대 요동변장 동쪽 방어선은 북부 開原에서 撫順 방면으로 진행되어 압록강변 요동변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중국은 이해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그 노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靖安堡－松山堡－柴河堡－撫安堡－花抱冲堡－三岔兒堡－會安堡－撫順所城堡－東州堡－馬根單堡－散羊峪堡－清河堡－堵牆堡－鹹場堡－孤山堡－酒馬吉堡－鬩陽堡－新安堡－鳳凰城－湯站堡－鎮江堡로 연결되고 또한 압록강 변으로 險山堡－大甸子堡－寧東堡－江沿臺堡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sup>32)</sup>

우선 문제의 시작은 중국의 연구성과들이 요동변장을 長城으로 인식하고 요동장성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장성의 의미는 벽돌로 방어벽을 만들고 이 방어벽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綿延不斷的高大城牆’한 것을 의미한다.<sup>33)</sup> 그렇다면 요동변장은 구조적으로 어떠했을까.

요동변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우선 요동변장은 벽돌로 축조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동변장은 벽돌로 연결될 수가 없었으며 강과 산 등 자연적인 험세를 주로 이용하면서 적이 들어올 만한 중요한 길목과 거점에 작은 규모의 성 곧 堡를 설치하고 그곳에 소수의 병력을 주둔시

32) 遼海叢書本『全遼志』卷2, 邊防, 499쪽

33)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288쪽



〈지도 3〉 명대 遼東邊牆을 묘사한 『大明輿地圖』

산해관에서 압록강변으로 연결된 요동변장 지도. 우측 아래쪽에 압록강이 보이며 遼東邊牆이 압록강으로 연결되다가 단절되어 있다. 압록강이 명의 강역 속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압록강이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이 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이다. 또한 지도에는 산해관에서 출발하는 요동변장이 견고한 벽돌장성처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선으로 연결된 벽돌성벽이 아니었다. 실제로는 목책, 석축, 자연지세 등을 이용해 중요한 거점에만 쌓을 축조해 세운 일종의 방어선이었다.

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sup>34)</sup> 즉 공격보다는 중요한 길목의 방어와 감시를 목적으로 구성된 방어선이었다. 서쪽을 향해 일선으로 연결된 만리장성과 같은 것은 산해관 동쪽에는 존재하지 않았다.<sup>35)</sup>

撫順에서 압록강 虎山( 곧 강연대보)으로 연결되는 명대 방어선은 축조된 시기도 각각 다르다. 또한 15세기 성화연간 이만주와 대대적인 전투를 벌인 이

34) 朱耀廷 외, 1996, 『古代長城, 戰爭與和平的紐帶』, 遼寧師範大學出版社, 87쪽

35) 劉謙, 1989, 『明遼東鎮長城及防禦考』, 文物出版社, 10쪽

후 명나라는 무순을 기점으로 동부 방어선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sup>36)</sup> 사료에 나타나는 요동변장의 동부 거점을 구성하는 성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馬根單堡, 鳳凰城堡, 湯站堡, 新安堡, 草河堡, 靉陽堡, 鹹場堡, 淸河堡 등이다.<sup>37)</sup> 이러한 요동 동부변장은 대부분 험준한 산세로 인해 380여 리를 조사해 보면 堡와 보가 만리장성처럼 일선으로 연결된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산지의 주요한 험준한 지역 곧 關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문과 조그만 성보를 설치하는 형태로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다.<sup>38)</sup> 변장 동쪽을 지키는 대표적인 험준한 지역의 관문이 鴉鵲關과 撫順關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험준한 산의 길목을 지키는 관문이었으며 기타 정보와 성벽으로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성보였다.

鴉鵲關은 新賓縣 서남쪽에 위치하며 명대 遼東都司에서 여진지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에 해당하였다. 鴉鵲關은 1468년(성화 4) 요동부총병 韓斌이 보수 증축하였는데 三道關이라고도 불렸다. 이곳은 여진이 명의 요동도사를 공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었고 이곳을 돌파하면 요동도사가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16~17세기 이곳에서는 명과 여진의 빈번한 전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빈번한 전투로 이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서쪽에 散羊峪堡를 신축하였다. 이것은 원래 險山堡를 구성하는 散羊峪臺였으나 군사적 중요성으로 散羊峪堡로 전환되어 鴉鵲關을 지원하는 배후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이다.<sup>39)</sup>

만력연간 여진의 침입이 더 빈번해지고 강도가 더해지면서 요동 동부방어선에 설치된 고립된 성보들은 더 이상 그 군사적 기능을 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당시 요동총병이었던 李成梁은 1606년(만력 34) 요동 동부 지역을 ‘地孤難守’ 지역으로 인식하고 동부방어선 6곳을 여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실제로 동부방어선이 자연의 험준함에 기초하여 일선의 성

36) 遼海叢書本『遼東志』卷3, 兵食, 396쪽

37) 遼海叢書本『遼東志』卷3, 兵食, 398쪽

38) 朱耀廷 외, 1996, 앞의 책, 90쪽

39) 遼海叢書本『全遼志』卷2, 邊防, 563쪽

벽으로 연결시킬 수 없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보와 보가 일선의 벽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만리장성이 될 수 없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鴨鵝關과 같은 관문 밖 여진 지역으로 명군이 결코 진출할 수 없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명나라 요동방어선의 붕괴과정과 원인을 본 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결국 명 요동변장은 일선의 성벽으로 준비된 방어선이 아니라 고립된 중요한 요충지에 주둔하는 군사방어체제였고 연결된 장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보 중심의 전진기지가 여진의 위협이 거세질수록 압록강까지 확대되어 고립적으로 보가 증축되어 있던 것이 요동변장 체제였기 때문에 '연결된 일선의 성벽'과는 기본적으로 개념적 유사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시 撫順關 역시 撫順市에서 동쪽 20여 리 지점에 위치한 험준한 고개 甸鄉關嶺과 渾河의 협곡의 험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무순마시는 여진을 통제하기도 하고 교류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로 여진인에게도 중요한 길목에 해당하였다.<sup>40)</sup> 무순은 이미 15세기 여진의 추장 이만주 시절부터 중요한 공격대상이 되었고 여진인이 마시를 진행하는 통로였다.<sup>41)</sup> 누르하치 시기에는 초기의 중요한 공격대상이자 철과 농기구 등을 사들여 여진의 생산력과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곳이었다. 이처럼 무순성은 명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진을 방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여진의 입장에서 보자면 무순관은 무순성을 점령하기 위해 넘어야 할 국경이었다.<sup>42)</sup>

대명여지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요동변장은 거점을 구성하다가 압록강 쪽으로 와서는 자연의 험준함을 만나면서 더 이상의 방어선을 설치하지 못

40) 遼海叢書本『全遼志』卷1, 山川, 538쪽

41) 朱耀廷 외, 1996, 앞의 책, 92쪽

42) 朱耀廷 외, 1996, 앞의 책, 93쪽. 청 건국 이후 乾隆 황제는 1778년(건륭 43) 조상 누르하치의 무순성 점령을 기념하기 위해 무순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그 공적을 기릴 정도로 무순을 중요시하기도 하였다.

하다가 강에 인접한 호산에 성보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sup>43)</sup> 장성의 동단기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금의 압록강변 虎山山城은 명대에 江沿臺堡가 설치된 지역이다(지도 4 참조). 이 江沿臺堡 역시 다른 보와 마찬가지로 험준한 지세를 이용해 축조된 고구려 석성을 활용한 전초기지이다.

당시 虎山山城 지역은 조선과 명의 국경 완충지대 곧 遼東八站 지역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조선과 명의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다. 명나라는 이러한 지역의 특성상 여진의 침략이 빈번해지자 요동도사를 보호하고 조선의 사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군대를 파견하여 소규모 보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명대 江沿臺堡 곧 지금의 虎山山城이다. 더구나 설치시기가 명 중기 여진이 성장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명초의 사료에는 江沿臺堡를 축조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명대에 제작된 지도에 요동변장이 압록강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명 중후기에 갑작스럽게 기존의 산성을 이용해 증축 활용한 성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虎山 지역은 이전 고구려 석성을 그대로 활용했으므로<sup>44)</sup> 지금과 같이 일선으로 된 그리고 산 능선을 따라 신축된 벽돌성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오랫동안 조선과 여진의 경계지역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서북쪽 일대는 建州 三衛와 국경이 연접해 있어 조상 때부터 누차 그들로 인한 환란을 받았습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압록강은 오랫동안 조선과 여진 사이의 분쟁지역이었고 명은 중기에 가서야 조그만 전초기지를 세운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sup>4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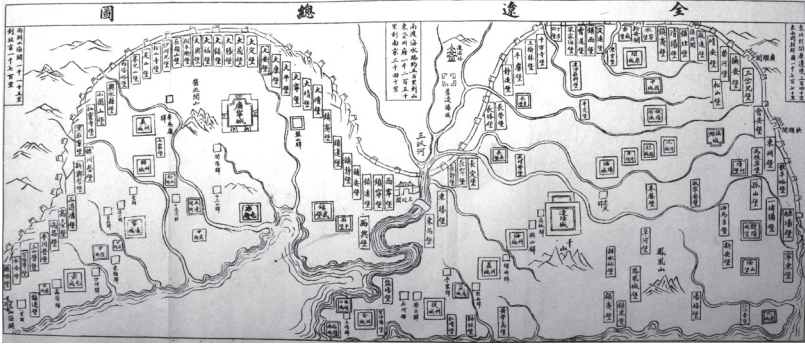
虎山은 압록강변에 접하여 조선으로 통하는 길목이었고 명 후기 점차 그 침입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던 여진을 방어하는 중요한 곳으로 변해 갔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명나라가 江沿臺堡를 설치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지금 중국 조정에서 湯站과 義州 사이에 새로 江沿臺堡를 설치하였는

43) 景愛, 2006, 앞의 책, 289쪽

44) 朱耀廷 외, 1996, 앞의 책, 88쪽

45) 『朝鮮王朝實錄』 宣祖 卷30, 25年 9月 甲戌



(지도 4) 명대 遼東邊牆 전체도(『全遼志』 참조)

데, 堡官이 '이제부터는 사신들이 오갈 때 탕참에 알리지 말고 本堡(역자주: 江沿臺堡)로 直通할 것을 본국에 이미 移咨하였다.'<sup>46)</sup>

虎山은 지리적으로 압록강과 접해 있어 조선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될 수 있으며, 서쪽으로는 애하(애양하)보와 연결되어 요동도사 동쪽 관문이자 사행로인 봉황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남쪽으로는 險山 곧 명대의 馬耳山과 연결되었는데, 이 險山堡는 요동도사의 동남쪽을 방어하는 중요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鎮江堡 역시 江沿臺堡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鎮江堡는 九連城이라 칭하며 성 남쪽은 압록강과 접하고 있었다. 鎮江堡는 서남쪽이 압록강을 따라가며 바다와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가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의 중진이었으며, 원대의 婆娑府로 추정하기도 한다.<sup>47)</sup>

江沿臺堡는 이전에 설치된 湯站堡, 靄陽堡, 險山保 등과 함께 후기로 갈수록 여진의 위협이 심각해짐에 따라 동부방어선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江沿臺堡는 명 중기 관군 383명이 주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던

46) 『朝鮮王朝實錄』 明宗 卷9, 4年 1月 辛卯

47) 朱耀廷 외, 1996, 앞의 책, 89쪽. 이 鎮東堡에서는 1974년에 元代의 '萬戶之印'이 나오는 등 역대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전초기지였다. 그리고 이 군사력을 통해 후방의 탐참을 보호하는 전진기지의 역할도 병행하였다.<sup>48)</sup>

현재 중국은 명대 江沿臺堡 자리 곧 현재의 虎山에 대규모 최신식 벽돌장성을 축조하여 마치 명대 江沿臺堡가 벽돌로 축조된 것처럼 벽돌장성을 신축해 나가며 관광지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虎山山城은 원래 고구려식 석성이 있던 자리이다. 명나라 시기 이 지역에 江沿臺堡를 설치할 때 이 고구려성을 이용하여 성보로 활용하였다. 이 때문에 명대 역시 이 강연대보를 老邊牆이라고 불렀다.<sup>49)</sup>

위 지도상의 요동변장을 살펴보면 변경선의 중요한 지점에 보와 봉수대를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동북부 開原을 거쳐 압록강으로 오다가 역시 방어선이 단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변장의 재료 역시 벽돌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여전히 압록강변에는 명나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동동부 변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보의 군사주둔수를 명 중기에 편찬된 『全遼志』를 통해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全遼志』에 나타난 동부 변장의 중요 보 주둔군사수

동부변장보	주둔관군	동부변장보	주둔관군	기타
靉陽堡	1044	鳳凰城堡	113	
新安堡	526	鎮東堡	40	
險山堡	3074	鎮夷堡	74	
寧東堡	500	草河堡	44	
江沿臺堡	383	靑苔峪堡	40	
湯站堡	306	牯水站堡	81	

48) 遼海叢書本 『全遼志』 卷2, 邊防, 564쪽

49) 朱耀廷 외, 1996, 앞의 책, 88쪽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요동 동부의 중요한 방어선은 보를 중심으로 방어선이 설정되고 있으며, 적의 침입이 용이한 곳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연대보는 애양보와 험산보에 비해 압록강변에 치우쳐 있고 조선의 변경에 해당되는 지역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군사를 주둔시킴을 알 수 있다. 군사의 수로 본다면 적의 대대적인 침입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많은 수의 군사를 파견하였지만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그마한 보에는 수십 명의 군사만이 주둔하고 있다. 또한 보와 보 사이에는 험준한 지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군사를 두고 있지 않으며 山海關 장성과 같이 선으로 연결된 성벽을 구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江沿臺堡의 경우 명 중기 이후 점차 그 중요성이 강화되어 탕참보, 진동보와 더불어 중요한 군사거점이 되면서 383명이 주둔하는 최전방 전초기지로 되었다.<sup>50)</sup> 이러한 군사는 성의 규모에 비해 넓은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진이 대대적으로 나누어 공격해 온다면 적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전면전을 전개할 경우 패할 위험이 높았다.

실제로 변방에서 올라오는 치계를 보면 강연대보를 비롯한 요동 동부변장은 16세기에 들어 이미 여진인들을 방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있었다. 평안도 관찰사 俞絳의 장계에 “달자가 江沿臺·湯站 지방에 그들의 쌓을 세우고 모여 살며 멋대로 출몰하여 날로 강성해져서 강연대를 굴착 파괴하려 한다”는 비보가 도착하는가 하면, 毛憐·海西·3衛의 달자가 상호 결탁하여 애양보·탕참·강연대 지방에서 도적질을 하였고 또한 달자는 그 수효가 매우 많아 애양보·험산보·탕참 등지에 영을 세우고 모여 살며 멋대로 作亂하며 강연대를 굴착 파괴하려 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었다.<sup>51)</sup>

결국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여진족의 팽창과 변장의 공격으로 호산산성을 비롯한 애양, 험산보와 같이 동부는 견고할 수도 없었고, 벽돌로 축조될 수 없었으며 더구나 연결된 방어선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50) 遼海叢書本『全遼志』卷2, 邊防, 563~564쪽

51) 『朝鮮王朝實錄』明宗 卷25, 14年 3月 丁亥



석해 보면 그 공통점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연구성과들은 명나라가 현재의 만주 지역을 모두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명대 요동도사 지역(현재의 요령성 지역)은 물론이고 여진족이 분포하고 있던 길림성과 흑룡강 유역도 명의 강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흑룡강 하류 지역에 奴兒干都司라는 임시군사기구를 설치하였는데, 이 기구는 운영에 실패하여 정통연간(1436~1449)에 이미 사라졌음에도 중국은 이 奴兒干都司가 명 후기까지 존재하면서 여진을 관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3)</sup> 셋째, 조선과 명의 국경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주장이다. 넷째, 중국은 요동도사가 압록강 유역까지 관할한 것이기 때문에 압록강이 명과 조선의 국경선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압록강 대안지역은 조선과 명의 국경지대였으며, 명으로 들어가는 柵門은 봉황성에 설치되어 있었다. 요약하면 虎山山城이 명나라의 만리장성 동단기점이 되는 순간 압록강이 조선과 명의 분명한 경계 곧 界河가 되며, 奴兒干都司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명대 흑룡강 유역까지 분포하던 모든 여진 세력이 명에 종속되었다는 이론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로써 두만강을 둘러싼 조선과 명 사이의 10처 여진인 관할 문제, 4군 6진의 개척, 조선의 수직정책 등 조선과 여진 사이에 전개되었던 역동적인 조선 변경의 역사가 명나라의 그늘에 가려 그 역사적 위치를 찾지 못하고 왜곡 침탈 당하게 되며, 조선의 역사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지 못하는 한반도만의 축소된 역사가 되고 만다.

社, 2008)가 있다. 이 저술은 길림성사회과학원 학술연구총서로 2008년에 출판되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명대 강역을 다룬 최근의 종합적 연구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객관적인 시각보다는 명대의 강역이 遼東都司와 奴兒干都司를 통해 전 만주지역을 석권했다는 시각에 고정되어 연구됨으로써 그간 연구된 외국의 연구성과들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遼東都司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 293쪽 중 200여 쪽에 달하는 지면을 명대 설치된 奴兒干都司와 흑룡강 지역 등 여진 지역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명이 설치했다고 하는 여진위소에 기초하여 만주 전 지역이 명대 강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3) 남의현, 2007, 『明前期 奴兒干都司의 設置와 衰退』, 『東北亞歷史論叢』 16호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차후 올바른 역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조선과 명의 관계를 여진과 몽골을 포함하여 4자 관계 속에서 다시 보아야 한다. 특히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중국의 연구성과와는 달리 압록강은 조선과 명의 국경이 아니며, 오히려 조선과 여진의 관점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신이 출입하는 명나라의 봉황성과 압록강 사이의 넓은 지역이 국경 중립지대였음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명나라 쪽 기록에는 鴨綠江이 아니라 봉황성을 넘으면 조선의 국경지대로 들어선 것이고, 조선은 鴨綠江을 건너면 국경지대로 들어갔다는 기록에 더하여 조선과 여진의 관점에서 압록강 유역의 변경문제를 이해해야 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명대의 사료들은 조선과 명의 경계를 표시할 때 요동을 방어하는 성보가 설치된 지역, 遼東邊牆 근처의 靉陽堡, 鳳凰城堡 등 요동변장 동쪽의 출입문에 해당하는 柵門들을 조선과의 경계로 기록한 경우가 많다. 또한 변장 밖의 女眞衛所들을 종속되지 않은 '外夷'로, 요동변장을 '臨境(경계에 임한 지역)', '通賊道路(적의 도로와 통하는 지역)', '邊界', '邊門' 곧 여진과 몽골 등의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으로 기록하고 있다.<sup>54)</sup>

둘째, 두만강 유역은 조선과 명의 국경 경계가 될 수 없다. 명초 대외원정을 가장 많이 시도한 영락연간(1403~1424)에도 두만강 유역의 10처 여진을 관할할 힘이 없어서 조선의 관할이 되었다. 그리고 명과 갈등을 낳던 수많은 여진 세력이 명을 피해 두만강 유역으로 많이 이동해 왔다. 명나라 시대 두만강이 명의 지배지역이었다면 명을 피해 여진 세력들이 두만강으로 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즉 두만강 지역은 명의 관할 지역이 아니었다. 두만강은 조선과 명의 국경 문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과 여진의 관계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하며, 여진을 일방적으로 명에 종속된 세력으로도 볼 수 없다.

셋째, 요동변장은 몽골과 여진의 국경선이었으며, 변장의 동단 기점은 압록강으로 오다가 멈추었고, 虎山 곧 江沿臺堡에는 명대 山海關과 같은 견고한

54) 遼海叢書本『全遼志』卷2, 邊防, 560~564쪽

벽돌성이 축조된 적이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虎山山城의 모습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 역사성이 없는 위작(창작물)에 불과하다.

## V. 맺음말

15세기 후반 여진은 이미 渾江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하며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16세기 팽창을 준비하고 있었다. 16세기 여진의 성장에 비하여 명의 遼東都司는 永樂年間 이후 위소제도의 폐해와 이로 인한 衛所兵의 도망, 屯田제의 와해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그 기강이 점차 해이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여진에 대한 통제력은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갔다.

평안도 관찰사 등은 여진족이 강연대·탕참·애양보·협산보 지방에 그들의 쌓을 세우고 멋대로 출몰하여 날로 강성해져서 결국 강연대를 굴착 파괴하려 한다는 비보를 중앙에 수시로 신속하게 전하였다. 결국 이러한 압록강변의 위기는 15~16세기부터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여진족의 팽창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사료를 통해 호산산성을 비롯한 동부를 구성하는 모든 변장이 견고한 성보가 아니라 일개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영을 치고 거주하며 정세를 염탐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료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王杲, 鵝頭, 忙子勝, 兀堂, 李奴才 등의 건주 추장들은 그 역량을 확대하여 海西女眞과 각축을 벌이며 누르하치 등장까지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당시 이들 추장들은 蘇克蘇滸河, 渾河, 棟鄂, 折陳 등의 5부를 나누어 통솔해 나가고 있었다. 1583년(만력 11) 누르하치는 薩爾滸, 嘉木湖 등의 城寨와 연맹을 결성, 만력 13년에는 薩爾滸城의 추장이던 界凡, 東家, 八兒答의 3추장을 대패시키고 蘇克蘇滸河部가 자리 잡고 있던 부락을 통합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586년(만력 14)에는 소자하 하류에 자리 잡고 있던 折陳部の 托漠河城을, 1587년(만력 15)에는 折陳部를 완전히 정복하였다. 그리고 당시 파저강 유

역 棟鄂部는 1584년 9월 동악부의 주장이던 阿海巴顏을 두 차례 공격하여 동악부의 瓮郭洛城을 점령해 버렸다.

과저강 상류의 완안부는 1588년(만력 16) 9월 누르하치에게 통합되었다. 哈達部를 정복한 이후 누르하치는 輝發部, 烏拉部, 葉赫部 등 해서여진 호룬 4부를 통합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호룬 4부와 더불어 누르하치는 장백산 지역 '瓦爾喀' 여진을 공략하였다. 누르하치의 瓦爾喀 공략은 대략 1595년경부터 진행되었고 1635년에만 3,500명에 이르는 瓦爾喀인을 흡수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建州女眞의 통일과정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화시켰고 마침내 만력 16년(1618) 누르하치는 명의 동부방어선을 구성하는 鴨鵝關을 붕괴시켰다. 그리고 요동도사의 군사와 경계의 거점이자 여진으로 통하는 撫順關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 두 요충지역이 여진의 수중에 들어간 것은 요동도사를 방어하는 요동변장 동부의 명의 요동방어선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명나라 요동도사 방어선 곧 요동변장의 붕괴과정은 본 연구의 관점에서 살펴해보자면 여진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결국 명 요동변장은 그 관할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진 지역을 포함시킬 수 없었으며, 여진의 성장으로 더 이상 팽창할 수도 없었다.

구조적으로도 요동변장은 일선의 성벽으로 된 방어선이 아니라 고립된 중요한 요충지에 소규모 보를 세우고 이를 중심의 군대가 주둔하며 좌우의 관할 지역을 방어하는 체제였다. 그 때문에 결코 여진의 대대적인 공격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고 오히려 긴 방어선을 축소하자는 논의가 나올 정도였다. 허술한 변장을 따라 고립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보 중심의 전진기지가 시기를 달리하며 압록강까지 고립적으로 산재해 있던 것이 요동변장 체제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성의 개념 곧 '연결된 일선의 성벽'과는 기본적으로 개념적 유사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동부변장을 구성하는 湯站堡, 靉陽堡, 險山堡, 新安堡, 寧東堡, 그리고 虎山山城에 해당하는 江沿臺堡와 같은 것들은 모두 작은 보에 해당되며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설치된 것들이다. 이들 작은 보들은 자연지세를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의 선으로 연결될 수도 없었고, 벽돌로 수축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장성이라고 할 수 없다.<sup>55)</sup>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압록강은 조선과 명의 국경이 될 수 없으며 사신이 출입하는 명나라의 봉황성과 압록강 사이의 넓은 지역은 국경 중립지대였다. 이 때문에 명은 요양에서 가까운 연산관을 넘어 1480년대 이후 봉황성으로 동진하여 성보를 수축하며 선점하는 기록이 다수 나타나는 것이다. 봉황성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은 명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다. 당시는 국경의 개념에 선의 개념도 있었지만 조선과 명 사이에 나타나듯이 遼東八站이라는 지역 개념의 국경지대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압록강은 조선과 명의 국경선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압록강은 명 중후기로 갈수록 조선과 여진의 관점에서 그 성격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건주여진이 성장하면서 조선은 압록강을 조선과 여진의 경계로서 인식하였다.

압록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만강 유역 역시 조선과 명의 경계가 아니라 조선과 여진 사이의 경계지역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명초 대외원정을 가장 성공적으로 시도했다고 평가받는 영락제(1403~1424)도 두만강 유역의 10처 여진을 흡수하려다가 포기한 것도 이러한 명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이 만리장성 동단기점이 압록강의 호산산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현재 한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 조선과 명의 국경 중립지대인 遼東八站 지대를 인정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조선과 명 사이의 압록강이 조선과 명의 국경선이 될 수 없다는 위기에 직면한다. 나아가, 명대 여진 세력의 성장과 팽창, 만주 지역이 명의 강역이 될 수 없는 문제, 조선과 명의 두만강 경계설의 허구성 등 중국의 강역문제와 관련된 근세의 문제들이 모두 새롭게 설명되어야 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주장처럼 호산산성이 만리장성의 동단기점으로 인정된다면 조선과 명의 국경선이 압록강이 되고, 압록강은 두만강과 연결되므로 두만강 역시 조선과 명의 국경이 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명과 역사는 압록

55) 景愛, 2006, 앞의 책, 289쪽

강과 두만강 이남에 묶이게 되어 선사시대를 포함하여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한반도의 역사는 북방과 단절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이 장성의 동단기점을 압록강으로 확장시킨 배경에는 ‘강역의 확장’이라는 관점을 넘어 만주 역사에 대한 선점, 동북공정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만주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의 변경의 안정 유지, 북한에 대한 대응 등 현실과 미래에 닥칠 다양한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하는 현재 중국의 역사적 상황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明史』

『明通鑑』

『明會典』

『明會要』

『奉天通志』

『使朝鮮錄』

『遼海叢書』 1-5

姜龍範·劉子敏, 1999, 『明代中朝關係史』,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郭大順 主編, 1998, 『遼寧長城』, 遼寧省長城學會

董曜會, 2004, 『瓦合集 - 長城研究文論』, 科學出版社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佟冬主編, 1998, 『中國東北史』, 吉林文史出版社

簿音湖, 王雄, 2000,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 內蒙古大學出版社

楊昭全, 1993, 『中朝邊界史』, 吉林文史出版社

楊陽 外, 1982, 『明代奴兒干都司及其衛所研究』, 中州書畫社

楊 陽, 1988, 『明代遼東都司』, 中州古籍出版社

楊 陽, 1991, 『中國的東北社會 十四~十七世紀』, 遼寧人民出版社

牛建強, 1997, 『明代中後期社會變遷研究』, 天津出版社

魏志江, 2006, 『中韓關係史研究』, 中山大學出版社

劉謙, 1989, 『明遼東鎮長城及防禦考』, 文物出版社

趙東升, 2005, 『扈倫四部研究』, 吉林文史出版社

趙云田, 2002, 『中國治邊機構史』, 中國藏學出版社

朱誠如, 2002, 『管窺集』, 紫禁城出版社

華夏子, 1988, 『明長城考實』, 檔案出版社

**[ABSTRACT]**

The Growth of Jurchens and the Character of the Liaodong Border Area: A Criticism on the Eastern Point of the Great Wall through the Change of Border Areas

Nam Euihyeon

This study aims at illuminating the fabrication of the Amnok (鴨綠) River being the eastern point of the Great Wall in the light of the dynamic development of Jurchens in the sixteenth century. The background, meaning, and intention of the extension of the eastern part to the Amnok River shall be examined.

A critical change was in progres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century. While Japan tried to take dominance in East Asia through the Imjin War, Ming still took a pride as the superpower in East Asia, reinforcing close relations with Chosun. However, a significant change in the sixteenth century was also witnessed in Jurchen areas as Jurchens attempted to become involved in new international affairs by absorbing large Manchurian tribes. However, the sixteenth century situation has not been the focal point because it has been blocked by a Chinese-centered historical view which includes the Amnok River hypothesis of the Great Wall.

Why is it important to examine the Chinese position academically through the sixteenth century Jurchens? Is it justifiable or necessary? The reason for China to extend the eastern point down to the Amnok River was to preoccupy Manchurian history beyond a view of 'expanding

river area', to keep stability in the midst of Northeast Asia's political environment surrounding Manchuria which has already been revealed in the "Northeast Project," and to counter North Korea. Accordingly, it might be said that the current historical situation in China to solve contemporary and future problems that they face might be an actual pivot in the background.

When Zhu Yuanzhang (朱元璋) founded the Ming dynasty in 1368, had to withdraw to the Mongol area. When the Yuan government lost dominancy, Ming progressed into Liaodong and established the Liaodong Regional Military Commission (遼東都司) and succeeded in occupying a part of Liaodong. They intended to spread out to Mongolia and Heilongjiang (黑龍江).

However, after Emperor Yongle's in 1424, death (1403~1424) as no more active foreign policy was available, they changed their strategy to defend Liaodong through the Liaodong Regional Military Commission the which was leading to founding a solid Liaodong defense line in the middle and late Ming dynasty. Soon, became a military organization in the far eastern area to defend Liaodong in the beginning of the fifteenth century. Although there was some time to seek expansion during Yongle's reign, they had a defensive role in general in the relation with northern territory tribes. Along with this background, the Liaodong defense line was moved back and they began to establish an outpost at the Amnok River.

China today has nearly completed a theory that the eastern point of the Great Wall was the Amnok River, allegedly arguing that the Liaodong defense line was part of the Great Wall. This results from falsely assuming that some outposts created by Ming were part of the Great Wall. This in turn logically generates a frame that Ming had a

solid reign over Liaodong. This reflects the current intention of China to remove any possible future conflicts with nearby countries over the riverside domain and Manchuria.

Whether the eastern point of the Great Wall can be the Amnok River is especially important for determining the Ming dynasty'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coverage. When China started the Northeastern Project, river territory in Ming became an important topic of study, and the book *A Study on Northeastern Area in Ming dynasty* (Jilin People Press, 2008) was a typical work published in 2008 as a result of research to date. This book also argues that the Manchuria area during the Ming dynasty belonged to Ming.

However, as this study shows, the Amnok River cannot be the starting point in the east. The Amnok River met the border with Joseon, Ming, and the Jurchens, who were struggling for power. Furthermore, what Ming constructed in the river area of the River huge wall, but a small outpost. That outpost is a small fort that utilized the natural topography. And even it was not constructed with bricks. If China presumes the basic concept of the Great Wall is a line, Liaodong border area linked from Shanhaiguan (山海關) through Kaiyuan (開原) itself cannot be part of the Great Wall.

#### Keywords

the Great Wall, Jurchen area, 遼東 (Liaodong), 虎山 (Hushan), Zhu Yuanzhang (朱元璋), Liaodong dushi (遼東都司), Shanhaiguan (山海關) Kaiyuan (開原)

# 해양관할권의 확대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 영해제도의 역사와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 -

이창위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머리말

영해제도는 해양법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즉, 해양의 이용과 영유에 대한 각국의 대립과 타협의 역사를 해양법의 발전과정으로 파악한다면, 영해제도는 공해와 함께 해양의 기본적 분할에 따르는 2대 구성요소로 오랫동안 존재해 온 것이다. 그러한 해양법의 발전과정에서 해양강대국은 ‘좁은 영해 · 넓은 공해’를 주장하고, 연안국은 ‘넓은 영해 · 좁은 공해’를 주장하여 서로 대립해 왔다.

따라서 영해의 범위에 대한 양측의 대립은 영해 개념의 정착 이래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되었으며, 그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의 종료에 따라 비로소 이루어졌다. 해양법의 발전과정 초기에 영해제도가 확립된 것을 고려하면, 정작 중요한 영해의 범위는 너무 늦게 합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는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이 그 만

※ 투고일: 2011년 9월 26일, 심사일: 2011년 11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23일

큼 심각하게 전개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 해양관할권이 행사되는 수역은 다양하게 확립되었지만, 영해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확대된 범위와 무해통항권의 확립으로 영해에서 연안국의 주권 행사는 더욱 견고하고 분명해졌다. 군함의 무해통항 문제를 둘러싸고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해석이 대립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전통고나 사전허가로 군함의 무해통항을 제한하는 연안국에 국제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영해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그에 대한 현대적 의의를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특히 국제정치적·역사적 맥락에서 영국과 미국 외에 중국의 영해제도 수용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해양법의 현대적 의미도 동시에 평가하기로 한다.

현대 해양법의 특징은 해양관할권의 점진적 확대(creeping jurisdiction)라는 한마디로 간결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이는 영해 범위의 확대 외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심해저제도의 확립이나 대륙붕 한계의 확장 그리고 공해자유의 제한 등 다양한 해역의 확립과 해양관리의 강화를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심해저제도는 대륙붕 한계의 확장을 제약하는 기능도 갖는다. 어쨌든 그중에서도 영해제도는 그 범위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과 타협의 역사를 통해 해양법 이론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콘 내지 바로미터가 된다. 따라서 해양관할권 확대의 상징으로서 영해제도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영해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의 역사와 향후의 전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예는 영미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영미 양국은 전통적인 해양강대국의 계보를 이어 왔으며, 중국은 항상 해양강대국의 해양 패권에 반대하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1) Stewart Kaye, 2006, "Freedom of Navigation in a Post 9/11 World: Security and Creeping Jurisdiction", David Freestone, Richard Barnes and David Ong(ed.), *The Law of the Sea—Progress and Prospects*, pp. 347~348

서서 중국이 해양강대국으로 변화하면서 그러한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 II. 영해제도의 성립과정

### 1\_ 로마 시대

로마법은 국제법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영역에 관한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중에서도 해양의 영유 문제와 관련된 로마인의 인식의 변화가 주목된다. 우선, 유스티니아누스(Flavius Petrus Sabatius Justinianus)의 학설 휘찬(Digesta)에 따르면, 마르키아누스(Marcianus)는 “자연법에 따라 대기, 유수, 해양 및 해안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된다”라고 하여 해양의 공유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가이우스(Gaius)의 법학제요(Institutiones)에 나타난 물건의 분류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2)</sup> 즉, 로마법에 따라 해양은 만인에게 공통된 것으로, 특정한 영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중해가 로마의 내해가 되고 해양에서의 해적문제가 대두되자, 사정은 변했다. 즉, 로마가 항행의 안전과 해적의 금압을 위하여 황제의 통치권 또는 지배권(imperium)을 해양에 행사하게 되자, 학자들도 해양을 공유물(res communis)이라고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국가에 의한 전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2) 가이우스에 따르면, 물건(res)에는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물건(res in nostro patrimonio)과 될 수 없는 물건(res extra nostrum patrimonium)이 있으며,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는 물건은 무주물(res nullius)을 포함한다. 무주물은 다시 신법(神法)상의 무주물(res nullius divini juris)과 인법(人法)상의 무주물(res nullius humani juris)로 나뉘며, 인법상의 무주물에 공유물(res communis)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유물의 대표적인 예가 해양(mare)이라고 했다[高林秀雄, 1979, 『領海制度の研究』(第2版), 9~12쪽].

않는다고 했다.<sup>3)</sup>

특히 지중해를 둘러싼 로마의 패권 확립은 그러한 해양의 영유 추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중해 연안에서의 로마의 발전은 제2차 포에니전쟁(B.C. 218~201)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포에니전쟁은 지중해에서의 해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로마는 건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해상세력으로서의 기초를 쌓았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서지중해의 패권을 확립하고, 이어서 동지중해의 정복과 이집트의 병합을 이룩하여 지중해 전역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 그 후, 더욱 판도를 확대한 기원후 1세기 내지 2세기의 초두에 로마인들은 해양이 영토와 일체를 이룬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지중해는 영토와 같이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로마인들의 인식은 ‘우리의 바다(Mare Nostrum)’라는 표현에 단적으로 나타난다.<sup>4)</sup> 다만, 로마의 지중해에 대한 이러한 영유는 절대권만이 행사된다는 관념이 강한 것으로서, 근대 이후의 해양 영유 주장과 같이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 2\_ 해양영유 시대

로마의 패망 후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로마 시대의 지중해 영유를 이어받아 인접 해양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영유를 주장했다. 예컨대, 제노바는 리구리아해(Ligurian Sea)에 대한 영유를 아주 먼 옛날부터 주장했고,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Adriatic Sea) 북부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통항세를 부과했으며, 피사와 토스카나는 티레니아해(Tyrrhenian Sea)를 관리했다고 한다. 이탈리아 여러 도시 국가들의 이러한 해역의 영유 내지 장악은 지중해에서의 해상 통상의 발전과 그에 따른 이익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또한 신성로마 제국의 실질적 권리 상실이라는 시대적 상황도 그러한 해양 영유 주장의 배경

3) D. P. O'Connell, 1965, *International Law*, Vol. 1, p. 524

4) 明石欽司, 2004, 「海洋法前史」, 粟林忠男·杉原高嶺 編, 『海洋法の歴史的展開』, 4~5쪽

이 되었다.<sup>5)</sup>

중세에는 로마 교황의 권위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사상이 팽배하여 바다도 궁극적으로는 교황의 권위 아래 놓여 있었다.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Pope Alexander VI)가 그의 교서(Bull)에 따라 대서양의 중앙을 통과하는 자오선을 경계로 하여 동을 포르투갈령, 서를 스페인령으로 하는 이른바 교황 경계선을 정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였다.<sup>6)</sup> 이 분할은 신발견지의 점유를 교황으로부터 인정받는 유효한 분할행위로서, 교황에 의한 하사(grant)나 권원 설정의 성격은 띠지 않았다.<sup>7)</sup> 즉, 당시 양대 해양강대국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광대한 해양의 전유 내지 최소한 그곳에서의 배타적 권리의 행사를 주장한 데에 대한 조정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한편, 로마 교황의 권위가 약화됨에 따라 해양강국으로 등장한 국민국가들은 인접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특히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각국이 그런 주장을 선구적으로 했는데, 예컨대, 덴마크는 발틱해와 사운드해협 및 벨트해협에 대하여, 스웨덴은 발틱해와 보스니아해에 대하여, 그리고 노르웨이는 광대한 북방해역에 대하여 각각 독자적인 영유권을 주장했다.<sup>8)</sup> 이러한 국가들의 인접 해역에 대한 영유 주장은 십자군 원정에 따른 선박의 대량 건함과 해양 영유에 대한 능력과 관심의 증대, 콘스탄티노플에서 일어난 터키에 대한 견제와 자국의 해상무역 확보 및 당시 횡행하던 해적에 대한 견제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sup>9)</sup>

5) 明石欽司, 2004, 앞의 논문, 9~10쪽

6) 이 교서는 콜럼버스의 서인도제도 발견 직후 스페인 왕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경계선의 공정성에 대해 포르투갈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일어나게 되자 1494년 토르데시야스조약(Treaty of Tordesillas)이 체결되어 경계선이 확정되었다(D. P. O'Connell, 1982,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1, pp. 2~4).

7) Ian Brownlie, 1998,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pp. 230~231

8) D. P. O'Connell, 1965, *op. cit.*, p. 3

9) 高林秀雄, 1979, 앞의 책, 17~21쪽

### 3\_ 해양논쟁 시대

중세에 있어서 근대 영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는다면, 그것은 11세기 말부터 14세기경까지 북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전개된 주석학과(Glossatoren) 내지 후기 주석학과의 학문적 활동까지 소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은 전술한 로마 시대의 해양 영유에 대한 법적 주장을 중세 이탈리아의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해석함으로써 영해의 이론적 근거를 일부 확립했는데, 예컨대, 바르톨루스(Bartolus de Saxoferrato)와 발두스(Baldus de Ubaldis)가 대표적인 학자라 할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이들의 이론은 아직 국가 실행에 의한 뒷받침을 받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영해를 포함한 해양에 대한 논쟁은 15세기에 시작된 대항해시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우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양에 대한 독점적 이용은 16세기에 들어서서 영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한편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항하고, 또 한편으로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맞선 해양자유의 옹호자였다. 그녀는 프란시스 드레이크(Francis Drake)의 태평양 항해에 대한 스페인의 항의를 반박하면서, “해양과 대기는 만인에게 공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광대한 해양을 자유로이 항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양에 대하여 권원이 어떠한 국민에게도 또한 어떠한 사인에게도 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등의 해양 영유 주장으로 위협을 받아오던 영국의 무역과 어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초로 해양의 자유를 제창하고 나선 것이다.<sup>11)</sup>

그 후, 17세기 전반에 학설상으로 전개된 해양논쟁은 해역 구분에 관한 근대 해양법의 성립을 촉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선,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의 변호사였던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1609년에 동인도회사를

10) Percy Thomas Fenn, Jr, 1926, “Origins of the Theory of Territorial Water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No. 3, July, pp. 581~482

11) 杉原高嶺, 2004, 「海洋法の發展の軌跡と展望」, 栗林忠男·杉原高嶺 編, 『海洋法の歴史的展開』, 274~275쪽

위하여 또 동인도와의 통상을 배제하려는 포르투갈에 대항하여 『자유해론(Mare Liberum)』을 간행했다. 그는 동 저서에서 해양은 유동적인 요소로 되어 있어서 한계를 획정할 수 없고, 특정한 국가나 사인의 점유나 전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인의 공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은 교통의 수단이며, 자원의 재생산성과 비고갈성으로 만인에 의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의 상태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어업독점권을 근거로 외국인의 조업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바다에 의한 통상, 교통, 교환의 자유를 만인에게 보장함으로써 부와 자원의 편재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이나 해협과 같이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친 관행이 있으면 영유가 인정된다고 했다.<sup>12)</sup> 요컨대, 그로티우스의 주장은 점유가 불가능한 해양은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 항해나 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만인에게 공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당시 새로운 해양강국들의 지지를 받았다.<sup>13)</sup>

그로티우스의 '해양자유론'이 유럽 사회에 준 충격은 엄청났다. 그로티우스의 주장에 대한 반항의 크기는 그러한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예컨대, 웰우드(W. Welwood)의 『해법요의』(1613)와 『해양영유론』(1615), 포르투갈의 프레이타스(S. de Freitas)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포르투갈인의 정당한 지배에 대하여』(1625), 보로(J. Borough)의 『영국해의 주권론』(1933) 및 셸던(J. Selden)의 『폐쇄해론(Mare Clausum)』(1635) 등이 모두 그로티우스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제창된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 그로티우스 자신이 재반박하는 저술을 발표하기도 했다.<sup>14)</sup>

그로티우스에 대한 많은 반론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영국의 셸던이 1635년에 발간한 『폐쇄해론(Mare Clausum)』이다. 셸던은 영국해에 대한 영국의 지배와 영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지를 주장했다. 즉, 현실의 지배

12) 山本草二, 1992, 『海洋法』, 三省堂, 27~28쪽

13)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982, *Background Papers on the New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p. 1~2

14) 杉原高嶺, 2004, 앞의 논문, 276~277쪽

가 미치는 한, 대양의 영유는 법적으로도 가능하며, 옛날부터 각국의 장기간에 걸친 관행도 해양의 영유를 인정한다고 했다. 해양 자체도 그 범위를 획정할 수 있으며 어업자원은 유한하고 남획에 따라 고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로 티우스가 주장하는 근거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해양의 영유는 해군력에 의한 지배나 국가권력의 행사 등 점유의사를 나타내는 외형적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셸던도 연안국이 주변의 넓은 해역에 영유권을 설정하더라도, 외국 선박에 대한 통상과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했다. 결국, 양자의 논쟁의 초점은 배타적 어업권에 대한 것이며, 이 문제를 해양의 영유 가부라고 하는 법적 지위와 연결해서 공식적으로 다룬 것이다.<sup>15)</sup>

어쨌든 해양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해양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해와, 국가의 영유가 인정되는 영해라는 이원적 해양체제가 정립되었다. 특히 16세기경부터 주권국가 체제가 정착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공고해졌다. 당시 학자들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치열한 해양논쟁을 전개한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 Ⅲ. 영해범위의 확정을 위한 노력

#### 1. 착탄거리설

해양을 영해와 공해로 나누는 데 있어서 기준선은 영해의 범위에 따라 정해졌다. 그런데 공해에서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영역권이 행사되므로, 영해범위의 결정은 해양제도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가장

15) 山本草二, 1992, 앞의 책, 28~29쪽

중요하고 또 논란이 되는 문제였다.<sup>16)</sup>

16세기와 17세기의 초기 관행과 이론은 조정이 필요한 수역의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지거리와 같은 불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그러다가 그로티우스나 바인커스후크(Cornelius van Bynkershoek) 같은 학자의 등장으로 그러한 경향은 바뀌게 된다. 예컨대, 그로티우스도 모든 해양에서의 자유를 주장한 것은 아니고, 연안국의 인접 해역에서 소유권(dominium)이 아닌 일정한 관할권은 인정된다고 하여 넓은 의미의 영해제도를 부인하지 않았다.<sup>17)</sup> 당시 그로티우스가 해양의 자유를 주장한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독점적 해양 사용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 때문이었다.<sup>18)</sup> 바인커스후크는 1703년 그의 저서 『해양영유론(De Dominio Maris Dissertation)』에서 해양의 영유는 해군력을 통한 계속적이고 실효적인 점유를 요건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무력이 끝나는 데에서 영토의 권력도 끝난다(potestas terras finitur, ubi armorum vis)”라는 점을 강조하여 관할권의 행사가 실지로 가능한 곳까지 영해로 하는 ‘착탄거리설(cannon-shot rule)’을 주장했다.<sup>19)</sup> 또한 바인커스후크가 『공법의 여러 문제』에서 “무기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육지의 지배권도 끝난다(imperium terrae finiri, ubi finiri armorum potestas)”라고 기술한 부분도 그러한 주장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착탄거리설은 원래 연안국의 모든 해안을 따라서 연속된 영해범위, 즉 영해대의 설정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당시 네덜란드나 지중해 각국의 관행에 따라서 여러 연안에 거치되어 있던 포대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특정 부분의 범위를 인정받기 위한 이론이었다. 따라서 바인커스후크는 착탄거리설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이러한 착탄거리설의 상대성은 나중에 무기의 발달, 즉 사정거리의 향상에 따른 영해범위의 확대 주장으로

16) 田畑 茂二郎·石本泰雄, 1983, 『國際法』(第2版), 122쪽

17) R. R. Churchill and A. V. Lowe, 1999, *The Law of the Sea*, pp. 71~72

18) Percy Thomas Fenn, Jr, 1926, *op. cit.*, pp. 480~481

19) 山本草二, 1992, 앞의 책, 29~30쪽

20) 明石欽司, 2004, 앞의 논문, 16~17쪽

연결되었다.<sup>21)</sup>

한편, 스칸디나비아 각국은 연안포대의 존재나 착탄거리설과 무관하게 16세기 말부터 해안을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연안에 해양관할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당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해양강대국들에게 넓은 해역에 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좁은 연속된 범위의 연안 해역을 관할수역으로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대략 1리그, 즉 4해리의 범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특히 프랑스가 3해리의 범위를 덴마크의 영역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3해리의 범위가 착탄거리설과 결합되는 효시가 되었다.<sup>22)</sup>

그리고 1782년 이탈리아의 외교관 갈리아니(Galiani)는 미국 독립전쟁 때의 중립에 관하여 논하는 가운데 모든 해안에서 3해리를 영해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3해리라는 범위는 당시의 연안포의 사정거리를 감안했다기보다는 합리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포의 사정거리는 일반적으로 3해리까지가 기술적인 한계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3해리의 한계는 1793년 제1차 대불동맹전쟁 당시 미국이 중립수역의 범위를 3해리로 함으로써 최초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갈리아니의 주장이 착탄거리설과 결합되면서 영해 3해리설이 정착된 것이다.<sup>23)</sup>

그런데 19세기를 통틀어 3해리 원칙은 대부분의 주요 강대국에 의해 고수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모든 국가에서 이의 없이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위와 같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16세기 말부터 지속적으로 4해리의 영해를 주장

21) 이와 관련하여, 오다[小田] 판사는 바인커스후크가 『해양영유론』 2판에서 밝힌 “나는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에 대하여 논하는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표현으로, 무기의 효과가 끝나는 곳에서 육지의 지배가 끝난다”라는 표현 자체에 착탄거리설의 상대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포 사정거리의 확대나 새로운 무기의 개발로 인해 영해의 범위는 불가피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小田滋, 1989, 「領海制度のもつ意味について」, 『海洋法の原流を探る—海洋の國際法構造』(增補), 有信堂, 84~85쪽).

22) H. S. K. Kent, 1954,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Three-Mile Limi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8, No. 4, pp. 552~553

23) D. P. O’Connell, 1965, *op. cit.*, p. 130

했고, 그 밖에 스페인 등 지중해의 일부 국가들은 각자 다른 목적으로 그 이상의 영해범위를 주장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오토만제국 등은 어업과 밀수 규제 등의 목적을 이유로 연안 포대의 실제 통제 가능 범위에서 3해리를 초과하는 관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해양강대국들은 3해리의 영해를 지지했다.<sup>24)</sup>

이와 같이 착탄거리설은 3해리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19세기 후반 미국 남북전쟁 당시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대포의 사정거리가 3해리를 넘게 되자 “영해의 범위는 대포의 사정거리 또는 3해리”라는 표현은 타당성을 잃기 시작했다. 또한 어선의 기선화와 트롤어선(trawler)의 보급에 따라 연안 어장의 황폐가 문제가 되자 영해 확장의 필요성은 자주 논의가 되었다. 따라서 착탄거리설은 대포의 사정거리 향상과 함께 영해확장을 위한 논리가 되었으며, 반대로 3해리주의는 영해확장 저지의 논리가 되었다.<sup>25)</sup>

요컨대, 바인커스후크가 주장한 착탄거리설은 유럽 각국과 미국의 실행을 거쳐서 3해리주의와 결합되고, 다시 무기의 발달을 계기로 분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럽에서 양자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와 지중해 각국이 착탄거리설의 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덴마크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각국이 일정한 범위의 해대(海帶)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 점이 주목된다.<sup>26)</sup>

## 2\_ 헤이그 국제법편찬회의

이처럼 절대적인 보편성을 결한 3해리 영해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각국의 독자적인 영해범위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19세기 말부터는 불안정한 해양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즉, ‘영해범위의 통일운동’이 바로 그것이다.<sup>27)</sup>

24) D. P. O'Connell, 1965, *op. cit.*, pp. 130~131

25) 高林秀雄, 1977, 『海洋開發の國際法』, 6쪽

26) H. S. K. Kent, 1954, *op. cit.*, pp. 537~538

27) 朴鍾聲, 1978, 『海洋法研究』, 86쪽

이는 먼저 1873년에 설립된 국제법학회(Institut Droit International)나 1895년의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와 같은 민간학술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서는 1930년 국제연맹의 주도하에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법편찬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제2위원회가 영해와 공해, 접속수역 및 국제해협 문제 등을 검토하여 ‘영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약안’을 작성하고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했다. 그러나 중요한 영해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참가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조약은 성립하지 못했다.<sup>28)</sup> 전통적으로 해양선진국의 위치를 고수해 온 국가들은 선박의 항행과 어업활동의 보장을 위해서 좁은 영해 넓은 공해를 주장한 반면, 연안국들은 자국의 연안해에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넓은 영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헤이그회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8개국은 3해리를 지지했으며, 브라질, 스페인, 페르시아 등 13개국은 6해리를 지지했고 그 외 4해리를 주장한 국가도 4개국이나 되었다.<sup>29)</sup> 더욱이 전문가소위원회의 보고자였던 슈킹(Waldes Schücking)은 그의 보고서에서 착탄거리설에 입각한 3해리 영해를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sup>30)</sup> 그보다 50여 년 앞서 국제법학회나 국제법협회에서 영해 3해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12해리 영해를 결의했던 적이 있었으며, 세계의 대세는 이미 3해리보다는 넓은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sup>31)</sup>

이처럼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는 목적했던 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업적을 남겼다. 첫째, 사상 처음으로 조직적인 국제회의를 통해 영해 범위를 확정지으려 했다는 것, 둘째, 3해리 영해의 부적당함을 확인하여 강대국들이 3해리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은 것, 셋째, 영해범위에

28) 高梨正夫, 1986, 『新海洋法概説』, 成山堂, 19~20쪽

29) D. P. O'Connell, 1965, *op. cit.*, p. 159

30) 加藤信行, 2004, 「近代海洋法法典化の試み-ハーグ國際法典編纂會議・近代海洋法から現代海洋法への架け橋」, 栗林忠男・杉原高嶺 編, 『海洋法の歴史的展開』, 61~62쪽

31) 朴鍾聲, 1978, 앞의 책, 94쪽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집하여 주로 3해리에서 18해리 사이의 범위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함으로써 장래의 영해범위의 통일을 위한 충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것 등이다.<sup>32)</sup>

### 3\_ 제1차 및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영해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노력은 헤이그회의 이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및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안국이 자국의 영해범위를 3해리부터 12해리까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만 묵시적으로 확인한 채 막을 내렸다.<sup>33)</sup>

1945년 9월 28일 해리 트루먼 미대통령은 이른바 ‘트루먼선언(Truman Proclamation)’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연안에 접속하는 대륙붕의 지하자원을 자국의 관리 아래 두고, 근해 쪽에서의 공해어업에 대하여 타국과 공동으로 보존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sup>34)</sup>

이 선언은 다른 나라들의 연쇄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각국은 자국 인접 해역의 해양자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여<sup>35)</sup> 국제법질서는 크게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11차 유엔총회는 국제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1958년 2월 24일부터 제네바에서 해양법회의를 열 것을 결의하고 토의사항별로 5개의 위원회를 지정했다. 그리고 각 위원회의 보고를 기초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어업 및 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의 4개 협약과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

32) 朴鍾聲, 1978, 앞의 책, 96쪽

33) John F. Murphy, 2004, *The United States and the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Affairs*, pp. 227~228

34)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982, *op. cit.*, pp. 2~3

35) 1945년 미국에 이어 멕시코가 수심 200m까지의 대륙붕에 대한 개발권을 주장하자 1947년 6월 칠레를 선두로 라틴 아메리카 각국은 200해리까지의 대륙붕에 관한 주권선언을 했다(高林秀雄, 1979, 앞의 책, 221~226쪽).

정서 및 9개의 결의를 채택하여 해양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국제적 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sup>36)</sup>

그러나 영해의 폭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에 입각하여 다양한 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고 말았다. 특히 미국은 영해 3해리에 접속수역 12해리를 인정하는 안이 채택되지 않자 다시 6해리의 영해와 6해리의 접속수역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영해 이원의 접속수역에서의 외국선박이 갖는 어업에 대한 기득권의 시효가 문제가 되어 45 : 33 : 7로 부결되었다.<sup>37)</sup>

그 후 1960년 3월 17일 제네바에서 다시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가 개최되어 주로 해양의 폭을 결정지으려는 데에 초점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제출한 6해리 영해와 6해리 접속수역의 수정안은 54 : 28 : 5로써 3분의 2 다수결에 단 한 표 부족하여 채택되지 못하였다.<sup>38)</sup>

이렇게 양차에 걸친 해양법회의에서도 영해의 범위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 이유는 해양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어업상의 이해대립, 군사적인 이해대립 때문이었다. 즉, 어업상의 이해에 대해서는 연안어업국은 다른 어선의 배제 하에 자국민이 조업할 수 있는 연안 해역을 가능한 한 넓히려려고 했고, 원양어업국은 될 수 있으면 타국의 연안 가까이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 좁은 영해를 주장했다. 군사적인 이해와 관련해서도 함대 행동의 자유를 증시하는 해양강대국과 이를 봉쇄하려는 연안국이 대립하게 되었다.<sup>39)</sup>

36) 高林秀雄, 1979, 앞의 책, 243쪽

37) D. P. O'Connell, 1965, *op. cit.*, p. 163

38) D. P. O'Connell, 1965, *op. cit.*, pp. 163~164

39) 高林秀雄, 1979, 앞의 책, 459쪽

## IV.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 1. 개관

이상 본 바와 같이, 영해제도는 공해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로마 시대부터 시작되어 중세 대항해 시대의 해양 영유 논란을 거쳐서 근대에 확립되었다. 영해제도의 확립 과정은 해양법의 발전과 궤를 같이했는데, 그 과정은 결국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의 연속이었다고 할 것이다. 해양관할권 주장에 관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 해양강대국들의 제보를 보면, 그러한 역사적 과정이 쉽게 이해된다.

20세기에 들어서서도 영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다가, 결국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해의 법적 성격에 대한 양측의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군함의 무해통항이나 기타 안전보장과 관련된 해양법 문제를 둘러싼 해양강대국 내지 해양선진국과 연안국의 입장 차이는 현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영해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의 예로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들고, 후자의 예로는 중국의 경우를 들기로 한다. 영미 양국은 해양법의 발전과정에서 대표적인 해양강대국으로서 해양의 자유를 중시해 왔고, 중국은 제3세계의 리더로서 영미의 해양패권주의에 대하여 항상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 2. 영국의 영해 3해리주의의 전개

영국은 트라팔가해전(1805)의 승리 이후 해상패권을 장악하여 해양법 규범의 형성에서 타국을 주도했다. 영국은 1709년에 3해리의 관세수역을 설정하는 등 일찍부터 3해리주의를 채용했는데, 19세기에 들어서서 산업혁명의 성공을

배경으로 보다 명확한 형태의 3해리 영해 체제를 지지했다. 예컨대, 1800년과 1805년 사이에 해상재판소(court of admiralty)의 재판장 스토웰(Stowell)경에 의해 3해리의 영해가 원용되었다.<sup>40)</sup>

영국에서 영해 3해리 체제는 1850년의 뽀띠 줄호 사건을 통해 정착되기 시작했다.<sup>41)</sup> 이 사건에서 영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3해리 범위의 이원에서 영국 정부의 관할권 행사의 제한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통관 당국에 대하여 3해리 해역 밖에서의 법률적용과 단속행위를 금지하는 훈령을 발표했다. 즉, 본 건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주권행사를 자제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영국도 필요에 따라 3해리 이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했지만, 그 이후 3해리 밖에서 엄격하게 공해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당시까지 영해와 공해의 구별은 있었지만 엄격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이후 연안국의 범령제정권과 집행권의 범위의 한계로서 영해제도가 의식되었다. 영국은 이때부터 1958년의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까지 3해리 영해 외측에서의 연안국 관할권 행사에 대한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했다.<sup>42)</sup>

한편, 19세기 중반까지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지위에 대해서는 불명료한 부분이 있었다.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영토에 대한 주권과 마찬가지로 포

40) D. P. O'Connell, 1965, *op. cit.*, pp. 130~131

41) 뽀띠 줄호는 프랑스 국적의 밀수선으로서, 영국의 위트섬에서 근해 23해리를 항해하던 중 영국 감시선에게 관세감시조례 위반의 혐의로 나포되었는데, 감시선의 감시관이 밀수선에 승선하여 선박을 영국으로 예방하는 도중 밀수선 승조원이 감시관을 살해하고 도망쳤다. 영국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게 범인의 인도를 요구하는 한편, 영국 영역이 아닌 곳에서의 나포가 합법인지에 대해 국왕법률고문의 의견을 구했다. 법률고문의 회답은 다음과 같았다. 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안에서 3해리의 범위를 넘어 외국배에 국내법상 규제를 가할 수는 없다, ② 뽀띠 줄호의 나포는 근해 23해리의 외해(open sea)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다, ③ 따라서 영국은 영국에서 재판하기 위해 범인의 인도를 프랑스에 청구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古賀 衛, 2004, 『近代海洋法の發展過程』, 栗林忠男·杉原高嶺 編, 『海洋法の歴史的展開』, 27~28쪽).

42) 1955년 2월에 국제법위원회에 제출한 협약안에 대한 코멘트에도 그러한 입장은 유지되었다(小田 滋, 1989, 앞의 논문, 82쪽).

괄적인 것인지 논란이 된 것이다. 이 문제는 프랑코니아호 사건(여왕 대 카인 사건, Regina v. Keyn)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즉, 이 사건을 통해 무해통항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연안국과 선박 기국 사이의 권리 내지 권한이 조정된 것이다.<sup>43)</sup> 다만, 이 판결의 해석으로서 영해 내라도 단순히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한 관할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국내법 절차의 흠결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인지 논란이 되었다.

결국 1878년 영국의회는 ‘영수관할권법(Territorial Waters Jurisdiction Act)’을 제정하여 이를 정리했다.<sup>44)</sup> 즉, 이 법에 따라 프랑코니아호 사건과 같은 영해 내에서의 충돌사고의 가해 선박에 대한 관할권의 근거가 부여되었다. 다만, 이 법은 무해통항 전반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관할권 행사를 억제하고 있다. 프랑코니아호 사건의 판결 내용이 원래 영국 정부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의 무해통항권과 영해 내의 선박사고에 대한 관할권을 분리하는 국내법의 관행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영해 3해리가 착탄거리와는 관계없이 국가 간의 확립된 규칙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3해리의 영해에 반대하여 포탄이 미치는 한계 내에서 다양한 범위의 영해를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3해리 영해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다. 예컨대, 영해 3해리의 관행이 이미 소멸한 듯한 1960년대 후반까지도 영국은 “영국 정부는 연안 3해리를 초과하여 영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

43) 프랑코니아호는 독일 국적의 상선으로서, 1876년 함부르크를 출발하여 서인도제도를 향해하던 중, 도버 해안으로부터 2.5해리 근해에서 영국 선박 스트래트클라이드(Strathclyde)호와 충돌하여 동 선박 승조원 1명을 숨지게 했다. 프랑코니아호의 선장 카인은 사고의 책임자로서 과실치사죄로 영국 당국에 체포·기소되었다. 영국왕좌특별재판소는 대법정에서 이를 심리했는데, 근소한 차이의 다수로 3해리 이내의 해역이라도 외국배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외국배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카인에 대한 형사소추도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Louis B. Sohn and John E. Noyes, 2004, *Cases and Materials on the Law of the Sea*, pp. 413~417).

44) R. R. Churchill and A. V. Lowe, 1999, *op. cit.*, pp. 73~74

나라, 공해에서 적법한 활동에 종사하는 영국 선박은 이러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관련 조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가꿈 했다. 그러나 영국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3해리 영해를 반대하는 국가들의 수는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시까지 영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sup>45)</sup>.

한편, 영국은 1949년부터 1951년 사이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노르웨이와의 어업사건에서도 엄격한 3해리의 영해를 주장했다.<sup>46)</sup> 영국의 영해는 1987년 영해법(Territorial Sea Act)에 따라 비로소 12해리로 확대되었다.<sup>47)</sup>

### 3\_ 미국의 3해리주의의 확대와 변화

독립과 함께 국제사회에 등장한 미국은 기존의 해양질서에 따르면서 그 도전자로서 새로운 해양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해 3해리와 착탄거리설을 연결시킨 최초의 공식적 문서는 1793년에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측에 보낸 서한이었다.<sup>48)</sup> 비록 동 서한이 타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잠정적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착탄거리와 3해리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양자를 비교하여 기술한 최초의

45) R. R. Churchill and A. V. Lowe, 1999, *op. cit.*, pp. 77~79

46) <http://www.icj-cij.org/docket/files/5/1809.pdf>(2011.9 last visit)

47)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7/49/body>(2011.9 last visit)

48)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영역적 보호가 해양에서 어디까지 행사되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 연안해의 항행에 이익을 갖는 주요 국에게 회의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들에 대해 잠정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의견이 진술되고 주장되어 왔다. 우리나라 해안의 성질상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넓은 주변 수역에서 보호되는 항행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최종적인 범위를 장래의 검토를 위해 유보한 다음, 대통령은 그 산하 당국에 대하여 현재 1리그 또는 3해리의 거리에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범위는 다른 나라의 반대를 받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몇 나라 사이에서 조약에 따라 인정되어, 그 나라들이 자국의 해안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과 같거나 그것보다 짧은 것이다(John B. Moore, 1906, *A Digest of International Law*, pp. 702~703).

문서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은 이 문서의 발송 이후 영해 3해리를 기본적 해양정책으로 취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략선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연안 해역에서 교전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중립수역의 범위가 문제가 되었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3해리는 영국과 프랑스의 해전에서 중립수역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편의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나중에 관할권의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을 남긴 셈이었다. 즉, 미국은 제퍼슨 서한에서 영해 3해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착탄거리를 영해 범위의 기준으로 하지 않았지만, 특히 영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중립을 위한 영해 범위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의 영해 기준은 정식으로 재검토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도 3해리 영해를 전제로 한 입장이 미국의 해양정책의 기본이 된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영해 6해리를 주장한 스페인과 쿠바의 관할수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켰을 때 그런 입장을 밝혔다. 당시 미국 해군 선박의 쿠바 관할수역 항행에 대하여 스페인이 항의하자,<sup>49)</sup>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즉, 첫째, 3해리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둘째, 그 외의 일반적 규칙은 인정되지 않고, 셋째, 3해리보다 넓은 범위를 정하는 경우, 그것은 해군력의 행사에 따르는 것으로서 대포가 미치는 범위를 3해리라고 정하는 일반적 이해의 예외를 이루며, 넷째, 미국은 모든 나라가 보다 넓은 바깥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페인이 해안으로부터 3해리를 넘어 배타적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영국과 실질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이 되었지만, 착탄거리 기준으로부터 객관적 거리 기준으로의 이행은 그 후의 영해제도의

49) 스페인의 미국에 대한 항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스페인의 결정은 국제법에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은, 해양의 관할권이 미치는 것은 포탄이 미치는 범위까지라는 것이다. 어떤 나라의 영해도 이 원칙을 변형한 것으로, 스페인의 수역 범위는 근래의 대포의 개량에 따라 포탄이 미치는 거리를 넘는 것은 아니다. 그 원칙에 극단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한 국제적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古賀衛, 2004, 앞의 논문, 31~32쪽).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서서 3해리주의를 더욱 확고히 했다. 1923년의 커너드 스텝 컴패니 · 멜런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미국의 영해가 3해리라는 입장을 확인했다.<sup>50)</sup> 1953년 3월 3일 국무성은 의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그러한 입장을 확인했다. 즉, 국무성 법률고문대리는, 많은 국가들이 공해에서 주권의 연장을 통해 공해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려는 현재의 경향을 고려하면, 미국이 3해리주의라는 전통적인 정책을 향후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은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1953년 수중토지법(Submerged Lands Act)은 미국의 3해리주의를 밝혔으며, 1955년 2월 3일 미국 정부가 국제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국무성 법률고문은 1955년 5월 13일 강연에서 제퍼슨 이래 미국이 취한 전통적인 3해리주의의 유지를 재확인했다.<sup>51)</sup> 이러한 국내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3해리의 영해를, 그리고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6해리의 영해에 각각 접속수역을 더한 안을 주장했다. 미국의 제안은 어업수역이라는 기능적 제도를 영해에 보완적으로 추가하여 영해의 확대를 저지하려고 한 것으로, 냉전의 와중에 소련을 견제하려는 안보적 목적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sup>52)</sup> 비록 미국의 제안은 양차에 걸친 해양법회의에서 수용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12해리 영해에 반대하여 3해리 내지 6해리의 영해를 주장한 점은 해양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영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1960년대 말부터 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해협에서의 군함의 자유로운 통항을 조건으로 12해리의 영해 수용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1970년 2월 18일 닉슨 대통령이 외교백서에서 “해양법

50) *Cunard Steamship Co. v. Mellon*, 262 U.S. 100 (1923)(Carol Elizabeth Remy, 1992, “U.S. Territorial Sea Extension: Jurisdictio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6, Issue 4, pp. 1219~1220)

51) 小田滋, 1989, 앞의 논문, 82~83쪽

52) 小田滋, 1985, 『註解國聯海洋法條約(上)』, 有斐閣, 81쪽

에 대한 가장 긴급한 문제는 영해의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해양에 대한 각국의 주장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밝히고, 이어서 스티븐슨 국무성 법률고문이 12해리 영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상을 피력한 바가 있다.<sup>53)</sup>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1973년부터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확인되었다. 제3세계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12해리의 영해를 찬성했기 때문에 미국도 그러한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즉, 미국은 12해리의 영해를 명시한 해양법협약 제3조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국 미국은 1988년에 ‘레이건선언(Reagan Proclamation)’을 통해 영해의 범위를 12해리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sup>54)</sup> 당시 미국의 12해리 영해 수용은, 해양강대국으로서 내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12해리라는 명시적인 범위를 수용한 점을 고려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55)</sup> 다만, 미국은 주로 심해저개발제도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 4\_ 중국의 12해리 영해 주장

영해의 범위에 관한 한, 중국의 입장은 해양강대국에 대항하여 넓은 영해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즉, 1958년의 영해선언을 통해 12해리의 영해를 공식적으로 수용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전인 1992년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하여 그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즉, 중국은 해양문제에서 대표적인 연안국으로서 제3세계의 입장을 대변한 셈이다.<sup>56)</sup>

이러한 중국의 기본 해양정책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이라

53) 小田 滋, 1985, 앞의 책, 81~82쪽

54) Proclamation No. 5928, 3 C.F.R. 547, 43 U.S.C. § 1331 (1988)

55) Carol Elizabeth Remy, 1992, *op. cit.*, pp. 1208~1212

56) 이창위, 2011.1, 「중국 영해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문제점」, 『법학논총』 제25집, 248~253쪽

할 수 있다. 즉, 1958년 영해선언 이전 중국의 영해에 대한 인식은 불분명했으며, 따라서 영해의 범위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양을 크게 주목하지 않던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후부터 해양관할권의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sup>57)</sup> 이는, 강력한 대륙국으로서의 역사적 배경 외에, 국공내전 승리 후의 공산주의체제 확보라는 지상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미소냉전과 중소대립의 외중에 미소 양국의 해양 지배에 반대하여 해양을 통한 안전보장의 확립을 중시했다. 따라서 해양강대국들의 자유로운 해양 이용에 반대한다는 기본적 해양정책의 맥락에서 중국의 영해에 대한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영해에 대한 관련 입장은 1864년 발해만에서의 프러시아 군함의 덴마크 상선 나포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된다. 프러시아의 관할권 행사가 중국의 내양(內洋, inner oceans)에서 중국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항의의 이유였다.<sup>58)</sup> 이 사건은 결국 프러시아가 덴마크의 선박을 석방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당시 중국의 항의가 정확한 영해 개념의 이해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중국의 해양에서의 관할권 행사가 대외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의의는 적지 않다.

또한 중국은 1875년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강화도 사건에서 프러시아에 대한 항의와 유사한 이유로 일본에게 항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조선을 속국으로 간주하여 일본 군함 운요[雲揚]호의 강화도에서의 포격을 항의한 것이다. 일본의 수로측량을 핑계로 한 포격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10리의 관할수역 범위에

57) 중국은 넓은 영토를 가진 대륙국이었다. 그러나 자체의 긴 해안선과 넓은 해양의 이용에도 주목해 왔다. 예컨대, 夏나라와 周나라 시대부터 체계적으로 어업이나 염전을 관리했다는 기록도 있고, 宋나라 때는 서사군도의 조사를 위해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냈다. 명나라 때는 鄭和의 대함대가 태평양과 인도양을 항해하면서 30개국 이상과 교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쇠국정책을 취한 중국은 대륙 경영에 치중하여 해양강대국이 되지 못했다(Zou Keyuan, 2005, "Building a Marine Legal System in China", *China's Marine Legal System and the Law of the Sea*, pp. 4~5).

58) Zhiguo Gao, 1991, "China and the LOS Convention", *Marine Policy*, Vol. 15, No. 3, May, pp. 199~200

대한 침범에 입각했다는 것이 이유였다.<sup>59)</sup> 물론, 중국이 조선 측의 운요호에 대한 포격을 합리화하고 일본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것은 영해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이라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주장한 관련 내용은 영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1899년에 중국이 멕시코와 체결한 우호통상조약 제11조에 연안으로부터 3리의 영해를 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영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다.<sup>60)</sup> 그러나 그 조약은 오늘날의 영해제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주로 통상이나 교역에 대한 것이었다.

중화민국이 1912년에 성립된 후에도 영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다만,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중국 근해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이 활발해지면서, 12해리로 영해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내에서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되지 않았다.<sup>61)</sup> 다만, 어업 문제와 관련하여, 어업법, 공해어업장려조례, 어업기술전습조례와 같이 어업에 대한 여러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특히 1932년의 해양어업관리국조직조례에 따라 중국 연안이 4개 구역으로 구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는 영해의 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sup>62)</sup>

중국의 영해 범위에 대한 입장은 1930년의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당시 중국은 회의에 참가했던 다른 19개국과 함께 3해리 영해안에 찬성함으로써 해양선진국의 입장에 동조했다.<sup>63)</sup> 물론 헤이그회의는 실패로 끝났지만 중국이 좁은 영해를 대외적으로 주장한 점은 주목된다.

한편, 중국은 헤이그회의에서의 영해 범위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59) 龔迎春, 1999, 「中國における海洋法の理論と實踐」, 『法學政治學論究』 43號, 159~160쪽

60) Zhiguo Gao, 1991, *op. cit.*, p. 200

61) 李士豪·屈若騫, 1937, 『中國漁業史』, 商務印書館, 19~24쪽

62) 중국은 신해혁명 후 實業部に 어업국을 두어 주로 어업 문제를 관리했다. 어업 분야는 나중에 農商部和 農工部로 순차적으로 이관됐다(海洋政策研究財團, 2006, 『中國の海洋政策と法制に關する研究』, 5~6쪽).

63) Zhiguo Gao, 1991, *op. cit.*, p. 200

1931년에 영해 3해리령을 선포하여 영해의 범위를 일단 정했다. 이어서 1934년에 12해리의 관세수역도 확정했다.<sup>64)</sup> 물론 이러한 영해 3해리령은 공산당을 제외한 국민당 정부에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된 국가의 입장은 아니었다. 어쨌든, 당시 중국은 3해리 영해를 주장함으로써 적어도 1930년대까지는 해양관할권의 확대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영해의 확대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현된다.

## V. 맺음말

영해제도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을 해양의 이용에 대한 갈등 전체의 구조에서 파악한다면, 그것은 영해제도 성립의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로운 해양의 이용을 강조한 해양강대국과 그에 대한 제3세계 연안국들의 반대는 그러한 대립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해양관할권의 확대 주장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현대 해양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개발도상국들은 해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강대국 내지 해양선진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서 해양의 자유를 파악했다. 또한, 해양의 자유에 입각한 전통적 해양법을 서구 열강의 해외 진출 및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 이해했다. 즉, 서구의 해양강대국들이 해양을 통한 무역과 자원개발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러한 불평등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전통적 해양법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해양의 자유는 개발도상국에게 항상

64) 龔迎春, 1999, 앞의 논문, 161쪽

불평등한 자유이며, 동시에 소수국의 경제적 착취를 위한 자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들의 이러한 해양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해양법 체제에 대한 수정 요구로 나타났다. 그러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넓은 영해와 새로운 관할수역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해와 관련하여 보면,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은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일관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무기의 발달이나 과학기술의 진보로 영해 범위가 확대되었듯이, 양측의 경제적·군사적 격차의 심화로 영해 확대의 당위성이 주장될 수밖에 없었다.

영해의 범위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통해 일단 종결되었다. 영해 12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해양강대국들도 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을 대표한 중국은 해양관할권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중국이 12해리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을 지지한 것은 해양강대국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의 대외적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서 중국의 입장은 변하고 있다. 해양강대국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국으로서 해양관할권의 확대를 계속 중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력의 증강을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관할권의 확대를 견지하면서 해양의 자유로운 이용을 반대하던 중국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해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영해의 법적 성격과 운용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1958년의 영해선언과 1992년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해양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입장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강대국들의 좁은 영해 주장이나 그에 대항해 온 연안국들의 넓은 영해와 해양관할권 확대는 자국의 해양에 대한 국익 확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견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대의 로마부터 근현대의 영국과 미국, 소련, 일본 등 수많은 해양강국의 역사적 부침은 그러한 사정을 입증한다. 결

국, 해양을 둘러싼 관련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해양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영해의 법적 성격 내지 범위를 둘러싸고 고대 로마 시대부터 중세와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 전개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갈등과 그에 수반된 학설 대립과 치열한 논쟁의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국제법의 가치와 국익 추구라는 현실적 당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해양관할권의 확대에 반대해 온 미국과 영국의 전통적 해양정책을 새로운 해양강대국 중국이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 Brownlie, Ian, 1998,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Churchill, R. R. and Lowe, A. V., 1999, *The Law of the Sea*
- Fenn, Jr, Percy Thomas, 1926, "Origins of the Theory of Territorial Water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No. 3, July
- Kaye, Stewart, 2006, "Freedom of Navigation in a Post 9/11 World: Security and Creeping Jurisdiction", David Freestone, Richard Barnes and David Ong(ed.), *The Law of the Sea—Progress and Prospects*
- Kent, H. S. K., 1954,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Three-Mile Limi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8, No. 4, October
- Moore, John B., 1906, *A Digest of International Law*
- Murphy, John F., 2004, *The United States and the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Affairs*
- O'Connell, D. P., 1982,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1
- Remy, Carol Elizabeth, 1992, "U.S. Territorial Sea Extension: Jurisdiction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6, Issue 4
- Sohn, Louis B. and Noyes, John E., 2004, *Cases and Materials on the Law of the Sea*
-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982, *Background Papers on the New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Zhiguo Gao, 1991, "China and the LOS Convention", *Marine Policy*, Vol. 15, No. 3, May
- Zou Keyuan, 2005, "Building a Marine Legal System in China", *China's Marine Legal System and the Law of the Sea*
- 加藤信行, 2004, 「近代海洋法法典化の試み—ハーグ國際法典編纂會議・近代海洋法から現代海洋法への架け橋」, 栗林忠男・杉原高嶺 編, 『海洋法の歴史的展開』
- 古賀衛, 2004, 「近代海洋法の發展過程」, 栗林忠男・杉原高嶺 編, 『海洋法の歴史的展開』

- 高梨正夫, 1986, 『新海洋法概説』, 成山堂
- 高林秀雄, 1977, 『海洋開發の國際法』
- 高林秀雄, 1979, 『領海制度の研究』(第2版)
- 龔迎春, 1999, 「中國における海洋法の理論と實踐」, 『法學政治學論究』 43號
- 明石欽司, 2004, 「海洋法前史」, 栗林忠男・杉原高嶺 編, 『海洋法の歴史的展開』
- 朴鍾聲, 1978, 『海洋法研究』
- 山本草二, 1992, 『海洋法』, 三省堂
- 杉原高嶺, 2004, 「海洋法の發展の軌跡と展望」, 栗林忠男・杉原高嶺 編, 『海洋法の歴史的展開』
- 小田滋, 1985, 『註解國聯海洋法條約(上)』, 有斐閣
- 小田滋, 1989, 「領海制度のもつ意味について」, 『海洋法の原流を探る－海洋の國際法構造』(増補), 有信堂
- 李士豪・屈若騫, 1937, 『中國漁業史』, 商務印書館
- 田畑茂二郎・石本泰雄, 1983, 『國際法』(第2版)
- 海洋政策研究財團, 2006, 『中國の海洋政策と法制に關する研究』

**[ABSTRACT]**

Conflict over Maritime Creeping Jurisdiction between  
Maritime Powers and Coastal Stat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istory of the Territorial Sea and Its  
Modern Significance

Lee Changwee

Maritime powers and coastal states have long been opposed to each other over the legal status and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The conflict over territorial seas was settled by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 It could be said that the territorial sea regime was developed together with the history of the law of the sea.

Taking into accoun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deals with conflict over maritime creeping jurisdiction between maritime powers and coastal states from the historical viewpoint of the territorial sea regime as well as its modern significance. Specific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the territorial sea regime, attempts to fix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and discusses conflict between maritime powers and coastal states.

With regard to conflict between maritime powers and coastal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forwarded as examples. Both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traditional maritime powers for centuries, while China has been a continental power for a long time. However, China has been changing

into a maritime power recently. It remains to be seen how China will alter its maritime policy. China is a significant point for observing the context of changing maritime circumst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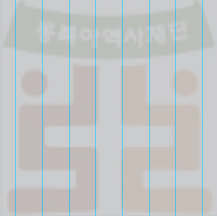
#### Keywords

maritime power, coastal state, territorial sea, Grotius, Selde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동향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한국 강제병합 100년과 일본 사회의 동향

김명수 ■ 일본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 I. 머리말

본고는 2010년에 일본에서 볼 수 있었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이하 ‘병합100년’으로 약함) 관련 주요 동향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도 ‘병합100년’이 갖는 현재적 의미와 실천적 과제를 중시한 몇 개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sup>1)</sup> 또한 김민철은 ‘병합100년’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동향을 다루었고,<sup>2)</sup> 최덕수는 일본 역사학계의 동향을 정리했다.<sup>3)</sup> 현 정부의 과거사

※ 투고일: 2011년 10월 6일, 심사일: 2011년 11월 29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2월 6일

- 1) 와다 하루키, 2009. 5, 「한일병합 100년,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플랫폼』 통권 제15호, 인천문화재단, 38~45쪽; 이승렬, 2010. 8, 「강제병합 100년과 성장의 공공성」, 『역사비평』 92, 역사비평사, 212~228쪽; 백낙청,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한반도 - 일본의 한국병탄 100주년을 맞아」, 『역사비평』 92, 229~249쪽; 서승, 2010. 11, 「동아시아 역사·인권·평화선언을 위해 - ‘한국병합’ 100년에서 일제 140년 동아시아 침략사를 생각한다」, 『역사비평』 93, 13~29쪽; 조경달, 2010. 12, 「한국강제병합과 현재」, 『창작과 비평』 통권 150호, 창비, 475~497쪽
- 2) 김민철, 2010. 12,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과 한국사회 - 식민지배의 유산과 극복을 둘러싸고」, 『내일을 여는 역사』 제41호, 310~344쪽

외면 정책을 '의도된 침묵'으로 비판한 김민철은, 비교적 논의가 풍성했던 역사학계의 활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실증 위주'에 그쳤고 '식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했다'고 아쉬워했지만,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일시대대회'에서 발표된 '식민주의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한일 시민의 새로운 실험으로 높이 평가했다. 최덕수는 『歷史學研究』(2010년 6월호와 7월호)와 『思想』(2010년 1월호)을 중심으로 일본 역사학계의 동향을 검토한 뒤 '일본 역사학의 역사인식 전환, 곧 자국중심주의 역사관의 극복과 세계사적 시각에 입각한 병합에 대한 연구'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연구를 자국중심사관에 입각한 대표적 연구로 비판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가 제기한 '장기적 전망과 세계사적 관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일본 역사학계의 동향에만 초점을 맞춘 최덕수의 연구만으로는 '병합100년'과 관련된 일본 사회의 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다.<sup>4)</sup> 이에 본고에서는 2010년에 일본에서 이루어진 '병합100년' 관련 각종 행사들을 학계 이외의 부문까지 시야에 넣어 정리하고자 한다.

2010년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중국의 부상과 발언권 강화가 두드러진 해였다. 센카쿠열도[尖閣列島]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다소 고압적인 중국 외교를 경험하면서 일본의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중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지위 붕괴와 맞물리면서 일본의 위기감은

3) 최덕수, 2011, 2, 「한국 강제병합 100년 일본역사학의 동향과 전망」, 『韓國史學報』 제42호, 325~347쪽

4) 한편, '병합100년'과 관련하여 한일 언론의 보도행태를 분석하여 양국의 인식차를 강조한 글들도 발표되었다. 오대영, 2011, 2, 「한국과 일본신문의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뉴스 프레임 차이 비교」, 『한국언론학보』 55(1), 한국언론학회, 140~168쪽; 박선영, 2011, 6, 「한국병합 100년과 한일 언론: 병합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의 겹」, 『언론과학연구』 11(2), 한국지역언론학회, 181~214쪽. 마쓰다 도시히코[松田利彦]는 러일전쟁에서 '한국병합'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정리하면서 관련 문헌목록을 첨부하여 참고된다. 松田利彦, 2011, 3, 「일본에서의 한국'병합'과정을 둘러싼 연구-논점과 경향」, 『한국근현대사연구』 56, 한국근현대사학회, 173~201쪽.

좌절감으로 변해 갔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부채질하여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일본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시하고, 한국 관련 정책에 힘을 쏟는 이유도 위와 같은 변화된 동북아 정세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일본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삼았고,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했다. 일본이 2010년을 '節目'(이하에서는 '전환점'이라 바꾸어 칭함)으로 강조한 이유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병합100년' 관련 각종 행사를 평가할 때, 이상의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전제로 해야 할 터이지만, 이러한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문화적 문맥에서도 한일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는 많다. 삼성과 엘지로 대표되는 전자산업과 현대의 자동차산업이 세계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일본 재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샐러리맨들에게 '한국 기업 배우기'를 숙제로 제공하였다. '한류'로 대표되는 한일 문화교류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2010년은 중년 여성이 중심이었던 '한류' 향유층의 젊음화가 두드러졌던 해이기도 했는데, 한일관계에서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들 역사 무지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sup>5)</sup>

본고는 이상의 연구사와 현상 인식에 입각하여 '병합100년'과 관련된 일본 사회의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면의 제약상 2010년에 이루어진 행사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만을 선별하였다. 여론조사, 심포지엄, 각종 잡지의 특집호, 신문과 방송의 특집 편성, 총리담화에 대한 각계의 반응, 시민

5) 이는 '병합100년'과 관련하여 상징하는 바가 크다. 그러한 의미에서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본 문화에 대한 개방은, 이후 전개되어 온 양국의 문화교류 속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시하는 흐름을 형성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는 당시 현실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문화교류와 협력을 인정하면서 향후 개방과 경쟁을 통해 한국 문화의 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적 사고의 결과이기도 하다. 류상영, 2011, 8, 「김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전략 -주요 저작과 어록을 통해 본 인식의 진화와 정치적 선택」,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3집 제1호, 135쪽

단체의 활동 등이 그것이다.

## 1\_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인식: 여론조사의 정리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지난 2010년 4월 9일과 11일 사이에 ‘병합100년’에 앞서 한국의 자매지인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한일관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2,202명을, 한국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청취방식(RDD)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드러났다.<sup>6)</sup>

현재 한일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본에서는 ‘좋다’가 57%, ‘나쁘다’가 29%였고, 한국에서는 ‘좋다’가 24%, ‘나쁘다’가 73%에 달했다. 상대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본에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 45%가 ‘신뢰할 수 없다’ 41%보다 많았던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가 무려 80%에 달했다. 일본이 식민지로서 한국을 지배한 것이 현재 한일관계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68%와 80%를 기록하여 역사문제가 양국관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이 밝혀졌다. 일본의 한국 병합에 관해서는,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대답한 이가 44%로 ‘병합하지 말았어야 했다’의 21%를 상회했다. 한국의 경우는 같은 순으로 각각 28%와 54%였는데, 식민지 지배를 바라보는 제국주의 가해국 국민과 식민지 피해국 국민 사이에 가로놓인 역사인식의 어긋남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였다. 주목되는 점은, ‘병합 자체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이들이 한국의 9%에 대해 일본은 26%에 달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37%로 ‘나빠질 것이다’라고 대답한 4%를 훨씬 뛰어넘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둘 다 20% 정도로 일본에

6) 《讀賣新聞》, 2010. 4. 17과 여론조사 원데이터(제공자 불문 요청). 원데이터에는 한국의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소득별, 종교별, 주택형태별, 주택소유형태별로 조사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지역별, 도시규모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지정당별로 조사되었다.

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한일 양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수준에 있다’와 ‘한국이 앞서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일본의 경우 16%와 15%였고, 한국의 경우 9%와 3.6%였다. 특히 일본의 결과는, 최근 한국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모바일폰, 반도체, 모니터,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세계적 활약상이 일본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한일 간 기술격차를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는 양국의 기술격차가 크게 줄어들거나 한국이 일본을 캐치업(일부 분야에서는 추월)하고 있다는 일본 국민의 인식을 보여준다. ‘일부는 같은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이 앞서고 있다’고 대답한 이들이 일본 39%, 한국 50%였는데, 그 비율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어도 한국 국민들 중에 여전히 일본의 기술적 우위와 경제적 우위를 사실로 인정하는 이들이 많음을 알려준다.

이 여론조사에서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은, 한일 양국의 연령대별 인식이다. 현재의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대답한 일본인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20대 38%, 30대 36%, 40대 26%, 50대 26%, 60대 25%, 70대 이상 31%로, 20대와 30대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20대 중 59%가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하여 30대 40%, 40대 36%, 50대 38%, 60대 44%, 70대 이상 4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한일관계가 좋아지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20대의 18%만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대답하여, 다른 연령대의 32%~43%에 비해 낮다. 이상을 종합할 때, 일본의 20대는 한일관계와 한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장래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한일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젊은층의 보수화 현상이 일본에서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향후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으로 주목된다.<sup>7)</sup> 한

7)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실증을 통해 비판을 가한 연구도 있어 참고할 만하다. 요시다 고사쿠[吉野耕作]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결여 속에서 이루어진 각종 미디어의 양자택일식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젊은이들의 우경화와 보수화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하였다. 吉野耕作, 2007, 「若者の右傾化・保守化」とナショナリズム-社會調査を通して大學生と共に考える, 『年報社會學論集』第20

국의 경우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좋지 않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일본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에도 대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의 양국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역시 연령대와 상관없이 나빠지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20대의 일본관이 다른 세대들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비관적이었는데, 이는 1998년 문화개방 이후 유입된 일본문화의 소비와 관련 있어 보인다.

이상과 같은 한일 양국 국민 사이에 놓인 과거사 인식과 향후 관계에 대한 전망의 차이는 ‘병합100년’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그대로 투영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한일관계를 논하는 데 있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 ‘병합100년’ 관련 시민운동

먼저 일찍부터 ‘병합100년’ 행사에 깊숙이 관여해 왔던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주오대학[中央大學] 명예교수가 『마스코미市民』에 실은 글을 통해 2010년의 행사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 시민운동을 이끌고 있는 지식인들의 ‘병합100년’에 대한 자세를 엿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미해결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sup>8)</sup>

먼저 이토 교수는, 2010년의 주목할 만한 점으로, 식민지 지배 문제의 청산을 둘러싸고 전개된 한일 양국 시민의 공동행동을 꼽았다.<sup>9)</sup> 먼저 한국의 시민들은 2009년 3월에 한국 강제병합 100년에 해당하는 2010년을 미청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2009년 가을에는 일본 측 시민단체에 2010년에 한일 양측이

號, 2~12쪽

8) 이하의 내용은, 伊藤成彦, 2010. 10, 「百年越しの植民地支配『韓國強制併合百年』の諸行事を終えて」, 『マスコミ市民』 501의 글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9) 伊藤成彦, 2010. 10, 위의 논문, 48쪽

‘한일시민공동행동실행위원회’를 조직할 것과 공동으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요구하고 그를 위해 8월에 ‘한일시민공동선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일본 측은 이 제안에 ‘과거를 청산하여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응하였고, 그 결과 2010년 1월 31일에 도쿄에서 ‘한국강제병합백년일한시민공동행동일본실행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일본실행위원회’를 결성하는 집회에서는 종군위안부 문제, 전시강제연행·동원 문제, 한국인 군인·군속·전몰자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 관동대진재 당시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 등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한 보고와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병합100년’을 계기로 지금까지 각자의 입장에서 식민지 지배의 미청산 문제를 다루어 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4월 18일에는 이태진 교수, 강덕상 교수, 사사카와[笹川紀勝] 교수 3인을 중심으로 식민지 지배의 법적 기초인 한국병합조약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병합조약이 현재의 국제법뿐만이 아니라 1910년 당시의 국제법에 입각하더라도 ‘무효’임을 밝혔다.<sup>10)</sup>

5월 10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각 100여 명씩 200여 명이 서명한 ‘한일지식인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은 ‘병합100년’을 맞아 양국의 지식인들이 두 나라가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유해야 할 한국 병합에 대한 인식과 향후 과제를 논의해 정리한 것이다.<sup>11)</sup> 공동성명을 위한 움직임은 2008년부터 일본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온 ‘공동된 역사인식 확립의 필요성’을 구체화한 것인데, ‘병합100년’을 앞둔 2009년에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와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교수가 정식으로 한국 측에 제안한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에 의한 정권 교체와 하토야마[鳩山] 내각의

10) 한국병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는 오랫동안 공동연구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이미 2008년에 일본어판으로, 2009년에 한국어판으로 집대성되었다. 笹川紀勝·李泰鎭 編著, 2008, 『韓國併合と現代－歴史と國際法からの再檢討』, 明石書店; 이태진·사사카와 노리가츠 공편, 2009, 『한국병합과 현대－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11) 공동성명 전문과 7월 28일에 발표된 양국의 贊同者 최종 명단은 歴史科學協議會 편집, 2011, 『歴史評論』 729, 1월호, 校倉書房, 96~104쪽

탄생을 계기로 정부의 협력을 얻기 쉬울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내용을 한국의 신문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응답하여 2009년 12월에 한국의 지식인 그룹이 양국 지식인의 공동성명을 다시 일본 측에 제안하였고, 김영호 유한대학교 총장이 직접 방문하여 와다 교수와 오카모토 아쓰시[岡本厚] 『세카이[世界]』 편집장과 간담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였다. 즉, 병합이 장기에 걸친 일본의 침략의 결과 강제된 것이라는 인식, 병합조약이 강제된 과정을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가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 병합조약의 무효를 선언한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이 갈린 점은 한국 측의 해석을 채용하여 통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원칙을 반영하여 일본에서 처음 성명 안을 만들고, 한국에서 다시 안을 제출하여 통합 안의 형태로 공동성명 안이 정리되었다.<sup>12)</sup>

그런데 이러한 공동성명은 이전에도 있었다. 북한과 일본의 역사가들 중심으로 발표된 1991년 8월 29일의 ‘일조 양국의 역사가는 성명한다’가 그것인데, 북한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정부교섭에 힘을 실는다는 의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1991년의 성명은 와다 교수와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교수의 발의로 일본인 역사가 10명과 김석형, 박시형 등의 북한 역사가 10명이 서명했다. 당시의 공동성명에도 다음과 같은 지적이 포함되어 있어 2010년 5월의 공동성명이 발의자와 내용을 볼 때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병합조약은, 조약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아무리 ‘양자의 완전한 의사, 평등의 입장에서 체결되었다’고 가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본의 무력을 배경으로 한 협박을 통해 대한제국 국권의 단계적 탈취 과정을 완성한 것으로, 그 본질은 무력에 의해 강제된 병합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 한국병합조약은, 일본의 한국병합, 조선식민지 지배를 어떤 의미

12)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和田春樹, 2010. 7, 「日韓知識人共同聲明の發表にあたって」, 『世界』 806, 岩波書店, 103~108쪽

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sup>13)</sup>

공동성명 참가자들은 그 뒤에 각각 500명까지 서명 참가자들을 늘려 병합 100년을 맞는 8월에 양국 정부에 이를 건넬으로써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sup>14)</sup> 실제로 2010년 7월 28일에 김영호, 이태진 교수 등 4명을 포함한 한일 양국의 발기인들은 아라이 사토시[荒井聰] 국가전략담당대신을 위시하여 민주당의 요인들을 방문하여 총리담화에 ‘병합조약’의 무효선언을 포함 시키도록 요청했고, 김영호 총장은 “무라야마 담화를 뛰어넘는 총리담화가 나오게 되면, 한일 간에 ‘감동의 연쇄(작용)’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sup>15)</sup> 간 총리의 ‘총리담화’는 그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5월 25일에는, 한국 민주당의 강창일·유선호·장세환과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등 4명의 한국 국회의원을 초대하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한일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때 일본 측 중의원에서는 민주당의 이시게[石毛えい子]·우부카타[生方幸夫]·사이토[齊藤勤]·슈토[首藤信彦]·후지타[藤田一枝]·구와하라[桑原功]·쓰지[辻惠], 사민당의 핫토리[服部良一], 공산당의 가사이[笠井亮] 의원이 참석하였고, 참의원에서는 민주당의 이마노[今野東]·오오카와라[大河原まさこ], 공산당의 야마시타[山下芳生]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하여 식민지 지배의 미청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 밖에도 의원을 대리하여 출석한 총 14명의 비서가 방청하였다. 간담회 후에는 네 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간 나오토[菅直人] 재무대신을 방문하여 식민지 지배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6월부터는 한일공동선언의 기초에 착수하여, 8월 22일 오후에 도쿄 이케부쿠로[東京 池袋]의 도요시마[豊島]공회당에서 개최한 ‘한일시민공동선언대

13) 和田春樹, 2010. 7. 위의 논문, 104쪽

14) 공동성명에 참가한 최종 인원은 일본 측이 540명, 한국 측이 603명이었다. 출처는 각주 12와 같음.

15) 小田川興, 2010. 8. 「植民地被害者の心に届ける努力こそ－『韓国併合』100年1日 韓知識人共同声明の課題」, 『社會運動』 365號, 16쪽

회'와 8월 29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강제병합100년한일시민대회'에서 발표하였다.

둘째, 이토 교수는 8월 10일의 총리담화에 대해 병합조약의 무효에 대한 언급 없이 사죄의 미사여구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16)</sup> 한일시민운동은 '한일시민공동선언'을 기초하면서 여러 가지 경로와 형태를 통해 2010년 8월 22일 이전에 일본 정부가 병합조약의 무효와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일으킨 인권침해 등 이른바 미청산 문제의 해결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요구해왔다. 8월 10일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간 총리의 '총리담화'는 형식적인 면에서 그러한 시민들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sup>17)</sup> 그 때문에 한일 양국의 시민운동이 공동으로 작성한 '식민지 지배의 청산과 평화 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20항목의 요망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총리담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한편, '병합100년'을 준비하며 가장 일찍부터 활발히 움직인 단체는 "한국병합"100년 시민 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이다. '반성과 화해의 시민선언운동'을 표방한 시민네트워크는, 2008년 7월 27일자 발기인 모집 취지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본에서 전개되는 각종 시민운동과 한일연계를 위한 정보센터로서 기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창립 이후 2010년 10월 현재까지도 이하에 언급하는 상당히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왔고, 일본인들에게 역사에 대한 이해와 반성 그리고 화해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sup>18)</sup> 간사이[關西] 지방이 중심인 듯하지만 도쿄에서의 행사도 적지 않았다. 시민네트워크가 개최, 후원,

16) 伊藤成彦, 2010, 10, 앞의 논문, 49쪽

17) 구체적인 비판의 내용은 3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18) 시민네트워크의 공동대표에는 岩佐英夫(변호사), 大久保史郎(立命館대학), 岡田卓己(啓明文化대학), 神谷雅子(京都市네마), 宋富子(高麗博物館名譽館長), 竹内眞澄(桃山學院대학), 田中宏(龍谷대학), 俵義文(아이들과교과과사전국네트), 鶴見俊輔(철학자), 戸塚悦朗(龍谷대학), 中山武敏(변호사), 波佐場清(전 朝日新聞社), 前田哲男(저널리스트), 増田都子(東京都學校유니온), 三島倫八(龍谷대학), 安川壽之輔(名古屋大學 명예교수), 李清一(在日한국기독교회관)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http://www.nikkan100.net/hokkinin.html>(검색일 2010년 11월 23일)

참가한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았다.

- ① ‘日韓(韓日)市民平和の旅と交流会’(2009년 10월 20일~27일), 부산, 쓰시마[對馬], 기타큐슈[北九州], 오사카[大阪] ※한국의 경기 시민사회포럼여행자조합(준) 등 몇 개 단체와 공동주최
- ② ‘韓國併合’100年寫真展’(2010년 1월 17일~24일), 히토·まち交流館京都)
- ③ ‘過去を清算し平和の未來へー’韓國強制併合100年’共同行動日本實行委員會結成の集い’(2010년 1월 31일, 도쿄 早稻田奉仕園スコット홀)
- ④ 水野直樹 교수의 강연회(3월 28일), 崔善愛 씨의 피아노 콘서트(2월 28일)
- ⑤ 심포지엄 개최 ‘朝鮮植民地から100年－東アジアの平和と共生をめざして’(4월 18일, 全水道會館大會議室), 패널리스트 李泰鎮, 笹川紀勝, 姜徳相
- ⑥ 영화 상영회 ‘映畫〈朝鮮の子〉(1954)を見て考える’(5월 9일, 岐部홀)
- ⑦ 京都自由大學一般講義를 후원 ‘韓國併合’100年と日韓市民の新たなパートナーシップ－新しい100年を築く日韓の出会い’(5월 14일, 京都自由大學 町家캠퍼스)
- ⑧ ‘2010年平和の通信使ツアー’(2010년 8월 중)
- ⑨ ‘韓國併合’100年 日本と朝鮮半島の過去・現在・未來を考える 日朝・日韓文化交流のタベ’(8월 7일, 龍谷大學アヴァンティ響都홀)
- ⑩ ‘朝鮮植民地支配を清算し、平和と共生のアジアを!－8・22日韓市民共同宣言大會’(8월 22일, 豊島公會堂)
- ⑪ ‘韓國併合100年の今 韓國人太平洋戰爭遺族の聲’(10월 11일, 龍谷大學深草キャンパス)
- ⑫ 『「韓國併合」を問う』(李泰鎮·中塚明·戸塚悦朗 공저) 발간

### 3\_ 총리담화에 대한 각계의 반응

간 총리의 담화에 대한 전체적인 일본 내 분위기로는 “식민지 지배를 정면으로 다루어 ‘깊이 陳謝하고 싶다’고 말한 1993년의 호소카와[細川護照] 총리의 발언부터, 전후 50년의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 전후 60년의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의 두 담화에 계속된 흐름이고 내용이다. 그럼에도 한국병합 100년이라는 전환점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지도자가 역사인식을 직접 표명하고, 장래에 대한 기대와 방침을 다시 한 번 제시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화해와 신뢰 획득으로도 연결될 것이다”<sup>19)</sup>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특히,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담화였다는 점, 일본 입장에서 자칫 ‘한국병합무효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의 한국인들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로 인해,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할린에 사는 한국인에 대한 지원이나 유골 반환에 대한 지원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속하겠다고 선언한 점, 문화재(조선왕조의궤) 반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등이 평가되고 있다. 총리담화가 나오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센고쿠[仙谷由人] 관방장관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에 대한 의견은 이번 담화가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아래의 인용문 참조). 아울러 간 내각에서 대신과 부대신, 정무관을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보내는 정부 차원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한국 병합에 기인한 식민지 지배의 가혹함은, 말을 빼앗고, 문화를 빼앗고, 한국인들의 말에 따르면 토지를 빼앗은 실태도 있었다고 하니, 그러한 점들을 직시하며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자긍심이 높은 민족으로, 종교적 의식을 강제한 것도 상당히 자긍심에 상처

19) 《朝日新聞》2010. 8. 11, 〈社説〉

20) 《讀賣新聞》2010. 8. 16, 〈參拜ゼロ 中韓に配慮〉

를 입혔다고 듣고 있다. [...] 역사적인 화해를 이야기하는데 100년 걸린다. 상처받은 쪽은 3대에 걸쳐 후세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현실의 피해감정을 갖고 있는 분도 있다.<sup>21)</sup>

하지만 총리담화는 무엇보다 군사적 지배하에 체결된 병합조약의 무효성이라는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본 외무성은 일관되게 한국 병합조약이 유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5년 10월 13일에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답변의 형태로 이루어진 무라야마[村山] 총리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총리의 담화 또한 ‘따라서 병합조약은 무효’라고 적시하지 않았다. 특히 담화 속에서, “3·1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도 나타났듯이, 정치적·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 사람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로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역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가지고, 직접 잘못을 돌아보는 일에 솔직하고 싶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담화는 ‘따라서 병합조약은 무효’를 결하고 있다. 총리담화가 말뿐인 사죄라고 폄하되는 이유이다.

간 총리의 담화가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담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 병합’이라고 하는 경우의 ‘한국’은 ‘대한제국’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두 국가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담화의 내용은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담화의 내용을 검토하면 그렇게는 읽히지 않는다.<sup>22)</sup> 더구나

21) 《讀賣新聞》2010. 8. 5, 〈植民地支配 過酷さ直視〉

22)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아사노 겐이치[淺野健一]의 방북 스케치 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黃虎男 조선대외연락협회 일본국장의 코멘트가 실려 있어 참고삼아 적어 둔다. “간 총리의 담화는 ‘日韓新時代’라든가 문화재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공화국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 憤激을 억누를 길 없다. 민족분단의 고정화를 노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자민당에서 바뀐 정권이고, 시민운동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는 수상이 이러한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淺野健一, 2010. 11, 『『日韓併合條約』捏造百年で日本政府に過去清算を求める朝鮮』, 『進歩改革』707號, 23쪽

“한일 양국은, 지금 이 21세기에 민주주의나 자유,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하고 긴밀한 이웃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국 간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장래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을 염두에 둔 이 지역의 ……”라는 부분은 확실히 북한을 배제하고 있다. 남북분단을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자세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내용은, 1995년 8월 15일의 무라야마 담화에서도, 1998년 10월의 오부치-김대중 ‘한일공동선언’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것이었다.

총리담화에 대한 일본 정계의 비판적인 견해 또한 만만치 않다. 이번 담화를 주도했다고 일컬어지는 ‘60대 트리오’, 즉 간 총리, 센고쿠[仙谷由人] 관방장관,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전 총리 등과 민주당 내 40대·50대 각료들 사이의 의견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총리담화를 통해 정치권의 정당별 세대 간 역사인식의 차이가 노정되었음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다니가키[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간 총리의 담화에 대해 “미래지향으로 하려는 발상은 필요하지만, 과연 지금(담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비판하였는데, 그 비판의 배경에는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과 그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합의로 해결된 문제를 경솔하게 다시 반복하는 것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sup>23)</sup> 이러한 인식은 다니가키 총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자민당의 아베[安倍晋三] 전 총리나 다치야가레일본당[立ち上がれ日本黨]의 히라누마[平沼赳夫] 대표 등도 간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동성명의 형태로 발표하고, 다니가키 자민당 총재에게 “총리에게 담화 발표를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 공동성명 발표에는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마쓰자와[松澤成文] 지사나 사이타마현의 우에다[上田清司] 지사도 참가하였다. 자민당을 위시한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들이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 내의 젊은 각료들의 불만도 제기되어 결과적으로 총리담화는 여당

23) 《朝日新聞》, 2010. 8. 6. 〈併合100年談話谷垣氏「疑問」〉

내 역사인식을 둘러싼 세대 간 이질성이 부각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젊은 각료들을 대표하는 이로는 민주당 政調會長을 겸임하고 있던 겐바[玄葉光一郎, 46] 공무원제도개혁담당대신(당시)을 들 수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임에도 내각의 異論을 봉인한 채 발표된 총리담화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하라구치[原口一博, 51] 총무대신도 “국제법상의 새로운 의무를 일본에 부과하는 것이라면, 온몸을 던져 저지하겠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sup>24)</sup>

이러한 반응은 기본적으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시각은, 일본회의사업센터(日本會議事業センター)가 편집하고 自由主義史觀研究會라는 곳에서 집필 협력한 『「日韓併合百年」菅首相談話を批判する』(2010. 11)에 상세하다.<sup>25)</sup> 同書의 서문에 집필의도와 함께 이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다.

2010년 8월 10일, 간 나오토 총리는, 「일한병합백년」에 관한 총리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한병합조약은, 1910년 8월 29일 발표(조인은 동년 22일)되어, 올해가 백주년,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매스컴 등이 일본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사죄담화를 내는 것을 危懼한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한 충분한 논의를 다하도록 요구했음에도 간 총리와 센고쿠 관방장관은, 정부 여당 내의 논의를 봉인하고, 각의에서 “개개의 의견은 되도록 말하지 않도록” 못박아 강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 발표한 것입니다.

과연 이 담화는 危懼했듯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단죄하고 사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담화의 특징은, 재사찰된 한국인 지원이나 조선반도 유래의 귀중한 도서의 전달 등 구체적인 조치를 明言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 지원 등은, 개인보상에 길을 여는 것이고, 소위 ‘중군위안부’의 보상 再燃 등 각 방면에 영향이 생길

24) 《朝日新聞》, 2010. 8. 11, 〈首相談話 日韓綱渡り〉

25) 이 소책자는 2010년 11월 15일자로 발행되었는데, 11월 23일 현재 주요 서점에 재고가 없을 정도로 일반에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日本會議事業センター編・自由主義史觀研究會執筆協力, 2010. 11, 『「日韓併合百年」菅首相談話を批判する - 日韓併合に謝罪はいらない』, 明成社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정치적 군사적 배경 하, 「나라와 문화를 빼앗고」 등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보이지도 않았던, 소위 「식민지 지배」의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하여, 한국 측이 주장하는 일한병합조약무효론에 근거를 주는 듯한 복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일한이라는 두 나라 간의 사죄담화를 발표한 것은, 앞으로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도 같은 사죄담화를 요구해 오게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 정말로 통한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노노[河野] 담화,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위시하여 이러한 역사인식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각료 등의 無見解와 함께 국정에 영향을 줄 만한 국민의 관심이 적은 것을 통감합니다. 사실을 왜곡한 역사에 관한 정치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정도의 국민여론의 소양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서를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병합조약이 유효하며 정당했다는 입장에서 있으며, 이번의 총리담화가 자칫 병합조약의 무효·부당론에 근거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민을 향한 담화가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사죄담화 요구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위의 서문에서는 또한 총리담화가 담고 있는 각종 실천적 조치가 개인 보상의 길을 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기본전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이며, 동 조약의 체결로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굵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역사인식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각료들의 역사인식 부족에 그 원인이 있으며, 나아가 이를 견제할 만한 국민여론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민여론의 소양’이라는 동서 출간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뒤집어 읽으면 소책자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만큼 위기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_ 신문과 방송의 특집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두 가지의 기획 기사를 다루었다. 하나는 《마이니치신문》 오사카 본사에서 다룬 동북아역사재단 주최의 한일학생교류체험투어(‘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일대학생공동역사체험’, 8월 17~21일)를 동행 취재한 「새로운 100년을 위해」이며, 또 하나는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한국인 피폭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취재 보도한 「히로시마에서 합천까지 한국인 피폭자의 65년」이다.<sup>26)</sup> 또한 마이니치신문은 2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4부에 걸친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일한병합 100년」이란 연재 기사를 실었다. 농학자이자 민비시해사건에 참가한 우범선의 아들 우장춘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西鮮支場の 다카하시 노보루[高橋昇] 支場長, 구마모토농장[熊本農場]에서 근무하며 한국 농촌의료의 기초를 쌓았다고 알려진 이영춘 박사, 무용가 최승희, 오페라 가수 김영길, 사할린에서 돌아온 영주귀국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심층적으로 취재했다. 을미사변 → 식민지기 → 한국전쟁 → 남북분단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경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이들의 삶이 오늘날 일본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sup>27)</sup>

《산케이신문》의 대표적인 기획 기사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다루어진 「한국에서 본 일본-일한병합100년」이었다.<sup>28)</sup> 「(1) 통치세대: 향수와 증오, 흐려지는 기억」에서는, 식민지 시대를 직접 체험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80대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제하의 기억이나 일본에 대한 인식을

26) 상세한 내용을 정리한 글로는 제5회 한일언론인 심포지엄 “2010년과 한일간 상호 이해의 모색: 과거 100년 미래 100년” 배포 자료(이하 『자료집』)의 《마이니치신문》 편집부장 나카무라 가즈나리의 발표.

27) 《毎日新聞》, 2010, 2, 12, 〈忘れ得ぬ人々: 日韓併合100年/1 農業の偉人、父は國賊〉; 2, 13; 2, 14; 2, 16; 2, 17; 2, 18(이상 제1부); 3, 23; 3, 24; 3, 25; 3, 26(이상 제2부); 5, 14; 5, 15; 5, 16(이상 제3부); 8, 6; 8, 7; 8, 8(이상 제4부)

28) 제5회 한일언론인 심포지엄 『자료집』의 산케이신문 서울특파원 미즈누마 게이코의 발표.

문고 있으며, 식민지 경험을 기억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현상을 두고 일본 “통치시대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2) 반일세대: 부정과 접근, 변화하는 의식」에서는 5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일본인화’된 국민을 한국민으로 되돌리기 위해 실시한 ‘국수교육’을 받은 세대들로 반일감정이 특히 강한 세대이다. 그러나 이들 반일세대들 중에는, 특히 일본에서 유학한 이들 중에는 일본에 대한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고자 노력하는 이들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386세대: 대등과 저항, 높아지는 자신감」에서는 다른 세대 한국인들의 386세대에 대한 평가를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자부심이 강한 세대인 만큼 일본에 대한 대항심이 강하다. 다만 비즈니스적으로 확실하다는 좋은 점은 인정한다”고 386세대의 대일본관을 정리하고 있다. 「(4) 네트워크 세대: 호감과 객관, 가까워지는 이웃나라」에서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을 보고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를 다루었다. 이들 중에는 특히 일본에 유학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들 중 지일파가 된 한국인이 많다고 보고 있다. 2005년부터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일간지에 독도 관련 광고를 게재한 35세의 성심여자대학 객원교수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30대가 되면 대일관과 함께 반일 스타일도 상당히 변화하여 객관적이며 전략적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문화개방세대: 동경과 극복, 역사를 넘어」에서는 1998년부터 개방된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당당하게 즐길 수 있게 된 ‘일본문화개방세대’가 가지는 일본관이 대상이 되었다. 일본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일본의 문화와 일본인을 직접 접하는 기회가 늘어난 세대인 이들 20대 이하의 세대들의 모습을 “일본의 대중문화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피해자로서 역사를 극복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한 서울대학교 교수의 말로 자신들의 긍정적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sup>29)</sup>

29) 《産經新聞》, 2010. 8. 24, 《【韓國から見た日本】日韓併合100年 (1)統治世代－郷愁と薄れる記憶》; 8. 25, 《(2)反日世代－否定と接近, 變わる意識》; 8. 26, 《(3)386世代對等と抵抗, 高まる自信》; 8. 27, 《(4)ネット世代－好感と客觀, 近づ<隣國》; 8. 28, 《(5)文化開放世代－憧れと克服, 歴史を超え》

일본 내 다른 어떤 신문보다도 '병합100년'을 전환점으로 중시한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특집의 하나로 「100년의 내일, 닛폰과 코리아」를 연재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낳은 비극적인 가족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집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100년에 대한 통한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100년에 대한 기대를 전쟁과 분단, 3대에 걸친 가족사, 문화재 반환,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징용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 해방 이후의 문화교류의 역사, 한국에 남아 있는 일제하 건물의 활용 문제, 북한의 일본인 처 문제, 유학생 교류 등을 통해 회고하고 전망하고 있다.<sup>30)</sup> 대표적인 예가 남북분단의 아픔이 그대로 투영된 역사학자 姜在彦 선생 가족에 대한 이야기<sup>31)</sup>와 金素雲 시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식민지시대에 조선의 詩를 일본에 소개한 외할아버지 김소운, 전후 한국에 건너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속죄하고자 했던 일본인 선교사 사와 마사히코[澤正彦], 한일 양국의 피를 이어받은 일본의 가수 사와 토모에[澤知惠]가 3회에 걸쳐 각 세대별로 조명되었다.<sup>32)</sup>

《요미우리신문》은 사실을 통해, 1965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이미 한국병합조약이 '이미 (사실상의- 필자) 무효'라고 하여 한일 양국이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었다고 전제 한 뒤,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과는, 서로 협조하고 경쟁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미래지향을 중시하였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현재와 같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일본의 자금지원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즉, “한국은, 일본에서 제공한 자금을 사용하여 댐이나 제철소,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수출에 힘을 쏟았다. 지금은 경제선진국으로 변모하고, 정치 민주화도 이루었다. 사회도 다양화하고, 풍요로워진 한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가 되어 있다”고 적어 일종의 시혜론적 시

30) 《朝日新聞》, 2010. 6. 30; 7. 1; 7. 2; 7. 14; 7. 15; 7. 16; 7. 28; 7. 29; 7. 30; 8. 18; 8. 19; 8. 20; 8. 21; 8. 25; 8. 26; 8. 27; 8. 29; 10. 27; 10. 28; 10. 29; 11. 19; 11. 24; 11. 25; 11. 26; 12. 22; 12. 23; 12. 24

31) 《朝日新聞》, 2010. 6. 30, 《【百年の明日 ニッポンと 코리아】戦争と分断(上), 60年 會えないのか》

32) 《朝日新聞》, 2010. 8. 18, 《【百年の明日 ニッポンと 코리아】家族 第4部(上), 日本語譯 祖父の心》; 8. 19, (中); 8. 20, (下)

각을 보여준다. 한국이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따른 일본의 자금지원에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간 총리의 담화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이고, 따라서 과거의 ‘청산’보다는 미래의 ‘협조’를 중시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sup>33)</sup>

또한 《요미우리신문》은, 8월에 들어 「일한100년」이라는 제하의 특집을 5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24일에는, 경제성장으로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스케치한 뒤, 독도와 관련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대하는 한국,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교육하는 모습 등을 담았고, 25일에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가도쿠라[門倉健] 선수의 활약과 그가 한국과 일본의 야구에 대해 ‘레벨은 일본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1905년에 일본을 통해 처음 전해진 한국의 야구가 일본과 같은 수준까지 발전했음을 한일간의 야구교류사와 함께 그리고 있다. 26일에는, 역시 한국 서울에서 나카무라야카테미라는 일본요리학교를 설립한 나카무라[中村哲] 교장과 소녀시대 등의 아이돌을 공유하는 시대의 젊은이들을 예로 들며, 음식이나 대중문화 등의 활발한 교류현상은 ‘하나의 국가’를 경험한 “일한현대사에서 아주 최근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일본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로에게 ‘특별한 나라’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28일에는 ‘負의 유산’으로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남긴 각종 건물들을 보존할 것인가 없앨 것인가를, 조선총독부 건물(1995~1996년에 철거)과 서울역 역사 개수작업, 부산 초량동 건축물, 군산시의 일본 건축물의 문화재 등록 등을 예로 들며 보존을 통해 역사의 증거를 남기고 그를 활용하는 한국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특집은 한국의 대일관이 ‘일본에 대한 원한에서 공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왔다고 평가했다. 29일에는 차별받던 재일교포들의 귀환사업을 통해 복송된 ‘일본인 아내’의悲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33) 《讀賣新聞》, 2010. 8. 29. 〈社說〉

한편, 방송 중에서 대표적인 특집으로는 NHK(일본방송협회)에서 제작 방영한 <프로젝트 JAPAN NHK스페셜 『시리즈 일본과 조선반도』>를 들 수 있다.<sup>34)</sup> 동 프로그램은 근대 150년을 되돌아보면서 일본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취지하에 준비된 <프로젝트 JAPAN>의 두 번째 시리즈이다. 2010년이 한국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해라는 점이 고려되었음은 물론이다. NHK 휴가[日向] 방송총국장은 “日露戰爭後の 세계에서 日本은 어떻게 해서 大韓帝國을 병합했는가? 그 후의 35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와 전시동원의 실태, 나아가 전후의 관계개선 등에 대해, (양국 간 관계에 있어서-필자) 중요한 분수령이 될 만한 해에, 동아시아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리즈로서 일본과 조선반도의 지난 100년 간의 발자취를 검토해 간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sup>35)</sup> 총 5회에 걸친 시리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영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횟수	타이틀	방영일
제1회	韓國併합에의 길 伊藤博文과 安重根	2010년 4월 18일 오후 9시 ~ 10시 13분
제2회	3·1獨立運動과 ‘親日派’	2010년 5월 16일 오후 9시 ~ 9시 49분

34) 이전에도 NHK 교육TV에서는 ‘NHK教育 ETV特集 シリーズ日本と朝鮮半島 2000年’이라는 프로그램을 2009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 1월까지 총 10회(+스페셜판 1회)에 걸쳐 방영하였다. 각 테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第1回 古代人びとは海峽を越えた(2009. 4. 26), 第2回 “任那日本府”の謎(2009. 5. 31), 第3回 佛教傳來~渡來人がもたらした飛鳥文化(2009. 6. 28), 第4回 そして“日本”が生まれた-白村江の敗戦から律令國家へ(2009. 7. 26), 第5回 日本海の道-幻の王國渤海との交流(2009. 8. 30), 第6回 蒙古襲來の衝撃-三別抄と鎌倉幕府(2009. 9. 27), 第7回 東シナ海の光と影-倭寇の實像を探る(2009. 10. 25), 第8回 豊臣秀吉の朝鮮侵略(2009. 11. 29), 第9回 朝鮮通信使-和解のために(2009. 12. 27), (NHK綜合)日本と朝鮮半島2000年スペシャル(2010. 1. 3), 第10回 “脱亞”への道-江華島事件から日清戰爭へ(2011. 1. 31). <http://www.nhk.or.jp/etv21c/backnum/index.html>. 방송된 내용은 2010년에 책으로도 발간되었다. NHK, 2010, 「日本と朝鮮半島2000年」プロジェクト, 『日本と朝鮮半島2000年』上・下, 日本放送出版協會

35) <http://www9.nhk.or.jp/pr/keiei/toptalk/soukyoku/s1003.html>

제3회	戰爭에 動員된 사람들 皇民化政策의 時代	2010년 6월 20일 오후 9시 ~ 9시 49분
제4회	解放과 分斷 在日코리안의 戰後	2010년 7월 25일 오후 9시 ~ 9시 54분
제5회	日韓關係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2010년 8월 1일 오후 9시 ~ 10시 13분

특히 제1회 방송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대해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토가 구미열강과 협조를 중시하였으며, 일종의 ‘自治植民地’를 구상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일본 학계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반영하고 있다.<sup>36)</sup> 일본 내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sup>37)</sup>

- 36) 그 대표적인 연구로 伊藤之雄, 2009, 『伊藤博文－近代日本を創った男』, 講談社; 伊藤之雄·李盛煥, 2009, 『伊藤博文と韓國統治－初代韓國統監をめぐる百年目の檢證(シリーズ·人と文化の探究)』, ミネルヴァ書房; 瀧井一博, 2010, 『伊藤博文－知の政治家』, 中央公論新社; 伊藤之雄, 2011, 『伊藤博文をめぐる日韓關係－韓國統治の夢と挫折 1905~1921』, ミネルヴァ書房 등이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小川原宏幸, 2010, 『伊藤博文の韓國併合構想と朝鮮社會』, 岩波書店과 月刊『東京』 316호(東京自治問題研究所, 2010년 8월 9월 합본호)에 실린 그의 인터뷰 기사를 참조할 것. 또한 최덕수, 2011. 2, 앞의 논문, 333~336쪽에도 잘 정리되어 있다.
- 37) 한편, ‘병합100년’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교 분석하고, 특히 ‘병합’ 부당성에 대한 양국 언론의 인식차와 그 원인을 정리한 것으로는 박선영(2011)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선영은 결론(210쪽)에서 “이렇게 한일 언론의 병합 부당성에 대한 인식의 갭이 메워지지 않는 이유에는 현실정치적·역사적·문화적 요인과 더불어 한일 언론의 구조적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특히 양국인의 의식세계라는 문화적인 요인이 개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기간에 그 해법을 찾기는 힘들 것이며, 따라서 한국 언론으로서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상대의 인식과 사고법을 고려하여 보다 냉정한 접근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약간의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필자 또한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 5\_ 학술잡지의 병합관련 특집

### 1) 『思想』 2010년 1월호 (No. 1029)

「韓國併合」100年을 묻는다」라는 테마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sup>38)</sup>

思想の言葉	水野直樹 (3)
日本史認識のパラダイム轉換のために－「韓國併合」100年にあたって	宮嶋博史 (6)
東學農民軍包攝殲滅作戰と日本政府・大本營－日清戰爭から「韓國併合」100年を問う	井上勝生 (26)
韓國軍人の抗日蜂起と「韓國併合」	慎蒼宇 (45)
伊藤博文の韓國統治と朝鮮社會－皇帝巡幸をめぐる	小川原宏幸 (63)
武斷政治と朝鮮民衆	趙景達 (82)
內務官僚と植民地朝鮮	松田利彦 (100)
植民地期の政治史を描く視角について－體制の内と外,そして「帝國日本」	岡本眞希子 (119)
「韓國併合」と古代日朝關係史	李成市 (138)
江戸時代 民衆の朝鮮・朝鮮人觀－淨瑠璃・歌舞伎というメディアを通じて	須田努 (151)
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アジア法文明圈」の視界	深谷克己 (170)
明治初期の日朝關係と征韓論	吉野誠 (188)
今日における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の國家責任と民衆責任	山田昭次 (204)
日韓會談反對運動と植民地支配責任論－日本朝鮮研究所の植民地主義論を中心に	板垣龍太 (219)
韓國併合100年と日本人	和田春樹 (239)

38) 이에 대한 분석은 최덕수, 2011. 2, 앞의 논문, 331~332쪽을 참조.

## 2) 『歴史學研究』 2010년 6월호와 2010년 7월호(No. 867, 868)

일본 역사학연구회의 기관지인 『歴史學研究』는 통권 867호와 868호에 연속으로 「韓國併合」100年과 日本의 歴史學이라는 특집을 기획하여 게재하였다. 특집으로 실린 논문과 집필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9)</sup>

(867호, 2010년 6월)

特集 「韓國併合」100年と日本の歴史學(1)

特集によせて ..... 委員會(1)

論文

日本近代史研究と朝鮮問題 ..... 中塚明(3)

世界史の中の「韓國併合」- 1910年前後の國際關係の中で

..... 南塚信吾(14)

植民地末期の朝鮮農民と食 - 江原道農民を事例として

..... 樋口雄一(25)

ジェンダー史・教育史から見た植民地近代性論 ..... 金富子(34)

比較植民地主義試論 - 日本とアメリカを事例として ... 岡本公一(46)

〈東アジアの記憶の場〉に向けて - 朝鮮史からの視点 ..... 板垣龍太(57)

(868호, 2010년 7월)

特集 「韓國併合」100年と日本の歴史學(2)

論文

戦後日本の朝鮮史研究 - 近代史研究を中心に ..... 趙景達(1)

ファシズムと第三世界主義のはざままで - 冷戦形成期における韓國民族主義 ..... 藤井たけし(13)

植民地期朝鮮史像をめぐる - 韓國の新しい研究動向

..... 庵途由香(25)

39) 이에 대한 분석은 최덕수, 2011. 2. 위의 논문, 329~331쪽을 참조.

## 3) 『世界』 2010년 7월호(No. 806)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발행하는 잡지 『世界』는 대표적인 친한파인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이바라키[茨城]대학 명예교수의 글을 실고 있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의 선언 또는 국회 결의를 통해 식민지 지배의 책임과 구조약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과 평양선언에서 한국·조선 사람들에게 ‘다대한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痛切한 반성과 사과의 기분’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예컨대 기본조약 제2조의 문안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already’를 제거하고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무효라는 것이 확인된다”라고 해 두면 문언상(文言上)의 조정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호에는 또한 ‘일한지식인공동성명’을 주도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학 명예교수의 발표에 임하는 심경을 담은 글이 실려 있어 참조된다.

## 4) 『歴史評論』 2010년 9월호(No. 725), 2010년 11월호(No. 727)

歴史科學協議會가 편집하는 동 잡지는, 2010년 9월호에 「1910년 전후의 동아시아」라는 테마로 특집을 꾸리고 있다. 여기서는 1910년을 전후한 동아시아 각국의 사정을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 실렸는데, 조선을 필두로 한 清朝의 外藩이었던 몽골과 티베트,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하야시 유스케[林雄介] 또한 「1910년 전후의 조선」이라는 논문 속에서 한국 병합을 동아시아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근현대사를 二國間關係史의 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一體의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정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에 기반한 새로운 역사상의 제시를 특집의 목표로 하고 있다.

(No. 725, 2010년 9월)

特集にあたって	編集委員會(1)
1910年前後の朝鮮-大韓帝國はなすすべもなく併合されてしまったのか	林雄介(4)
清朝の外藩モンゴル統治における新政の位置	岡洋樹(16)
1910年前後のチベット-四川軍のチベット進軍の史的 위치	小林亮介(27)
模倣と創造-1910年前後の中國における近代知の傳播と國民精神の形成	田中比呂志(40)

(No. 725, 2010년 11월)

No. 727에는 「세계사 인식과 동아시아 인식」이라는 테마로 열린 역사과학 협의회 제44회 대회(2010년 11월 20일, 中京大學名古屋캠퍼스)에 대한 스케치가 게재되어 있다. 일본의 역사과학협의회는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세계사 인식과 지역사의 구상」이라는 통일 테마를 내걸고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세계사 인식과 동아시아 인식」이라는 테마를 선정한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1991년부터 시작된 세계사 인식의 재검토가,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세계사적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한다면, 2010년의 테마 또한 같은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중일의 경제적 결합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공동체’ 논의로 연결되는데, 그에 대한 역사적 검토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朝鮮の植民地化と東アジア	糟谷憲一(74)
竹島/獨島論爭とは何か	池内敏(76)
「東アジア史」再考	山内晋次(77)
「華」はどのように「夷」を包攝したか	井上徹(79)
琉球人と日本人	渡邊美季(81)

## 5) 『歴史地理教育』 2010年 8月(No. 763)

『歴史地理教育』은 8월호에서 특집을 마련해, 한국 병합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병합’ 지배의 실태, 그리고 전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묻고 있다. 편집을 담당한 와카스키 [若杉]는 특집의 의도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본 근현대사가 남긴 負의 유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생각해 본다. 둘째,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 병합과 식민지 지배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셋째, 향후 전개될 한일·조일 간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의도하에 다음의 글들이 기획되었다.

韓國から見た「併合」100年 .....	君島和彦(10)
植民地下の朝鮮民衆—「韓國併合」100年に際して .....	趙景達(18)
繪畫から考える「韓國併合」 .....	駒田和幸(26)
(實踐記録/高校) 地域に根ざし未來を志向する「韓國併合」の授業 .....	森口等(32)
(實踐記録/高校) 韓國高校生は「日帝時代」をこう考える .....	金旻秀・三橋廣夫譯(38)
サハリンにおける戦後「棄民」 .....	松林洋(44)

## 6\_ ‘병합100년’ 학술행사

‘병합100년’과 관련된 학술행사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2010년 8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도쿄대학 야요이강당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韓國併合」 100년을 묻는다였다. 국립역사민족박물관 주최, ‘韓國併合 100년을 묻는 모임’의 공동개최, 이와나미서점 및 아사히신문사의 후원으로 열린 이 심포지엄에는 연인원 1,0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려 그 관심도를 짐작케 했다. 이틀에 걸쳐 네 개의 세션과 특별 세션이 준비되었고, 27인의 학자와 연구자가 폭넓은

시아와 시점에서 ‘병합100년’에 대한 문제제기와 발언들을 행하였다.<sup>40)</sup>

먼저, 국립민속박물관의 히라카와 미나미[平川南] 관장의 개회인사가 있은 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의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교수가 “韓國併合”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01년째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인사말로 심포지엄의 의의를 대신했다.

세션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라여자대학[奈良女子大學]의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 명예교수가 「역사를 농락해서는 안 된다 - ‘한국병합’ 100년과 작금의 ‘伊藤博文言説’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sup>41)</sup> 나카쓰카 교수는 “올해 5월 10일에 발표된 일한지식인공동성명에서 ‘한국병합조약’에 대해 당초부터 부당하고 무효였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조금이라도 빨리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 일본에서 ‘한국병합’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식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일본인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역사를 경시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였다. ‘한국병합’으로부터 35년이 지난 1945년, 일본제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것은, 일본 최대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조선 민족은 원래 하나였는데도 패전으로부터 65년이 지났음에도 일본은 남북분단을 고정화하고자 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병합’ 100년에 해당하는 올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병합100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후부터 세션1 「근대 동아시아와 ‘한국병합’이 이어졌는데, 사회를 맡은 치바대학[千葉大學]의 조정달 교수가, 동아시아의 근대는 일본이 중국을 탈취하고, 조선은 그 먹이가 되었던 시대였다고 화두를 제시했다. “1905년 11월에

40)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문제제기와 논문들은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編, 2011, 『「韓國併合」100年を問う-2010年國際シンポジウム』, 岩波書店(이하 『シンポジウム』으로 약함)으로 출간되었다.

41) 中塚明, 2011, 「歴史をもてあそぶのか-『韓國併合』100年と昨今の『伊藤博文言説』, 『シンポジウム』, 5~18쪽

‘일한보호조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당시 일본의 여론은, 조선인은 이기주의로 애국심이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일본이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인식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일본을 비판했다.<sup>42)</sup> 세션2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서는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의 이성시 교수가 문제제기 속에서 “지금도 요구되는 식민지주의의 극복은, 식민지기에 유래하는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실태해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였다.<sup>43)</sup>

둘째 날의 세션3 「전후 일본과 식민지 지배의 문제」에 관해서는 도쿄대학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명예교수가 문제제기를 했다. 와다 교수는 전후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본 지식인들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문제, 즉 이른바 식민지 지배 책임론을 언급하였다.<sup>44)</sup> 역사연구가 역사를 망각하는 정치에 개입해야 함을 역설한 와다 교수는 조일평양선언을 한일조약보다 진전된 성과로 평가하면서 “2002년의 일조평양선언을 통해 개선되었어야 할 일조관계는 현재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말로 마무리했다.<sup>45)</sup> 세션4 「역사인식의 문제」의 문제제기는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가 맡았다. 그는 『역사지리』(1910. 11. 3)에 실린 당시 대표적 일본의 역사연구자들의 ‘한국병합’에 관한 글

42) 趙景達, 2011, 「東アジアの近代と『韓國併合』」, 『シンポジウム』, 20~31쪽

43) 李成市, 2011, 「植民地支配の實態解明はなぜ必要なのか」, 『シンポジウム』, 78~86쪽

44) 《朝鮮新報》, 2010. 8. 20; 内海愛子, 2011, 「日本は植民地支配をどう清算したのか」, 『シンポジウム』, 146~158쪽. 케이센조가쿠엔대학[惠泉女學園大學]의 우쓰미[内海愛子] 명예교수는 전쟁 비판과 식민지의 문제, 조선 및 아시아를 배제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하지 않고 일본은 전후를 시작했다. 냉전 붕괴, 한국 민주화 투쟁의 승리로 피해자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 전후보상재판은 2010년 현재, 80건이 넘는다. 법정에서 이야기되는 피해자의 증언은 지금까지 무시되어 온 식민지 지배와 전쟁 피해의 실상이고, 전후 반세기 이상이나 돌아보지 못한 피해자의 ‘절규’였다. 사죄 없는 정부에 대한 분노, 부조리한 처우에 대해 피해자는 인간의 존엄을 건 집념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일본에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물었다.

45) 和田春樹, 2011, 「前後日本と植民地支配の問題」, 『シンポジウム』, 134~145쪽

과 그에 대한 전후 평가를 예로 들면서 일본의 '전후역사학'이 황국사관의 비판이라는 성과에도 조선사 인식에서는 戰前의 인식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미야지마 교수는 '전후역사학' 이후의 일본 '중세사' 연구에서 보이는 일본 연구자들의 우월의식이라 이해되는 '선진의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조선사 인식의 불충분함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sup>46)</sup>

## 7. <언덕 위의 구름>의 방송을 둘러싼 논란

역사를 통해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사를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어떤 역사상을 갖느냐는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시대의 국제관계 형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들어진 역사를 통해 형성된 왜곡된 허상이 앞으로 전개될 양국 간 혹은 다국 간 관계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에의 노출은 일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동아시아의 패권을 좌우했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 시기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한국의 입장에서 2010년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방영된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과 그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을 정리하는 것은 '병합100년'을 맞이한 일본 사회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병합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소재로 한 <언덕 위의 구름>이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전후한 2009년부터 3년 동안 드라마로 방영되었다는 사실은, 일본 국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 1) 드라마화 반대와 <언덕 위의 구름> 비판

<언덕 위의 구름>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년과 같은 희망을 갖고 나라의 근대화에 나서, 그리고 존망을 걸고 러일전쟁을 싸운 '소년의

46) 宮嶋博史, 2011, 「朝鮮史認識の陥穽」, 『シンポジウム』, 182~193쪽

나라 메이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지금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치관의 창조에 고뇌·분투한 메이지라는 시대의 정신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일본이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하는 데 커다란 힌트를 줄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sup>47)</sup>

NHK는 〈언덕 위의 구름〉의 드라마화를 결정하면서 위와 같은 기획의도를 제시하였다. 현재 일본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메이지기의 일본과 유사하다고 진단하고, 근대화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추구하던 메이지기의 소년(일본)의 마음으로, 향후 일본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겠다는 의도하에 기획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일본만이 아니라 여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획의도에 반발하는 이들이 있다.

〈언덕 위의 구름〉의 방송 개시에 앞선 2009년 11월 26일 역사학자, 미디어 연구자, 각지의 시민단체가 결집하여 결성한 '〈언덕 위의 구름〉 방송을 생각하는 전국네트워크'는 NHK의 후쿠치[福地] 회장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서를 보냈다. 비슷한 시기에 에히메[愛媛], 교토[京都], 효고[兵庫],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도 원작에 입각한 보다 상세한 제안서와 질문서를 후쿠치 회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드라마화함에 있어서, 명백하게 사실에 반하는 원작의 기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저작권에 대한 일정한 배려 위에 정정 또는 補足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시청자에게 (원작의 내용이-필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확실히 전달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것이 곤란하다면 〈언덕 위의 구름〉이 방송되는 기간에 별도로 청일·러일전쟁의 경위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의 방송을 기획할 것.

② 생전에 수차례에 걸쳐 영화나 TV드라마로의 영상화 요청을 계속 거절

47) 中塚明·安川壽之輔·醍醐聰, 2010, 『「坂の上の雲」の歴史認識を問う』, 高文研, 159~160쪽에서 재인용.

한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생각을 깊이 존중할 것.

이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책임자 니시무라[西村與志木] 명의로 전달된 회답문서에는 “시바는 원작을 전쟁 찬미의 자세로 쓴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근대국가의 제일보를 그린 메이지의 에너지와 고뇌를 지금까지 없었던 스케일의 드라마로 만들어, 현대 일본인에게 용기와 시사를 전해 주는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자신들의 기획의도만을 강조할 뿐 시민단체의 제안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sup>48)</sup> 나카쓰카 교수가 2009년 8월 초에 『司馬遼太郎の歴史觀－その「朝鮮觀」と「明治榮光論」を問う』라는 책을 출판한 계기 또한 NHK가 『언덕 위의 구름』을 드라마화한다는 예고 때문이었다. 나카쓰카 교수는 원작 소설 『언덕 위의 구름』이 발표될 당시 조일관계사 연구자로서 논고를 통해 시바의 조선·한국관의 독단적 편견을 비판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작이 한국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2010년의 전후 3년 동안 방송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sup>49)</sup>

이상과 같은 위기감 속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는 집회가 열렸다. 그 하나가 2009년 7월 18일에 교토에서 나카지마[中島晃] 변호사를 중심으로 나카쓰카 교수의 강연, 동 강연을 토대로 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동년 11월 8일 고베에서도 나카쓰카 교수의 강연과 심포지엄이 열렸다. 330명의 시민이 참가한 동 집회에서 나카쓰카 교수는 이 드라마의 위험성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고, 그에 공명하여 수일 뒤 도쿄로부터 집회에 참가한 다이고 사토시[醍醐聰, 열린 NHK를 지향하는 전국연락회 世話人] 변호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국네트워크 설립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하였다.<sup>50)</sup>

이러한 경위로 2009년 11월 23일, 교토에서 열린 『司馬遼太郎の歴史觀』 출판기념회에서 ‘〈언덕 위의 구름〉 방송을 생각하는 전국 네트워크’(http://kakaue.web.fc2.com)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드라마의 ‘선동’

48) 中塚明・安川壽之輔・醍醐聰, 2010, 위의 책, 180~181쪽

49) 中塚明・安川壽之輔・醍醐聰, 2010, 위의 책, 182쪽

50) 中塚明・安川壽之輔・醍醐聰, 2010, 위의 책, 183쪽

을 비판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도서의 출판도 합의되었다. 그 결과 물이 『「坂の上の雲」の歴史認識を問う』였다.

동 저서의 저자로는 나카쓰카 교수 이외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연구자인 야스카와 교수와 NHK의 사회적 역할을 비판적으로 고민하던 다이고 변호사가 참여했다. 야스카와 슈노스케[安川壽之輔] 교수의 우려 또한 동 저서에 고스란히 담겨졌는데, 청일전쟁 당시 직접 '報國會'를 조직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거액헌금을 낼 정도로 열광하며 애국심과 적개심을 부채질했던 후쿠자와임에도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sup>51)</sup> 동 저서에서는 한국 병합과 密接不可分の 청일·러일전쟁을 드라마를 통해 근대 일본의 가장 빛나는 청춘시대로 미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NHK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 왔던 다이고 변호사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 2) NHK 상층부와 정치가의 유착

마키 슌타로[牧俊太郎]는 원작 『언덕 위의 구름』의 문제, 그리고 드라마의 기획의도와 함께 NHK 상층부와 정치가의 유착을 동 드라마 방영 과정에 나타난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sup>52)</sup> 마키는 NHK에 대한 정치가의 '개입'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서 2001년에 방영된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한 고의 변경 문제를 들고 있다.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여성법정·모의재판을 다룬 당초 프로그램의 내용이 NHK의 비제작부문인 국회 창구 담당 간부의 지시로 고의 변경된 사건이다. 취재에 협력했던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운동단체가 방영된 프로그램을 보고 취재시 들었던 설명과 현

51) 이러한 야스카와 교수의 후쿠자와 비판에 대해서는 安川壽之輔, 2000, 『福澤諭吉のアジア認識』, 高文研을 참조.

52) 牧俊太郎, 2009, 『司馬遼太郎「坂の上の雲」なぜ映像化拒んだか』, 近代文芸社, 155~161쪽

격한 차이가 있는 것에 놀라 제소했던 것이다.<sup>53)</sup>

결국 최고재판소의 재판에서는 시민단체 측의 패소로 끝나고 말았으나, 동 재판의 법적 평가와는 별도로 판결문에는 정치가의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의 개입과, 그들의 뜻에 따라 NHK 상층부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했음이 적시되어 있다. 그들 정치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 뒤에 총리 역임]와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자민당 政調會長이었다. 즉, NHK 비제작부문을 포함한 상층간부가 아베와 나카가와와 두 사람을 만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자, 아베 장관이 ‘공정중립하게’ 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 요직에 있던 정치가들의 의도가 관철된 것이었다.<sup>54)</sup> 동 사건은 ‘국익중시’의 국제방송을 지지하는 NHK 상층부의 역사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NHK 상층부는,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위원회(BPO)가 중군위안부 프로그램 변경문제에 대해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BPO의 의견서를 전면 부정하는 견해를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에 아베와 나카가와와는 ‘NHK의 프로그램 내용과 제작 과정을 검증하는 의원연맹’을 조직하였다.<sup>55)</sup>

『언덕 위의 구름』을 드라마로 제작하려는 움직임도 중군위안부 프로그램 변경사건 당시의 예비사와 가쓰지[海老澤勝二] 체제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비사와 체제하에서上記 재판에서 승리

53) 당시 변경된 주요 부분은 ① 정부와 쇼와천황에 책임이 있다는 부분, ② 여성법정을 ‘럿셀法廷(=민중법정)’에 필적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 ③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해 언급한 부분 등이다. 牧俊太郎, 2009, 위의 책, 155쪽. 참고로 민중법정의 역사는, 베트남에서 벌어진 미국의 전쟁범죄를 다루기 위해, 1966년에 철학자 러셀의 제창으로 철학자 사르트르를 집행재판장으로 하여 개최된 ‘러셀법정=러셀·사르트르법정’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지식인에 의한 민간법정의 시도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민중법정은 국가나 국제조직의 법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증인을 부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서 피해자의 증언을 제출하는데 동법정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전쟁범죄민중법정 홈페이지 <http://www.icti-e.com/introduce.html> 참조.

54) 이상의 과정, 그리고 NHK 상층 간부와 정치가의 관계는 高島秀之, 2008, 『NHK改革』, 創生社新書에 상세하다.

55) 牧俊太郎, 2009, 앞의 책, 160쪽

한 NHK에 親 아베 경영체제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sup>56)</sup> 작가인 시바 료타로의 유지에 반하면서까지 『언덕 위의 구름』을 드라마화하여 공중파를 통해 방영한 NHK의 의도가 의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고려할 때, 양 전쟁을 주 무대로 한 역사소설을 한국 병합 100년을 전후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방영한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동아시아의 이웃 나라와 그 민중들을 희생시켜 구미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메이지기에 대한 향수가 일본인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일부 우익 인사들의 향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 II. 맺음말

세계를 무대로 한 무한경쟁의 시대인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은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다.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經濟戰에서 일본은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GDP 기준으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과거 식민지로 경영했던 한국 또한 경제, 문화, 스포츠,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단일민족의 신화가 강조되던 과거<sup>57)</sup>와 달리 일본에서도 多文化社會가 발언권을 얻어가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 구이동이라는 측면에서도 동아시아 국가 간 越境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삼국 간에는 특히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이 항상적으로 수면 밑에서 잠자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건 계기만 제공되면 국수주의적 반동이 고개를 든다. 2010년 9월에 있었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56) 牧俊太郎, 2009, 앞의 책, 161쪽

57) 小熊英二, 1995, 『單一民族神話の起源:〈日本人〉の自畫像の系譜』, 新曜社

의 영토분쟁과 그를 계기로 중국 내 각지에서 벌어진 반일테모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강제병합100년’에 해당하는 2010년의 일본 내 동향을 一瞥하는 이 유도 동아시아 全體史 속에서 兩國史가 어떻게 기념되었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2010년 4월에 이루어진 양국 신문의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피해국과 가해국 사이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한일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20대와 30대의 보수화 경향도 읽을 수 있어 한일관계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일본의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병합10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재일한국인과 연계된 시민단체나 지식인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2002년 조일평양선언과 같은 맥락으로 읽히는 한일지식인공동성명에는 한국 측 학자들이 놀랄 정도로 많은 수의 일본인 지식인들이 참여하였고, 일본 정부에 병합조약의 강제성과 불법성에 대한 인정과 무효 선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간 총리의 담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강제성과 불법성을 암시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 다소 진전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병합조약의 무효 선언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간 총리의 담화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을 일본과 공유하는 한국만을 사과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북한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조와 배제의 대상을 명백히 하여 ‘동아시아 諸國 간의 의도적 편 가르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신문과 방송이 병합100년과 관련하여 특집을 편성했으나 언론사별로 역사 인식의 차이를 읽을 수 있었다. 《산케이신문》의 경우 통치세대, 반일세대, 386세대, 네트워크세대, 일본문화개방세대의 일본관을 다루어 한국인들이 피해자로서의 역사를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객관성을 유지하려 한 흔적은 보이지만, 근본적인 역사적 대립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요미우리신문》의 경우는 1965년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과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전제로 한일 간이 협조하고 경쟁하는 관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과거의 청산보다는 미래의 협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요미우리신문》의 이러한 인식이 현재 일본의 가장 평균적인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학자 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NHK의 스페셜 ‘시리즈 일본과 조선반도’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토 히로부미론의 재검토와 같이 한일 학계의 새로운 시각들이 반영되었다.<sup>58)</sup>

각종 학술잡지와 심포지엄 등에 대한 분석은 간단한 스케치로 대신했으나, 대체적으로 기존의 대립적인 논쟁보다는 병합조약의 무효성, 식민지 지배의 실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전후 책임, 세계사 인식과 동아시아 인식 속에서의 한국 병합 등이 다루어졌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길항관계의 한일 양국사를 넘어 보다 넓은 시야 속에서 검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과는 달리 ‘병합100년’을 기념하는 일본 내 움직임 자체에 대해 ‘굵어 부스럼’ 식의 움직임으로 폄하하는 이들도 있었다. 간 총리의 담화를 비판하는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는 조직도 있었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한 고의 변경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치가들과 NHK 상층부의 유착관계는 확실히 보인다. 저자의 유지에 반하면서까지 『언덕 위의 구름』을 드라마로 만들고 공중파를 통해 방영한 것은,冒頭에 언급했던 일본의 자신감 상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 그러한 위기의식이 원작에 대한 역사왜곡의 시정과 드라마화 철회를 요구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물리친 배경이었다.

2010년은, 한일관계의 전환점[節目]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한 해이기도 했지만, 이상 살펴보았던 일본의 위기의식과 보수적 대응이 명확히 표면화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일본 내 이종구조는 향후 대일인식과 정책수립에서 기본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58) 이토 히로부미의 재평가 움직임에 대한 평가는 조경달, 2010, 앞의 글, 484~489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 참고문헌(인용순)

- 和田春樹, 2009. 5, 「한일병합 100년,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플랫폼』 통권 제15호, 인 천문화재단
- 이승렬, 2010. 8, 「강제병합 100년과 성장의 공공성」, 『역사비평』 92, 역사비평사
- 백낙청, 2010. 8,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한반도-일본의 한국병탄 100주년을 맞아」, 『역사비평』 92, 역사비평사
- 서승, 2010. 11, 「동아시아 역사·인권·평화선언을 위해-‘한국병합’ 100년에서 일제 140년 동아시아 침략사를 생각한다」, 『역사비평』 93, 역사비평사
- 조경달, 2010. 12, 「한국강제병합과 현재」, 『창작과 비평』 통권 150호, 창비
- 김민철, 2010. 12,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과 한국사회-식민지배의 유산과 극복을 둘러싸고」, 『내일을 여는 역사』 제41호
- 오대영, 2011. 2, 「한국과 일본신문의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뉴스 프레임 차이 비교」, 『한국언론학보』 55(1), 한국언론학회
- 박선영, 2011. 6, 「한국병합 100년과 한일 언론: 병합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의 갭」, 『언론과학연구』 11(2), 한국지역언론학회
- 松田利彦, 2011. 3, 「일본에서의 한국'병합'과정을 둘러싼 연구-논점과 경향」, 『한국근현대사연구』 56, 한국근현대사학회
- 최덕수, 2011. 2, 「한국 강제병합 100년 일본역사학의 동향과 전망」, 『韓國史學報』 제 42호
- 류상영, 2011. 8, 「김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전략-주요 저작과 어록을 통해 본 인식의 진화와 정치적 선택」,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3집 제1호
-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 공동여론조사 원데이터(제공자 불문 요청)
- 吉野耕作, 2007, 「若者の右傾化・保守化」とナショナリズム-社會調査を通して大學生と共に考える」, 『年報社會學論集』 第20號
- 伊藤成彦, 2010. 10, 「百年越しの植民地支配『韓國強制併合百年』の諸行事を終えて」, 『マスコミ市民』 501
- 笹川紀勝·李泰鎮 編著, 2008, 『韓國併合と現代-歴史と國際法からの再検討』, 明石書店; 이태진·사사가와 노리가즈 공편, 2009, 『한국병합과 현대-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태학사
- 淺野健一, 2010. 11, 「『日韓併合條約』捏造百年で日本政府に過去清算を求める朝

- 鮮」, 『進歩改革』 707號
- 歴史科學協議會 편집, 2011, 1, 『歴史評論』 729, 校倉書房
- 和田春樹, 2010, 7, 「日韓知識人共同聲明の發表にあたって」, 『世界』 806, 岩波書店
- 小田川興, 2010, 8, 「植民地被害者の心に届ける努力こそ－『韓國併合』100年1日韓知識人共同聲明の課題」, 『社會運動』 365號
- 日本會議事業センター編・自由主義史觀研究會執筆協力, 2010, 11, 『「日韓併合百年」菅首相談話を批判する－日韓併合に謝罪はいらない』, 明成社
- 제5회 한일언론인 심포지움 “2010년과 한일간 상호이해의 모색: 과거 100년 미래 100년” 배포 자료
- 伊藤之雄, 2009, 『伊藤博文－近代日本を創った男』, 講談社
- 伊藤之雄・李盛煥, 2009, 『伊藤博文と韓國統治－初代韓國統監をめぐる百年目の檢證(シリーズ・人と文化の探究)』, ミネルヴァ書房
- 瀧井一博, 2010, 『伊藤博文－知の政治家』, 中央公論新社
- 伊藤之雄, 2011, 『伊藤博文をめぐる日韓關係－韓國統治の夢と挫折 1905－1921』, ミネルヴァ書房
- 小川原宏幸, 2010, 『伊藤博文の韓國併合構想と朝鮮社會』, 岩波書店
- 月刊『東京』 316호, 東京自治問題研究所, 2010년 8·9월 합본호
-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編, 2011, 3, 『「韓國併合」100年を問う－2010年國際シンポジウム』, 岩波書店
- 中塚明/安川壽之輔/醍醐聰, 2010, 『「坂の上の雲」の歴史認識を問う』, 高文研, 2010
- 安川壽之輔, 2000, 『福澤諭吉のアジア認識』, 高文研
- 牧俊太郎, 2009, 『司馬遼太郎「坂の上の雲」なぜ映像化拒んだか』, 近代文芸社
- 高島秀之, 2008, 『NHK改革』, 創生社新書
- 小熊英二, 1995, 『單一民族神話の起源:〈日本人〉の自畫像の系譜』, 新曜社
- 『朝日新聞』, 『産經新聞』, 『讀賣新聞』, 『朝鮮新報』
- <http://www.icti-e.com/introduce.html>
- <http://www.nhk.or.jp/etv21c/backnum/index.html>
- <http://www9.nhk.or.jp/pr/keiei/toptalk/soukyoku/s1003.html>
- <http://www.nikkan100.net/hokkinin.html>

**[ABSTRACT]**

## The Centennial of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and Trends in Japanese Society

Kim Myungsoo

2010 marks the Centennial of Imperial Japan's annex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must be an important concern to Koreans how Japan commemorated this anniversary. Japan was the mother country of colonial Korea from 1910 to 1945.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urrent Korean-Japanese relationship 100 years after this dark period. In 2010, Northeast Asia witnessed significant perturbations including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over the Senkaku Islands, the emergence of China over Japan to become the world's number two economic power, and increased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e current dynamics it remains interesting to note how Japan commemorated the anniversary of the annexation of Korea.

According to Japan's Yomiuri newspaper and South Korea's Hanguk ilbo polls, Japanese citizens recognize South Korea's recent economic development, and as a result take an optimistic view towards the prospects of better South Korea-Japan relations. South Korean and Japanese citizen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however, believe there are invisible barriers to improving relations.

Japanese civic groups engaged in a wide variety of activities to commemorate the anniversary. Additionally, Koreans resident in Japan as well as Japanese intellectuals were at the center of activities. A

surprising number of intellectuals agreed with the joint statement announced by both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which paralleled the Pyongyang Declaration in 2002 which required the government of Japan to recognize the illegality and imposition of the 1910 Annexation Treaty and to declare it null. Prime Minister Kan Naoto responded to the intellectuals by making a special statement on August 10 the anniversary of the 10, treaty signing. Unfortunately, from the Korean perspective, the statement fell short of taking full responsibility as the intellectuals had desired. The statement also excluded North Korea on purpose.

Several newspapers and broadcasters organized special programs for the centennial anniversary, and through that reporting the difference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the Japanese press were easily discernible. NHK's special program series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caused disputes among scholars but was a sensation in Japan. The special program reflected recent views of South Korea's and Japan's academic worlds to include the study of Ito Hirobumi and his role in the annexation.

Major academic journals and symposiums devoted much effort to discussing all aspects of the 1910 Annexation Treaty – from its validity to the realities and repercussions of Japanese colonial rule. This was a different trend from that of the past.

Some Japanese diminish the importance of the aforementioned activities and prefer to let sleeping dogs lie. Several Japanese groups severely criticized Prime Minister Kan's statement. Links between politics and NHK seem true. The drama "Clouds on a Hill," though not endorsed by Shiba Ryotaro, the author, was released by NHK, and portrays Japan in a more favorable light during the period leading up to

the annexation of Korea. Honest intellectuals like Akira Nakatsuka warned that NHK was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distorting history with the drama's depiction of the Sino-Japanese War of 1894 and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

Many Japanese see 2010 as having been a politically challenging year. A century has passed since Japan was challenging all of Asia. Current events find Japan on the defensive in economics as well as in territorial disputes. Taking into account the convergence of the centennial of Korea's annexation and current challenges, some Japanese seem to have taken an introspective approach and believe the year could be a turning point in South Korea-Japan relations. Recognition of past imperfections may provide useful knowledge for current challenges. Unfortunately, there is still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Japanese population who would rather let sleeping dogs lie.

#### Keywords

Centennial of Korea's Annexation, Korean-Japanese relations, Annexation Treaty, Japanese colonial rule, "Clouds on a Hill"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할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다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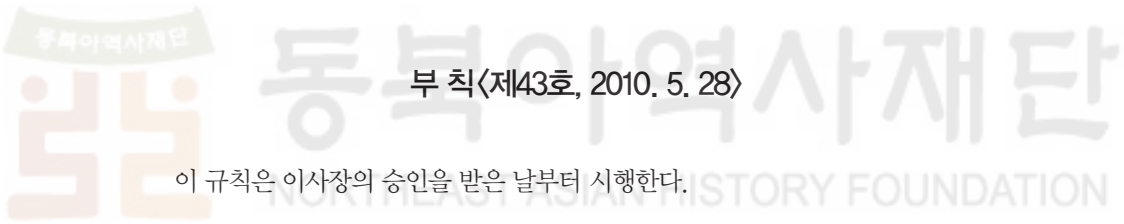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0년 4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중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4호(2011. 12)

초판 1쇄 인쇄 2011년 12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1년 12월 31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